

I. 서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은 변화하는 존재들이다. 이는 청소년기 자체가 성장 발달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들의 모습도 변화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변화가 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사회적 관습이나 제약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사회적 환경들을 학습·체득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까닭에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변화로부터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흡수하며 성장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를 주도해 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내면화된 가치들이 다시 사회변화에 촉매로서 작용하게 된다.

우리사회는 60년대 이래 추구해온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수많은 변화를 급속하게 겪어 왔으며 미래 정보화사회를 향한 수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각국 역시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한국사회가 겪어온 변화는 P. F. Drucker가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현재 살아있는 한국인이 일생동안 겪었던 것과 같은 급격한 변혁을 경험해 본 나라는 아직 없다”고 하였을 만큼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개되었다(정성호, 1994 : 104).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체계 역시 급속하고 폭넓게 재편되어 왔으며,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들이 병존·충돌하는 문화충돌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통적 가치와 새롭게 대두된 가치들간의 갈등과 혼란을 겪어 왔으며 전통성과 현대성의 혼재 속에서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새로운 가치변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신세대’라는 용어를 통해 이전 세대들과 확연히 다른 의식이나 행동양식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물론 신세대 주부, 신세대 직장인, 신세대 여성, 심지어는 신세대 할머니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신세대라는 용어가 청소년들만을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

세대로 지칭될 수 있는 집단은 “24세 이하의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각의 동질성으로 존재하는 감각적 연령공간”(김경훈, 1994 : 20)에 포괄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연령집단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고정관념화된 보편적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깨고 새로운 가치관과 그에 따른 생활을 추구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신세대에 관한 논의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세대 논의의 핵심은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표출하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세대의 특성에 대한 것(김옥순, 1994 : 42)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와 그 변화 속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형성된 의식특성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세대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연령층은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기존 사회질서와 가치체계에 진입한 연령층을 제외하고, 보다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의식과 생활양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는 이 연구가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그에 바탕한 정책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신세대론에 대한 관심도 결국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크게 신세대 및 신세대론 형성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신세대적 특성을 구명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신세대의 등장배경 및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변화의 제요인과 그 특성을 고찰하고, 그러한 사회변화의 제특성이 청소년들의 의식 및 행동 양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의식에 나타나는 신세대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행동 특성 등을 정리함으로써, 담론적 수준에서의 신세대론이 간과할 수 있는 일방적인 시각에서의 부정적인 신세대상이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현재 이 시점에서의 청소년들에 나타나는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세대 논의의 이해

1. 신세대론의 대두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 혹은 과거의 청소년 및 청년세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지나간 세대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나 태도,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현상을 기업(특히 홍보전략과 관련된 광고매체)이나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흔히 그들을 ‘신세대’라고 칭하면서 이와 관련된 ‘신세대 담론’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분히 상업적인 저널리즘의 신세대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참조: 고길섭, 1994)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신세대는 유명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로 부정되기도 한다.

신세대라는 용어는 말뜻 그대로만으로 보면 단순히 기성세대와 지나간 세대를 뜻하는 구세대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세대론에서 ‘신세대’는 연령적으로 1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청소년 및 청년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기존의 가치체계나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여 그들 나름의 기호나 욕구를 새로운 형태로 발산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기성문화에 대한 하나의 ‘충격’이나 ‘도전’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바탕으로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토양에서 성장한 집단 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20대나 30대 혹은 40대 일부에까지도 신세대적 감각이 존재하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실제 행동에서는 신세대와 구세대가 구분되고 있다(김경훈, 1994: 20)는 점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세대들 못지 않게 잠재적 혹은 잠복적인 신세대들도 존재할 수 있다.

기성세대와 그들이 축적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의 도전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일본의 ‘신인류’(新人類), 중국의 ‘청년세대’(青年世代)에 관한 논의(참조: 千石保, 1993; 丁

謙, 1993)는 각각 사회적 배경이나 함의하고 있는 문제요소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주역’으로 등장한 새로운 세대들이 지향·표출하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성의 문화와 가치에 불만을 갖고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 붐’ 세대를 몰아붙이는 청년세대를 ‘X세대’라는 이름으로 칭하며, 그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참조: 뉴스위크, 1994. 6. 8). 이처럼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삶의 양태는 기성세대들에게는 그들의 권위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또는 그러한 가치판단 이전에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의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장벽’으로 다가서고 있다. 또한 그들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쏟아지는 파압과 부정적인 시각과 기성세대들의 이해부족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심화된 세대간의 갈등은 기존의 ‘세대차’라는 용어만으로는 부족하여 ‘세대 단절’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신세대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사회에서의 소위 신세대에 대한 이미지는 양면적이다. 그들은 “강남이나 신촌지역의 유흥가에 해가 지면 나타나 요란한 옷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돈을 물쓰듯 하며 환락에 몰두하는 젊은이들, 가끔씩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패싸움까지 벌이는 도대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과 같이 광고나 텔레비전 프로에 의해 상품화되어 파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측면들만이 부각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취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세대는 “개성있고, 진취적이며, 주체적인 삶의 의식이 강하여 자기표현의 욕구가 왕성하고 적극적인 세대”로서 인식되기도 한다(김경훈, 1994: 15).

이처럼 양면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면서 신세대에 관한 수많은 담론과 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신세대의 정체는 뚜렷이 떠오르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의 신세대 논의가, 미국에서의 X세대에 관한 광고업자들의 관심(참조: 김상중, 1994)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상업적 관심과 판매전략에서 출발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 축적된 경제적 잉여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청소년 및 청년들은 과거의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구매력을 갖게 됩

으로써 그들을 통한 경제적 이윤의 추구가 가능하게 되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광고매체가 ‘소비집단으로서의 신세대’의 특성을 포착하고 구매욕구를 자극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신세대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의 향유자로 자라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이른바 신세대들은 소비성향이 높아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구매력이 강한 계층이다. 이에 따라 의류, 제화, 문구, 가구, 식품, 가전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 업계에서는 마케팅의 중심이 가정과 직장이 안정된 30~40대 계층에서 신세대 계층으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신세대의 강한 개성과 감각, 그리고 기능성과 간편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감안, 각 업체들은 이들의 구미에 맞는 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세대가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등장했다(김경훈, 1994 : 185).

물론 이러한 상업적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신세대에 대한 분석과 기업전략은 신세대라고 통칭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의도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어느새 우리 일상에 다가온 신세대라는 용어와 그 용어로 통칭되는 집단의 존재를 소비적 관점에서나마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 반면, 이러한 상업성 추구를 위한 일부 특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이미지 전달로 인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형성한 사회문화적 배경 등과 같이 보다 본질적인 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지체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신세대는 단지 과거의 젊은 세대들보다 ‘주머니가 넉넉해진 요즈음 젊은이들’일 뿐인가. 과연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풍요해진 여건에서 성장했다는 것만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도 입시를 위해 밤낮없이 책과 씨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어찌다 시간이 나더라도 마땅히 갈 곳도, 놀거리도 없어 서성이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대다수 청소년들의 모습과 무성한 담론 속에 형성된 신세대의 이미지 사이의 괴리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삶의 양식이 청소년 내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연령층에 걸쳐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신세대나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고 그들만의 특성을 차별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은 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조응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 모두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더욱이 신세대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은 신세대가 아니라고 인식(참조: 중앙일보 '94. 2. 4 설문조사 결과)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신세대론은 상업적으로 형상화된 특정 부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신세대 논의는 종래의 세대차에 관한 논의에 비해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다 자극적으로 포장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 세대차 논의의 또다른 형태일 수 있다.

과거의 젊은 세대와 구분되는, 아직은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 그 어떤 신세대의 특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두둑한 주머니' 탓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고 또 직면해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우리 사회의 성격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것이 새로운 세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는 기성세대로 분류될 30~40대들이 20대였던 15년전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당시 젊은이들의 의식 특성은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으며, 요령주의적이며, 편협하며, 이기적이며,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거의 같은 논조로 지금의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바라보며 비판하는 논의들이 과연 당시의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우려어린 전망과 비교하여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한준상, 1994: 97~100 참조), 아직은 그 문제에 뚜렷한 관점이나 대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신세대 관련 논의의 실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신세대론이 일부 문제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과소비적 향락적 청소년들에 관한 논의나 이를 자극하는 상업적 전략의 도구와 관련된 공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올바른 성장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수준의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성원들의 삶의 변화에 대

한 진지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사회변화와 문화의 변화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역사는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사회의 현대사는 경제발전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오직 정해진 길만을 중단없이 달리는 열차의 궤적과 다름없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기성세대들은 고투 속에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물질적·정신적 결핍의 체험없이 성장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겪은 결핍의 기억 때문에 고생끝에 달성한 축적된 부를 누리지 못하는 자신들의 부모와는 달리 자신들 앞에 놓인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향유하며 생활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기성세대와 그들의 자녀인 지금의 소위 ‘신세대’들이 의식과 행동양태라는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종원, 1994 : 31)일 수도 있다.

경제발전을 축으로 한 사회변화에 따라 지금 우리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현재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도시화, 공업화와 대중소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광호, 1994 : 99~100 참조). 이 세 가지 변화의 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켰다. 첫째, 도시화는 생활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도시화에 따른 여러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 따라 생활의 기회가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둘째, 공업화는 생활양식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공업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생산양식이 불가피하며, 표준화된 생산양식은 우리의 시간배분 전체를 획일화하고 있다. 셋째, 대중소비화는 생활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고도의 대량소비사회에서는 일정한 하루 24시간을 대량소비를 위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사회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게 된다.

우리사회 내부의 문제와 더불어 외부적 조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다른 변

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냉전체계의 종식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급속하게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는 지금 산업혁명 이후의 최대의 변화로 평가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는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구소련이나 중국과 국교를 맺고 우리의 기업들이 상품교역을 넘어 그들의 땅에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까지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매체의 발전, 과학기술의 혁명,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시간과 거리의 간격없이 세계의 문화를 접하는 문화의 동시화 현상을 겪고 있다(김경훈, 1994 : 325). 각종 방송위성의 전파는 국경을 뚫고 세계 곳곳 수많은 사람들의 텔레비전 수신기에 전달되고 있다. 또 수많은 컴퓨터 통신정보망이 연결되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이와 같은 문화의 동시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문화의 동시성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거의 실시간(real time)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 또한 전세계가 하나의 상권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동시화를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신세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이러한 내적·외적 변화와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대한 고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성원들의 삶의 양태, 즉 그 사회의 문화도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는 앞 세대로부터 전승된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는 것처럼 문화 역시 고정되거나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사회변화의 요소들을 흡입하며 변화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세대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문화의 변화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문화의 변화 속도가 완만하여 여러 세대가 동일한 문화속에서 살았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짐으로써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세대마다 다른 문화속에서 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세대간의 차이가 커져서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 모두 서로

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도 결국은 문화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김신일, 1992 : 6)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문화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견 능력과 적응 능력이 미래사회에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해야 할 사회적 불협화음은 경제적 맥락에서 인식되는 계급갈등보다는 문화적 혹은 세대간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더 심각할 수 있다(정성호, 1994 : 105)는 점에서 문화의 변화 속도에 상응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방안의 모색이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다.

3. 청소년문화의 이해

문화를 한 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때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하위문화로서의 청소년문화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이 존재한다. 청소년문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인문화와는 구별되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적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청소년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은 성인들이 중심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들이므로 자신의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존 문화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김신일, 1992 : 2~3 참조). 이러한 논쟁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청소년 및 청년을 독자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신일·강대근, 1983).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 프랑스, 서독 등 서구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까지도 기존의 사회체제와 가치관에 대하여 청년세력이 기성세대의 권위를 부정하는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켰고, 이러한 청년문화 내지 청소년문화에 대한 외국의 논의가 국내에도 유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졌으며, 청소년문화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게 되었다.

청소년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청소년문화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다(김신일, 1992 : 9~11). 첫째는 청소년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어른의 시각’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시각이다. 둘째는 청소년문화를 비행 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이란 공부나 일보다는 놀기를 좋아하고, 어른 몰래 나쁜 짓 하기를 즐긴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을 항상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들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고 믿으며, 청소년들끼리 놔두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셋째는 청소년문화를 중심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넷째는 청소년문화를 대항문화(counter-culture) 또는 반(反)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비판을 가하고 반항하는 것은, 그들이 미숙하거나 빼돌려졌기 때문이 아니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세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청소년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식으로 새로운 세대는 그들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 형성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가지고 살아갈 그들 세대의 문화로서 청소년문화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핵심적인 문화 요소는 크게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 보존되지만,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성되어 문화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과거의 오랜 전통시대가 그랬듯이 사회는 발전을 모르고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청소년문화는 한 사회의 생동적 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극인 동시에 활력소가 된다.

청소년문화를 인정하건 혹은 인정하지 않건 간에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도 이러한 기대를 배제하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건 혹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희망으로서 평가하건 간에, 그러한 모두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일정한 기대와 그에 따른 기준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것의 집합체로서의 청소년문화는 성인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환경을 조건으로 형성된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상업주의적 이윤추구 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뉴키즈온더블럭’이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좋으나 나쁘나를 떠나서, 그들은 모두 상업주의적 유흥 산업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품이다. 이들 음악 그룹을 청소년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들을 만든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상업방송 기업과 대중음악 기업들의 작품이다. 요컨대 돈벌이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상업문화이다(김신일, 1992: 8).

결국 청소년문화의 고유성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대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가 올바른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이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 전체를 일방적으로 집단화하여 평가하는 ‘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간발달상의 특성과 이 사회의 성원들 모두가 직면하여 겪고 있는 ‘오늘의 삶’에 대한 조망에 기초하여야 한다.

4. 급류속의 청소년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소 논의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본질은 자아정체성의 위기, 반항성, 소속에서의 이탈, 신체적 급변과 정서적 가변성, 사회적 미성숙 등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장발달에 따른 변화와 요구를 특질로 하며, 사회적 이행기로서 새로운 사회적 지위로 나아가기 위한 불안감이 교차하여 내면적 동요를 겪는 시기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기는 그 발달과정의 특성상 시대를 막론하고 과도기적인 존재로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신체와 자아가 끊임없이 동요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동요하고 고뇌

하며 당혹해하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청소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과 아울러 이 시대 우리의 청소년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를 전후하여 출생한 20대들은 '60~'80년대의 산업화와 개방화 시대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연령군으로서 그들의 앞 세대들에 비해 개성화되고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즉, 그들은 구세대(기성세대)들과 다른 역사적 배경하에서 다른 사회, 경제, 문화적 경험을 한 세대이다(정성호, 1994 : 105). 또한 그들은 '80년대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화 변혁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폭넓게 인식하는 가운데 사회구조의 평등화와 인간화에 관심을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기성세대와는 커다란 시각차이를 보이면서 기성세대의 권위체제를 거부하는 저항과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정성호, 1994 : 105~10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업화·도시화·대중소비화라는 사회변화의 3가지 축은 생활양식을 다양화·획일화·분주함이라는 측면에서 전시대와 대비되는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획일적인 다양화를 분주하게 되풀이하는 생활양식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가 실현된 후 우리사회의 성원들이 살아가는 효율적인 적용의 결과이다(이광호, 1994 : 100).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문화, 특히 소위 신세대 문화라고 통칭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업적 대상으로 저널리즘에 의해 등장하고 있는 신세대적 경향성은 가장 현대적인 생활양식의 특성인 분주한 획일적 다양화를 부분적으로 드러낸 것들이기도 하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70년대를 전후한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사회에 축적되기 시작한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며 성장한 최초의 세대이다. 전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출생 직후부터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에 접촉해 왔으며,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들을 대치해온 서구의 개인주의적 다원주의적 사고방식과 서구문물에 완전히 노출되어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은 또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는 사회의 변화를 몸으로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세대이다. 라디오나 흑백 TV의 기억을 향수처럼 지니고 있는 앞 세대에 비해 그들은 컬러 TV를 보며 자란 ‘화려한’ 영상세대이며, 최근 급속한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컴퓨터와 쉽게 친해지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컴퓨터세대이기도 하다. 컴퓨터와 통신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관습이나 성격, 생활, 행동양식이 정보문화의 특징을 닮아가고 있으며, 기성세대에 비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생활양식과 문화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의 물결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모든 세대에 걸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정보화사회 정보문화에 익숙해짐으로써 기성세대에 비해 보다 개성적이고 자유분방한 삶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여러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흡인력 또한 왕성해질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정보화시대로의 진입과 그에 따른 정보문화의 확산이라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은 개인주의, 인정 욕구와 책임 회피, 가치관 부재, 국제화·서구화, 충동성, 영상매체 선호, 모험적·감각적 레저활동 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김삼중, 1994 : 37 ; 임광진, 1994 : 52 참조). 효율적이고 가장 현대적인 생활양식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철저한 프로근성”의 중시, 자본주의적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획일적으로 소비하도록 현혹당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자유와 개성”의 추구, 정보화시대의 진입과 함께 분주한 현대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동시추구 현상” 등의 생활방식 수용의 문제는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세대들에게 보다 첨예하게 다가서고 있다. 또한 그들의 출생과 함께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영상문화의 발달에 따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정신적 가치를 우선하는 과거의 문화와는 달리 육체적이고 시각적이고 행동하는 즉 육체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소위 “영상세대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이광호, 1994 : 100). 이러한 새로운 가치지향의 양상은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문화적 기준에서 청년세대의 문화를 타락적이고 소비적인 육체의 문화로 평가하고 우려하게 하였다.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은 사회성원들의 삶에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의 전환을 요구

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양식의 형성과 수용에서 세대간에 시간적인 측면과 아울러 적응의 정도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성세대는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또다른 세대, 또다른 부류가 동시대 같은 사회에 존재함에 당혹해 하고 있다. 또한 성장하는 세대들은 그들의 감각에서 어찌면 당연한 '생활방식'이 그들의 가족이며, 그들의 삶을 지지해줄 기성세대들과 충돌하게 되고 부정당하는 것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듯 '세대간의 충돌'처럼 나타나고 있는 소위 신세대적 삶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 신세대적 삶의 양상

전술한 신세대론 대두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신세대에 관한 이미지는 양면적이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부를 지니고 있는 부모의 그늘에서 자율 통제 기능을 상실한 채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향락적인 소위 '오렌지족'류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반면, 개성있고 진취적이며 주체적인 삶의 의식이 강하여 자기표현의 욕구가 왕성하고 적극적인 세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집단이라는 이미지 또한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두가지 이미지는 모두 최근 지면을 장식했던 청소년들의 패륜적 행태나 기성세대를 놀라게 했던 정보문화의 나이 어린 수재들과 같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 정형화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이미지의 형성 이면에 담긴, 현상에만 주목하여 원인을 간과한 측면들이 있음에 유의하여 보면 '오렌지족'으로 상징되는 신세대의 퇴폐적 이미지는 우리사회의 심화된 계층문제가 청년 및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흔히 언급되는 오렌지족의 이미지는 밤마다 강남이나 신촌 등지의 고급 유흥가에 나타나 외국 상표의 값비싸고 요란한 옷으로 치장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서민들의 한달 생활비가 넘는 유흥비로 물쓰듯 하며, 심지어는 쾌락을 위해서라면 마약도 서슴치 않을 환락에 몰두하는 '젊은 것'들의 모습일 것이다. 물론 최근 신문지상에 이러한 일부 젊은이들의 행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패륜적 범죄들이 속

속 보도되면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사회에서 그러한 사치와 방종을 ‘꺼리낌 없이’ 일삼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소수 청년 및 청소년들의 행태는 그들이 속한 계층의 성인들의 일부가 내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생활양태를 학습한 결과이고, 축적된 부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천박한 사회의식과 사회윤리가 포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행태가 충격적인 것만큼이나 그러한 충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부류는 이 사회에서는 일단 수적으로는 소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과 관련된 논의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대다수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기존 신세대론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상술할 것이지만, 치열한 입시의 전장에서 그리고 생산의 현장에서 작은 여유마저 아쉬워하는 대다수 청소년들의 생활을 간파한 채 소수의 행태를 마치 대다수 청년 및 청소년들의 행태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과장된 반응을 하는 것은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조용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던 청소년기 특유의 변화보다는 이 시대의 청소년 이기에 겪을 수 있고 표출할 수 있는 시대상에 적응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굳이 우리가 신세대를 논하여야 하는 이유도 결국 그들 앞에 놓여진 달라지는 세계와 그것을 감내하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보의 획득이나 감각의 발달을 문자가 아닌 영상을 통해 깨우치기 시작한 세대이다. 즉, 인식의 형성과정 자체가 기성세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글자를 깨치기 전에 컬러 TV와 영화, 비디오 등 영상과 만화를 보고 대중음악을 들으며 성장해 왔다. 또한 그들 앞에 놓인 통신매체는 종래의 일방적적인 수신장치가 아닌 양방향의 열린 매체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첨단 매체를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가 정보의 발신자이며 창조자가 되고자 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교양’은 미흡할지라도 관심분야에 대해서

는 전문가에 버금가는 정보도 가지고 있다. 소득이 없는 계층이면서도 패션에의 열정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표현은 적극적이다(김경훈, 1994 : 18~19 참조).

또한 뉴키즈 소동이나 서태지 열풍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청년문화의 열기는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것은 '60년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클리프 리차드라는 한 영국의 가수 앞에서 그 공연을 계기로 분출했던 청춘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과도 같은 것일 수 있으며, 이미 그 이전부터 가시화되었던 전세계적인 대중문화의 동질화 현상이 우리사회의 두드러진 문화의 한 양태로 자리잡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 미국문화의 세계화와 그것의 상품화라는 점과 맞물려 여러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이 10대, 20대였을 때는 그나마 라디오도 흔치 않아서 대청마루에 한대를 모셔놓고 온가족이 듣다가 공부할 때는 끄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멀티미디어족은 동시에 TV나 라디오를 즐길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멀티미디어이기도 하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신세대는 컴퓨터도 만지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필요에 따라 TV도 보고 비디오도 볼 수 있다. 물론 각종 음악카드와 스피커를 이용해 보다 훌륭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성에 안찬다. 시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전방위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상문화는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시각, 나아가 종합적 감수성이라는 틀로 재정렬시키고 있다. 또한 단순히 감각의 문제를 넘어서 가치관을 변혁시키고 있다.”(김경훈, 1994 : 56)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금의 청소년들은 산업사회의 본격적인 정착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와 아울러 산업사회 진입 이후 최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매체의 변화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매체의 변화는 단순한 인간의 사용기기 변화의 측면을 넘어서서 인간의 사고와 생활양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신세대론으로 표출되고 있는 기성세대의 당혹감에는 이러한 역사적 분기점 앞에서의 혼란과 자신들과는 다르게 그 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영유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질감의 표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신세대론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한 종래의 세대차 논의와는 다른 세대간의 이질감에 대한 인식은 인간 인식의 중요한 수단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총체적인 삶의 양태가 변화하였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의 <표 1>은 일반적인 세대차의 논의와는 다른 문자세대(기성세대, 구세대)와 영상세대(신세대)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1>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가치관

문 자 세 대	영 상 세 대
이성적	감성적
옳고 그름으로 판단	좋고 싫음으로 판단
논리적 심사숙고	감각적 판단
미래의 득실 기준	당장의 좋고 싫음이 기준
동일 지향 가치관	이질 지향 가치관
남들처럼 살고 싶다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
자기 절제	자기 표현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	스스로 가치 창조
타인의식	자기에게 충실
억제된 감정	해방된 감정
문화의 수동적 향유	문화 생산 소비에 참여
소유가치 중시	사용가치 중시

자료 : 정근원,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 『시사저널』, 1993. 4.15.을 김경훈 (1994)에서 재인용.

영상세대로서의 특징과 아울러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신세대적 특징은 집단적 가치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다. 신세대 논의의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인 대학가에서의 신세대 논쟁은 탈정치적 성향 속에서 “네 멋대로 하는” 신세대를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이전 세대와는 또다른 개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가 일찌기 누리지 못했던 경제성장, 민주화 물질, 반외세적 우리 문화에의 집착과 개방적인 세계화의 공존, 자신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강한 자신감 등이 한 데 얹혀 창조해낸 신세대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은 우리사회 변혁의 판권이 될 수도 있다(정성호, 1994 : 104~109). 그러나 정작 신세대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 신세대라는 개념에 자신들을 동일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별다른 관심조차 없다(김경훈, 1994 : 21 ; 중앙일보, 1994. 2. 4).

이러한 집단적 가치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탈이데올로기적인 세계적 조류의 반영(한준상, 1994 : 106)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두 가지 ‘운동’이 추구하였던 목표, 즉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명제가 가시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생존의 조건으로서 추구하였던 경제발전 지상주의와 그 반대급부로 희생되었던 인간적 삶에 대한 회구였던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던 ’80년대까지의 사회변혁의 주류가 지탱해온 집단적 정체성 확보가 더이상 과거와 같은 강한 사회적 결속력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한 집단적 동질성의 상실은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가치의 추구하고 그에 따른 사회가치의 다원화라고 표현될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는 또한 정형화된 기성세대의 가치와 신세대의 가치간의 차별화를 넘어 보다 분화되어 다음 <표 2>와 같은 양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세대별 차이		
	자 기 표 현	노 동	세대별 특성
40대	패션무관심세대	일벌레형	전통세대
30대	소극, 적극 혼합세대	일과 놀이 결합형	샌드위치 세대
20대	자기표현세대	자기만족형	신세대

자료 : 김경훈(1994), p. 40.

물론 사회성원들의 인식이나 삶의 양태가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정적으로 10년 주기로 정형화된다고 하는 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그러나 <표 2>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집단화된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에서 주체적 자기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나로서의 삶’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지향이 변화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신세대론의 비판적 검토

신세대의 가능성과 신세대적 특성이 지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세대론의 주된 논조는 근검절약할 줄 모르고 고생하기 싫어하는 감각만을 탐닉하는 ‘걱정스러운 젊은이들’에 대한 우려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인 논조, 즉 신세대의 소비성과 선정적 이미지의 강조는 아마도 보수적인 기성세대가 갖는 변화된 감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상업주의적인 부추김의 변용된 표현들이겠지만, 어쨌든 신세대라는 것의 실체는 물이해와 과장의 이분법적이고 단선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의 부재하는 이미지로 전락하거나 왜곡되어(정성호, 1994 : 106)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세대는 곧 오렌지족이라는 인식은 그러한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업적 홍보전략가들 못지 않게 신세대론을 집중적으로 조명 분석하였던 언론에서 신세대 관련 기사를 담당하였던 한 언론인이 지적하는 언론에서의 신세대를 보는 시각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남재일, 1994 : 48~49)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신세대를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별종의 집단으로 전제하고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야타족’, ‘고소영족’, ‘깡깡족’, ‘다슬이족’ 등 일부 신세대들의 한 측면을 마치 구체적인 집단이 형성돼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모든 시대 일반적인 젊은이의 특징을 요즘 젊은이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뉴키즈온더블럭 공연시의 광적인 10대들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60년대 롤리프리트처드의 내한공연 때 팬들의 모습과 비슷했다.

셋째, 계층문제와 세대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오렌지족에 대한 보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에 관련된 공통된 논조는 고생을 하지 않고 자라서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신세대의 향락풍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위 오렌지족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렌지족 문제는 세대문제가 아닌 계층문제로 보아야 한다.

네째, 이상과 같이 언론이 신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저변에는 부정적인 편견이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사회심리학자들은 풍요속에

자란 신세대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집단적인 질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우리사회가 만들어낸 신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치게 소비지향적인 것이 더하여져 신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은 이상하리만큼 특정 반사회적인 소수 청소년들의 모습을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의 모습들로부터 떼어내어 그들간의 심각한 차이를 구별해주고 싶은 여유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한준상, 1994 : 95~96). 또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었던 세대였기에,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패륜아이며 엽기적인 살인범이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가진 청년이라는 데에서 오는 경악감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돌아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신세대가 돌연변이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토스토예프스키를 읽고 하던 진지한 얘기를 신세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고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삶에 대한 고뇌와 책임감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정치경제적 조건이 달라졌는데 과거와 같은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집착과 관심, 그리고 내일의 풍요를 위한 오늘의 인내를 똑같이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신세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대의 변화는 그들이 창출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민감한 반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새로운 세대들이 너무도 당연스럽게 자신들이 애써 일궈놓은 풍요의 씨앗을 향유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신세대론의 이면에는 풍요로운 조건이 주어졌으니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라고 요구하는 기성세대들의 ‘1세대 콤플렉스’가 잠재하여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 신세대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지금의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마치 별종의 세대로 취급하면서 청년 및 청소년세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인 소비성·대중성·감수성을 지적하지만, 이것을 자극하는 상업주의에 대해서는 빈약한 대안속에서 방치하고 있다(김경훈, 1994 : 23)는 점이다. 무수히 제기된 신세대론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출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이질감만큼이나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포용하여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의 제시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신세대론의 검토라는 문제 이전에 우리사회에

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대처하는 역동적인 가치관의 형성이 지체되어 왔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가 변화하듯이 ‘신세대’ 역시 고정적인 관찰대상이 될 수 없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미 신세대는 다시 X세대로 분화·세분되어 가고 있다(김상중, 1994 : 36 ; 한준상, 1994 : 106~110)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X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이데올로기적이다. 시사적 관심과 정치적 무관심. 얼핏 상반되어 보이는 X세대의 두가지 경향은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정치 무관심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현실 자체에 무관심하지는 않다. X세대는 지나간 시대의 이념이라는 ‘대전제’가 간과한 다양한 삶의 질을 ‘욕구와 충족의 체계’ 속에서 실현해 나간다. 그들에게 정치는 수직적인 일팔 대표제로 국민을 선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서로 조화시키는 공존의 질서이다(문화일보, 1994. 8. 15). 둘째, X세대는 차별성과 그에 기초한 동일시 거부(anti-identification)를 특징으로 한다. 지금의 엑스세대는 구세대에 저항했던 ’60년대의 히피들이 ’70~’80년대의 풍요한 여파족들로 자리잡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X세대들이 과거의 그 어떤 세대와도 같지 않다는 강한 차별화정신에 투철한 동일시 거부의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세제, 해체방법론에 숙달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체는 기존의 요소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리모델’(remodel), 혹은 재구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해체는 기성 세대의 고정관념이나 옛날 틀에 고착화된 그런 인식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창출과 같은 인식의 혁명성을 갖고 있다. 이런 해체의 맥락에서 X세대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기성세대는 이들 X세대와 신세대를 제대로 재단할 잣대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한준상, 1994 : 108).

신세대에 관한 논의 혹은 보다 분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X세대에 관한 논의 모두가 아직은 정립되지 못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다원화·분중화(分衆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의 양상에 대한 빈약한 단상 이상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음에 유념하면서, 개별화·다변화되는 사회성원들의 제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사회상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Ⅳ. 신세대 특성이해를 위한 의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이 조사는 앞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신세대’의 실체를 파악하고, 과연 신세대라고 변별될 수 있는 사회집단이 존재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식과 가치 및 행동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경향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청소년들의 실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청소년 건전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수행되었다. 설문을 통해 수행된 이 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1,112명(남자 : 51%, 여자 : 49% ; 고등학생 : 54%, 대학생 : 46%)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 4월 18일~26일 간에 수행되었다. 설문대상 표본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특성			
	남 자	여 자	무 응 답	사 례 수
전 체	50.6%	49.3%	.1%	1,109*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43.1%	56.9%	.0%	436
신세대아님	57.7%	42.3%	.0%	227
잘모르겠음	54.2%	45.4%	.4%	445
학교급별				
고등학교	49.9%	50.1%	.0%	593
대학교	51.1%	48.7%	.2%	505
생활수준				
상	46.0%	54.0%	.0%	248
중	50.2%	49.7%	.1%	759
하	63.7%	36.3%	.0%	102
용 돈 별				
5만원 이하	51.2%	48.8%	.0%	537
50만원~10만원	49.6%	50.4%	.0%	135
10만원이상	50.2%	49.5%	.2%	434

* 각 특성별 무응답자 1명이 제외된 수치이며, 총응답자는 1,110명임.

* 각 항목별 응답자 수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로, 항목별로 합계가 다름.

본 조사에서 다뤄진 설문내용과 그 결과분석은 크게 청소년의 가치관과 의식 실태에 관한 부분과 설문 응답 청소년들 중 자신을 신세대라고 평가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청소년의 가치관과 의식 실태에 관한 부분에서는 첫째, 청소년들이 자신을 신세대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청소년들이 느끼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이미지를 형용사군에 대한 반응을 통해 비교하였다. 세째, 자아의식·성의식 및 이성관·문화·소비·사회 의식 등의 항목을 통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네째, 지향하는 삶의 목표와 방식과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 노력,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의 획득 경로 등을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변화된 생활양태를 파악하고, 컴퓨터·호출기·음성정보 서비스 등 첨단 정보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정도를 통해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의식 및 생활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세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응답자들 중 자신을 신세대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여 청소년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신세대적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의 특성을 정리하는 한편, 두 집단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신세대적 의식 및 행동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신세대의 자기평가 여부

설문응답자 중 전체의 39.2%가 자신이 신세대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으며, 20.3%는 신세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나머지 40.1%는 잘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 조사의 설문응답자들이 자신이 신세대라고 응답한 수치는 이전의 다른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신세대임 42.7%, 신세대 아님 54.6% : 중앙일보 1994. 2. 4 참조).

〈표 4〉 표본의 신세대 여부

	신세대임	신세대아님	잘모르겠음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39.2%	20.3%	40.1%	.4%	1,110	
성별						
남자	33.5%	23.3%	42.9%	.4%	562	$\chi^2=16.91$
여자	45.3%	17.5%	36.9%	.4%	548	$p=0.00$
학교급별						
고등학교	48.7%	12.0%	39.0%	.3%	593	$\chi^2=72.76$
대학교	28.7%	30.3%	40.6%	.4%	505	$p=0.00$
생활수준별						
상	50.8%	18.1%	30.2%	.8%	248	$\chi^2=27.79$
중	37.4%	20.4%	41.9%	.3%	759	$p=0.00$
하	24.5%	26.5%	49.0%	.0%	102	
용돈별						
5만원 이하	46.0%	13.4%	40.4%	.2%	537	$\chi^2=48.16$
5만원~10만원	43.7%	20.0%	35.6%	.7%	135	$p=0.00$
10만원 이상	29.5%	29.0%	41.0%	.5%	434	

* 해당 항목 무응답자를 포함한 수치임

자신이 신세대라고 응답한 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45.3%)가 남자(33.5%)보다는 신세대라고 자기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대학생(28.7%)보다 고등학생(48.7%)의 비율이 높았고, 생활수준별로는 상층(상 50.8%, 중 37.4%, 하 24.5%)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결과분석

1) 삶의 목표 및 방식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반수 이상이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며 개성껏 사는 것’(57.4%)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16.1%)과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10.3%), ‘사회봉사’(6.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자신을 신세대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성껏 사는 것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풍요에 약간의 비중을 두고 있는 데 반

태, 신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반 청소년들은 신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두고 있고, 사회적 명예와 지위획득, 사회봉사 등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장래에 원하는 생활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취미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생활(41.9)이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26.5%)을 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을 신세대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취미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생활(48.6%) 방식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표 5〉 인생의 목표

	경제적 인	사회적 풍요	명예 와 지위	권력을 얻는 것	개성 있는 것	사회봉사 하는 것	기 타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6.2%	10.4%	2.7%	57.5%	6.2%	6.5%	.5%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16.1%	8.3%	2.8%	63.8%	4.1%	5.0%	.0%	436	$\chi^2=30.54$	
신세대아님	14.1%	12.3%	3.5%	48.9%	11.5%	8.8%	.9%	227	$p=0.00$	
잘모르겠음	17.1%	11.2%	2.5%	56.2%	5.6%	7.0%	.4%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표 6〉 장래에 원하는 생활 방식

	한가롭고 편안한 생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생활	취미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생활	사회를 위해 공 헌할 수 있는 생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	지위가 높고 존 경받는 생활	기 타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1.2%	26.5%	41.9%	7.1%	6.8%	5.1%	1.2%	.3%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9.4%	21.3%	48.6%	6.0%	9.9%	4.1%	.7%	.0%	436	$\chi^2=45.05$
신세대아님	10.6%	29.1%	37.4%	10.1%	3.5%	6.6%	1.8%	.9%	227	$p=0.00$
잘모르겠음	13.5%	30.6%	37.5%	6.5%	5.4%	5.2%	1.3%	.0%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2) 사회변화 방향에 대한 적응노력과 환영여부

청소년들은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전문적 능력을 구비'(82.7%)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바라고 있으며, 또한 '외국

어를 익히고’(61.9%) ‘외국문화를 이해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추는 것’(55.3%)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신세대라고 평가하는 집단일수록 이러한 사회변화 방향으로의 적응에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풍토가 점차 사라져가거나(92.4%) 민족문화의 고유한 의미가 상실되어가고(82.8%) 개인의 생각과 가치가 우선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58.4%) 사회변화의 경향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신세대일수록 개인주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민족문화의 고유성이 상실되어가는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응답 청소년들은 앞으로 놀이나 여가문화가 점차 중요시되고(81.6%) 세계화에 따라 민족과 국가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질 것(65.6)이라는 데 대해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방화에 따른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66.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17.8%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세대와 일반 청소년들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의 주요 통로

청소년들은 현재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로 TV 뉴스나 교양물(52.9%), 일간신문(41.0%), 친구(31.2%), TV 광고(28.1%) 등의 순으로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정보중에서도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비정보는 주로 친구, TV 광고, 국내잡지, 일간신문 등의 순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신세대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친구(54.1%), 국내잡지(23.4%), 일간신문(14.4%) 등의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신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TV 광고(55.9%), 친구(50.7%), 일간신문(20.3%), 국내잡지(14.1%)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상 2가지 응답을 요구하여 나온 결과임).

〈표 7〉

주요 정보원과 소비정보원

	주요 정보원			전체	소비정보원			전체
	신세대임	신세대아님	잘모르겠음		신세대임	신세대아님	잘모르겠음	
TV광고	31.4%	25.6%	27.0%	28.1%	53.4%	55.9%	54.8%	54.4%
TV드라마	10.3%	5.3%	5.6%	7.4%	8.4%	4.0%	6.5%	6.7%
일간신문	32.1%	53.3%	43.1%	32.1%	14.4%	20.3%	15.7%	16.2%
스포츠신문	3.4%	1.3%	2.5%	2.6%	7.6%	7.9%	6.3%	7.1%
TV뉴스교양물	50.0%	53.7%	54.4%	52.9%	7.8%	8.4%	5.8%	7.1%
라디오	10.7%	13.5%	8.4%	8.8%	3.9%	3.5%	4.0%	3.9%
부모	4.1%	3.5%	3.8%	3.9%	11.5%	10.6%	11.0%	11.2%
형제	5.5%	4.8%	6.1%	5.6%	7.8%	11.9%	13.9%	11.1%
선생님	3.2%	3.1%	3.8%	3.4%	0.2%	0.4%	0.7%	0.5%
친구	31.7%	26.9%	33.3%	31.2%	54.1%	50.7%	59.1%	55.6%
국내잡지	7.8%	7.5%	7.6%	7.7%	23.4%	14.1%	15.1%	18.1%
외국잡지	3.9%	0.9%	1.3%	2.3%	3.7%	2.6%	2.7%	3.1%
무응답	3.0%	5.7%	5.7%	3.2%	4.1%	9.7%	4.3%	5.0%
사례수	436	227	445	1,110*	436	227	445	1,110*
통계치	$\chi^2=53.16$		$p=0.0006$		$\chi^2=42.74$		$p=0.00$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4) 최근 청소년의 이용도 높은 매체나 서비스의 이용 경험

최근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많이 이용하는 매체 및 서비스의 경험정도를 보면, 음성정보 서비스(66.1%), 전화사서함(22.8%), 무선호출기(일명 삐삐, 8.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음성정보 서비스 이용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세대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호출기의 경우는 신세대의 55.0%가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들은 21.6%만이 이용하고 싶다고 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

가. 자아의식

청소년들은 ‘남들이 나를 주시해주면 좋겠다’(53.8%)거나 ‘눈치보지 않고 자기주

장을 한다'(43.2%) 등에 비교적 높은 비율로 동의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세대일수록 남들이 자기를 주시해주거나 자신을 과감하게 원하는데로 표현하는데 높은 반응을 보여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기과시성이 높다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8〉 과감하게 원하는데로 표현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1.7%	28.3%	37.4%	19.8%	2.7%	.1%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16.5%	36.7%	33.5%	11.7%	1.6%	.0%	436	$\chi^2=70.87$
신세대아님	8.8%	19.4%	40.1%	26.4%	4.8%	.4%	227	p=0.00
잘모르겠음	8.3%	24.5%	39.6%	24.5%	3.1%	.0%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청소년들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고 싶다(71.2%)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들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좋다거나 다른 사람의 충고나 간섭이 싫다는 항목에 대해 일반 청소년들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독립지향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중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야 한다는 데에는 신세대나 일반 청소년 구분없이 대다수(80.7%)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일을 맡겨도 남들만큼 할 자신이 있다(72.8%)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자신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겠다는 데에는 부정적인 반응(48.4%)을 보였고, 계획은 세우지 않는 편이 좋다는 물음에도 부정적인 반응(74.9%)을 보였다. 조사결과 신세대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무계획하게 일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세대를 일반적으로 현세주의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상실한 세대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아직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나중의 성공을 위해 지금의 어려움은 참아야 한다

	매 우 그렇다	그 렇다	그 저 그렇다	그 렇지 않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무 응 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32.6%	48.1%	13.0%	5.1%	1.0%	.2%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33.9%	44.5%	13.5%	6.7%	1.4%	.0%	436	$\chi^2=18.05$
신세대아님	31.3%	56.4%	8.4%	3.5%	.0%	.4%	227	p=0.05
잘모르겠음	31.7%	48.1%	14.6%	4.3%	1.1%	.2%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표 10) 어떤 일을 맡겨도 남들만큼 할 자신이 있다

	매 우 그렇다	그 렇다	그 저 그렇다	그 렇지 않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무 응 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22.1%	50.7%	21.1%	5.6%	.1%	.1%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28.4%	50.2%	16.1%	4.4%	.2%	.7%	436	$\chi^2=43.44$
신세대아님	26.0%	47.6%	21.1%	4.8%	.0%	.4%	227	p=0.00
잘모르겠음	13.3%	53.0%	26.1%	7.4%	.0%	.2%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나. 성의식

길에서 남녀가 포옹하는 것은 나쁘다(동의 17.1%, 기각 51.1%)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면 부끄럽다(동의 13.6%, 기각 61.2%)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썸시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거나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키스를 해도 괜찮다는 데에는 허용적인 반응을 보여 청소년들의 성적 개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세대와 일반 청소년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성적 개방성이 신세대적 성향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의 역할구분에는 매우 반대하며, 데이트할 때 비용을 남녀가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평등한 남녀관을 볼 수 있게 한다. 남녀평등성에 있어서도 신세대와 일반 청소년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물음에는 전체의 66.0%가 동의하고 21.0%는 부정하였다. 또한 자식이 있더라도 의미없는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63.3%가 지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3.6%만이 그래도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연애와 결혼의 분리, 자기중심적 사고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신세대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세대 여부에 대한 자기평가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회적 성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32.3%가 동의하고 44.3%가 부정하였으며, 순결이나 동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18.2%만이 부정하고 57.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비교적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 쾌락적이고 즉흥적인 신세대의 자유분방한 성의식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서 주목된다.

〈표 11〉 자식이 있더라도 의미없는 결혼생활은 지속할 수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통계치
전체	29.1%	34.2%	13.1%	15.6%	8.0%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37.4%	33.5%	11.0%	11.9%	6.2%	436	$\chi^2=44.79$
신세대아님	21.6%	29.1%	13.7%	22.5%	13.2%	227	$p=0.00$
잘모르겠음	24.5%	37.5%	15.1%	16.0%	7.0%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표 12〉 순결이나 동정은 유지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23.5%	33.6%	24.3%	12.2%	6.0%	4%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23.4%	32.6%	22.5%	13.8%	7.3%	5%	436	$\chi^2=17.98$
신세대아님	29.5%	32.2%	23.8%	7.5%	7.0%	0%	227	$p=0.055$
잘모르겠음	20.7%	35.3%	26.3%	13.3%	4.0%	4%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다. 소비의식과 행태

‘유행하는 모리모양으로 손질을 하고 외출’(동의 22.8%, 기각 42.1%)하거나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싶다’(동의 24.0%, 기각 50.8%)는 물음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

게 쫓아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청소년들의 10.6%가 유행하는 머리모양을 하고 59.4%는 하지 않는데 비해 신세대는 35.6%가 유행하는 머리모양을 하며 29.6%만이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아하는 연예인의 의상 모방 정도에 있어서도 일반청소년은 9.7%만이 긍정을, 73.2%가 거부성향을 보인 반면, 스스로 신세대라고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34.8%가 긍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38.1%가 부정적 반응을 보여 신세대와 일반 청소년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세대라고 생각할수록 유행에 대해 민감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신세대는 남들이 즐겨보는 영화나 잡지를 대부분 보려고 하는 측면에서도 일반청소년과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유명상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동의 46.3%, 기각 25.0%)이 다소 있으며, 상품을 구매할 때 상표보다는 독특한 디자인이나 외양을 보고 사는 경향(동의 57.8%, 기각 15.4%)이 훨씬 강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의 외모나 외양을 중시하는 성향의 일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신세대들의 외양 중시 경향은 일반청소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성향을 보여준다. 또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반응에서는 전체의 56.9%가 꺼리고 있으며 17.8%만이 긍정적이며, 신세대일수록 더욱 거부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세대의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추구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13〉 물건을 살 때 상표보다는 독특한 디자인이나 외양을 보고 선택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통계치
전체	17.1%	40.7%	26.9%	13.2%	2.2%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24.1%	41.1%	23.2%	10.3%	1.4%	436	$\chi^2=35.15$ p=0.00
신세대아님	15.0%	34.8%	30.0%	16.7%	3.5%	227	
잘 모름/없음	11.7%	43.6%	28.5%	13.9%	2.2%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한편 상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동의 55.3%, 기각 17.7%)는 당위론적 진술에는 비교적 동의하고 있다. 또한 분위기가 좋은 가게를 보면 무언가 사고 싶다(동의 58.3%, 기각 20.9%)는 충동을 느끼면서도 길을 가다 멋있는 것을 보면 계획에 없더라도 구입하는(동의 30.1%, 기각 44.7%) 행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즉흥적 구매욕구에 대해 일반 청소년은 22.5%만 동의하고 56.3%가 기각한 데 반해, 신세대는 39.9%가 동의하고 36.2%가 기각하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신세대의 즉흥적 소비행태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표 14〉 길을 가다가 멋있는 것을 보면 계획에 없더라도 산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 체	5.4%	25.7%	24.1%	32.9%	11.8%	.1%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8.5%	31.4%	23.9%	26.6%	9.6%	.0%	436	$\chi^2=46.20$ p=0.00
신세대아님	1.8%	20.7%	20.7%	39.6%	16.7%	.4%	227	
잘모르겠음	4.0%	22.7%	26.5%	35.5%	11.2%	.0%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라. 사회문화의식

‘우리사회는 권력과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동의 52.8%, 기각 31.4%)는 진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현재의 사회현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나은가 하는 물음에 24.1%만이 동의하고 55.9%는 부정함으로써 사회변화에의 참여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개방되어도 우리사회가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가(동의 38.8%, 기각 37.5%)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우려를 비슷한 비율로 피력하고 있으며, 신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자아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신세대가 표출한 일에 대한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 대해 신세대라고 자신

을 평가하는 집단의 41.1%가 긍정, 31.2%가 부정한 반면, 신세대가 아니라고 반응한 집단은 29.1%가 긍정하고 45.3%가 부정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난은 자신의 노력부족 때문인가라는 물음에 역시 신세대는 44.1%가 긍정하고 37.4%가 부정하였으나, 신세대가 아니라는 집단은 30.8%가 긍정을 46.5%가 부정하여, 양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신세대가 자기중심적이고 다소 이기주의적이며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일반적 지적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남이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할 바 아니다'(동의 41.8%, 기각 34.2%)는 지적에 비교적 다수가 동의한 결과로 미루어 현재 청소년들은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가는 과도기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세대로 분류될수록 개인적 성향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15〉 가난은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9.9%	26.7%	20.7%	31.8%	10.6%	.3%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14.7%	29.4%	18.6%	27.3%	10.1%	.0%	436	$\chi^2=29.00$
신세대아님	6.6%	24.2%	23.8%	35.2%	9.7%	.4%	227	$p=0.0012$
잘모르겠음	6.7%	24.9%	21.3%	34.8%	11.7%	.4%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표 16〉 고되고 바빠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일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20.8%	44.1%	22.2%	11.0%	1.7%	.1%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24.8%	40.1%	21.8%	10.3%	3.1%	.0%	436	$\chi^2=34.61$
신세대아님	18.9%	55.5%	14.5%	11.0%	.0%	.0%	227	$p=0.0001$
잘모르겠음	17.8%	42.0%	26.5%	12.1%	1.3%	.2%	445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현재 우리사회 청소년들은 지금까지의 신세대에론서 지적되어온 사실과는 달리 건전한 직업관과 노동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직장은 보수가 높은 직장보다 여유있고 자유로운 곳을 비교적 강하게 선호(동의 72.3%, 기각 11.8%)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신세대일수록 선호도가 높다. 한편 일이 고되고 바빠도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 좋다(동의 64.9%, 기각 12.7%)는 데에 비교적 다수가 동의(신세대와 신세대가 아니라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가능한 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바쁘고 고된 일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퇴근시간이 되면 일이 있어도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가’(동의 30.0%, 기각 49.6%)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구태여 일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동의 32.1%, 기각 62.1%)라는 물음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현재 청소년들을 성실성이 붕괴된 세대라고 낙인하거나 고된 일을 꺼리는 레저세대라는 지적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압도적인 지지(동의 82.3%, 기각 5.7%)를 보내고 있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긍정 27.4%, 부정 46.2%)을 보여 공정한 분배관과 건전한 경제관의 일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향수실태와 선호행태 등을 보면, 신세대라고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랩이나 레게음악을 선호하고, 책과 같은 문자매체 보다는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를 선호하며, 라디오나 TV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동시성을 보여주는 한편, 방송공개프로그램의 나가고 싶다거나 직접 참여하고 싶은 적극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우선 랩이나 레게음악의 선호도는 신세대집단은 56.4%가 긍정적이고 16.8%가 부정적인 반면, 신세대가 아닌 집단은 21.5%와 48.0%의 긍정과 부정을 보여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TV나 라디오 공개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신세대는 각각 52.5%와 48.6%가 그렇다, 19.3%와 20.4%만이 각각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신세대가 아니라고 평가한 청소년집단은 각각 25.5%와 19.8%만이 긍정적이며, 40.1%와 44.0%가 부정적이어서 신세대의 영상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를 대조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 청소년들은 책보다는 영화나 만화를 더욱 선호(동의 52.9%, 기각 23.9%)하고 있으며, 특히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만든 작품에 매료(동의 80.3%, 기각 6.8%)를 느끼는 등 일의 내용과 성격보다는 전문성과 치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세대일수록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하다.

〈표 17〉 방송국에 업서를 보내어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10.8%	25.8%	33.6%	22.7%	7.1%	1%	1,110*	
신세대여부								
신세대임	15.8%	32.8%	30.7%	15.8%	4.6%	2%	436	$\chi^2=70.87$
신세대아님	4.8%	15.0%	36.1%	33.9%	10.1%	0%	227	$p=0.00$
잘모르겠음	8.8%	24.5%	35.1%	23.8%	7.9%	0%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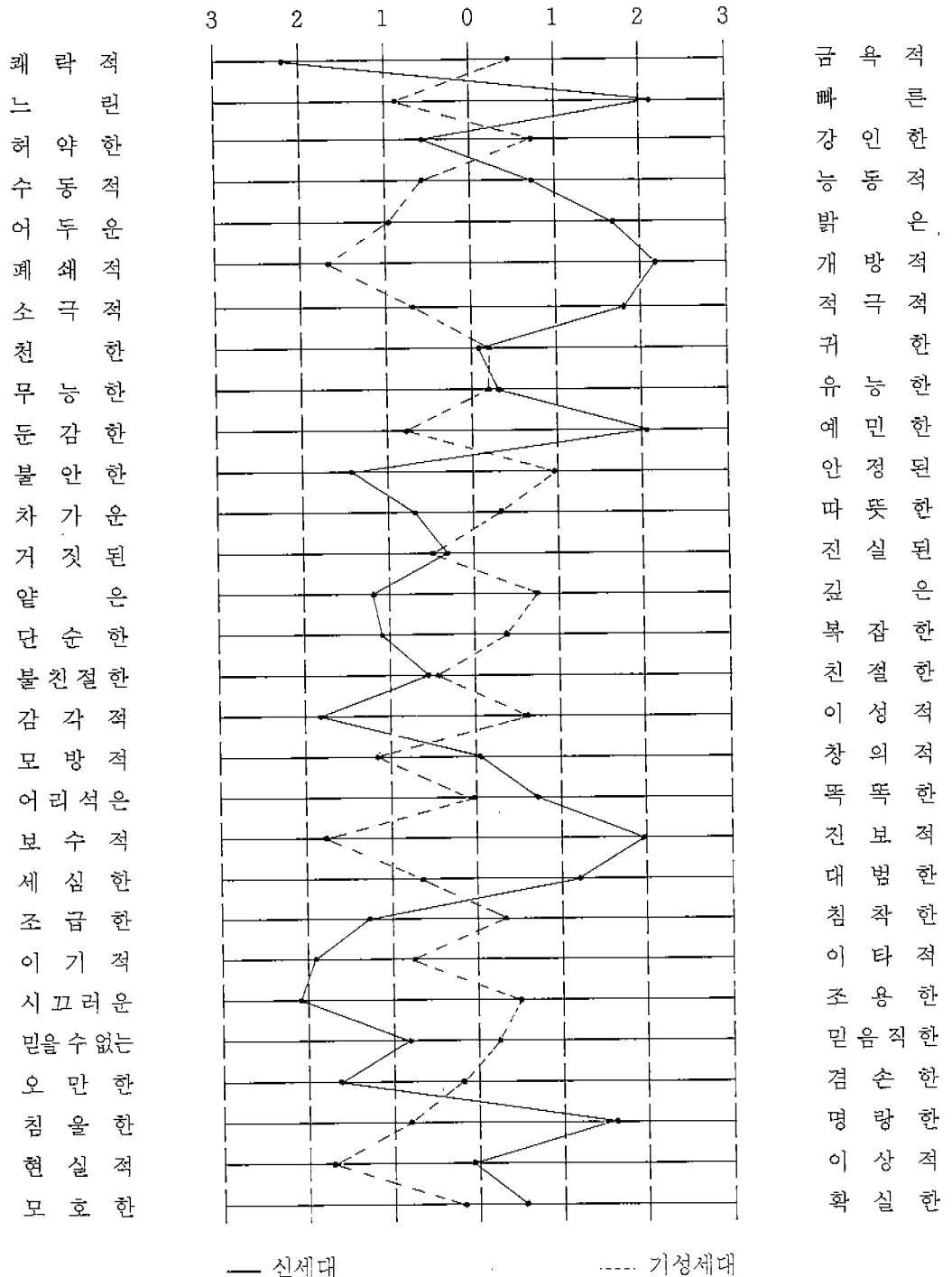
* 신세대 여부에 무응답한 2명을 포함한 수치임

6.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이미지 비교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우리사회의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금욕적이고 강인하여 안정되고 이성적인 반면, 폐쇄적, 보수적, 현실적이며 약간은 어둡고 침울하며 둔감하고 느린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본 신세대는 아주 빠르고 개방적이며 예민하고 진보적이고 밝고 명랑하며, 능동적, 적극적이고 대범한 반면, 매우 쾌락적이고 시끄러우며 또한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감각적이고 조급하며 불안한 이미지로 투영되었다.

〈표 18〉 설문 응답 청소년 전체에 의한 기성세대와 신세대 이미지 비교



V. 결론 : 신세대적 특성과 사회적 과제

1. 조사결과 요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다소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와 독립지향적인 가치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주장을 눈치보지 않고 하거나 자신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개방정도에 있어서는 연애와 결혼의 분리, 자식이 있더라도 의미없는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등의 자유화된 성향을 지니면서도 순결과 동정을 유지해야 하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극단적인 성의 자유화 경향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의식은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기초한 것이지만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개방적이거나 자유로운 성을 지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타인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구시대의 성의식을 거부하고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사회적 관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덕적 성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김경훈, 1994 : 149)에 다소는 자기모순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이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향락적인 상업주의를 적당히 성인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성의식이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행동까지 개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목표나 생활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봉사, 명예, 지위 등의 추구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취미에 따라 개성껏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용돈을 자신이 벌어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독립지향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타인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한편,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철저한 프로정신을 추구하고 선호하고 있다. 직장이나 일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경제적 보수보다는 자유롭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일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은 참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어, 기성세대의 우려와는 달

리 비교적 건강한 직업관과 노동관을 지니고 있다.

설문대상 청소년들 중에서 자신을 신세대라고 평가하는 집단과 아닌 집단간에는 행동양식이나 문화, 가치 등 여러 부문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신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고 인쇄매체보다는 영상매체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과 기호에 맞는 소비성향이나 즉흥적 구매와 같은 소비행태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신세대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며, 소비행태에 있어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종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선호 경향도 높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자아의식과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생활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삶의 목표나 방식에서도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와 문화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특히 신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청소년들은 강한 자기표현 욕구를 갖고 소비행태에서 더 빠른 수용력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세대적 특성이란 산업화와 정보화 등 일련의 사회변화에 대해 자기표현과 소비행태 등을 중심으로 빠른 적응과 수용을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청년 내지는 청소년집단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세대는 일반적인 평가에 비해 건전한 직업관과 노동관을 갖고 있으며, 일에 대한 철저한 프로정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등 기성세대의 우려에 비해 긍정적인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2. 신세대론의 함의

지금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일찌기 누리지 못했던 경제성장, 민주화 물결, 반외세적 우리 문화에의 집착과 개방적인 세계화의 공존, 자신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강한 자신감 등이 한 데 얹혀진 가운데 신세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과 가장 근접한 청년세대들에서 비

롯된 복잡자율화와 같은 외형적인 개성의 용납과 같은 과거에 비해 다소의 열린 공간에도 불구하고, 외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개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지선다형 제도교육의 벽은 이들에게 진정한 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들에게 역으로 ‘반권위주의적인 개성’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인간교육의 기치 아래 현실적으로는 입시와 경쟁의 가치가 지배하는 모순적인 교육제도하에서 사춘기를 보내고 그 결과 반권위주의적 개성에 대신 폭발적 욕구를 지니게 된 오늘날의 신세대, 이 사회의 어디에서도 개성과 창조성을 실현할 장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는 신세대의 존재야 말로 우리사회 개혁의 진정한 필요를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 진정한 에너지를 제공해줄 원동력(정성호, 1994 : 104~109)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세대 출현은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한국사회가 획일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분명 한국사회는 현재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존중과 같은 장점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핵가족화된 부부중심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인성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존중은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온정성보다는 합리성을 강조하게 되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구성원들은 온정성보다는 합리성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합리적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동일시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합리성의 기준인 ‘이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옥순, 1994 : 43~44 참조). 청소년들이 집단보다는 개인주의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매도하기 전에 생활의 ‘기본 이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이기주의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신세대의 특성은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에 근거하

고 있는 특성이며,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신세대들 사이에서 표출된다는 것이 그렇게 돌연변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에 대해 것에 우리사회 전반이 이처럼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가 다양한 가치관을 선호하는 새로운 세대와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문화충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옥순, 1994 : 44~45). 신세대적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신세대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기성세대들이 하루 빨리 문화충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기성세대들이 문화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의 여러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적 충격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컴퓨터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이제 비로서 문화적 충격에서 벗어나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상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이용법 지도 수준에 그쳐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인 정보화사회의 건전한 정보공유자로서의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해 바람직한 정보망 이용 윤리에 대한 교육, 건전한 가치관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창의적으로 정보화 관련기기를 이용하면서도 공동체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주체적 이용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사회변화에 대해 기성세대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신세대적 특성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성세대가 염려하는 신세대적 특성이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시대에는 경쟁력의 근본이 될 확률이 높다. 그들은 인내심은 부족하지만 창의적이다. 니체를 몰라도 컴퓨터를

가지고 놀 정도로 전자매체에 익숙하다. 지사적인 의협심은 없어도 직업에 몰두하는 전문성은 높이 평가한다(남재일, 1994 : 51). 한마디로 신세대들이 의미있게 수용하는 기호가치는 우리사회가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감각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기성세대들에게 신세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당성을 부여해 이들의 특성을 국제화사회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적인 생산력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어느 나라도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문화의 교섭 등 여러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거대한 국제 기업들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취급하여 국경의 제한없이 모든 나라를 넘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매스 미디어와 통신수단도 역시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할 정도로 한 지역의 유행이나 대중가요를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청소년들도 뉴욕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는 세계가 되었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히트송이 며칠 가지 않아 한국의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구에는 이제 하나의 마을이다”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다(김신일, 1992 : 7~8). 그러므로 각종 장벽이 허물어지는 국제사회 재편의 조류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거대한 역학을 배경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업주의적 감각문화와 소비문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력을 기르는 일이 청소년문화 대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문화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신세대들의 잠재의식이나 욕망의 표현에 대해 기성세대가 이를 무시하거나 백안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문화적 변화의 추세로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세대들이 보여주는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이 단순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문화가 오랫동안 배태시켜온 결과이며, 파향적인 정치·사회사가 빚은 산물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개성과 잠재력을 복돋우줄 수 있을 때 신세대론으로 표출된 우리사회의 세대간 충돌현상이 세대의 단절이 아니라 발전적 계승으로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3. 미래사회의 주역 양성을 위하여

우리사회는 정보화로 상징되는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는 그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한다. 산업사회는 삶의 물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나 산업수준이 일정수준에 올라 산업발달의 성과물이 인구 중 상당 부분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더이상 삶의 '양적인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삶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삶의 양식의 변화는 보다 인간적인 대우, 과거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또한 국가간에는 상호교류와 이해증진이 추구되면서 모순과 대립보다는 조화와 합일의 논리가 보편화되는 국제화사회의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도 남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차별화되는 삶, '나' 중심의 인간관계, 자립적인 태도, 예측불허의 태도,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대한 허용, 지역단위로 개별화되고 응집된 활동 등의 특징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다변화와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역시 보다 다양한 양태를 띠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선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회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21세기 이후의 미래사회는 정보와 첨단산업 등 과학수준이 곧 국력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서 대두된다. 즉, 근시안적인 개발전략만으로는 장기적인 발전에 뒤처지게 될 뿐이며, 오히려 인류전체에 중대한 위협만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궁극적인 발전전략은 곧 미래사회를 운영할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손가

락 끝으로 전세계의 엄청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되어가며 다원화·다변화되는 정보
화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우수한 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미래사회'를 주체적으로
형성하고 활동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을 적극적
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접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은 과연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충분한 문화공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업주
의의 유혹이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을 감싸고 있다. 기존의 교육제도하에서는 청소
년들이 다양한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학교라는 울타리를 가
진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근로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열악한 조건하에서 생활
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은 거주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많은 청소년들은 문화적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보다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개선해가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의 여러 상업적 신세대 논의에서 지적된
청소년들의 감각적인 특성보다는 오히려 사회변화 수용에 대한 의지(부록 표 VIII-1
~ VIII-7 참조)와 국제화·개방화 사회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사고와 태도(부록 표
VII-1 ~ VII-8 참조),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 자세, 개성을 소중히 생
각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며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철저한 '프로 정
신' 추구(부록 표 IV-2-① 참조) 등이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들의 신세대적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점차 구체화될 미래 정보화 시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며 선도적으로 국제사회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세대적 특성들을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계
발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며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제공해준
다면 그 잠재력들은 우리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구(1994), “신세대론”,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길섭(1994), “신세대 담론 과잉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 은폐시켜”, 『전망』 4월호, 통권 88호 (서울 : 대륙문제연구소).
- 김경훈 편저(1994), 『한국인 트렌드』 (서울 : 실록출판사).
- 김상중(1994), “부정과 차별, 변화의 X세대”,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신일(1992), “청소년문화의 의미와 성격”, 『청소년문화론』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 김신일·강대근(1983), “한국의 청년과 청년문화에 관한 연구 경향”, 『청년연구』, 제6집 (서울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3).
- 김옥순(1994),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남재일(1994), “신세대, 그 유령의 실체는 ?”,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1994), “신세대의 경향성에 대한 재음미”, 『새교육』, 통권 475호 (서울 : 한국교육신문사).
- 이종원(1994), “신세대 미래관 건강하고 활력 넘쳐 희망적”, 『전망』 8월호, 통권 88호 (서울 : 대륙문제연구소).
- 이증한(1994), “신세대와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위상”,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광진(1994), “신세대와 새로운 전자놀이문화”,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근원(1993),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 『시사저널』, 1993. 4.15.
- 정성호(1994), “사회 변혁 주체로서의 신세대”, 『새교육』, 통권 475호 (서울 : 한국교육신문사, 1994. 5).
- 한준상(1994), “X세대와 청소년”, 『국제화와 지방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 연구자료 94-2(원주 :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1994).
- 千石保(1993), “일본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日本の若者)”, 『청소년 가치관 변화의 국제동향』,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 丁 謙(1993), “중국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中國的青年一代)”, 『청소년 가치관 변화의 국제동향』,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부 록〉

□ 설 문 지

□ 통계자료

1. 표본의 특성 [부록 표 I-1]~[부록 표 I-6]

- 1) 표본의 특성
- 2) 표본의 신세대 여부에 따른 특성
- 3) 인생의 목표
- 4) 장래에 원하는 생활방식
- 5) 주요 정보원
- 6) 주요 소비원

2. 자아의식 [부록 표 II-1-①]~[부록 표 II-3-④]

- 1) 자기과시성
- 2) 독립지향성
- 3) 현재지향성

3. 성의식 [부록 표 III-1-①]~[부록 표 III-3-④]

- 1) 성적 개방성
- 2) 남녀평등성
- 3) 연애 및 결혼관

4. 문화의식 [부록 표 IV-1-①]~[부록 표 IV-3-④]

- 1) 외래문화지향성
- 2) 대중문화지향성
- 3) 대중매체지향성

5. 소비의식 [부록 표 V-1-①]~[부록 표 V-3-④]

- 1) 유행지향성
- 2) 유희적 즉흥성
- 3) 소비행동 양상

6. 사회의식 [부록 표 VI-1-①]~[부록 표 VI-3-④]

- 1) 경제적 분배관
- 2) 직업·노동관
- 3) 일반 사회관

7.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적응력 [부록 표 VII-1]~[부록 표 VII-8]

8. 사회변화에 대한 환영정보 [부록 표 VIII-1]~[부록 표 VIII-7]

9. 새로운 서비스·시설물 이용정도 [부록 표 IX-1]~[부록 표 IX-7]

☐ 이미지 파일 비교

[부록 그림 1]~[부록 그림 10]

□ 설 문 지

신세대 특성 연구를 위한 설문

1994년 4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137-130)

Tel. 576-2892, 578-3982~3

아래의 설명을 잘 읽고서 다음의 질문에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를 설명하는 많은 형용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예를 잘 보고서 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빠른”과 “느린”이라는 형용사를 신세대에 대입해 볼 때

신세대가 매우 빠르다고 생각되면

빠른 : $\overset{\vee}{-3-} -2- -1- -0- -1- -2- -3-$ 느린

신세대가 빠르다고 생각되면

빠른 : $-3- -\overset{\vee}{2}- -1- -0- -1- -2- -3-$ 느린

신세대가 약간 빠르다는 느낌이 들면

빠른 : $-3- -2- -\overset{\vee}{1}- -0- -1- -2- -3-$ 느린

신세대가 별 느낌을 안준다면

빠른 : $-3- -2- -1- -\overset{\vee}{0}- -1- -2- -3-$ 느린

신세대가 약간 느리다고 생각되면

빠른 : $-3- -2- -1- -0- -\overset{\vee}{1}- -2- -3-$ 느린

신세대가 느리다고 생각되면

빠른 : $-3- -2- -1- -0- -1- -\overset{\vee}{2}- -3-$ 느린

신세대가 매우 느리다고 생각되면

빠른 : $-3- -2- -1- -0- -1- -2- -\overset{\vee}{3}-$ 느린

과 같이 하나의 숫자 위에 $\vee$ 만 표시해 주십시오.

1. 아래에는 여러 형용사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형용사에 대해 <기성 세대>에 해당하는 느낌(이미지)을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각 형용사에 대해 길게 생각하지 말고 앞장에 예시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판단되는 느낌의 숫자 위에 V표시해 주십시오

기 성 세 대

쾌락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금욕적
빠른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느린
허약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강인한
수동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능동적
어두운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밝은
개방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폐쇄적
적극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소극적
천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귀한
무능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유능한
예민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둔감한
안정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불안한
따뜻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차가운
거짓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진실한
얕은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깊은
단순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복잡한
불친절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친절한
감각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이성적
모방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창의적
똑똑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어리석은
진보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보수적
대범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세심한
침착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조급한
이기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이타적
시끄러운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조용한
믿음직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믿을수없는
오만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겸손한
침울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명랑한
현실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이상적
확실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모호한

2. 앞의 것과 같이 각 형용사에 대해 〈신세대〉에 해당하는 느낌(이미지)을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각 형용사에 대해 길게 생각하지 말고 앞장의 예시처럼 순간적으로 판단되는 느낌의 숫자 위에 V표시해 주십시오

신 세 대

쾌락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금욕적
빠른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느린
허약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강인한
수동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능동적
어두운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밝은
개방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폐쇄적
적극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소극적
천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귀한
무능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유능한
예민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둔감한
안정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불안한
따뜻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차가운
거짓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진실한
얕은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깊은
단순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복잡한
불친절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친절한
감각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이성적
모방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창의적
똑똑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어리석은
진보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보수적
대범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세심한
침착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조급한
이기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이타적
시끄러운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조용한
믿음직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믿을수없는
오만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겸손한
침울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명랑한
현실적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이상적
확실한	: -3 - : -2 - : -1 - : -0 - : -1 - : -2 - : -3 - :	모호한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서 그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매우 일치하면 “매우 그렇다 (1)”, 일치하면 “그렇다 (2)”, 보통이면 “그저 그렇다 (3)”, 별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4)”, 전혀 일치하지 않으면 “매우 그렇지 않다 (5)”에 해당하는 숫자위에 V표 해주십시오.

매	우		그	저	그	정	매	우
		그			정			그
그	정		그		정	않	다	않
다			다			다		다

- 1)눈치보지 않고 내 주장을 한다. : —1— : —2— : —3— : —4— : —5—
- 2)충분한 돈이 있다면 구태여 직장
이나 일을 갖지 않겠다. : —1— : —2— : —3— : —4— : —5—
- 3)내 노래를 녹음한 CD나 테이프를
선물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4)외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5)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 —1— : —2— : —3— : —4— : —5—
- 6)길에서 남녀가 포옹하거나 키스를
하는 것은 나쁘다. : —1— : —2— : —3— : —4— : —5—
- 7)대중적인 외국 패션잡지를 정기적
으로 본다. : —1— : —2— : —3— : —4— : —5—
- 8)남들이 나를 주시해주면 좋겠다. : —1— : —2— : —3— : —4— : —5—
- 9)자식이 있더라도 의미없는 결혼
생활은 지속할 수 없다. : —1— : —2— : —3— : —4— : —5—
- 10)일본만화나 비디오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11)TV나 라디오 공개 프로그램에 : —1— : —2— : —3— : —4— : —5—
나가고 싶다.
- 12)계획은 잘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게 낫다. : —1— : —2— : —3— : —4— : —5—
- 13)데이트를 할 때 돈은 남녀가 : —1— : —2— : —3— : —4— : —5—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
- 14)자신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15)과감하게 원하는대로 표현한다. : —1— : —2— : —3— : —4— : —5—

매 우 그 저 그렇지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 다 않 다

- 16)아내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기 일을 포기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7)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 : 1 : 2 : 3 : 4 : 5 :
- 18)우리 사회는 권력이나 돈으로
안되는 것이 없다. : 1 : 2 : 3 : 4 : 5 :
- 19)나중의 성공을 위해 지금의
어려움은 참아야 한다. : 1 : 2 : 3 : 4 : 5 :
- 20)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회적
성관계가 가능하다. : 1 : 2 : 3 : 4 : 5 :
- 21)유행하는 머리모양으로 손질하고
외출한다. : 1 : 2 : 3 : 4 : 5 :
- 22)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싶다. : 1 : 2 : 3 : 4 : 5 :
- 23)시장이 개방되어도 우리 사회는
충분히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4)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다르다. : 1 : 2 : 3 : 4 : 5 :
- 25)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좋다. : 1 : 2 : 3 : 4 : 5 :
- 26)현실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다. : 1 : 2 : 3 : 4 : 5 :
- 27)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만든 작품이
좋다. : 1 : 2 : 3 : 4 : 5 :
- 28)음식 맛에 상관없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친구들과 만난다. : 1 : 2 : 3 : 4 : 5 :
- 29)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진로를
정한다. : 1 : 2 : 3 : 4 : 5 :
- 30)랩이나 레게 음악이 좋다. : 1 : 2 : 3 : 4 : 5 :

매 우	그 령	그 령	매 우
그 령	다	다	그 령
그 령	다	않 다	않 다

- 31) 국악을 듣거나 국악기를 다루고
 싶다. : 1 : 2 : 3 : 4 : 5 :
- 32) 분위기가 좋은 가게를 보면
 무엇인가 사고 싶다. : 1 : 2 : 3 : 4 : 5 :
- 33) 고되고 바빠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일이 좋다. : 1 : 2 : 3 : 4 : 5 :
- 34)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쓰고 싶다. : 1 : 2 : 3 : 4 : 5 :
- 35) 친구들과 성적인 농담을 하면
 부끄럽다. : 1 : 2 : 3 : 4 : 5 :
- 36)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37) 색시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 1 : 2 : 3 : 4 : 5 :
- 38) 이미 갖고 있는 것일지라도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면 산다. : 1 : 2 : 3 : 4 : 5 :
- 39) 남이 돈을 어떻게 쓰면 상관할
 바 아니다. : 1 : 2 : 3 : 4 : 5 :
- 40) 컴퓨터 통신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싶다. : 1 : 2 : 3 : 4 : 5 :
- 41) 남들이 즐겨 보는 영화나 잡지는
 대부분 보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42) 어떤 일을 맡겨도 남들만큼 할
 자신이 있다. : 1 : 2 : 3 : 4 : 5 :
- 43) 퇴근시간이 되면 일이 남아있어도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 1 : 2 : 3 : 4 : 5 :
- 44) 다른 사람의 충고나 간섭이 싫다. : 1 : 2 : 3 : 4 : 5 :
- 45) 내가 입고 있는 스타일의 옷을
 거리에서 많이 보게 된다. : 1 : 2 : 3 : 4 : 5 :

매 우 그 저 그렇지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 다 않 다

- 46)보수가 높은 직장보다 여유있고
자유로운 직장이 좋다. : 1 : 2 : 3 : 4 : 5 :
- 47)책보다는 만화나 영화보는
것이 좋다. : 1 : 2 : 3 : 4 : 5 :
- 48)라디오 청취나 TV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49)길을 가다 멋있는 것을 보면
계획에 없더라도 산다. : 1 : 2 : 3 : 4 : 5 :
- 50)순결이나 동정은 유지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51)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어도 상관없다. : 1 : 2 : 3 : 4 : 5 :
- 52)방송국에 염서를 보내어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 53)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키스를
해도 괜찮다. : 1 : 2 : 3 : 4 : 5 :
- 54)되도록이면 유명브랜드 상품을 산다. : 1 : 2 : 3 : 4 : 5 :
- 55)가난은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1 : 2 : 3 : 4 : 5 :
- 56)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다. : 1 : 2 : 3 : 4 : 5 :
- 57)무선 호출기(일명 삐삐)를 이용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 58)물건을 살 때 상표보다는 독특한
디자인이나 외양을 보고 선택한다. : 1 : 2 : 3 : 4 : 5 :
- 59)친구나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물건의
구매는 삼간다. : 1 : 2 : 3 : 4 : 5 :
- 60)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 1 : 2 : 3 : 4 : 5 :

###. 아래의 질문을 잘 읽고서 1가지를 택하여 _____에 V표 해주세요.

1. 당신은 자신이 신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_____ 3) 잘모르겠다

2.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며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당신의 인생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인지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__ 1)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 _____ 2)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
- _____ 3) 어느 정도의 권력을 얻는 것
- _____ 4)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며 개성껏 사는 것
- _____ 5)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 _____ 6) 기타 _____

3. 장래의 생활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항목 중 무엇인지를 한가지만 지적하여 주십시오.

- _____ 1) 위험부담이 없이 한가롭고 마음편한 생활
- _____ 2)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
- _____ 3) 자신의 취미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생활
- _____ 4)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생활
- _____ 5)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
- _____ 6) 사회적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생활
- _____ 7) 기타 _____

4.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서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과 매우 일치하면 “매우 그렇다”, 일치하면 “그렇다”, 보통이면 “그저 그렇다”, 별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전혀 일치하지 않으면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응답해 주십시오.

매 우 그 저 그렇지 매 우
 그렇다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않 다 않 다

- 1)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한다. : _1_ : _2_ : _3_ : _4_ : _5_
- 2) 대부분의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_1_ : _2_ : _3_ : _4_ : _5_
- 3) 창의적인 구상이나 제안을 잘 하는 편이다. : _1_ : _2_ : _3_ : _4_ : _5_
- 4) 외국문화를 이해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추려 한다. : _1_ : _2_ : _3_ : _4_ : _5_
- 5)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 한다. : _1_ : _2_ : _3_ : _4_ : _5_
- 6) 타인의 입장이나 생각을 충분히 존중한다. : _1_ : _2_ : _3_ : _4_ : _5_
- 7) 상황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편이다. : _1_ : _2_ : _3_ : _4_ : _5_
- 8) 우리 민족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 _1_ : _2_ : _3_ : _4_ : _5_

5. 당신은 다음 항목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환영하는지 아니면 싫은지, 혹은 무관심한지 각각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환영함 환영않함 무관심함

- 1) 돈의 가치가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된다. : _1_ : _2_ : _3_
- 2)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 _1_ : _2_ : _3_
- 3) 민족문화 고유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 : _1_ : _2_ : _3_
- 4) 놀이나 여가문화가 점점 중요하게 생각된다. : _1_ : _2_ : _3_
- 5) 세계화됨에 따라 민족과 국가간에 경제가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 _1_ : _2_ : _3_
- 6) 개방화 추세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 유입이 확대될 것이다. : _1_ : _2_ : _3_
- 7) 개인의 생각과 가치가 우선하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중요해진다. : _1_ : _2_ : _3_

6. 당신이 사회동향 등 주요정보와 옷을 사는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매체를 순서대로 두가지만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주요정보〉……(,) 〈소비생활정보〉……(,)

〈보 기〉

- 1)TV광고, 2)TV드라마 쇼, 3)일간신문, 4)스포츠류의 신문
5)TV뉴스나 교양물, 6)라디오, 7)부모, 8)형제자매
9)선생님, 10)친구, 11)국내잡지, 12)외국잡지

7. 다음의 장소나 시설물 또는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했거나 있으면 “있다”에, 없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없다”에 V표시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1) 음성정보 서비스(700국번 전화)	()	()
2) 락 카페	()	()
3) 삐삐(이동 호출기)보유	()	()
4) 해외연수 및 여행	()	()
5) 전화사서함	()	()
6) 연예인 팬클럽가입	()	()
7) PC통신	()	()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_____에 V표 하시거나, _____에 적어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2. 당신은 현재 어느 학교 몇 학년입니까?

_____ 1) 고등학교 _____ 1) 1학년

_____ 2) 전문대학 _____ 2) 2학년

_____ 3) 대학교 _____ 3) 3학년

_____ 4) 4학년

3. 당신의 나이는? 만 _____ 살

4.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가정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아주 잘사는 편이다

_____ 2) 비교적 잘사는 편이다

_____ 3) 중간 정도이다

_____ 4) 비교적 못사는 편이다

_____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5. 당신이 한달 동안의 사용하는 용돈은 얼마인가?

___ 1) 5천원 미만

___ 2) 5천원 이상~1만원 미만

___ 3)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___ 4)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___ 5)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___ 6) 10만원이상

6. 당신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예 : 국민학교 선생님, 자동차 대리점 사장 등)

7.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통계자료

1. 표본의 특성

[부록 표 I -1]

표본의 특성

	남 자	여 자	무 응 답	사 례 수
전 체	50.6%	49.3%	0.1%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43.1%	56.9%	0.0%	432
신 세 대 아 님	57.7%	42.3%	0.0%	227
잘 모 르 겠 음	54.2%	45.4%	0.4%	445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49.9%	50.1%	0.0%	593
대 학 교	51.1%	48.7%	0.2%	505
생 활 수 준 별				
상	46.0%	54.0%	0.0%	248
중	50.2%	49.7%	0.1%	759
하	63.7%	36.3%	0.0%	102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51.2%	48.8%	0.0%	537
5만원~10만원	49.6%	50.4%	0.0%	135
10만원 이상	50.2%	49.5%	0.2%	434

[부록 표 I -2]

표본의 신세대 여부에 따른 특성

		신 세 대 여 부				사 례 수	통 계 치
		신세대임	신세대아님	잘모르겠음	무응답		
전	체	39.2%	20.3%	40.1%	0.4%	1,110	
성 남 여	별						
	자 자	33.5%	23.3%	42.9%	0.4%	562	$\chi^2=16.91$
		45.3%	17.5%	36.9%	0.4%	548	$p = 0.00$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48.7%	12.0%	39.0%	0.3%	593	$\chi^2=72.76$
		28.7%	30.3%	40.6%	0.4%	505	$p = 0.00$
생 활 수 준 별							
	상	50.8%	18.1%	30.2%	0.8%	248	$\chi^2=27.79$
		37.4%	20.4%	41.9%	0.3%	759	$p = 0.00$
	하	24.5%	26.5%	49.0%	0.0%	102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46.0%	13.4%	40.4%	0.2%	537	$\chi^2=48.16$
		43.7%	20.0%	35.6%	0.7%	135	$p = 0.00$
	10만원 이상	29.5%	29.0%	41.0%	0.5%	434	

[부록 표 I-3]

인생의 목표

		경제적인 필요	사회적 명예와 지혜	권력을 얻는것	개성껏 사는것	사회봉사 하는것	기 타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6.2%	10.4%	2.7%	57.5%	6.2%	6.5%	0.5%	1,110	
신	세 대 여 부	16.1%	8.3%	2.8%	63.8%	4.1%	5.0%	0.0%	432	$\chi^2=30.54$
신	세 대 아 님	14.1%	12.3%	3.5%	48.9%	11.5%	8.8%	0.9%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17.1%	11.2%	2.5%	56.2%	5.6%	7.0%	0.4%	445	
성	남 자	18.0%	10.1%	3.2%	52.8%	7.7%	7.7%	0.5%	562	$\chi^2=12.89$
남	여 자	14.2%	10.6%	2.6%	62.0%	4.7%	5.5%	0.4%	548	$p = 0.04$
학	교 등 급	20.6%	9.6%	3.5%	54.5%	4.6%	7.3%	0.0%	593	$\chi^2=32.25$
고	대 학 교	11.1%	11.5%	2.0%	60.4%	8.1%	5.9%	1.0%	505	$p = 0.00$
생	활 수 준	13.3%	11.3%	3.6%	61.7%	4.8%	5.2%	0.0%	248	$\chi^2=15.33$
	상 중 하	16.9%	9.5%	2.8%	57.0%	6.5%	7.0%	0.4%	759	$p = 0.22$
	하	17.6%	13.7%	1.0%	51.0%	7.8%	6.9%	2.0%	102	
용	돈 별	20.7%	10.4%	3.7%	52.1%	5.6%	7.4%	0.0%	537	$\chi^2=32.74$
5 만 원 이 하		12.6%	8.9%	1.5%	65.2%	6.7%	5.2%	0.0%	135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11.8%	10.8%	1.8%	61.8%	6.9%	5.8%	1.2%	434	

[부록 표 I-4]

장래에 원하는 생활방식

		한가롭고 편안한 생활	행복하고 단란한 생활	취미와 개성을 살릴수 있는생활	사회를 위해 공헌할수 있는생활	경제적 으로 부유한 생활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생활	기 타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1.2%	26.5%	41.9%	7.1%	6.8%	5.1%	1.2%	0.3%	1,110	
신	세 대 여 부	9.4%	21.3%	48.6%	6.0%	9.9%	4.1%	0.7%	0.0%	432	$\chi^2=45.05$
신	세 대 아 님	10.6%	29.1%	37.4%	10.1%	3.5%	6.6%	1.8%	0.9%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13.5%	30.6%	37.5%	6.5%	5.4%	5.2%	1.3%	0.0%	445	
성	남 자	10.7%	35.2%	33.8%	8.2%	5.5%	5.2%	1.1%	0.4%	562	$\chi^2=55.80$
남	여 자	11.9%	17.5%	50.2%	6.0%	8.0%	4.9%	1.3%	0.2%	548	$p = 0.00$
학	교 등 급	12.1%	29.5%	39.8%	4.9%	9.4%	3.2%	1.0%	0.0%	593	$\chi^2=42.11$
고	대 학 교	10.1%	23.2%	44.2%	9.9%	3.6%	7.1%	1.4%	0.6%	505	$p = 0.00$
생	활 수 준	10.5%	25.8%	47.6%	6.5%	5.2%	4.0%	0.4%	0.0%	248	$\chi^2=10.56$
	상 중 하	11.5%	26.6%	40.7%	7.1%	7.4%	5.0%	1.3%	0.4%	759	$p = 0.71$
	하	11.8%	27.5%	36.3%	8.8%	5.9%	7.8%	2.0%	0.0%	102	
용	돈 별	11.7%	30.4%	38.7%	5.2%	8.8%	3.9%	1.3%	0.0%	537	$\chi^2=29.72$
5 만 원 이 하		11.9%	20.7%	46.7%	7.4%	6.7%	5.9%	0.7%	0.0%	135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10.4%	23.5%	44.2%	9.4%	4.4%	6.2%	1.2%	0.7%	434	

[부록 표 I - 5]

주요정보원

		TV광고	TV드라마 쇼	일 간 신 문	스포츠 신 문	TV뉴스 교양물	라디오	부 모
전	체	28.1%	7.4%	41.0%	2.6%	52.9%	10.7%	3.9%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31.4%	10.3%	32.1%	3.4%	50.0%	13.5%	4.1%
신 세 대 아 님		25.6%	5.3%	53.3%	1.3%	53.7%	8.4%	3.5%
잘 모 르 겠 음		27.0%	5.6%	43.1%	2.5%	54.4%	8.8%	3.8%
성	별							
남	자	29.4%	5.9%	48.0%	2.8%	49.5%	8.0%	2.5%
여	자	27.2%	8.9%	33.6%	2.4%	56.2%	13.0%	5.3%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32.5%	10.3%	32.4%	2.5%	44.4%	12.0%	4.9%
대 학 교		23.2%	4.2%	50.9%	2.8%	62.4%	8.9%	2.8%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31.7%	9.5%	35.8%	2.4%	45.8%	12.3%	4.3%
5만원~10만원		31.9%	9.6%	34.8%	3.7%	50.4%	8.9%	3.0%
10 만 원 이 상		22.6%	4.1%	49.5%	2.5%	62.4%	9.2%	3.7%

(계속)

		형 제 자	제 매	선 생 님	친 구	국 내 외 국 잡	무 응 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5.6%	3.4%	31.2%	7.7%	2.3%	3.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5.5%	3.2%	31.7%	7.8%	3.9%	3.0%	432	$\chi^2=53.16$
신 세 대 아 님		4.8%	3.1%	26.9%	7.5%	0.9%	5.7%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6.1%	3.8%	33.3%	7.6%	1.3%	2.7%	445	
성	별								
남	자	5.0%	2.8%	32.6%	9.1%	1.8%	2.7%	562	$\chi^2=41.89$
여	자	6.2%	4.0%	29.9%	6.2%	2.7%	4.0%	548	$p = 0.00$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7.1%	4.9%	35.2%	8.6%	2.9%	2.4%	593	$\chi^2=94.78$
대 학 교		4.0%	1.6%	26.9%	6.3%	1.6%	4.6%	505	$p = 0.00$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6.1%	4.7%	34.1%	8.0%	2.2%	3.2%	537	$\chi^2=65.33$
5만원~10만원		8.9%	5.2%	31.1%	7.4%	3.0%	2.2%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3.9%	1.4%	27.6%	7.4%	2.1%	3.5%	434	

[부록 표 I-6]

소비정보원

		TV광고	TV드라마 쇼	일 간 신 문	스포츠 신 문	TV뉴스 교양물	라디오	부 모
전	체	54.4%	6.7%	16.2%	7.1%	7.1%	3.9%	11.2%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53.4%	8.0%	14.4%	7.6%	7.8%	3.9%	11.5%
신 세 대 아 님		55.9%	4.0%	20.3%	7.9%	8.4%	3.5%	10.6%
잘 모 르 겠 음		54.8%	6.5%	15.7%	6.3%	5.8%	4.0%	11.0%
성 남 여	별							
	자	56.9%	5.2%	19.9%	11.7%	7.5%	3.4%	10.0%
	자	51.8%	8.2%	12.4%	2.4%	6.8%	4.4%	12.6%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48.4%	7.1%	13.5%	5.7%	6.6%	5.2%	14.8%
대 학 교		61.6%	6.1%	18.8%	8.5%	7.1%	2.4%	7.3%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48.2%	6.7%	15.5%	6.1%	6.7%	5.4%	15.1%
5만 원~10만원		53.3%	4.4%	12.6%	8.1%	9.6%	5.9%	7.4%
10 만 원 이 상		62.4%	7.4%	18.2%	8.1%	6.9%	1.4%	7.6%

(계속)

		형 제 자 매	선생님	친 구	국 내 잡 지	외 국 잡 지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1.1%	0.5%	55.6%	18.1%	3.1%	5.0%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7.8%	0.2%	54.1%	23.4%	3.7%	4.1%	432	$\chi^2=42.74$
신 세 대 아 님		11.9%	0.4%	50.7%	14.1%	2.6%	9.7%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13.9%	0.7%	59.1%	15.1%	2.7%	4.3%	445	
성 남 여	별								
	자	9.6%	0.5%	52.5%	14.9%	2.1%	5.7%	562	$\chi^2=66.17$
	자	12.6%	0.4%	58.6%	21.4%	4.0%	4.6%	548	p = 0.00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12.3%	0.5%	59.4%	19.4%	3.7%	3.4%	593	$\chi^2=252.90$
대 학 교		9.7%	0.4%	51.5%	17.0%	2.2%	7.3%	505	p = 0.00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11.9%	0.6%	58.8%	17.9%	3.0%	4.1%	537	$\chi^2=48.20$
5만 원~10만원		12.6%	0.0%	54.8%	21.5%	3.0%	6.7%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9.7%	0.5%	51.8%	17.3%	3.2%	5.5%	434	

2. 자아의식

[부록 표 II-1-①] 눈치보지 않고 내주장을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신 세대 여부	7.8%	35.4%	40.4%	14.8%	1.5%	1,110	
신세대 임	10.1%	40.6%	39.4%	8.5%	1.4%	432	$\chi^2=40.81$
신세대 아님	8.8%	33.0%	35.2%	22.0%	0.9%	227	p = 0.00
잘 모르겠음	4.9%	31.0%	44.0%	18.0%	2.0%	445	
성남 여자	7.8%	34.2%	39.9%	16.4%	1.8%	562	$\chi^2= 2.60$
여학생	7.7%	36.9%	40.7%	13.5%	1.3%	548	p = 0.62
고급학 교	7.4%	31.9%	44.0%	14.8%	1.9%	593	$\chi^2= 9.56$
대학 교	7.9%	39.6%	36.2%	15.0%	1.2%	505	p = 0.04
생활 수준	10.9%	34.7%	39.9%	12.9%	1.6%	248	$\chi^2=11.53$
상중하	6.7%	36.0%	41.2%	14.5%	1.6%	759	p = 0.17
하돈	7.8%	33.3%	34.3%	23.5%	1.0%	102	
용돈 이	6.3%	30.5%	46.0%	15.1%	2.0%	537	$\chi^2=24.73$
5만원~10만원	8.9%	43.0%	36.3%	9.6%	2.2%	135	p = 0.00
10만원 이상	9.2%	39.2%	34.8%	16.1%	0.7%	434	

[부록 표 II-1-②] 외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신 세대 여부	10.4%	35.7%	29.3%	17.2%	6.8%	0.6%	1,110	
신세대 대	15.1%	35.6%	28.9%	14.4%	5.5%	0.5%	432	$\chi^2=35.63$
신세대 아님	8.8%	32.2%	30.4%	15.9%	12.3%	0.4%	227	p = 0.00
잘 모르겠음	6.7%	38.0%	29.0%	20.2%	5.2%	0.9%	445	
성남 여자	9.8%	32.0%	30.8%	19.0%	8.0%	0.4%	562	$\chi^2=11.82$
여학생	11.1%	39.4%	27.7%	15.3%	5.5%	0.9%	548	p = 0.03
고급학 교	12.0%	32.9%	30.0%	16.5%	8.1%	0.5%	593	$\chi^2= 8.93$
대학 교	8.9%	38.6%	28.3%	18.0%	5.3%	0.7%	505	p = 0.11
생활 수준	14.1%	40.3%	26.6%	14.9%	4.0%	0.0%	248	$\chi^2=16.02$
상중하	9.5%	34.4%	29.9%	18.3%	7.1%	0.8%	759	p = 0.09
하돈	8.8%	33.3%	31.4%	14.7%	10.8%	1.0%	102	
용돈 이	9.9%	32.4%	29.8%	19.0%	8.4%	0.6%	537	$\chi^2=19.34$
5만원~10만원	17.0%	37.0%	27.4%	11.9%	5.2%	1.5%	135	p = 0.03
10만원 이상	9.0%	39.4%	29.3%	16.6%	5.3%	0.5%	434	

[부록 표 II-1-③] 남들이 나를 주시해주면 좋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7.4%	36.4%	32.2%	11.1%	2.7%	0.2%	1,110	
신	세 대 여 부	25.0%	40.1%	27.5%	5.3%	2.1%	0.0%	432	$\chi^2=64.20$ p = 0.00
신	세 대 아 님	10.1%	30.8%	37.9%	16.7%	4.4%	0.0%	227	
관	모 르 겠 음	13.3%	36.4%	33.5%	13.9%	2.5%	0.4%	445	
성	남 자	14.9%	34.2%	35.1%	12.3%	3.2%	0.4%	562	$\chi^2=13.67$ p = 0.01
남	여 자	19.9%	39.2%	28.8%	9.9%	2.2%	0.0%	548	
학	교 통 급	21.4%	35.8%	30.5%	8.6%	3.5%	0.2%	593	$\chi^2=20.70$ p = 0.00
고	등 학 교	13.1%	37.8%	33.9%	13.3%	1.8%	0.2%	505	
대	학 교								
생	활 수 준	21.4%	41.9%	29.8%	5.2%	1.6%	0.0%	248	$\chi^2=20.69$ p = 0.02
	상 중	15.9%	35.8%	32.5%	12.5%	2.9%	0.3%	759	
	하	18.6%	28.4%	34.3%	14.7%	3.9%	0.0%	102	
용	돈	19.7%	34.6%	31.7%	10.1%	3.7%	0.2%	537	$\chi^2=18.47$ p = 0.04
5 만 원 이	하	20.7%	37.8%	29.6%	8.1%	3.7%	0.0%	135	
5 만 원 ~ 10 만 원	상	13.4%	38.2%	33.6%	13.4%	1.2%	0.2%	434	

[부록 표 II-1-④] 과감하게 원하는데로 표현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1.7%	28.3%	37.4%	19.8%	2.7%	0.1%	1,110	
신	세 대 여 부	16.5%	36.7%	33.5%	11.7%	1.6%	0.0%	432	$\chi^2=70.87$ p = 0.00
신	세 대 아 님	8.8%	19.4%	40.1%	26.4%	4.8%	0.4%	227	
관	모 르 겠 음	8.3%	24.5%	39.6%	24.5%	3.1%	0.0%	445	
성	남 자	11.0%	29.5%	37.9%	18.3%	3.2%	0.0%	562	$\chi^2= 4.42$ p = 0.48
남	여 자	12.4%	26.8%	36.7%	21.5%	2.4%	0.2%	548	
학	교 통 급	14.2%	28.5%	35.4%	18.4%	3.5%	0.0%	593	$\chi^2=12.90$ p = 0.02
고	등 학 교	8.7%	28.3%	39.4%	21.4%	2.0%	0.2%	505	
대	학 교								
생	활 수 준	17.7%	29.8%	32.3%	17.3%	2.8%	0.0%	248	$\chi^2=22.72$ p = 0.01
	상 중	10.1%	28.5%	38.9%	20.3%	2.1%	0.1%	759	
	하	8.8%	23.5%	37.3%	23.5%	6.9%	0.0%	102	
용	돈	11.0%	28.1%	37.4%	20.1%	3.4%	0.0%	537	$\chi^2=17.91$ p = 0.05
5 만 원 이	하	20.0%	26.7%	36.3%	13.3%	3.7%	0.0%	135	
5 만 원 ~ 10 만 원	상	9.9%	29.0%	37.8%	21.4%	1.6%	0.2%	434	

[부록 표 II-2-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사는 것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1.4%	25.0%	27.4%	22.6%	13.0%	0.5%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14.9%	26.8%	26.6%	17.0%	14.0%	0.7%	432	$\chi^2=35.75$
신	세 대 아 님	10.1%	16.7%	27.3%	29.1%	16.7%	0.0%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8.3%	28.1%	28.1%	24.7%	10.1%	0.7%	445	
성	남 자	10.9%	25.8%	25.8%	23.8%	13.2%	0.5%	562	$\chi^2= 1.91$
여	녀 자	11.9%	24.6%	28.6%	21.5%	12.8%	0.5%	548	$p = 0.86$
학	고 등 학 교	12.8%	24.3%	24.8%	20.9%	16.2%	1.0%	593	$\chi^2=23.07$
고	대 학 교	9.7%	26.5%	30.5%	24.2%	9.1%	0.0%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11.7%	25.0%	27.8%	22.6%	12.9%	0.0%	248	$\chi^2= 4.89$
	중	11.6%	24.4%	27.7%	22.8%	12.9%	0.7%	759	$p = 0.89$
	하	8.8%	31.4%	23.5%	22.5%	12.7%	1.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10.1%	22.7%	26.8%	22.2%	17.1%	1.1%	537	$\chi^2=34.69$
5만 원 ~ 10만 원	상	19.3%	27.4%	22.2%	25.2%	5.9%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10.6%	27.2%	29.7%	22.4%	10.1%	0.0%	434	

[부록 표 II-2-②]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진로를 정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1.5%	26.9%	21.3%	33.3%	6.9%	0.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14.2%	28.9%	19.3%	30.7%	6.4%	0.5%	432	$\chi^2=21.55$
신	세 대 아 님	10.6%	30.0%	15.9%	36.1%	7.5%	0.0%	227	$p = 0.01$
잘	모 르 겠 음	9.9%	23.1%	26.3%	33.7%	7.0%	0.0%	445	
성	남 자	12.8%	25.8%	21.9%	31.9%	7.5%	0.2%	562	$\chi^2= 3.37$
여	녀 자	10.6%	27.9%	20.6%	34.7%	6.0%	0.2%	548	$p = 0.64$
학	고 등 학 교	14.0%	22.3%	22.1%	31.7%	9.6%	0.3%	593	$\chi^2=33.12$
고	대 학 교	9.1%	32.3%	20.4%	34.7%	3.6%	0.0%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10.9%	29.4%	22.2%	32.3%	4.8%	0.4%	248	$\chi^2= 5.24$
	중	12.0%	25.6%	21.5%	33.5%	7.4%	0.1%	759	$p = 0.87$
	하	11.8%	29.4%	17.6%	33.3%	7.8%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11.5%	22.2%	22.3%	33.5%	10.1%	0.4%	537	$\chi^2=35.87$
5만 원 ~ 10만 원	상	17.8%	33.3%	17.0%	30.4%	1.5%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9.4%	30.6%	21.4%	33.9%	4.6%	0.0%	434	

[부록 표 II-2-③]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고 싶다

		매 그렇다	우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 않 그렇지 않다	매우 그 않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9.5%	41.7%	19.0%	7.5%	2.1%	0.3%	1,110	
신	세 대 여 부	33.3%	38.3%	18.6%	7.1%	2.5%	0.2%	432	$\chi^2=15.57$
신	세 대 대 임	28.6%	47.1%	18.1%	4.0%	2.2%	0.0%	227	$p = 0.61$
신	세 대 아 님	26.3%	42.5%	19.6%	9.7%	1.6%	0.4%	445	
성	별 자	30.6%	43.6%	15.7%	7.7%	2.1%	0.4%	562	$\chi^2= 8.15$
남	자	28.3%	40.0%	22.3%	7.3%	2.0%	0.2%	548	$p = 0.14$
여	교 등 급 학	30.0%	33.6%	22.4%	10.6%	3.2%	0.2%	593	$\chi^2=52.62$
학	교	28.9%	51.1%	14.9%	4.0%	0.8%	0.4%	505	$p = 0.00$
고	수 준								
대	상	29.4%	35.9%	23.0%	7.7%	4.0%	0.0%	248	$\chi^2=15.08$
생	중	29.4%	43.1%	18.3%	7.2%	1.6%	0.4%	759	$p = 0.12$
활	하	31.4%	46.1%	12.7%	8.8%	1.0%	0.0%	102	
용	돈								
5	원 이	28.1%	35.6%	22.7%	10.8%	2.6%	0.2%	537	$\chi^2=48.04$
만	~10만	30.4%	45.9%	12.6%	5.9%	3.7%	1.5%	135	$p = 0.00$
10	원 이	30.9%	47.9%	16.4%	3.9%	0.9%	0.0%	434	

[부록 표 II-2-④]

다른 사람의 충고나 간섭이 싫다

		매 그렇다	우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 않 그렇지 않다	매우 그 않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7.4%	31.3%	23.9%	23.3%	4.1%	0.1%	1,110	
신	세 대 여 부	22.5%	30.0%	22.5%	20.0%	5.0%	0.0%	432	$\chi^2=23.64$
신	세 대 대 임	13.2%	28.6%	26.9%	26.0%	5.3%	0.0%	227	$p = 0.00$
신	세 대 아 님	14.4%	33.9%	23.8%	25.2%	2.5%	0.2%	445	
성	별 자	18.9%	32.4%	21.5%	22.8%	4.3%	0.2%	562	$\chi^2= 5.75$
남	자	15.9%	30.1%	26.3%	23.9%	3.8%	0.0%	548	$p = 0.33$
여	교 등 급 학	21.2%	26.8%	24.1%	22.8%	4.9%	0.2%	593	$\chi^2=23.09$
학	교	13.1%	36.6%	23.4%	24.2%	2.8%	0.0%	505	$p = 0.00$
고	수 준								
대	상	21.4%	31.9%	20.6%	23.0%	3.2%	0.0%	248	$\chi^2=12.81$
생	중	16.6%	32.1%	24.6%	22.1%	4.3%	0.1%	759	$p = 0.23$
활	하	13.7%	23.5%	25.5%	33.3%	3.9%	0.0%	102	
용	돈								
5	원 이	19.2%	26.8%	25.1%	24.0%	4.7%	0.2%	537	$\chi^2=37.32$
만	~10만	26.7%	21.5%	20.7%	25.9%	5.2%	0.0%	135	$p = 0.00$
10	원 이	12.2%	39.9%	23.3%	21.7%	3.0%	0.0%	434	

[부록 표 II-3-①] 계획은 잘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 게 낫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3.3%	8.2%	13.3%	46.0%	28.9%	0.3%	1,110	
신	세 대 여 부	4.1%	8.3%	16.5%	44.5%	26.4%	0.2%	432	$\chi^2=27.07$ p = 0.00
신	세 대 아 님	2.2%	5.7%	6.6%	47.6%	37.0%	0.9%	227	
잘	모 르 겠 음	2.9%	9.9%	13.9%	45.6%	27.6%	0.0%	445	
성	남	4.3%	9.8%	13.3%	46.1%	26.5%	0.0%	562	$\chi^2=11.61$ p = 0.04
여	자	2.2%	6.9%	13.5%	45.6%	31.2%	0.5%	548	
학	교 등 급	4.4%	11.3%	16.5%	42.0%	25.5%	0.3%	593	$\chi^2=36.51$ p = 0.00
고	학	2.0%	4.8%	10.1%	50.1%	32.9%	0.2%	505	
대	학								
생	수 준								
	상	2.0%	9.7%	10.5%	48.8%	28.6%	0.4%	248	$\chi^2= 6.93$ p = 0.73
	중	3.6%	8.0%	14.2%	45.7%	28.2%	0.3%	759	
	하	3.9%	7.8%	13.7%	40.2%	34.3%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4.5%	9.9%	17.1%	43.2%	25.1%	0.2%	537	$\chi^2=35.66$ p = 0.00
5만 원 ~ 10만 원		2.2%	11.9%	11.1%	42.2%	31.9%	0.7%	135	
10 만 원 이 상		2.1%	5.1%	9.2%	50.7%	32.7%	0.2%	434	

[부록 표 II-3-②] 자신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4.8%	24.1%	22.2%	37.7%	10.7%	0.5%	1,110	
신	세 대 여 부	5.5%	22.2%	23.6%	35.8%	12.4%	0.5%	432	$\chi^2=15.50$ p = 0.11
신	세 대 아 님	3.1%	22.9%	17.6%	43.6%	11.5%	1.3%	227	
잘	모 르 겠 음	4.9%	26.3%	23.1%	36.9%	8.5%	0.2%	445	
성	남	5.5%	23.1%	20.5%	38.8%	11.9%	0.2%	562	$\chi^2= 7.363$ p = 0.17
여	자	4.2%	24.8%	23.9%	36.9%	9.3%	0.9%	548	
학	교 등 급	6.4%	20.6%	24.5%	35.6%	12.6%	0.3%	593	$\chi^2=21.27$ p = 0.00
고	학	3.2%	27.9%	19.8%	39.8%	8.5%	0.8%	505	
대	학								
생	수 준								
	상	7.7%	24.2%	21.4%	36.3%	10.1%	0.4%	248	$\chi^2=12.01$ p = 0.28
	중	4.2%	23.6%	23.5%	37.9%	10.1%	0.7%	759	
	하	2.9%	26.5%	15.7%	39.2%	15.7%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5.8%	21.8%	25.1%	35.6%	11.5%	0.2%	537	$\chi^2=17.99$ p = 0.05
5만 원 ~ 10만 원		5.2%	23.0%	20.7%	36.3%	13.3%	1.5%	135	
10 만 원 이 상		3.5%	27.2%	19.1%	40.8%	8.8%	0.7%	434	

[부록 표 II-3-③] 나중의 성공을 위해 지금의 어려움은 참아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32.6%	48.1%	13.0%	5.1%	1.0%	0.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33.9%	44.5%	13.5%	6.7%	1.4%	0.0%	432	$\chi^2=18.05$
신	세 대 아	31.3%	56.4%	8.4%	3.5%	0.0%	0.4%	227	$p = 0.05$
주	모 르 겠 음	31.7%	48.1%	14.6%	4.3%	1.1%	0.2%	445	
성	별								
남	자	35.2%	47.7%	11.6%	4.4%	0.7%	0.4%	562	$\chi^2= 7.84$
여	자	29.9%	48.7%	14.4%	5.7%	1.3%	0.0%	548	$p = 0.16$
학	교 급								
고	등 학	40.0%	39.8%	14.0%	5.2%	1.0%	0.0%	593	$\chi^2=44.58$
대	학 교	23.6%	58.0%	12.1%	5.0%	1.0%	0.4%	505	$p = 0.00$
상	수 준								
활	상	34.3%	45.2%	14.1%	4.8%	1.6%	0.0%	248	$\chi^2=13.37$
	중	32.8%	48.9%	12.9%	4.6%	0.5%	0.3%	759	$p = 0.20$
	하	26.5%	51.0%	10.8%	8.8%	2.9%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벌	40.0%	41.3%	13.6%	3.9%	1.1%	0.0%	537	$\chi^2=50.62$
5 만 원 ~ 10 만 원	하	31.9%	42.2%	13.3%	11.1%	1.5%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23.7%	58.3%	12.2%	4.6%	0.7%	0.5%	434	

[부록 표 II-3-④] 어떤 일을 맡겨도 남들 만큼 할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2.1%	50.7%	21.1%	5.6%	0.1%	0.5%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28.4%	50.2%	16.1%	4.4%	0.2%	0.7%	432	$\chi^2=43.44$
신	세 대 아	26.0%	47.6%	21.1%	4.8%	0.0%	0.4%	227	$p = 0.00$
주	모 르 겠 음	13.3%	53.0%	26.1%	7.4%	0.0%	0.2%	445	
성	별								
남	자	22.2%	53.0%	19.8%	4.4%	0.0%	0.5%	562	$\chi^2= 5.92$
여	자	21.7%	48.5%	22.4%	6.8%	0.2%	0.4%	548	$p = 0.31$
학	교 급								
고	등 학	22.4%	47.6%	23.3%	5.9%	0.2%	0.7%	593	$\chi^2=10.65$
대	학 교	21.2%	55.0%	18.4%	5.3%	0.0%	0.0%	505	$p = 0.05$
성	수 준								
활	상	29.0%	50.4%	15.3%	4.0%	0.0%	1.2%	248	$\chi^2=28.14$
	중	19.2%	52.6%	21.7%	6.1%	0.1%	0.3%	759	$p = 0.00$
	하	25.5%	37.3%	31.4%	5.9%	0.0%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벌	21.6%	47.3%	25.1%	5.4%	0.2%	0.4%	537	$\chi^2=31.05$
5 만 원 ~ 10 만 원	하	23.0%	54.1%	11.1%	9.6%	0.0%	2.2%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22.4%	53.9%	19.1%	4.6%	0.0%	0.0%	434	

3. 성의식

[부록 표 III-1-①] 길에서 남녀가 포옹하거나 키스를 하는 것은 나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체	6.2%	10.9%	31.7%	35.3%	15.8%	1,110	
신세대	3.4%	8.9%	26.6%	39.7%	21.3%	432	$\chi^2=42.54$
신세대	10.1%	15.0%	31.7%	30.8%	12.3%	227	$p = 0.00$
신세대	6.7%	10.8%	37.5%	32.6%	12.4%	445	
성남	4.4%	8.7%	29.5%	37.9%	19.4%	562	$\chi^2=24.14$
여	8.0%	13.1%	34.3%	32.3%	12.2%	548	$p = 0.00$
학교급	7.8%	10.3%	29.3%	34.1%	18.5%	593	$\chi^2=13.09$
고등	4.6%	11.5%	34.5%	36.6%	12.9%	505	$p = 0.01$
대학	4.4%	12.1%	29.0%	36.3%	18.1%	248	$\chi^2= 5.32$
생활수준	6.9%	10.5%	32.3%	34.5%	15.8%	759	$p = 0.72$
중하	5.9%	10.8%	35.3%	36.3%	11.8%	102	
용돈	9.1%	11.0%	30.9%	33.1%	15.8%	537	$\chi^2=24.35$
5만 원 이하	3.7%	8.9%	25.9%	38.5%	23.0%	135	$p = 0.00$
5만 원 ~ 10만 원	3.5%	11.5%	34.6%	36.9%	13.6%	434	
10만 원 이상							

[부록 표 III-1-②] 친구들과 성적인 농담을 하면 부끄럽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체	2.5%	11.1%	24.9%	40.2%	21.0%	0.3%	1,110	
신세대	1.8%	8.7%	22.0%	41.1%	26.1%	0.2%	432	$\chi^2=28.97$
신세대	5.7%	11.9%	23.3%	40.5%	18.1%	0.4%	227	$p = 0.00$
신세대	1.6%	13.7%	27.6%	39.3%	17.5%	0.2%	445	
성남	2.3%	8.7%	20.5%	42.9%	25.1%	0.5%	562	$\chi^2=28.91$
여	2.7%	13.9%	29.0%	37.6%	16.8%	0.0%	548	$p = 0.00$
학교급	3.4%	11.0%	24.3%	36.9%	24.3%	0.2%	593	$\chi^2=15.33$
고등	1.6%	11.7%	25.7%	44.0%	16.6%	0.4%	505	$p = 0.00$
대학	3.2%	8.9%	20.6%	44.0%	23.4%	0.0%	248	$\chi^2=10.40$
생활수준	2.1%	12.0%	25.6%	38.9%	20.0%	0.4%	759	$p = 0.40$
중하	3.9%	10.8%	21.6%	41.2%	22.5%	0.0%	102	
용돈	3.9%	11.7%	26.6%	36.5%	21.0%	0.2%	537	$\chi^2=16.73$
5만 원 이하	0.7%	7.4%	22.2%	47.4%	22.2%	0.0%	135	$p = 0.08$
5만 원 ~ 10만 원	1.4%	11.5%	23.5%	42.6%	20.5%	0.5%	434	
10만 원 이상								

[부록 표 Ⅲ-1-③]

섹시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7.7%	19.7%	41.6%	21.1%	9.3%	0.6%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11.9%	23.6%	39.9%	16.1%	8.0%	0.5%	432	$\chi^2=47.86$
신	세 대 아	5.3%	15.0%	37.9%	25.6%	15.0%	1.3%	227	$p = 0.00$
잘	모 르 겠	4.5%	18.4%	44.9%	24.0%	7.6%	0.4%	445	
성	남								
남	별	8.4%	19.9%	42.2%	18.7%	9.8%	1.1%	562	$\chi^2= 7.72$
여	자	6.9%	19.7%	40.9%	23.5%	8.8%	0.2%	548	$p = 0.17$
학	교								
고	등	9.8%	17.9%	40.1%	19.9%	11.8%	0.5%	593	$\chi^2=18.92$
대	학	5.3%	21.8%	43.0%	22.6%	6.5%	0.8%	505	$p = 0.00$
생	활								
	수	7.7%	30.6%	41.1%	16.1%	4.4%	0.0%	248	$\chi^2=40.69$
	상	7.2%	16.5%	42.4%	23.1%	10.1%	0.7%	759	$p = 0.00$
	중	10.8%	17.6%	36.3%	18.6%	14.7%	2.0%	102	
	하								
용	돈								
5	관	8.0%	17.1%	40.6%	21.8%	11.9%	0.6%	537	$\chi^2=20.14$
만	원	11.1%	25.2%	37.0%	17.0%	8.1%	1.5%	135	$p = 0.02$
10	만	6.2%	21.2%	44.2%	21.4%	6.5%	0.5%	434	
	원								
	이								
	상								

[부록 표 Ⅲ-1-④]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키스를 해도 괜찮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9.2%	29.4%	29.2%	23.8%	8.4%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12.2%	30.3%	29.4%	22.5%	5.7%	432	$\chi^2=14.56$
신	세 대 아	7.5%	28.6%	27.8%	26.4%	9.7%	227	$p = 0.06$
잘	모 르 겠	7.0%	28.8%	30.1%	24.0%	10.1%	445	
성	남							
남	별	7.3%	27.2%	31.3%	25.1%	9.1%	562	$\chi^2= 9.36$
여	자	11.1%	31.6%	27.4%	22.4%	7.5%	548	$p = 0.05$
학	교							
고	등	9.8%	24.5%	30.4%	25.1%	10.3%	593	$\chi^2=18.08$
대	학	8.1%	35.2%	27.9%	22.4%	6.3%	505	$p = 0.00$
생	활							
	수	11.7%	29.8%	27.0%	24.6%	6.9%	248	$\chi^2= 6.00$
	상	8.7%	28.6%	30.6%	23.5%	8.7%	759	$p = 0.64$
	중	6.9%	34.3%	25.5%	23.5%	9.8%	102	
	하							
용	돈							
5	관	7.8%	23.5%	30.7%	27.0%	11.0%	537	$\chi^2=29.38$
만	원	11.1%	37.8%	25.2%	20.7%	5.2%	135	$p = 0.00$
10	만	10.4%	34.1%	28.6%	20.7%	6.2%	434	
	원							
	이							
	상							

[부록 표 Ⅲ-2-①] 데이트를 할 때 돈은 남녀가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7.2%	33.6%	22.9%	12.6%	3.7%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부 임	30.5%	31.0%	21.8%	11.9%	4.8%	432	$\chi^2=12.80$
신	세 대 아 님	23.3%	38.8%	19.8%	15.0%	3.1%	227	p = 0.11
잘	모 르 겠 음	25.8%	33.7%	25.6%	12.1%	2.7%	445	
성	남							
남	자	32.0%	26.9%	24.4%	13.3%	3.4%	562	$\chi^2=27.76$
여	자	22.1%	40.7%	21.4%	11.9%	4.0%	548	p = 0.00
학	교							
고	대	33.2%	29.5%	18.0%	14.2%	5.1%	593	$\chi^2=45.93$
대	학	20.4%	39.0%	28.1%	10.5%	2.0%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28.2%	31.5%	23.0%	14.9%	2.4%	248	$\chi^2=11.85$
	중	27.8%	34.8%	21.7%	12.0%	3.7%	759	p = 0.15
	하	20.6%	30.4%	31.4%	10.8%	6.9%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33.0%	32.0%	16.9%	13.0%	5.0%	537	$\chi^2=42.61$
5 만 원 ~ 10 만 원		23.0%	36.3%	21.5%	14.1%	5.2%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21.4%	34.8%	30.6%	11.5%	1.6%	434	

[부록 표 Ⅲ-2-②] 아내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기 일을 포기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5.6%	15.2%	13.9%	35.1%	30.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부 임	6.2%	12.2%	9.2%	35.1%	37.4%	432	$\chi^2=29.76$
신	세 대 아 님	6.6%	18.9%	16.3%	34.4%	23.8%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4.7%	16.0%	17.1%	35.5%	26.7%	445	
성	남							
남	자	8.9%	22.8%	17.1%	36.3%	14.9%	562	$\chi^2=162.23$
여	자	2.2%	7.5%	10.6%	33.8%	46.0%	548	p = 0.00
학	교							
고	대	7.6%	13.3%	13.2%	29.7%	36.3%	593	$\chi^2=38.25$
대	학	3.4%	17.2%	14.7%	41.6%	23.2%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5.2%	15.3%	10.5%	34.3%	34.7%	248	$\chi^2=11.57$
	중	5.1%	15.0%	14.4%	36.4%	29.1%	759	p = 0.17
	하	9.8%	15.7%	18.6%	27.5%	28.4%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7.4%	13.8%	14.2%	31.1%	33.5%	537	$\chi^2=35.10$
5 만 원 ~ 10 만 원		6.7%	15.6%	8.1%	30.4%	39.3%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3.0%	16.8%	15.4%	41.5%	23.3%	434	

[부록 표 Ⅲ-2-③]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1.7%	19.3%	22.2%	22.3%	14.3%	0.1%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18.6%	16.3%	24.8%	23.9%	16.3%	0.2%	432	$\chi^2=21.63$
신	세 대 아 님	23.3%	23.3%	15.0%	21.6%	16.7%	0.0%	227	$p = 0.00$
살	모 로 겠 음	23.6%	20.7%	23.4%	21.1%	11.2%	0.0%	445	
성	남								
남	자	31.1%	23.7%	20.6%	14.1%	10.5%	0.0%	562	$\chi^2=106.86$
여	자	11.9%	15.1%	23.7%	30.8%	18.2%	0.2%	548	$p = 0.00$
학	교 급								
고	등 학	29.2%	18.9%	20.4%	19.4%	12.0%	0.2%	593	$\chi^2=44.12$
대	학 교	13.3%	19.8%	24.0%	26.3%	16.6%	0.0%	505	$p = 0.00$
생	활 수 준								
	별	22.2%	15.3%	23.4%	21.8%	16.9%	0.4%	248	$\chi^2= 9.11$
	상	21.3%	20.9%	22.0%	22.4%	13.3%	0.0%	759	$p = 0.52$
	중 하	23.5%	17.6%	20.6%	22.5%	15.7%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30.7%	20.5%	20.3%	18.1%	10.4%	0.0%	537	$\chi^2=69.44$
5 만 원 ~ 10 만 원	이	15.6%	19.3%	21.5%	25.2%	17.8%	0.7%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12.4%	18.0%	24.9%	26.7%	18.0%	0.0%	434	

[부록 표 Ⅲ-2-④]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다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6.9%	21.3%	18.4%	32.5%	20.7%	0.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5.0%	17.7%	14.7%	35.3%	26.8%	0.5%	432	$\chi^2=44.42$
신	세 대 아 님	11.0%	28.2%	16.7%	30.8%	13.2%	0.0%	227	$p = 0.00$
살	모 로 겠 음	6.5%	21.6%	22.9%	30.8%	18.2%	0.0%	445	
성	남								
남	자	11.2%	30.2%	22.1%	25.3%	11.0%	0.2%	562	$\chi^2=150.99$
여	자	2.2%	12.4%	15.0%	39.8%	30.5%	0.2%	548	$p = 0.00$
학	교 급								
고	등 학	5.9%	16.5%	18.4%	32.7%	26.3%	0.2%	593	$\chi^2=36.33$
대	학 교	7.9%	26.7%	18.8%	32.7%	13.7%	0.2%	505	$p = 0.00$
생	활 수 준								
	별	7.7%	17.3%	19.4%	33.5%	21.8%	0.4%	248	$\chi^2=13.04$
	상	6.6%	21.1%	18.7%	32.1%	21.3%	0.1%	759	$p = 0.22$
	중 하	6.9%	32.4%	15.7%	32.4%	12.7%	0.0%	102	
돈	돈								
5 만 원 이	하	6.3%	18.2%	19.2%	31.5%	24.6%	0.2%	537	$\chi^2=15.97$
5 만 원 ~ 10 만 원	이	7.4%	22.2%	16.3%	32.6%	21.5%	0.0%	135	$p = 0.10$
10 만 원 이	상	7.4%	24.9%	18.0%	33.9%	15.7%	0.2%	434	

[부록 표 III-3-①]

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3.1%	42.9%	13.0%	13.7%	7.3%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31.9%	41.7%	11.2%	8.9%	6.2%	432	$\chi^2=39.79$
신	세 대 아 님	15.4%	42.7%	15.0%	18.1%	8.8%	227	$p = 0.00$
잘	모 로 겠 음	18.7%	44.0%	13.7%	16.0%	7.6%	445	
성	별							
남	자	18.5%	42.5%	13.9%	14.9%	10.1%	562	$\chi^2=26.88$
여	자	28.1%	43.4%	12.0%	12.2%	4.2%	548	$p = 0.00$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27.8%	37.8%	12.3%	13.5%	8.6%	593	$\chi^2=23.07$
대	학 교	17.8%	48.7%	14.1%	13.7%	5.7%	505	$p = 0.00$
생	수 준 별							
활	상	27.8%	42.3%	12.9%	11.3%	5.6%	248	$\chi^2=18.11$
	중	21.6%	43.7%	11.9%	15.3%	7.5%	759	$p = 0.02$
	하	23.5%	38.2%	21.6%	6.9%	9.8%	102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25.3%	38.4%	12.7%	14.7%	8.9%	537	$\chi^2=23.02$
5 만 원 ~ 10 만 원		30.4%	38.5%	14.8%	9.6%	6.7%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18.2%	49.8%	12.9%	13.6%	5.5%	434	

[부록 표 III-3-②]

자식이 있더라도 의미없는 결혼생활은 지속할 수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9.1%	34.2%	13.1%	15.6%	8.0%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37.4%	33.5%	11.0%	11.9%	6.2%	432	$\chi^2=44.79$
신	세 대 아 님	21.6%	29.1%	13.7%	22.5%	13.2%	227	$p = 0.00$
잘	모 로 겠 음	24.5%	37.5%	15.1%	16.0%	7.0%	445	
성	별							
남	자	18.1%	31.9%	16.9%	20.3%	12.8%	562	$\chi^2=112.32$
여	자	40.3%	36.7%	9.3%	10.9%	2.7%	548	$p = 0.00$
학	교 급 별							
고	등 학 교	32.5%	32.5%	11.8%	14.0%	9.1%	593	$\chi^2=12.16$
대	학 교	25.1%	35.4%	15.0%	17.6%	6.7%	505	$p = 0.01$
생	수 준 별							
활	상	35.9%	33.1%	11.3%	12.5%	7.3%	248	$\chi^2= 9.92$
	중	27.8%	34.5%	13.2%	16.5%	8.0%	759	$p = 0.27$
	하	22.5%	35.3%	16.7%	17.6%	7.8%	102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28.7%	33.0%	12.5%	16.0%	9.9%	537	$\chi^2=12.67$
5 만 원 ~ 10 만 원		36.3%	36.3%	11.9%	9.6%	5.9%	135	$p = 0.12$
10 만 원 이 상		27.4%	35.0%	14.3%	17.1%	6.2%	434	

[부록 표 III-3-③]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회적 성관계가 가능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8.9%	24.3%	22.4%	20.2%	24.1%	0.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10.6%	26.1%	21.6%	20.0%	21.6%	0.2%	432	$\chi^2=10.79$
신	세 대 아 님	8.8%	23.8%	18.5%	19.8%	28.6%	0.4%	227	$p = 0.37$
잘	모 르 겠 음	7.4%	23.4%	24.7%	20.4%	24.0%	0.0%	445	
성	별								
남	자	14.4%	31.5%	24.2%	13.5%	16.0%	0.4%	562	$\chi^2=118.64$
여	자	3.3%	17.3%	20.6%	26.8%	31.9%	0.0%	548	$p = 0.00$
학	교 등 급 학								
고	교	11.5%	22.1%	25.5%	14.7%	26.1%	0.2%	593	$\chi^2=39.86$
대	학 교	6.1%	27.3%	18.6%	26.5%	21.4%	0.0%	505	$p = 0.00$
상	수 준 별								
	상	8.1%	25.8%	19.0%	24.6%	22.6%	0.0%	248	$\chi^2=15.24$
	중	8.3%	23.6%	23.3%	19.9%	24.6%	0.3%	759	$p = 0.12$
	하	14.7%	27.5%	24.5%	10.8%	22.5%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10.4%	19.9%	25.0%	15.6%	28.9%	0.2%	537	$\chi^2=41.93$
만	원 ~ 10만 원	6.7%	30.4%	26.7%	23.0%	13.3%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7.6%	27.9%	18.0%	24.9%	21.4%	0.2%	434	

[부록 표 III-3-④] 순결이나 동정은 유지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3.5%	33.6%	24.3%	12.2%	6.0%	0.4%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23.4%	32.6%	22.5%	13.8%	7.3%	0.5%	432	$\chi^2=17.98$
신	세 대 아 님	29.5%	33.2%	23.8%	7.5%	7.0%	0.0%	227	$p = 0.05$
잘	모 르 겠 음	20.7%	35.3%	26.3%	13.3%	4.0%	0.4%	445	
성	별								
남	자	18.5%	31.9%	27.9%	13.3%	7.7%	0.7%	562	$\chi^2=29.02$
여	자	28.5%	35.2%	20.6%	11.5%	4.2%	0.0%	548	$p = 0.00$
학	교 등 급 학								
고	교	24.8%	34.9%	22.4%	10.3%	7.1%	0.5%	593	$\chi^2=11.18$
대	학 교	22.4%	32.1%	25.7%	15.0%	4.6%	0.2%	505	$p = 0.04$
생	수 준 별								
	상	20.6%	38.3%	24.6%	10.1%	6.0%	0.4%	248	$\chi^2= 8.70$
	중	24.6%	32.4%	23.2%	13.4%	5.9%	0.4%	759	$p = 0.56$
	하	22.5%	29.4%	31.4%	10.8%	5.9%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26.8%	35.9%	22.2%	8.8%	5.8%	0.6%	537	$\chi^2=24.64$
만	원 ~ 10만 원	15.6%	29.6%	31.9%	15.6%	7.4%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21.9%	32.0%	24.7%	15.4%	5.8%	0.2%	434	

4. 문화의식

[부록 표 IV-1-①] 대중적인 외국 패션잡지를 정기적으로 본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4%	3.6%	11.7%	32.8%	50.4%	0.1%	1,110	
신	세	2.8%	5.5%	17.2%	35.3%	39.0%	0.2%	436	$\chi^2=64.66$ p = 0.00
신	세	0.4%	1.3%	5.3%	27.3%	65.6%	0.0%	227	
신	세	0.7%	3.1%	9.4%	33.3%	53.5%	0.0%	445	
잘	모 르								
성	남	1.4%	3.9%	9.4%	31.0%	54.1%	0.2%	562	$\chi^2=11.22$ p = 0.04
여	여	1.5%	3.5%	14.1%	35.0%	46.0%	0.0%	548	
학	고	1.9%	4.2%	14.5%	31.7%	47.6%	0.2%	593	$\chi^2=13.54$ p = 0.01
고	등	1.0%	3.2%	8.5%	34.5%	52.9%	0.0%	505	
대	학								
생	활	3.2%	4.8%	12.5%	35.5%	44.0%	0.0%	248	$\chi^2=18.83$ p = 0.04
	수	1.1%	3.7%	11.9%	32.7%	50.6%	0.1%	759	
	상	0.0%	1.0%	7.8%	28.4%	62.7%	0.0%	102	
	중								
	하								
응	돈	1.7%	3.5%	12.1%	31.8%	50.7%	0.2%	537	$\chi^2=19.49$ p = 0.03
5	만	1.5%	5.2%	20.7%	29.6%	43.0%	0.0%	135	
5	만	1.2%	3.2%	8.3%	35.0%	52.3%	0.0%	434	
만	원								
	이								
	상								

[부록 표 IV-1-②] 일본만화나 비디오를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0.8%	19.5%	24.3%	19.7%	25.6%	1,110	
신	세	11.5%	21.3%	26.4%	20.4%	20.4%	436	$\chi^2=33.83$ p = 0.00
신	세	8.4%	14.1%	18.9%	18.5%	40.1%	227	
신	세	11.2%	20.7%	25.2%	19.6%	23.4%	445	
잘	모 르							
성	남	16.9%	25.4%	24.4%	14.9%	18.3%	562	$\chi^2=95.47$ p = 0.00
여	여	4.6%	13.5%	24.5%	24.6%	32.8%	548	
학	고	14.2%	21.4%	25.3%	16.4%	22.8%	593	$\chi^2=26.67$ p = 0.00
고	등	6.9%	17.4%	23.4%	23.4%	28.9%	505	
대	학							
생	활	10.5%	21.8%	24.6%	19.4%	23.8%	248	$\chi^2= 7.61$ p = 0.47
	수	10.8%	17.9%	24.0%	20.7%	26.6%	759	
	상	12.7%	25.5%	26.5%	13.7%	21.6%	102	
	중							
	하							
응	돈	13.4%	20.9%	25.0%	17.1%	23.6%	537	$\chi^2=14.93$ p = 0.06
5	만	8.9%	17.8%	28.1%	21.5%	23.7%	135	
5	만	8.3%	18.4%	22.4%	22.4%	28.6%	434	
만	원							
	이							
	상							

[부록 표 IV-1-③]

랩이나 레게 음악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6.3%	27.3%	28.6%	15.8%	11.9%	0.1%	1,110	
신	세 대 여 부	25.0%	31.4%	26.8%	10.8%	6.0%	0.0%	432	$\chi^2=111.96$ p = 0.00
신	세 대 아 님	4.8%	16.7%	30.4%	24.2%	23.8%	0.0%	227	
신	세 대 아 님	13.7%	28.5%	29.4%	16.4%	11.7%	0.2%	445	
성	남	15.3%	24.9%	29.2%	16.4%	14.1%	0.2%	562	$\chi^2= 8.88$ p = 0.11
남	여	17.3%	29.7%	27.9%	15.3%	9.7%	0.0%	548	
학	교 등 급 학	21.9%	29.8%	24.8%	12.3%	11.0%	0.2%	593	$\chi^2=45.24$ p = 0.00
고	대 학 교	9.9%	24.2%	33.3%	19.6%	13.1%	0.0%	505	
대	생	19.8%	29.4%	26.2%	14.1%	10.1%	0.4%	248	$\chi^2=20.01$ p = 0.02
생	수 상 중 하	15.3%	27.7%	30.0%	14.9%	12.1%	0.0%	759	
생	수 상 중 하	15.7%	19.6%	23.5%	26.5%	14.7%	0.0%	102	
응	돈 이 별	19.6%	29.8%	25.7%	13.4%	11.4%	0.2%	537	$\chi^2=24.45$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이 하	19.3%	25.9%	28.9%	13.3%	12.6%	0.0%	135	
10 만 원 이 상	이 상	11.3%	24.7%	32.0%	19.6%	12.4%	0.0%	434	

[부록 표 IV-1-④] 국악을 듣거나 국악기를 다루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6.9%	28.3%	33.3%	22.0%	9.6%	1,110	
신	세 대 여 부	8.5%	25.0%	31.7%	24.5%	10.3%	432	$\chi^2=13.20$ p = 0.10
신	세 대 아 님	7.9%	32.2%	35.2%	17.2%	7.5%	227	
신	세 대 아 님	4.9%	29.9%	33.9%	21.6%	9.7%	445	
성	남	6.0%	27.8%	35.1%	21.0%	10.1%	562	$\chi^2= 3.44$ p = 0.48
남	여	7.8%	28.8%	31.4%	23.0%	8.9%	548	
학	교 등 급 학	6.2%	21.4%	33.4%	24.8%	14.2%	593	$\chi^2=57.19$ p = 0.00
고	대 학 교	7.7%	37.0%	32.3%	18.8%	4.2%	505	
대	생	6.5%	27.0%	29.4%	22.6%	14.5%	248	$\chi^2=21.74$ p = 0.00
생	수 상 중 하	7.1%	26.9%	35.3%	22.7%	8.0%	759	
생	수 상 중 하	6.9%	42.2%	27.5%	14.7%	8.8%	102	
응	돈 이 별	4.8%	23.3%	34.5%	24.0%	13.4%	537	$\chi^2=40.82$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이 하	10.4%	31.1%	25.9%	22.2%	10.4%	135	
10 만 원 이 상	이 상	8.3%	33.6%	34.1%	19.4%	4.6%	434	

[부록 표 IV-2-①]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만든 작품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44.9%	35.4%	12.4%	4.5%	2.3%	0.5%	1,110	
신	세 대 여 부	51.1%	31.2%	11.2%	4.1%	1.6%	0.7%	432	$\chi^2=15.12$
신	세 대 아 님	40.5%	37.0%	13.7%	5.7%	3.1%	0.0%	227	$p = 0.12$
잘	모 르 겠 음	40.9%	38.7%	13.3%	4.3%	2.5%	0.4%	445	
성	남	39.5%	38.3%	15.3%	4.8%	1.8%	0.4%	562	$\chi^2=18.87$
여	자	50.5%	32.7%	9.5%	4.2%	2.7%	0.4%	548	$p = 0.00$
학	고 등 학	44.9%	33.9%	14.7%	4.2%	1.7%	0.7%	593	$\chi^2= 8.28$
고	대 학	45.3%	36.6%	10.1%	5.0%	2.8%	0.2%	505	$p = 0.14$
생	활 수 준	50.0%	33.1%	11.7%	2.8%	1.6%	0.8%	248	$\chi^2= 8.94$
	상 중 하	44.1%	35.8%	12.6%	4.6%	2.4%	0.4%	759	$p = 0.53$
	하	39.2%	37.3%	12.7%	7.8%	2.9%	0.0%	102	
용	돈	41.3%	36.1%	15.6%	4.1%	2.0%	0.7%	537	$\chi^2=16.15$
5 만 원 이	하	48.1%	33.3%	9.6%	6.7%	2.2%	0.0%	135	$p = 0.09$
5만 원~10만 원	상	48.4%	35.3%	9.2%	4.4%	2.5%	0.2%	434	

[부록 표 IV-2-②] 책보다는 만화나 영화보는 것이 더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8.2%	34.7%	23.1%	19.7%	4.2%	0.1%	1,110	
신	세 대 여 부	21.6%	38.5%	20.9%	15.6%	3.4%	0.0%	432	$\chi^2=36.59$
신	세 대 아 님	11.9%	25.6%	28.2%	28.2%	5.7%	0.4%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17.8%	36.0%	22.9%	19.3%	4.0%	0.0%	445	
성	남	20.1%	34.0%	23.3%	18.3%	4.3%	0.0%	562	$\chi^2= 4.71$
여	자	16.2%	35.6%	22.8%	21.2%	4.0%	0.2%	548	$p = 0.45$
학	고 등 학	25.3%	35.4%	21.4%	13.8%	4.0%	0.0%	593	$\chi^2=60.31$
고	대 학	10.1%	34.3%	24.4%	26.9%	4.2%	0.2%	505	$p = 0.00$
생	활 수 준	21.0%	38.7%	18.1%	18.1%	4.0%	0.0%	248	$\chi^2= 9.65$
	상 중 하	17.3%	34.3%	24.9%	19.4%	4.1%	0.1%	759	$p = 0.47$
	하	17.6%	30.4%	21.6%	25.5%	4.9%	0.0%	102	
용	돈	25.0%	35.2%	21.6%	14.0%	4.3%	0.0%	537	$\chi^2=53.80$
5 만 원 이	하	13.3%	34.1%	24.4%	22.2%	5.2%	0.7%	135	$p = 0.00$
5만 원~10만 원	상	11.3%	34.3%	24.7%	26.0%	3.7%	0.0%	434	

[부록 표 IV-2-③]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9.1%	29.5%	18.4%	27.4%	15.0%	0.6%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부	12.6%	32.1%	19.5%	22.7%	12.8%	0.2%	432	$\chi^2=32.97$ p = 0.00
신	세 대 아	7.0%	23.3%	14.1%	35.7%	19.4%	0.4%	227	
찰	모 르 겠 음	6.7%	30.1%	19.6%	27.6%	14.8%	1.1%	445	
성	남								
남	자	9.8%	26.9%	19.9%	27.4%	15.3%	0.7%	562	$\chi^2= 5.06$ p = 0.40
여	자	8.4%	32.3%	16.8%	27.4%	14.6%	0.5%	548	
학	교								
고	등	9.9%	29.0%	18.2%	25.3%	16.9%	0.7%	593	$\chi^2= 7.85$ p = 0.16
대	학	7.7%	30.7%	18.8%	29.9%	12.3%	0.6%	505	
상	수								
활	준	11.3%	29.8%	21.0%	23.4%	14.1%	0.4%	248	$\chi^2= 7.24$ p = 0.70
	중	8.3%	30.3%	17.3%	28.6%	14.9%	0.7%	759	
	하	9.8%	24.5%	18.6%	28.4%	17.6%	1.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8.8%	28.1%	19.6%	25.9%	17.1%	0.6%	537	$\chi^2= 8.33$ p = 0.59
5 만 원 ~ 10 만 원	상	11.9%	33.3%	17.0%	26.7%	10.4%	0.7%	135	
10 만 원 이	상	8.8%	30.0%	17.3%	29.5%	13.8%	0.7%	434	

[부록 표 IV-2-④] 무선호출기(일명 삐삐)를 이용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5.9%	25.4%	26.7%	21.4%	10.6%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부	25.0%	30.0%	21.6%	15.6%	7.8%	432	$\chi^2=87.42$ p = 0.00
신	세 대 아	6.2%	15.4%	33.5%	29.1%	15.9%	227	
찰	모 르 겠 음	11.2%	26.5%	28.3%	23.4%	10.6%	445	
성	남							
남	자	17.1%	26.9%	24.7%	21.5%	9.8%	562	$\chi^2= 4.03$ p = 0.40
여	자	14.6%	24.3%	28.6%	21.2%	11.3%	548	
학	교							
고	등	20.6%	24.6%	22.3%	20.4%	12.1%	593	$\chi^2=30.42$ p = 0.00
대	학	10.3%	27.1%	31.3%	22.4%	8.9%	505	
생	수							
활	준	20.2%	27.8%	20.6%	21.4%	10.1%	248	$\chi^2= 9.69$ p = 0.28
	중	14.9%	24.5%	28.6%	21.2%	10.8%	759	
	하	12.7%	27.5%	27.5%	22.5%	9.8%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17.5%	22.9%	24.6%	22.3%	12.7%	537	$\chi^2=16.98$ p = 0.03
5 만 원 ~ 10 만 원	상	20.0%	30.4%	23.7%	19.3%	6.7%	135	
10 만 원 이	상	12.7%	27.0%	30.2%	21.0%	9.2%	434	

[부록 표 IV-3-①] 내 노래를 녹음한 CD나 테이프를 선물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6.5%	27.5%	23.7%	20.3%	12.0%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신 세 대 임	22.5%	31.4%	20.2%	16.3%	9.6%	432	$\chi^2=37.96$
신	신 세 대 아	10.6%	22.5%	25.6%	25.1%	16.3%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13.5%	26.1%	26.5%	22.0%	11.9%	445	
성	남							
남	여	14.8%	27.8%	26.7%	17.6%	13.2%	562	$\chi^2=11.46$
	별 자 자	18.1%	27.2%	20.8%	23.2%	10.8%	548	$p = 0.02$
학	교 통 급							
고	대 등 학	19.2%	26.0%	23.3%	18.9%	12.6%	593	$\chi^2= 9.43$
	교	13.1%	29.3%	24.6%	22.0%	11.1%	505	$p = 0.05$
생	활 수 준							
	상	19.0%	29.4%	23.0%	16.1%	12.5%	248	$\chi^2=19.31$
	중	15.5%	27.0%	25.0%	22.0%	10.4%	759	$p = 0.01$
	하	17.6%	24.5%	16.7%	18.6%	22.5%	102	
용	돈							
5	만 원 이	17.7%	25.5%	24.4%	19.7%	12.7%	537	$\chi^2= 6.71$
5	만 원 ~ 10 만 원	18.5%	32.6%	20.7%	17.0%	11.1%	135	$p = 0.56$
10	만 원 이 상	14.3%	28.3%	23.7%	22.1%	11.5%	434	

[부록 표 IV-3-②] TV나 라디오 공개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5.7%	26.0%	30.2%	19.8%	8.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신 세 대 임	25.7%	26.8%	28.2%	14.0%	5.3%	432	$\chi^2=80.13$
신	신 세 대 아	6.6%	18.9%	34.4%	26.9%	13.2%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10.8%	29.2%	29.4%	22.0%	8.5%	445	
성	남							
남	여	14.8%	23.8%	31.5%	20.1%	9.8%	562	$\chi^2= 7.28$
	별 자 자	16.8%	28.5%	28.6%	19.5%	6.6%	548	$p = 0.12$
학	교 통 급							
고	대 등 학	22.9%	27.7%	26.8%	14.8%	7.8%	593	$\chi^2=61.86$
	교	7.5%	24.6%	34.3%	25.1%	8.5%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17.7%	24.6%	31.9%	19.0%	6.9%	248	$\chi^2= 3.72$
	중	15.2%	26.4%	30.3%	19.8%	8.4%	759	$p = 0.88$
	하	15.7%	28.4%	24.5%	21.6%	9.8%	102	
용	돈							
5	만 원 이	21.6%	28.1%	27.2%	15.1%	8.0%	537	$\chi^2=51.07$
5	만 원 ~ 10 만 원	17.8%	26.7%	31.1%	17.8%	6.7%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7.8%	23.3%	33.6%	26.3%	9.0%	434	

[부록 표 IV-3-③] 컴퓨터 통신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7.0%	33.0%	30.1%	15.2%	4.4%	0.3%	1,110	
신	세 대 여 부	20.4%	33.9%	28.2%	12.4%	5.0%	0.0%	432	$\chi^2=21.95$ p = 0.01
신	세 대 대 임	13.2%	31.3%	29.5%	18.5%	7.0%	0.4%	227	
신	세 대 아 님	14.8%	33.3%	32.6%	16.4%	2.5%	0.4%	445	
학	모 르 겠 음	16.7%	29.2%	33.1%	16.2%	4.6%	0.2%	562	$\chi^2=9.80$ p = 0.08
학	자 자	17.2%	37.0%	27.0%	14.2%	4.2%	0.4%	548	
교	교 급	22.1%	32.4%	26.6%	13.3%	5.4%	0.2%	593	$\chi^2=32.76$ p = 0.00
고	동 학	10.9%	34.3%	34.1%	17.4%	3.0%	0.4%	505	
대	수 준	16.5%	34.7%	32.3%	13.3%	3.2%	0.0%	248	$\chi^2=12.96$ p = 0.22
생	상 중	18.2%	32.4%	29.4%	15.4%	4.3%	0.3%	759	
활	하	8.8%	33.3%	30.4%	18.6%	7.8%	1.0%	102	
용	돈	22.2%	33.3%	25.7%	13.2%	5.4%	0.2%	537	$\chi^2=30.74$ p = 0.00
5 만 원 이	하	11.9%	31.1%	37.8%	14.8%	3.7%	0.7%	135	
5 만 원 ~ 10 만 원	상	12.2%	33.2%	33.2%	17.7%	3.5%	0.2%	434	

[부록 표 IV-3-④] 방송국에 엽서를 보내어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0.8%	25.8%	33.6%	22.7%	7.1%	0.1%	1,110	
신	세 대 여 부	15.8%	32.8%	30.7%	15.8%	4.6%	0.2%	432	$\chi^2=70.75$ p = 0.00
신	세 대 대 임	4.8%	15.0%	36.1%	33.9%	10.1%	0.0%	227	
신	세 대 아 님	8.8%	24.5%	35.1%	23.8%	7.9%	0.0%	445	
학	모 르 겠 음	8.7%	24.0%	32.9%	25.3%	8.9%	0.2%	562	$\chi^2=16.12$ p = 0.00
학	자 자	12.8%	27.7%	34.5%	19.9%	5.1%	0.0%	548	
교	교 급	15.0%	29.0%	32.4%	15.9%	7.8%	0.0%	593	$\chi^2=55.04$ p = 0.00
고	동 학	5.5%	22.8%	35.0%	30.3%	6.1%	0.2%	505	
대	수 준	13.7%	26.2%	28.2%	25.0%	6.9%	0.0%	248	$\chi^2=13.90$ p = 0.17
생	상 중	10.1%	26.6%	35.2%	21.5%	6.5%	0.1%	759	
활	하	7.8%	18.6%	35.3%	26.5%	11.8%	0.0%	102	
용	돈	14.2%	28.3%	33.9%	15.6%	7.8%	0.2%	537	$\chi^2=46.99$ p = 0.00
5 만 원 이	하	11.1%	26.7%	35.6%	23.7%	3.0%	0.0%	135	
5 만 원 ~ 10 만 원	상	6.5%	22.4%	32.7%	31.1%	7.4%	0.0%	434	

5. 소비의식

[부록 표 V-1-①]

유행하는 머리모양으로 손질하고 외출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5.8%	17.0%	35.0%	30.2%	11.9%	0.1%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부	9.9%	25.7%	34.9%	22.7%	6.9%	0.0%	432	$\chi^2=92.25$
신	세 대 아	3.1%	7.5%	30.0%	39.6%	19.8%	0.0%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3.4%	13.5%	37.3%	32.8%	12.8%	0.2%	445	
성	남								
성	남	6.0%	16.7%	33.5%	29.9%	13.9%	0.0%	562	$\chi^2= 6.05$
여	자	5.7%	17.3%	36.3%	30.8%	9.7%	0.2%	548	$p = 0.30$
학	교 등 금								
고	학	8.9%	18.0%	32.4%	27.5%	13.0%	0.2%	593	$\chi^2=28.06$
대	교	2.4%	16.0%	38.0%	33.1%	10.5%	0.0%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11.7%	21.4%	36.3%	22.2%	8.1%	0.4%	248	$\chi^2=40.06$
	중	4.2%	15.8%	35.0%	32.5%	12.4%	0.0%	759	$p = 0.00$
	하	3.9%	13.7%	30.4%	34.3%	17.6%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6.9%	15.5%	33.1%	29.4%	14.9%	0.2%	537	$\chi^2=24.25$
5만 원~10만 원		9.6%	22.2%	34.1%	26.7%	7.4%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3.2%	17.3%	37.6%	22.3%	9.7%	0.0%	434	

[부록 표 V-1-②]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8.0%	16.0%	25.2%	31.4%	19.4%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부	14.2%	20.6%	27.1%	25.0%	13.1%	432	$\chi^2=102.05$
신	세 대 아	3.5%	6.2%	17.2%	41.9%	31.3%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4.0%	16.9%	27.4%	32.6%	19.1%	445	
성	남							
성	남	6.4%	12.8%	25.3%	32.0%	23.5%	562	$\chi^2= 22.03$
여	자	9.7%	19.5%	25.0%	30.8%	15.0%	548	$p = 0.00$
학	교 등 금							
고	학	12.1%	21.2%	25.0%	23.8%	17.9%	593	$\chi^2= 74.22$
대	교	3.0%	10.3%	25.7%	40.4%	20.6%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10.1%	16.1%	25.0%	30.6%	18.1%	248	$\chi^2= 5.90$
	중	7.6%	16.2%	25.8%	31.4%	19.0%	759	$p = 0.65$
	하	5.9%	13.7%	20.6%	34.3%	25.5%	102	
용	돈							
만 원 이	하	10.2%	21.8%	23.6%	25.3%	19.0%	537	$\chi^2= 59.65$
만 원~10 만 원		11.9%	17.0%	25.9%	29.6%	15.6%	135	$p = 0.00$

[부록 표 V-1-③]

남들이 즐겨 보는 영화나 잡지는 대부분 보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9.1%	25.7%	28.9%	28.6%	7.6%	0.1%	1,110	
신	세 대 여 부	12.6%	32.1%	28.4%	20.4%	6.4%	0.0%	432	$\chi^2=59.16$ p = 0.00
신	세 대 아 님	7.0%	16.3%	25.6%	37.9%	13.2%	0.0%	227	
잡	모 르 겠 음	6.5%	24.5%	31.0%	31.9%	5.8%	0.2%	445	
성	남	10.1%	25.3%	27.8%	29.9%	6.8%	0.2%	562	$\chi^2= 4.52$ p = 0.47
여	자	8.2%	26.3%	30.1%	27.0%	8.4%	0.0%	548	
학	교 등 급	11.1%	26.1%	28.5%	24.8%	9.3%	0.2%	593	$\chi^2=16.94$ p = 0.00
고	학 교	6.9%	25.1%	29.3%	32.9%	5.7%	0.0%	505	
대	생	14.1%	27.0%	26.2%	27.4%	5.2%	0.0%	248	$\chi^2=22.41$ p = 0.01
상	수 상	8.0%	26.6%	29.6%	27.3%	8.3%	0.1%	759	
	중 하	4.9%	16.7%	30.4%	40.2%	7.8%	0.0%	102	
용	돈	9.9%	24.0%	30.0%	25.9%	10.1%	0.2%	537	$\chi^2=14.71$ p = 0.14
5 만 원 이	하	8.9%	26.7%	27.4%	30.4%	6.7%	0.0%	135	
5 만 원 ~ 10 만 원 이	상	8.3%	27.4%	28.1%	31.3%	4.8%	0.0%	434	

[부록 표 V-1-④]

내가 입고 있는 스타일의 옷을 거리에서 많이 보게 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3.0%	20.0%	38.8%	31.1%	7.1%	1,110	
신	세 대 여 부	4.8%	25.0%	37.8%	26.8%	5.5%	432	$\chi^2=34.97$ p = 0.32
신	세 대 아 님	2.2%	14.1%	33.9%	38.3%	11.5%	227	
잡	모 르 겠 음	1.6%	18.4%	41.8%	31.7%	6.5%	445	
성	남	2.8%	18.9%	37.0%	33.6%	7.7%	562	$\chi^2= 4.66$ p = 0.32
여	자	3.1%	21.5%	40.3%	28.5%	6.6%	548	
학	교 등 급	3.9%	24.5%	36.3%	28.8%	6.6%	593	$\chi^2=18.39$ p = 0.00
고	학 교	2.0%	15.4%	42.0%	33.1%	7.5%	505	
대	생	3.6%	23.8%	36.3%	29.0%	7.3%	248	$\chi^2=10.09$ p = 0.25
상	수 상	2.8%	19.1%	40.6%	31.1%	6.5%	759	
	중 하	2.9%	17.6%	31.4%	36.3%	11.8%	102	
용	돈	3.5%	23.3%	35.8%	30.2%	7.3%	537	$\chi^2=19.09$ p = 0.01
5 만 원 이	하	5.9%	19.3%	40.0%	30.4%	4.4%	135	
5 만 원 ~ 10 만 원 이	상	1.4%	16.1%	42.2%	32.5%	7.8%	434	

[부록 표 V-2-①]

분위기가 좋은 가게를 보면 무엇인가 사고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0.1%	48.2%	20.8%	17.9%	3.0%	1,110	
신	세	15.6%	52.1%	17.2%	12.4%	2.8%	432	$\chi^2=45.75$
신	세	6.2%	41.0%	23.3%	25.1%	4.4%	227	$p = 0.00$
신	세	7.0%	47.9%	23.1%	19.6%	2.5%	445	
잘	모							
성	남	6.8%	42.0%	23.5%	24.4%	3.4%	562	$\chi^2=52.88$
남	여	13.7%	54.4%	18.1%	11.3%	2.6%	548	$p = 0.00$
학	교	12.5%	48.7%	18.2%	17.7%	2.9%	593	$\chi^2= 9.57$
고	등	7.7%	47.9%	23.4%	18.0%	3.0%	505	$p = 0.04$
대	학							
생	활	15.3%	50.0%	19.8%	12.9%	2.0%	248	$\chi^2=15.34$
	수	9.1%	47.7%	20.9%	19.1%	3.2%	759	$p = 0.05$
	상	5.9%	47.1%	22.5%	20.6%	3.9%	102	
	중							
	하							
용	돈	10.8%	46.6%	20.5%	18.6%	3.5%	537	$\chi^2= 7.52$
5	만	8.1%	54.1%	19.3%	18.5%	0.0%	135	$p = 0.48$
5	만	9.9%	48.4%	21.7%	16.8%	3.2%	434	
만	원							
원	이							
상	상							

[부록 표 V-2-②]여러가지 정보를 세워서 계획을 세운 후에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5.8%	39.5%	26.9%	15.7%	2.0%	0.1%	1,110	
신	세	17.2%	36.7%	24.8%	18.3%	2.8%	0.2%	432	$\chi^2=21.69$
신	세	19.8%	44.1%	22.9%	11.9%	1.3%	0.0%	227	$p = 0.01$
신	세	12.1%	40.4%	31.0%	14.8%	1.6%	0.0%	445	
잘	모								
성	남	17.4%	39.0%	26.5%	15.1%	1.8%	0.2%	562	$\chi^2= 3.38$
남	여	14.2%	40.3%	27.0%	16.2%	2.2%	0.0%	548	$p = 0.64$
학	교	15.7%	34.1%	26.6%	20.6%	2.9%	0.2%	593	$\chi^2=34.69$
고	등	16.0%	46.1%	26.7%	10.1%	1.0%	0.0%	505	$p = 0.00$
대	학								
생	활	14.5%	39.9%	25.4%	17.7%	2.4%	0.0%	248	$\chi^2= 4.64$
	수	16.1%	39.3%	27.3%	15.5%	1.7%	0.1%	759	$p = 0.91$
	상	17.6%	42.2%	26.5%	10.8%	2.9%	0.0%	102	
	중								
	하								
용	돈	16.6%	34.1%	27.2%	19.4%	2.6%	0.2%	537	$\chi^2=20.78$
5	만	15.6%	44.4%	25.2%	12.6%	2.2%	0.0%	135	$p = 0.02$
5	만	15.0%	44.7%	27.0%	12.2%	1.2%	0.0%	434	
만	원								
원	이								
상	상								

[부록 표 V-2-③] 이미 갖고 있는 것일지라도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면 산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4.9%	21.7%	24.5%	38.2%	10.4%	0.3%	1,110	
신	세 대 여 부	8.0%	28.2%	24.5%	31.9%	7.3%	0.0%	432	$\chi^2=72.56$ p = 0.00
신	세 대 아 님	1.8%	11.9%	20.3%	45.8%	19.4%	0.9%	227	
신	세 대 아 님	3.6%	19.8%	26.7%	40.9%	8.8%	0.2%	445	
성	남	5.7%	18.9%	25.1%	38.3%	11.7%	0.4%	562	$\chi^2= 8.04$ p = 0.15
여	자	4.2%	24.6%	24.1%	38.0%	8.9%	0.2%	548	
학	고 등 학	7.3%	23.3%	25.0%	33.9%	10.6%	0.0%	593	$\chi^2=23.09$ p = 0.00
대	학	2.4%	19.8%	24.2%	43.2%	10.1%	0.4%	505	
성	활 수 준	6.9%	28.2%	27.0%	30.6%	6.9%	0.4%	248	$\chi^2=21.41$ p = 0.01
	상 중 하	4.5%	19.8%	24.4%	40.3%	10.8%	0.3%	759	
	하	3.9%	18.6%	20.6%	41.2%	15.7%	0.0%	102	
동	돈 이	6.3%	21.2%	25.7%	35.2%	11.5%	0.0%	537	$\chi^2=17.62$ p = 0.06
5 만 원	10 만 원	5.9%	25.9%	24.4%	34.8%	8.1%	0.7%	135	
10 만 원	이 상	2.8%	21.0%	23.0%	43.1%	9.7%	0.5%	434	

[부록 표 V-2-④] 길을 가다가 멋있는 것을 보면 계획에 없더라도 산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5.4%	25.7%	24.1%	32.9%	11.8%	0.1%	1,110	
신	세 대 여 부	8.5%	31.4%	23.9%	26.6%	9.6%	0.0%	432	$\chi^2=46.20$ p = 0.00
신	세 대 아 님	1.8%	20.7%	20.7%	39.6%	16.7%	0.4%	227	
신	세 대 아 님	4.0%	22.7%	26.5%	35.5%	11.2%	0.0%	445	
성	남	4.8%	19.2%	24.0%	37.5%	14.2%	0.2%	562	$\chi^2=34.73$ p = 0.00
여	자	6.0%	32.5%	24.5%	27.9%	9.1%	0.0%	548	
학	고 등 학	7.4%	26.6%	24.1%	29.3%	12.5%	0.0%	593	$\chi^2=15.03$ p = 0.01
대	학	3.4%	24.8%	24.2%	36.8%	10.7%	0.2%	505	
성	활 수 준	10.1%	29.8%	23.4%	28.2%	8.5%	0.0%	248	$\chi^2=31.89$ p = 0.00
	상 중 하	4.2%	25.2%	24.6%	33.6%	12.4%	0.0%	759	
	하	3.9%	18.6%	23.5%	38.2%	14.7%	1.0%	102	
동	돈 이	5.8%	25.1%	23.5%	31.8%	13.8%	0.0%	537	$\chi^2= 9.74$ p = 0.46
5 만 원	10 만 원	5.9%	28.1%	28.1%	27.4%	10.4%	0.0%	135	
10 만 원	이 상	4.8%	25.6%	23.7%	35.9%	9.7%	0.2%	434	

[부록 표 V-3-①] 음식맛에 상관없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친구들과 만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7.5%	23.7%	25.3%	34.6%	8.5%	0.4%	1,110	
신	세 대 여 부	11.2%	27.5%	22.2%	28.9%	9.4%	0.7%	432	$\chi^2=43.31$
신	세 대 아 녀	4.4%	14.5%	27.3%	42.3%	11.0%	0.4%	227	p = 0.00
신	세 대 아 녀	5.4%	24.9%	27.6%	35.7%	6.3%	0.0%	445	
성	남	7.3%	22.8%	27.4%	31.9%	10.1%	0.5%	562	$\chi^2= 9.34$
여	자	7.8%	24.6%	23.4%	37.2%	6.8%	0.2%	548	p = 0.09
학	교 등 급	10.5%	20.9%	23.6%	33.1%	11.6%	0.3%	593	$\chi^2=34.13$
고	학	4.4%	27.3%	26.9%	36.0%	5.0%	0.4%	505	p = 0.00
대	학								
생	활 수 준	12.9%	26.6%	25.0%	29.8%	5.6%	0.0%	248	$\chi^2=31.64$
	상	6.1%	23.8%	25.4%	34.8%	9.6%	0.3%	759	p = 0.00
	중 하	5.9%	15.7%	26.5%	43.1%	6.9%	2.0%	102	
용	돈	9.1%	19.6%	24.8%	34.5%	11.4%	0.7%	537	$\chi^2=26.43$
5 만 원 이	하	7.4%	28.9%	25.2%	33.3%	5.2%	0.0%	135	p = 0.00
5만 원 ~ 10만 원	상	5.5%	27.2%	26.0%	35.3%	6.0%	0.0%	434	
10 만 원 이									

[부록 표 V-3-②] 되도록이면 유명브랜드 상품을 산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9.0%	37.3%	28.4%	20.7%	4.3%	0.3%	1,110	
신	세 대 여 부	13.3%	42.0%	22.5%	17.4%	4.6%	0.2%	432	$\chi^2=58.18$
신	세 대 아 녀	6.6%	29.1%	26.0%	31.7%	6.6%	0.0%	227	p = 0.00
신	세 대 아 녀	5.6%	37.1%	35.3%	18.4%	3.1%	0.4%	445	
성	남	10.3%	39.9%	29.2%	17.6%	2.7%	0.4%	562	$\chi^2=18.22$
여	자	7.5%	34.7%	27.6%	23.9%	6.2%	0.2%	548	p = 0.00
학	교 등 급	11.5%	36.6%	26.5%	19.7%	5.4%	0.3%	593	$\chi^2=15.23$
고	학	5.7%	38.4%	30.7%	21.6%	3.4%	0.2%	505	p = 0.00
대	학								
생	활 수 준	16.9%	41.1%	21.0%	16.5%	4.0%	0.4%	248	$\chi^2=39.19$
	상	6.3%	37.2%	29.9%	21.7%	4.7%	0.1%	759	p = 0.00
	중 하	8.8%	29.4%	34.3%	23.5%	2.9%	1.0%	102	
용	돈	9.5%	34.1%	28.5%	22.3%	5.2%	0.4%	537	$\chi^2=13.53$
5 만 원 이	하	13.3%	37.8%	24.4%	20.0%	4.4%	0.0%	135	p = 0.19
5만 원 ~ 10만 원	상	6.9%	41.2%	29.5%	18.9%	3.2%	0.2%	434	
10 만 원 이									

[부록 표 V-3-③] 물건을 살 때 상표보다는 독특한 디자인이나 외양을 보고 선택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7.1%	40.7%	26.9%	13.2%	2.2%	1,110	
신	세 대 여 부	24.1%	41.1%	23.2%	10.3%	1.4%	432	$\chi^2=35.15$ p = 0.00
신	세 대 아 님	15.0%	34.8%	30.0%	16.7%	3.5%	227	
잘	모 르 겠 음	11.7%	43.6%	28.5%	13.9%	2.2%	445	
성	남	15.3%	37.4%	29.5%	14.9%	2.8%	562	$\chi^2=14.14$ p = 0.00
여	자	19.3%	44.0%	23.9%	11.3%	1.5%	548	
학	교 등 급	20.7%	38.6%	24.6%	13.5%	2.5%	593	$\chi^2=12.81$ p = 0.14
고	학 교	13.3%	43.2%	28.7%	13.1%	1.8%	505	
대	생 활 수 준	17.3%	44.5%	26.2%	12.1%	2.8%	248	$\chi^2=14.32$ p = 0.07
생	상 중 하	17.5%	40.6%	26.5%	13.3%	2.1%	759	
		14.7%	40.2%	29.4%	14.7%	1.0%	102	
용	돈	20.9%	37.6%	25.7%	13.2%	2.6%	537	$\chi^2=14.05$ p = 0.08
5 만 원 이	하	11.9%	44.4%	28.1%	14.8%	0.7%	135	
5 만 원 ~ 10 만 원 이	상	14.1%	43.3%	27.9%	12.7%	2.1%	434	

[부록 표 V-3-④]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물건의 구매는 삼간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6.3%	40.6%	25.3%	15.8%	2.0%	1,110	
신	세 대 여 부	20.0%	40.8%	21.3%	15.1%	2.8%	432	$\chi^2=35.38$ p = 0.00
신	세 대 아 님	13.7%	31.3%	28.0%	24.7%	1.8%	227	
잘	모 르 겠 음	14.2%	45.2%	27.4%	11.9%	1.3%	445	
성	남	13.3%	34.7%	31.0%	18.3%	2.7%	562	$\chi^2=38.62$ p = 0.00
여	자	19.5%	46.7%	19.3%	13.1%	1.3%	548	
학	교 등 급	17.2%	37.4%	26.0%	16.7%	2.7%	593	$\chi^2= 8.21$ p = 0.08
고	학 교	15.0%	44.6%	24.6%	14.7%	1.2%	505	
대	생 활 수 준	20.6%	41.5%	23.4%	11.7%	2.8%	248	$\chi^2=12.81$ p = 0.14
생	상 중 하	15.3%	41.0%	25.7%	16.2%	1.8%	759	
		14.7%	34.3%	27.5%	22.5%	1.0%	102	
용	돈	15.3%	36.3%	27.6%	18.2%	2.6%	537	$\chi^2=14.32$ p = 0.07
5 만 원 이	하	17.0%	43.0%	23.7%	15.6%	0.7%	135	
5 만 원 ~ 10 만 원 이	상	17.3%	45.2%	23.0%	12.9%	1.6%	434	

6. 사회의식

[부록 표 VI-1-①] 남이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할 바 아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0.3%	31.0%	24.2%	28.6%	5.6%	0.3%	1,110	
신	세 대 여 부	13.8%	33.7%	21.3%	26.1%	4.6%	0.5%	432	$\chi^2=24.13$ p = 0.00
신	세 대 아 님	7.5%	28.6%	22.9%	31.7%	8.8%	0.4%	227	
잘	모 르 겠 음	7.9%	29.9%	27.6%	29.7%	4.9%	0.0%	445	
성	남 자	9.4%	28.5%	25.1%	29.4%	7.3%	0.4%	562	$\chi^2=9.92$ p = 0.07
여	자	10.9%	33.8%	23.5%	27.7%	3.8%	0.2%	548	
학	교 등 급	12.6%	29.2%	24.1%	27.2%	6.4%	0.5%	593	$\chi^2=12.53$ p = 0.02
고	학 학	7.7%	33.1%	24.2%	30.3%	4.8%	0.0%	505	
대	학 교								
생	활 수 준	12.5%	29.8%	24.6%	24.6%	8.5%	0.0%	248	$\chi^2=16.94$ p = 0.07
	상 중	9.4%	32.5%	24.2%	29.2%	4.2%	0.4%	759	
	하	11.8%	22.5%	23.5%	33.3%	8.8%	0.0%	102	
용	돈 별	11.2%	28.1%	24.8%	28.9%	6.5%	0.6%	537	$\chi^2=11.65$ p = 0.30
5 만 원 이	하	12.6%	31.9%	20.0%	30.4%	5.2%	0.0%	135	
5 만 원 ~ 10 만 원	상	8.5%	34.3%	24.9%	27.6%	4.6%	0.0%	434	

[부록 표 VI-1-②]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어도 상관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6.6%	20.8%	26.1%	28.0%	18.2%	0.3%	1,110	
신	세 대 여 부	9.2%	24.3%	25.9%	23.4%	17.0%	0.2%	432	$\chi^2=20.18$ p = 0.02
신	세 대 아 님	4.4%	16.7%	25.6%	33.9%	18.9%	0.4%	227	
잘	모 르 겠 음	4.9%	19.6%	27.0%	29.7%	18.7%	0.2%	445	
성	남 자	6.0%	18.7%	26.2%	27.9%	20.6%	0.5%	562	$\chi^2=10.11$ p = 0.02
여	자	7.1%	23.2%	26.3%	27.9%	15.5%	0.0%	548	
학	교 등 급	7.8%	20.1%	24.6%	26.0%	21.2%	0.3%	593	$\chi^2=12.81$ p = 0.02
고	학 학	5.1%	22.0%	27.9%	30.1%	14.7%	0.2%	505	
대	학 교								
생	활 수 준	9.3%	23.8%	22.2%	25.4%	19.4%	0.0%	248	$\chi^2=11.95$ p = 0.28
	상 중	5.7%	20.4%	27.8%	28.3%	17.5%	0.3%	759	
	하	6.9%	17.6%	23.5%	31.4%	19.6%	1.0%	102	
용	돈 별	6.9%	17.5%	24.4%	28.7%	22.2%	0.4%	537	$\chi^2=23.60$ p = 0.00
5 만 원 이	하	7.4%	31.1%	23.7%	26.7%	11.1%	0.0%	135	
5 만 원 ~ 10 만 원	상	6.0%	21.7%	29.0%	27.6%	15.4%	0.2%	434	

〔부록 표 VI-1-③〕 가난은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체		9.9%	26.7%	20.7%	31.8%	10.6%	0.3%	1,110	
신세대	여부								
신세대	임	14.7%	29.4%	18.6%	27.3%	10.1%	0.0%	432	$\chi^2=29.00$ p = 0.00
신세대	아	6.6%	24.2%	23.8%	35.2%	9.7%	0.4%	227	
잘 모르겠음		6.7%	24.9%	21.3%	34.8%	11.7%	0.4%	445	
성년	별자								
성년	자	13.7%	28.5%	20.3%	28.6%	8.7%	0.2%	562	$\chi^2=26.38$ p = 0.00
학고대	교	6.0%	24.5%	21.4%	35.2%	12.6%	0.4%	548	
고대	급								
고대	학	14.0%	25.8%	17.4%	31.4%	11.3%	0.2%	593	$\chi^2=28.71$ p = 0.00
성	교	5.3%	27.7%	24.4%	32.7%	9.5%	0.4%	505	
성	수								
성	준	10.1%	27.4%	23.4%	28.6%	9.7%	0.8%	248	$\chi^2=20.35$ p = 0.02
성	상	9.7%	26.7%	20.4%	33.5%	9.5%	0.1%	759	
성	중	10.8%	22.5%	16.7%	28.4%	21.6%	0.0%	102	
용	하								
5만 원 이	하	12.5%	25.5%	18.4%	31.8%	11.5%	0.2%	537	$\chi^2=19.11$ p = 0.03
5만 원 ~ 10만 원	상	11.9%	25.9%	22.2%	26.7%	13.3%	0.0%	135	
10만 원 이	상	6.2%	28.3%	23.0%	33.4%	8.5%	0.5%	434	

〔부록 표 VI-1-④〕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체		49.0%	33.3%	12.0%	3.9%	1.8%	1,110	
신세대	여부							
신세대	임	51.1%	28.9%	12.2%	5.7%	2.1%	432	$\chi^2=12.79$ p = 0.11
신세대	아	50.7%	34.4%	11.0%	2.2%	1.8%	227	
잘 모르겠음		46.1%	36.9%	12.6%	2.9%	1.6%	445	
성년	별자							
성년	자	47.3%	32.2%	14.1%	3.9%	2.5%	562	$\chi^2= 7.32$ p = 0.11
학고대	교	50.4%	34.5%	10.2%	3.8%	1.1%	548	
고대	급							
고대	학	50.1%	27.2%	15.7%	4.6%	2.5%	593	$\chi^2=31.30$ p = 0.00
성	교	47.7%	40.0%	8.3%	3.0%	1.0%	505	
성	수							
성	준	37.1%	33.9%	19.0%	7.3%	2.8%	248	$\chi^2=36.93$ p = 0.00
성	상	51.6%	33.5%	10.7%	2.9%	1.3%	759	
성	중	57.8%	30.4%	5.9%	2.9%	2.9%	102	
용	하							
5만 원 이	하	49.3%	28.5%	15.3%	4.1%	2.8%	537	$\chi^2=29.97$ p = 0.00
5만 원 ~ 10만 원	상	49.6%	31.9%	11.9%	6.7%	0.0%	135	
10만 원 이	상	48.4%	39.6%	8.1%	2.8%	1.2%	434	

[부록 표 VI-2-①] 충분한 돈이 있다면 구태여 직장이나 일을 갖지 않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2.8%	19.3%	5.8%	33.5%	28.6%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14.4%	20.2%	5.0%	31.7%	28.7%	436	$\chi^2=7.90$
신 세 대 아 님		10.6%	16.7%	5.7%	33.5%	33.5%	227	$p=0.44$
잘 모 르 겠 음		12.4%	19.8%	6.7%	35.3%	25.8%	445	
성 남 여								
남 자		16.4%	21.4%	6.6%	30.2%	25.4%	562	$\chi^2=22.43$
여 자		9.1%	17.2%	5.1%	36.9%	31.8%	548	$p=0.00$
학 교 급								
고 등 학 교		12.8%	18.7%	7.1%	31.7%	29.7%	593	$\chi^2=5.24$
대 학 교		12.7%	20.2%	4.6%	35.6%	26.9%	505	$p=0.26$
생 활 수 준								
상 등		14.1%	17.7%	3.2%	35.5%	29.4%	248	$\chi^2=9.93$
중 하		11.9%	19.8%	6.2%	33.2%	29.0%	759	$p=0.31$
하		17.6%	19.6%	8.8%	30.4%	23.5%	102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9.9%	19.6%	7.3%	32.8%	30.5%	537	$\chi^2=14.85$
5 만 원 ~ 10 만 원		17.8%	20.0%	5.9%	31.1%	25.2%	135	$p=0.06$
10 만 원 이 상		15.0%	18.7%	3.9%	35.3%	27.2%	434	

[부록 표 VI-2-②] 고되고 바빠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일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0.8%	44.1%	22.2%	11.0%	1.7%	0.1%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아 님		24.8%	40.1%	21.8%	10.3%	3.0%	0.0%	432	$\chi^2=34.61$
신 세 대 아 님		18.9%	55.5%	14.5%	11.0%	0.0%	0.0%	227	$p=0.00$
잘 모 르 겠 음		17.8%	42.0%	26.5%	12.1%	1.3%	0.2%	445	
성 남 여									
남 자		20.1%	44.5%	22.1%	11.0%	2.1%	0.2%	562	$\chi^2=2.47$
여 자		21.5%	43.8%	22.3%	11.1%	1.3%	0.0%	548	$p=0.78$
학 교 급									
고 등 학 교		21.6%	39.5%	24.3%	12.3%	2.4%	0.0%	593	$\chi^2=15.02$
대 학 교		20.0%	49.1%	19.8%	10.1%	0.8%	0.2%	505	$p=0.01$
생 활 수 준									
상 등		23.4%	44.4%	21.4%	9.3%	1.6%	0.0%	248	$\chi^2=10.65$
중 하		20.0%	44.8%	22.3%	11.5%	1.3%	0.1%	759	$p=0.38$
하		20.6%	38.2%	22.5%	13.7%	4.9%	0.0%	102	
용 돈 별									
5 만 원 이 하		21.6%	39.1%	24.6%	12.7%	2.0%	0.0%	537	$\chi^2=17.74$
5 만 원 ~ 10 만 원		23.0%	43.0%	23.7%	8.1%	2.2%	0.0%	135	$p=0.05$
10 만 원 이 상		19.1%	50.7%	18.9%	9.9%	1.2%	0.2%	434	

[부록 표 VI-2-③] 퇴근시간이 되면 일이 남아 있어도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체	9.9%	20.1%	20.3%	41.5%	8.1%	1,110	
신세대	13.1%	21.3%	18.3%	37.8%	9.4%	432	$\chi^2=14.59$ p = 0.06
신세대	7.0%	18.5%	20.3%	46.3%	7.9%	227	
잘 모르겠음	8.3%	19.6%	22.2%	43.1%	6.7%	445	
성남여자	10.5%	18.5%	19.4%	42.2%	9.4%	562	$\chi^2= 4.78$ p = 0.30
학교급	9.3%	21.7%	21.2%	41.1%	6.8%	548	
고등학교	12.5%	16.7%	18.2%	42.0%	10.6%	593	$\chi^2=29.76$ p = 0.00
대학수준	6.9%	24.6%	22.8%	40.6%	5.1%	505	
생활수준	12.5%	19.8%	21.0%	39.5%	7.3%	248	$\chi^2= 4.57$ p = 0.80
상중하	9.4%	19.6%	19.8%	42.6%	8.7%	759	
하	8.8%	23.5%	21.6%	40.2%	5.9%	102	
용돈이	10.4%	17.5%	19.2%	43.0%	9.9%	537	$\chi^2=16.91$ p = 0.03
5만원~10만원	14.8%	17.0%	20.0%	42.2%	5.9%	135	
10만원 이상	7.8%	24.2%	21.9%	39.4%	6.7%	434	

[부록 표 VI-2-④] 보수가 높은 직장보다 여유있는 자유로운 직장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체	29.4%	42.9%	15.8%	9.4%	2.4%	1,110	
신세대	31.4%	44.0%	11.2%	10.6%	2.8%	432	$\chi^2=19.67$ p = 0.01
신세대	25.1%	48.9%	15.4%	7.9%	2.6%	227	
잘 모르겠음	29.2%	39.1%	20.7%	9.0%	2.0%	445	
성남여자	32.6%	42.9%	15.1%	7.1%	2.3%	562	$\chi^2=10.81$ p = 0.02
학교급	25.9%	43.2%	16.6%	11.7%	2.6%	548	
고등학교	30.4%	38.6%	16.2%	11.1%	3.7%	593	$\chi^2=18.37$ p = 0.00
대학수준	27.7%	48.1%	15.6%	7.5%	1.0%	505	
생활수준	31.5%	44.8%	13.3%	6.9%	3.6%	248	$\chi^2= 7.34$ p = 0.49
상중하	29.2%	42.3%	16.2%	10.3%	2.0%	759	
하	25.5%	44.1%	18.6%	8.8%	2.9%	102	
용돈이	29.6%	39.1%	16.2%	11.9%	3.2%	537	$\chi^2=14.46$ p = 0.07
5만원~10만원	30.4%	43.7%	15.6%	7.4%	3.0%	135	
10만원 이상	28.8%	47.5%	15.4%	6.9%	1.4%	434	

[부록 표 VI-3-①] 우리 사회는 권력이나 돈으로 안되는 것이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 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7.0%	35.8%	15.6%	21.2%	10.2%	0.1%	1,110	
신	세 대 여 부	17.2%	32.6%	16.7%	21.1%	12.4%	0.0%	436	$\chi^2=19.03$ p = 0.03
신	세 대 임	21.1%	37.4%	10.1%	22.5%	8.4%	0.4%	227	
신	세 대 아 님	21.1%	37.4%	10.1%	22.5%	8.4%	0.4%	227	
잘	모 르 겠 음	14.4%	38.7%	17.1%	20.4%	9.4%	0.0%	445	
성									
남	별	19.8%	33.5%	14.2%	20.5%	12.1%	0.0%	562	$\chi^2=13.10$ p = 0.02
여	자	14.1%	38.3%	17.0%	21.9%	8.6%	0.2%	548	
학	교 등 급 학	18.7%	31.0%	15.9%	19.6%	14.8%	0.0%	593	$\chi^2=37.74$ p = 0.00
고	학 교	14.9%	41.8%	14.7%	23.2%	5.3%	0.2%	505	
대									
생	수 준 별	16.9%	30.6%	19.8%	19.8%	12.5%	0.4%	248	$\chi^2=12.98$ p = 0.22
	상	16.5%	37.3%	14.4%	21.7%	10.1%	0.0%	759	
	중 하	20.6%	37.3%	14.7%	20.6%	6.9%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이	18.6%	30.7%	15.1%	21.0%	14.5%	0.0%	537	$\chi^2=36.80$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상	12.6%	39.3%	23.0%	18.5%	6.7%	0.0%	135	
10 만 원 이 상		16.4%	41.0%	14.1%	22.4%	6.0%	0.2%	434	

[부록 표 VI-3-②] 시장이 개방되어도 우리사회는 충분히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 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9.5%	29.3%	23.7%	29.2%	8.3%	1,110	
신	세 대 여 부	12.4%	32.3%	24.1%	24.5%	6.7%	432	$\chi^2=16.86$ p = 0.03
신	세 대 임	7.5%	26.4%	22.5%	33.5%	10.1%	227	
신	세 대 아 님	7.6%	28.1%	23.8%	31.5%	9.0%	445	
잘	모 르 겠 음							
성	별	12.1%	30.1%	23.1%	25.4%	9.3%	562	$\chi^2=15.61$ p = 0.00
남	자	6.8%	29.0%	24.1%	33.0%	7.1%	548	
여								
학	교 등 급 학	12.3%	32.0%	21.9%	26.1%	7.6%	593	$\chi^2=19.76$ p = 0.00
고	학 교	6.1%	26.7%	25.1%	32.9%	9.1%	505	
대								
생	수 준 별	11.3%	33.1%	21.0%	26.2%	8.5%	248	$\chi^2=10.89$ p = 0.20
	상	9.6%	29.0%	24.2%	29.4%	7.8%	759	
	중 하	3.9%	24.5%	24.5%	35.3%	11.8%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이	10.8%	32.4%	22.5%	26.8%	7.4%	537	$\chi^2=18.48$ p = 0.01
5 만 원 ~ 10 만 원	상	11.9%	33.3%	20.7%	24.4%	9.6%	135	
10 만 원 이 상		7.1%	24.2%	26.0%	33.6%	9.0%	434	

[부록 표 VI-3-③]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5.3%	18.8%	19.6%	42.0%	13.9%	0.3%	1,110	
신	세 대 여 부	6.2%	18.3%	15.1%	45.2%	15.1%	0.0%	432	$\chi^2=22.23$ p = 0.01
신	세 대 아 녀	6.2%	13.7%	20.7%	44.9%	14.1%	0.4%	227	
잘	모 르 겠 음	4.3%	21.8%	23.6%	37.1%	12.8%	0.4%	445	
성	남 자	6.9%	20.6%	18.9%	39.5%	14.1%	0.0%	562	$\chi^2=11.96$ p = 0.35
남	여 자	3.8%	17.0%	20.3%	44.5%	13.9%	0.5%	548	
학	교 등 급 학	7.6%	21.6%	18.4%	38.6%	13.5%	0.3%	593	$\chi^2=22.45$ p = 0.00
고	대 학 교	2.8%	15.4%	21.2%	46.3%	14.1%	0.2%	505	
생	활 수 준 별	6.9%	14.5%	17.7%	43.1%	17.7%	0.0%	248	$\chi^2=10.27$ p = 0.41
	상 중 하	5.1%	20.0%	19.9%	41.9%	12.6%	0.4%	759	
		3.9%	19.6%	21.6%	40.2%	14.7%	0.0%	102	
용	돈 이 별	6.1%	22.2%	18.1%	39.5%	13.8%	0.4%	537	$\chi^2=23.52$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이 하	8.9%	17.0%	25.9%	38.5%	9.6%	0.0%	135	
10 만 원 이 상		3.2%	15.2%	19.6%	46.3%	15.4%	0.2%	434	

[부록 표 VI-3-④]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6.4%	28.7%	28.8%	30.7%	5.4%	1,110	
신	세 대 여 부	8.5%	32.6%	27.8%	26.4%	4.8%	432	$\chi^2=21.07$ p = 0.00
신	세 대 아 녀	3.5%	25.6%	25.6%	38.3%	7.0%	227	
잘	모 르 겠 음	5.6%	26.7%	31.9%	30.8%	4.9%	445	
성	남 자	5.5%	24.6%	29.9%	34.2%	5.9%	562	$\chi^2=13.50$ p = 0.00
남	여 자	7.3%	32.8%	27.9%	27.0%	4.9%	548	
학	교 등 급 학	8.9%	27.5%	30.4%	27.7%	5.6%	593	$\chi^2=18.15$ p = 0.00
고	대 학 교	3.6%	29.7%	27.1%	34.7%	5.0%	505	
생	활 수 준 별	7.3%	30.2%	27.8%	29.0%	5.6%	248	$\chi^2= 6.11$ p = 0.63
	상 중 하	6.5%	28.2%	30.0%	30.2%	5.1%	759	
		3.9%	28.4%	22.5%	38.2%	6.9%	102	
용	돈 이 별	7.8%	25.7%	32.6%	27.9%	6.0%	537	$\chi^2=19.18$ p = 0.13
5 만 원 ~ 10 만 원	이 하	8.1%	34.8%	21.5%	30.4%	5.2%	135	
10 만 원 이 상		4.1%	30.4%	26.5%	34.1%	4.8%	434	

7.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적응력

[부록 표 VII-1]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0.9%	41.0%	29.2%	7.8%	1.2%	1,110	
신	세 대 여 부	24.8%	40.4%	28.4%	5.3%	1.1%	432	$\chi^2=13.78$
신	세 대 아 녀	20.7%	39.6%	28.2%	10.1%	1.3%	227	$p = 0.08$
잘	모 르 겠 음	16.9%	41.8%	31.0%	9.2%	1.1%	445	
성	남	19.8%	41.3%	29.4%	8.0%	1.6%	562	$\chi^2= 2.49$
여	자	21.9%	40.7%	29.0%	7.7%	0.7%	548	$p = 0.64$
학	교 등 급 학	19.4%	38.4%	31.4%	9.1%	1.7%	593	$\chi^2=10.93$
고	대	22.4%	44.2%	26.5%	6.3%	0.6%	505	$p = 0.02$
대	학							
생	활 수 준 별							
	상	27.8%	41.1%	23.8%	6.5%	0.8%	248	$\chi^2=14.25$
	중	19.0%	40.8%	31.2%	7.6%	1.3%	759	$p = 0.07$
	하	17.6%	41.2%	28.4%	11.8%	1.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20.1%	39.1%	30.0%	8.9%	1.9%	537	$\chi^2=13.60$
5만 원~10만 원		15.6%	45.2%	34.1%	5.2%	0.0%	135	$p = 0.09$
10 만 원 이	상	23.5%	41.9%	26.7%	7.1%	0.7%	434	

[부록 표 VII-2] 대부분의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7.7%	48.5%	36.1%	7.5%	0.2%	0.1%	1,110	
신	세 대 여 부	8.0%	52.1%	31.9%	7.8%	0.0%	0.2%	432	$\chi^2=21.41$
신	세 대 아 녀	9.7%	52.4%	30.4%	7.5%	0.0%	0.0%	227	$p = 0.01$
잘	모 르 겠 음	6.1%	43.1%	42.7%	7.6%	0.4%	0.0%	445	
성	남	8.2%	49.1%	34.9%	7.3%	0.4%	0.2%	562	$\chi^2= 3.97$
여	자	7.1%	47.8%	37.2%	7.8%	0.0%	0.0%	548	$p = 0.55$
학	교 등 급 학	6.6%	44.4%	41.5%	7.3%	0.2%	0.2%	593	$\chi^2=18.51$
고	대	8.9%	53.5%	29.5%	7.9%	0.2%	0.0%	505	$p = 0.00$
대	학								
생	활 수 준 별								
	상	12.9%	52.8%	28.2%	6.0%	0.0%	0.0%	248	$\chi^2=22.15$
	중	5.8%	47.6%	38.5%	7.8%	0.3%	0.1%	759	$p = 0.01$
	하	8.8%	45.1%	36.3%	9.8%	0.0%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6.3%	43.4%	42.8%	7.1%	0.2%	0.2%	537	$\chi^2=25.78$
5만 원~10만 원		6.7%	51.9%	34.8%	6.7%	0.0%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9.7%	53.7%	28.1%	8.3%	0.2%	0.0%	434	

[부록 표 VII-3] 창의적인 구상이나 제안을 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9.9%	36.4%	40.8%	11.5%	1.3%	0.2%	1,110	
신	세 대 여 부	14.0%	42.7%	36.2%	6.0%	0.7%	0.5%	432	$\chi^2=61.02$ p = 0.00
신	세 대 아 녀	10.6%	35.7%	36.1%	15.9%	1.8%	0.0%	227	
잘	모 르 겠 음	5.2%	30.3%	47.6%	15.3%	1.6%	0.0%	445	
성	남	11.6%	37.2%	39.9%	10.3%	1.1%	0.0%	562	$\chi^2= 8.25$ p = 0.14
여	자	8.0%	35.4%	41.6%	13.1%	1.5%	0.4%	548	
학	교 등 급	10.8%	36.8%	39.0%	11.6%	1.5%	0.3%	593	$\chi^2= 4.51$ p = 0.47
고	학 교	8.7%	36.0%	42.8%	11.5%	1.0%	0.0%	505	
대	학 교								
상	활 수 준	14.1%	41.5%	35.5%	6.9%	1.2%	0.8%	248	$\chi^2=25.57$ p = 0.00
	상 중	9.0%	35.0%	41.9%	12.9%	1.2%	0.0%	759	
	하	5.9%	33.3%	44.1%	14.7%	2.0%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10.6%	35.4%	39.5%	12.7%	1.5%	0.4%	537	$\chi^2=11.83$ p = 0.29
5만원~10만원		6.7%	44.4%	38.5%	8.1%	2.2%	0.0%	135	
10 만 원 이	상	9.9%	35.3%	43.1%	11.1%	0.7%	0.0%	434	

[부록 표 VII-4] 외국문화를 이해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려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4.5%	41.8%	31.3%	11.4%	1.1%	1,110	
신	세 대 여 부	20.9%	48.9%	25.0%	4.6%	0.7%	432	$\chi^2=76.09$ p = 0.00
신	세 대 아 녀	12.3%	38.8%	30.0%	17.2%	1.8%	227	
잘	모 르 겠 음	9.0%	36.2%	38.4%	15.3%	1.1%	445	
성	남	14.2%	42.7%	30.6%	11.0%	1.4%	562	$\chi^2= 1.80$ p = 0.77
여	자	14.6%	40.9%	31.9%	11.9%	0.7%	548	
학	교 등 급	15.9%	40.8%	32.0%	9.8%	1.5%	593	$\chi^2= 7.11$ p = 0.12
고	학 교	12.7%	43.0%	30.7%	13.1%	0.6%	505	
대	학 교							
생	활 수 준	21.8%	44.4%	24.2%	8.1%	1.6%	248	$\chi^2=22.12$ p = 0.00
	상 중	12.1%	41.1%	33.6%	12.3%	0.9%	759	
	하	13.7%	41.2%	30.4%	13.7%	1.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14.0%	41.2%	33.1%	10.4%	1.3%	537	$\chi^2= 5.81$ p = 0.66
5만원~10만원		17.8%	39.3%	32.6%	9.6%	0.7%	135	
10 만 원 이	상	14.1%	43.3%	28.6%	13.1%	0.9%	434	

[부록 표 VII-5]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30.7%	52.2%	13.1%	3.4%	0.4%	0.3%	1,110	
신	세 대 여 부	39.2%	46.3%	12.4%	1.8%	0.2%	0.0%	432	$\chi^2=32.47$ p = 0.00
신	세 대 아 님	27.3%	54.6%	12.8%	4.4%	0.4%	0.4%	227	
신	세 대 아 님	23.6%	56.4%	14.2%	4.9%	0.4%	0.4%	445	
성	남	31.1%	52.3%	11.6%	3.9%	0.7%	0.4%	562	$\chi^2= 6.81$ p = 0.23
여	자	30.1%	51.6%	14.8%	3.3%	0.0%	0.2%	548	
학	고 등 학	31.4%	46.4%	16.5%	5.1%	0.3%	0.3%	593	$\chi^2=25.37$ p = 0.00
고	대 학	30.1%	58.0%	9.3%	2.0%	0.4%	0.2%	505	
생	수 준	41.1%	47.2%	10.1%	1.6%	0.0%	0.0%	248	$\chi^2=12.94$ p = 0.01
활	상	27.7%	53.5%	13.8%	4.1%	0.5%	0.4%	759	
	중 하	27.5%	52.9%	15.7%	3.9%	0.0%	0.0%	102	
용	돈 이	30.2%	46.7%	17.7%	4.8%	0.4%	0.2%	537	$\chi^2=31.16$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이 하	30.4%	57.0%	8.1%	3.0%	0.7%	0.7%	135	
10 만 원 이 상	상	31.3%	57.4%	9.0%	1.8%	0.2%	0.2%	434	

[부록 표 VII-6]

타인의 입장이나 생각을 충분히 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4.9%	57.2%	23.7%	3.7%	0.4%	0.1%	1,110	
신	세 대 여 부	16.7%	53.9%	22.7%	5.7%	0.7%	0.2%	432	$\chi^2=23.70$ p = 0.00
신	세 대 아 님	18.9%	59.0%	18.9%	2.6%	0.4%	0.0%	227	
신	세 대 아 님	11.2%	59.3%	26.7%	2.7%	0.0%	0.0%	445	
성	남	15.5%	55.9%	24.6%	3.4%	0.5%	0.2%	562	$\chi^2= 3.59$ p = 0.60
여	자	14.4%	58.4%	22.6%	4.4%	0.2%	0.0%	548	
학	고 등 학	13.7%	53.3%	26.6%	5.6%	0.7%	0.2%	593	$\chi^2=23.98$ p = 0.00
고	대 학	16.4%	62.0%	19.6%	2.0%	0.0%	0.0%	505	
생	수 준	16.5%	54.4%	25.4%	3.2%	0.4%	0.0%	248	$\chi^2= 9.88$ p = 0.45
활	상	13.3%	58.6%	23.6%	4.0%	0.4%	0.1%	759	
	중 하	23.5%	52.9%	19.6%	3.9%	0.0%	0.0%	102	
용	돈 이	12.8%	53.4%	27.4%	5.6%	0.6%	0.2%	537	$\chi^2=27.54$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이 하	18.5%	57.0%	20.0%	3.7%	0.7%	0.0%	135	
10 만 원 이 상	상	16.4%	62.0%	20.3%	1.4%	0.0%	0.0%	434	

[부록 표 Ⅶ-7] 상황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무응답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11.6%	49.9%	29.6%	7.8%	0.9%	0.3%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17.9%	49.5%	26.1%	5.3%	0.9%	0.2%	432	$\chi^2=48.41$ p = 0.00
신	세 대 아	9.7%	48.5%	26.9%	13.2%	1.3%	0.4%	227	
갈	모 로 겠	5.8%	50.8%	34.8%	7.6%	0.7%	0.2%	445	
성	남								
여	별	11.9%	48.6%	30.4%	7.7%	1.4%	0.0%	562	$\chi^2= 7.43$ p = 0.19
	자	11.1%	51.3%	28.6%	8.0%	0.4%	0.5%	548	
학	교								
고	등	11.8%	48.2%	30.7%	7.8%	1.2%	0.3%	593	$\chi^2= 2.43$ p = 0.78
대	학	11.3%	51.5%	28.3%	8.1%	0.6%	0.2%	505	
성	활								
	수	14.9%	56.0%	22.2%	6.5%	0.4%	0.0%	248	$\chi^2=15.89$ p = 0.10
	상	10.7%	48.4%	31.6%	8.0%	0.9%	0.4%	759	
	중	9.8%	47.1%	31.4%	9.8%	2.0%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9.9%	46.9%	33.1%	8.4%	1.3%	0.4%	537	$\chi^2=23.52$ p = 0.00
5 만 원 ~ 10 만 원		20.7%	47.4%	26.7%	4.4%	0.7%	0.0%	135	
10 만 원 이 상		10.8%	54.4%	26.0%	8.1%	0.5%	0.2%	434	

[부록 표 Ⅶ-8] 우리민족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사례수	통 계 치
전	체	22.7%	38.5%	31.6%	6.0%	1.3%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임	24.8%	35.1%	31.4%	6.9%	1.8%	432	$\chi^2=16.30$ p = 0.03
신	세 대 아	26.9%	39.6%	26.0%	6.2%	1.3%	227	
갈	모 로 겠	18.2%	41.8%	34.4%	4.9%	0.7%	445	
성	남							
여	별	24.2%	39.5%	29.5%	5.3%	1.4%	562	$\chi^2= 3.86$ p = 0.42
	자	21.0%	37.8%	33.6%	6.6%	1.1%	548	
학	교							
고	등	23.6%	35.8%	32.2%	6.7%	1.7%	593	$\chi^2= 7.37$ p = 0.01
대	학	21.8%	42.4%	30.3%	4.8%	0.8%	505	
상	활							
	수	24.2%	34.3%	32.7%	7.7%	1.2%	248	$\chi^2=13.57$ p = 0.09
	상	22.5%	40.3%	31.1%	4.6%	1.4%	759	
	중	19.6%	36.3%	32.4%	11.8%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22.9%	37.6%	31.8%	6.3%	1.3%	537	$\chi^2= 5.34$ p = 0.72
5 만 원 ~ 10 만 원		20.0%	40.7%	31.1%	5.2%	3.0%	135	
10 만 원 이 상		23.3%	38.9%	31.3%	5.8%	0.7%	434	

8. 사회변화에 대한 환영정도

[부록 표 VIII-1]

돈의 가치가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된다

		환영함	환영하지 않음	무관심함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51.0%	31.9%	16.9%	0.2%	1,110	
신세대	여부						
신세대	임	53.9%	31.9%	14.2%	0.0%	432	$\chi^2=16.05$
신세대	님	50.7%	36.1%	13.2%	0.0%	227	$p = 0.01$
잘모르겠음		48.1%	30.1%	21.1%	0.7%	445	
성남여	별자						
성남여	자	50.7%	31.1%	18.1%	0.0%	562	$\chi^2= 3.51$
성남여	자	51.1%	33.0%	15.5%	0.4%	548	$p = 0.31$
학교	급별						
고등	교	47.7%	33.9%	18.2%	0.2%	593	$\chi^2= 4.76$
대학	교	54.3%	30.1%	15.4%	0.2%	550	$p = 0.18$
생활	수준						
생활	별						
생활	상	45.2%	35.5%	19.0%	0.4%	248	$\chi^2= 7.77$
생활	중	51.9%	31.0%	17.0%	0.1%	759	$p = 0.25$
생활	하	57.8%	31.4%	10.8%	0.0%	102	
용돈	별						
5만원 이하		49.0%	32.4%	18.4%	0.2%	537	$\chi^2= 7.76$
5만원~10만원		45.9%	39.3%	14.8%	0.0%	135	$p = 0.25$
10만원 이상		55.1%	29.0%	15.7%	0.2%	434	

[부록 표 VIII-2]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간다

		환영함	환영하지 않음	무관심함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2.6%	92.4%	4.7%	0.3%	1,110	
신세대	여부						
신세대	임	3.7%	91.1%	5.3%	0.0%	432	$\chi^2=10.72$
신세대	님	0.4%	94.3%	4.8%	0.4%	227	$p = 0.09$
잘모르겠음		3.1%	91.9%	4.0%	0.9%	445	
성남여	별자						
성남여	자	3.9%	89.7%	6.2%	0.2%	562	$\chi^2=12.72$
성남여	자	1.6%	94.7%	3.1%	0.5%	548	$p = 0.00$
학교	급별						
고등	교	4.2%	89.4%	6.1%	0.3%	593	$\chi^2=15.61$
대학	교	1.2%	95.4%	3.0%	0.4%	505	$p = 0.00$
생활	수준						
생활	별						
생활	상	3.2%	92.7%	3.2%	0.8%	248	$\chi^2= 3.89$
생활	중	2.6%	92.0%	5.1%	0.3%	759	$p = 0.69$
생활	하	2.0%	93.1%	4.9%	0.0%	102	
용돈	별						
5만원 이하		3.7%	89.9%	6.0%	0.4%	537	$\chi^2=12.25$
5만원~10만원		2.2%	91.9%	5.9%	0.0%	135	$p = 0.05$
10만원 이상		1.4%	95.6%	2.8%	0.2%	434	

[부록 표 VIII-3]

민족문화의 고유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

		환영함	환영하지 않음	무관심함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신신	체대여부	3.4%	82.8%	13.3%	0.5%	1,110	
신신	세대아	5.5%	80.7%	13.3%	0.5%	432	$\chi^2=13.52$
신신	세대아	2.2%	87.2%	9.7%	0.9%	227	$p=0.03$
잘모르겠음		2.0%	82.2%	15.1%	0.7%	445	
성남여	별자	4.6%	80.2%	14.6%	0.5%	562	$\chi^2=6.40$
		2.4%	85.2%	11.9%	0.5%	548	$p=0.09$
화고대	급학	4.6%	80.3%	14.3%	0.8%	593	$\chi^2=8.16$
		2.4%	85.7%	11.7%	0.2%	505	$p=0.04$
생활수준	별						
		4.0%	77.8%	17.3%	0.8%	248	$\chi^2=6.15$
		3.4%	84.1%	12.0%	0.5%	759	$p=0.40$
		2.9%	84.3%	12.7%	0.0%	102	
용돈	돈						
5만원이하		5.0%	79.7%	14.5%	0.7%	537	$\chi^2=12.30$
5만원~10만원		2.2%	85.2%	12.6%	0.0%	135	$p=0.05$
10만원이상		1.8%	85.9%	12.0%	0.2%	434	

[부록 표 VIII-4]

놀이나 여가문화가 점차 중요하게 생각된다

		환영함	환영하지 않음	무관심함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신신	체대여부	81.6%	9.4%	8.1%	0.8%	1,110	
신신	세대아	82.8%	10.6%	5.7%	0.9%	432	$\chi^2=9.98$
신신	세대아	80.6%	6.6%	11.9%	0.9%	227	$p=0.13$
잘모르겠음		80.7%	9.7%	8.8%	0.9%	445	
성남여	별자	78.5%	9.8%	11.0%	0.7%	562	$\chi^2=12.58$
		84.5%	9.3%	5.3%	0.9%	548	$p=0.00$
화고대	급학	78.2%	10.3%	10.1%	1.3%	593	$\chi^2=11.83$
		85.0%	8.7%	6.1%	0.2%	505	$p=0.00$
생활수준	별						
		86.3%	7.3%	5.2%	1.2%	248	$\chi^2=8.08$
		79.8%	10.5%	8.8%	0.8%	759	$p=0.23$
		82.4%	7.8%	9.8%	0.0%	102	
용돈	돈						
5만원이하		77.5%	10.4%	10.8%	1.3%	537	$\chi^2=16.55$
5만원~10만원		83.0%	9.6%	6.7%	0.7%	135	$p=0.01$
10만원이상		86.4%	8.1%	5.3%	0.2%	434	

[부록 표 VIII-5] 세계화됨에 따라 민족과 국가간에 경계가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환영함	환영하지 않음	무관심함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65.6%	25.1%	8.9%	0.5%	1,110	
신세대	여부	68.8%	21.8%	9.4%	0.0%	432	$\chi^2=12.37$ p = 0.05
신세대	아님	65.6%	27.8%	6.2%	0.4%	227	
신세대	잘 모르겠음	62.0%	27.2%	9.7%	1.1%	445	
성남여	별자	64.6%	25.3%	9.8%	0.4%	562	$\chi^2=1.55$ p = 0.67
성남여	자	66.4%	25.2%	7.8%	0.5%	548	
학교	급	65.4%	24.5%	9.8%	0.3%	593	$\chi^2=2.17$ p = 0.53
고대	학	65.1%	26.5%	7.7%	0.6%	505	
생활	수준	67.3%	25.4%	6.9%	0.4%	248	$\chi^2=3.49$ p = 0.45
생활	중하	64.8%	25.6%	9.1%	0.5%	789	
생활	하	66.7%	21.6%	11.8%	0.0%	120	
용돈	별	64.8%	23.8%	11.0%	0.4%	537	$\chi^2=7.42$ p = 0.37
5만원 이하		65.9%	26.7%	7.4%	0.0%	135	
5만원~10만원 이상		66.4%	26.3%	6.7%	0.7%	434	

[부록 표 VIII-6] 개방화 추세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 유입이 확대될 것이다

		환영함	환영하지 않음	무관심함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17.8%	66.1%	15.6%	0.5%	1,110	
신세대	여부	20.9%	62.6%	16.3%	0.2%	432	$\chi^2=10.87$ p = 0.09
신세대	아님	15.9%	71.8%	11.5%	0.9%	227	
신세대	잘 모르겠음	15.5%	67.0%	16.6%	0.9%	445	
성남여	별자	25.1%	56.9%	17.4%	0.5%	562	$\chi^2=50.85$ p = 0.00
성남여	자	10.4%	75.5%	13.5%	0.5%	548	
학교	급	21.1%	63.1%	15.3%	0.5%	593	$\chi^2=8.83$ p = 0.03
고대	학	14.3%	69.5%	15.6%	0.6%	505	
생활	수준	16.9%	68.5%	14.5%	0.0%	248	$\chi^2=4.80$ p = 0.56
생활	중하	18.3%	65.6%	15.3%	0.8%	759	
생활	하	15.7%	64.7%	19.6%	0.0%	102	
용돈	별	19.9%	63.7%	15.8%	0.6%	537	$\chi^2=6.03$ p = 0.41
5만원 이하		12.6%	72.6%	14.8%	0.0%	135	
5만원~10만원 이상		16.8%	67.1%	15.4%	0.7%	434	

[부록 표 VIII-7] 개인의 생각과 가치가 우선하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중요해진다

		환영함	환영하지 않음	무관심함	무응답	사례수	통계치
전체		26.9%	58.4%	14.3%	0.5%	1,110	
신세대	여부						
신세대	입문	32.8%	50.0%	17.2%	0.0%	432	$\chi^2=35.44$ p = 0.00
신세대	아님	22.0%	68.7%	9.3%	0.0%	227	
잘모르겠음		23.6%	61.6%	13.5%	1.3%	445	
성남여	별자						
남자		24.7%	59.1%	16.0%	0.2%	562	$\chi^2= 6.55$ p = 0.08
여자		29.2%	57.7%	12.4%	0.7%	548	
학교	급별						
고등학교		25.8%	57.0%	16.7%	0.5%	593	$\chi^2= 7.26$ p = 0.06
대학		28.3%	60.2%	11.1%	0.4%	505	
생활수준	별						
상		30.6%	56.9%	12.1%	0.4%	248	$\chi^2= 3.71$ p = 0.71
중		26.2%	58.5%	14.8%	0.5%	759	
하		23.5%	60.8%	15.7%	0.0%	102	
용돈	별						
5만 원 이하		25.3%	57.7%	16.6%	0.4%	537	$\chi^2= 9.18$ p = 0.16
5만원~10만원		24.4%	59.3%	16.3%	0.0%	135	
10만원 이상		29.5%	59.0%	10.8%	0.7%	434	

9. 새로운 서비스·시설물 이용정도

[부록 표 IX-1]

음성정보 서비스의 이용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66.1%		33.7%		0.2%			1,110					
신	세	71.1%		28.9%		0.0%			432			$\chi^2=21.39$		
신	세	53.7%		45.8%		0.4%			227			$p = 0.00$		
신	세	66.7%		33.0%		0.2%			445					
잘	모													
알	르													
성	남	65.7%		34.3%		0.0%			562			$\chi^2= 2.18$		
남	여	66.4%		33.2%		0.4%			548			$p = 0.33$		
학	교	76.1%		23.8%		0.2%			593			$\chi^2=55.94$		
고	등	54.7%		45.1%		0.2%			505			$p = 0.00$		
대	학													
생	활	67.3%		32.7%		0.0%			248			$\chi^2= 5.16$		
	수	66.7%		33.1%		0.3%			759			$p = 0.27$		
	상	56.9%		43.1%		0.0%			102					
	중													
	하													
용	돈	73.7%		25.9%		0.4%			537			$\chi^2=31.27$		
5	만	62.2%		37.8%		0.0%			135			$p = 0.00$		
만	원													
원	~													
10	만	57.8%		42.2%		0.0%			434					
만	원													
	이													
	상													

[부록 표 IX-2]

락 카페 이용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43.4%		56.4%		0.2%			1,110					
신	세	45.6%		54.4%		0.0%			432			$\chi^2= 10.77$		
신	세	49.3%		50.2%		0.4%			227			$p = 0.02$		
신	세	38.2%		61.6%		0.2%			445					
잘	모													
알	르													
성	남	45.4%		54.6%		0.0%			562			$\chi^2= 3.84$		
남	여	41.2%		58.4%		0.4%			548			$p = 0.14$		
학	교	15.2%		84.7%		0.2%			593			$\chi^2=405.16$		
고	등	75.4%		24.4%		0.2%			505			$p = 0.00$		
대	학													
생	활	48.8%		51.2%		0.0%			248			$\chi^2= 11.17$		
	수	40.3%		59.4%		0.3%			759			$p = 0.02$		
	상	53.9%		46.1%		0.0%			102					
	중													
	하													
용	돈	13.6%		86.0%		0.4%			537			$\chi^2=415.01$		
5	만	48.9%		51.1%		0.0%			135			$p = 0.00$		
만	원													
원	~													
10	만	78.6%		21.4%		0.0%			434					
만	원													
	이													
	상													

[부록 표 IX-3]

배배(무선호출기)의 보유

	있	다	없	다	무응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신	8.9%		91.0%		0.2%	1,110					
신											
신	12.6%		87.4%		0.0%	432			$\chi^2=14.27$		
신	6.6%		93.0%		0.4%	227			p = 0.00		
신	6.3%		93.5%		0.2%	445					
신											
신	11.0%		89.0%		0.0%	562			$\chi^2= 8.21$		
신	6.8%		92.9%		0.4%	548			p = 0.01		
신											
신	7.3%		92.6%		0.2%	593			$\chi^2= 4.46$		
신	10.9%		88.9%		0.2%	505			p = 0.10		
신											
신	10.1%		89.9%		0.0%	248			$\chi^2= 1.76$		
신	8.3%		91.4%		0.3%	759			p = 0.77		
신	9.8%		90.2%		0.0%	102					
신											
신	5.4%		94.2%		0.4%	537			$\chi^2=17.67$		
신	11.1%		88.9%		0.0%	135			p = 0.00		
신	12.4%		87.6%		0.0%	434					

[부록 표 IX-4]

해외연수 및 여행 경험

	있	다	없	다	무응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신	12.3%		87.4%		0.3%	1,110					
신											
신	13.1%		86.7%		0.2%	432			$\chi^2= 4.58$		
신	15.4%		84.1%		0.4%	227			p = 0.33		
신	10.1%		89.7%		0.2%	445					
신											
신	12.3%		87.7%		0.0%	562			$\chi^2= 3.12$		
신	12.6%		86.9%		0.5%	548			p = 0.20		
신											
신	9.3%		90.4%		0.3%	593			$\chi^2=11.64$		
신	16.0%		83.8%		0.2%	505			p = 0.00		
신											
신	26.2%		73.8%		0.0%	248			$\chi^2=57.98$		
신	8.2%		91.4%		0.4%	759			p = 0.00		
신	9.8%		90.2%		0.0%	102					
신											
신	7.3%		92.2%		0.6%	537			$\chi^2=27.47$		
신	16.3%		83.7%		0.0%	135			p = 0.00		
신	17.3%		82.7%		0.0%	434					

[부록 표 IX-5]

전화사서함 이용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22.8%	76.9%	0.4%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대 임	33.0%	66.7%	0.2%	432	$\chi^2=45.30$
신	세 대 아 님	13.7%	85.9%	0.4%	227	$p = 0.00$
잘	모 르 겠 음	17.1%	82.5%	0.4%	445	
성	남					
남	자	19.8%	80.2%	0.0%	562	$\chi^2=10.09$
여	자	25.7%	73.5%	0.7%	548	$p = 0.00$
학	교 급					
고	등 학	27.5%	72.0%	0.5%	593	$\chi^2=17.96$
대	학 교	17.0%	82.8%	0.2%	505	$p = 0.00$
생	활 수 준					
	상	27.4%	72.6%	0.0%	248	$\chi^2= 6.69$
	중	21.9%	77.6%	0.5%	759	$p = 0.15$
	하	17.6%	82.4%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22.9%	76.4%	0.7%	537	$\chi^2=15.72$
5만 원 ~ 10만 원		33.3%	66.7%	0.0%	135	$p = 0.00$
10 만 원 이 상		19.4%	80.6%	0.0%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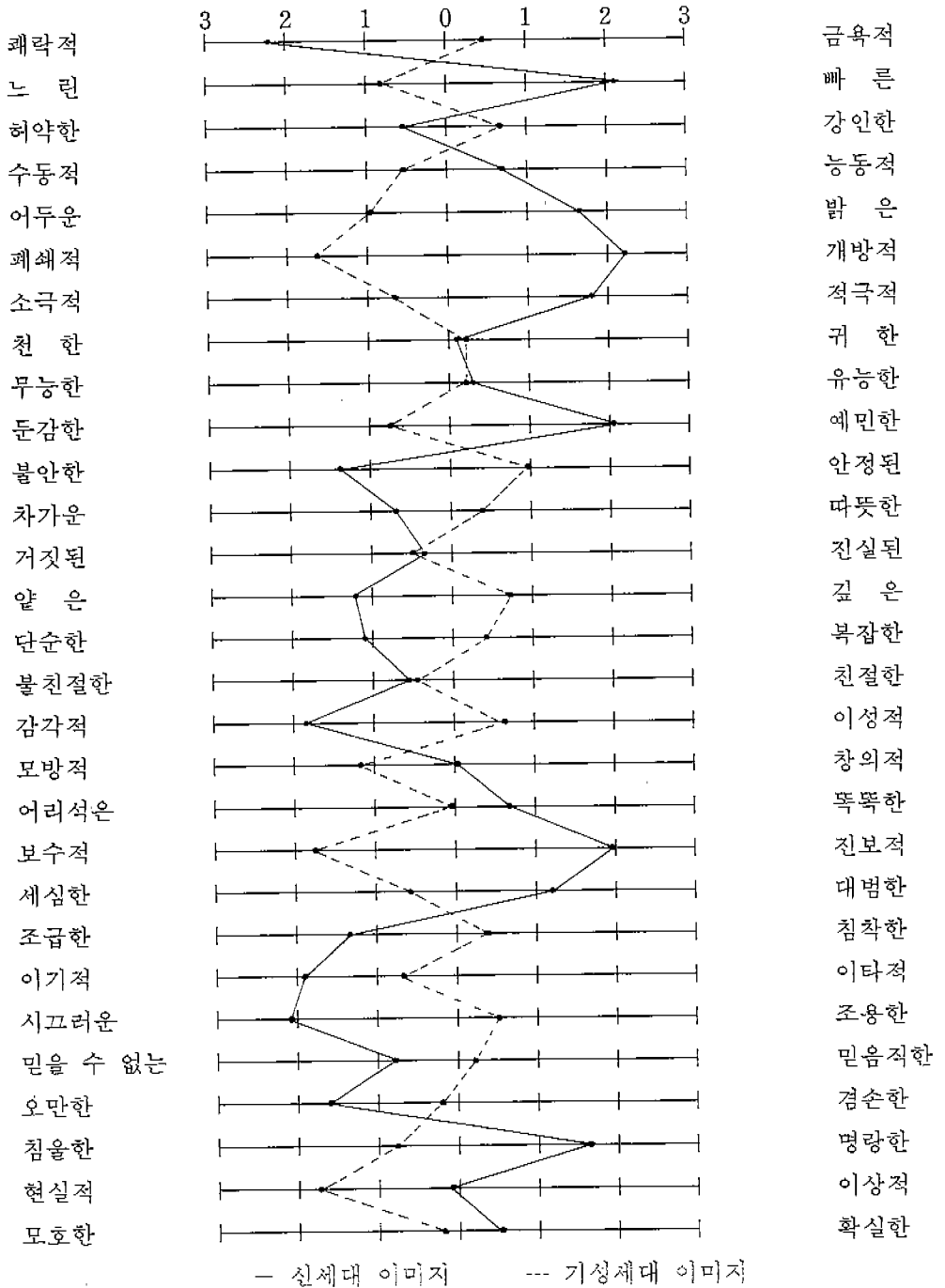
[부록 표 IX-6]

연예인 팬클럽 가입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3.9%	95.9%	0.2%	1,110	
신	세 대 여 부					
신	세 대 대 임	6.0%	94.0%	0.0%	432	$\chi^2= 9.11$
신	세 대 아 님	2.6%	96.9%	0.4%	227	$p = 0.05$
잘	모 르 겠 음	2.7%	97.1%	0.2%	445	
성	남					
남	자	2.3%	97.7%	0.0%	562	$\chi^2=10.27$
여	자	5.7%	94.0%	0.4%	548	$p = 0.00$
학	교 급					
고	등 학	4.4%	95.4%	0.2%	593	$\chi^2= 0.48$
대	학 교	3.6%	96.2%	0.2%	505	$p = 0.78$
생	활 수 준					
	상	7.7%	92.3%	0.0%	248	$\chi^2=14.17$
	중	3.0%	96.7%	0.3%	759	$p = 0.00$
	하	1.0%	99.0%	0.0%	102	
용	돈					
5 만 원 이	하	3.5%	96.1%	0.4%	537	$\chi^2= 2.47$
5만 원 ~ 10만 원		4.4%	95.6%	0.0%	135	$p = 0.64$
10 만 원 이 상		4.1%	95.9%	0.0%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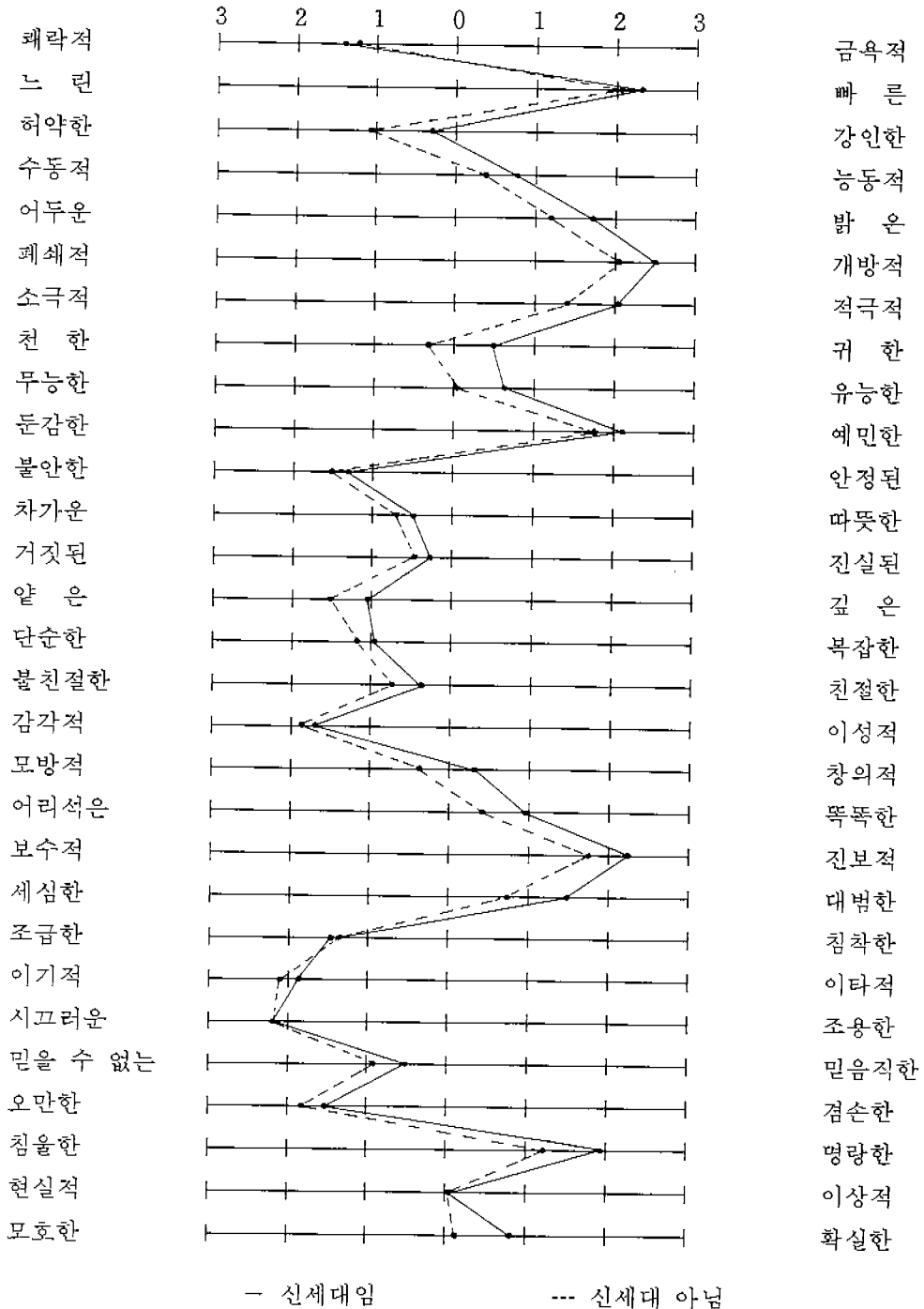
□ 이미지 파일 비교
[부록 그림 1]

〈설문 응답 청소년 전체에 의한 기성세대와 신세대 이미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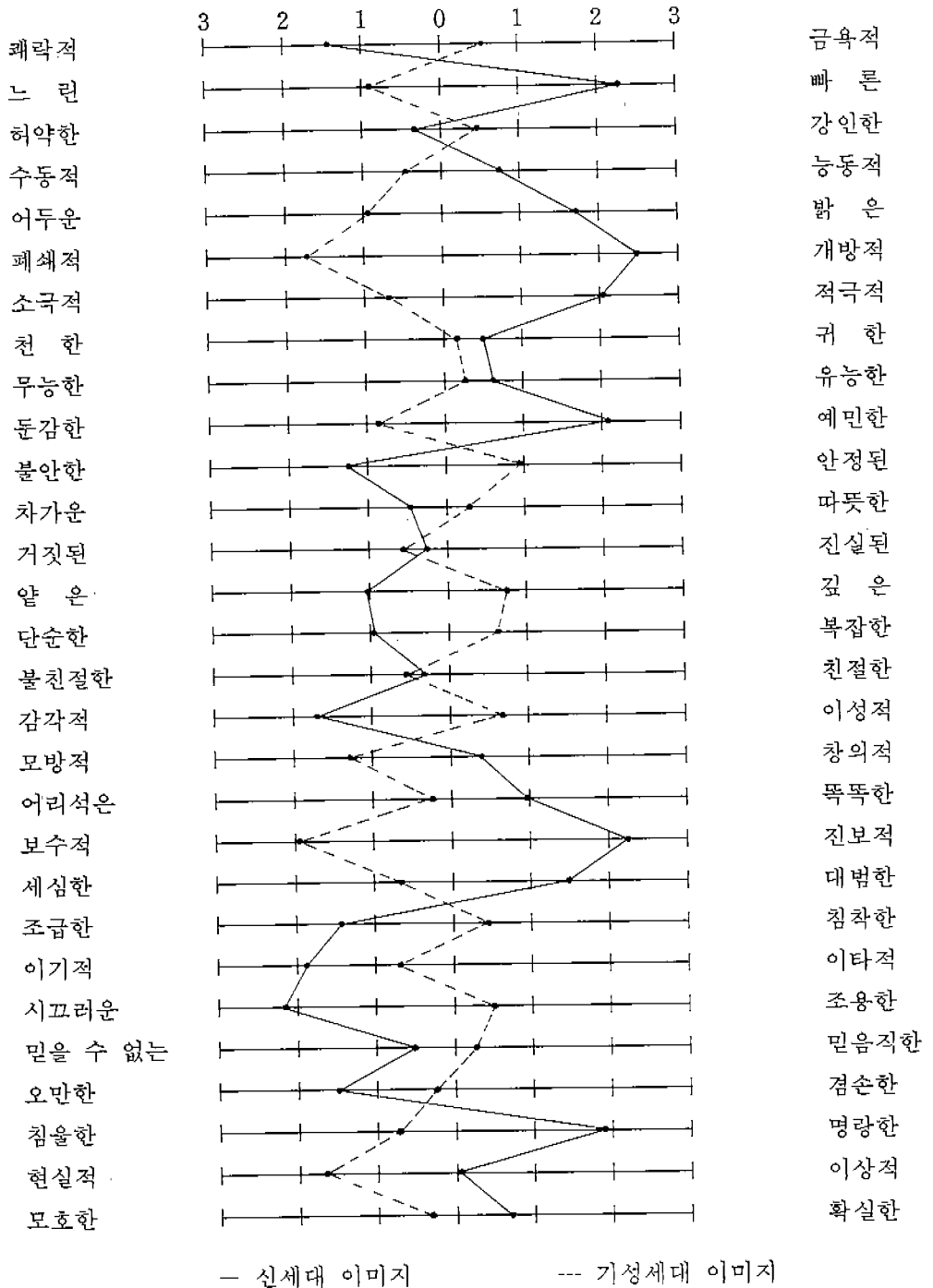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신세대 여부에 따른 신세대 이미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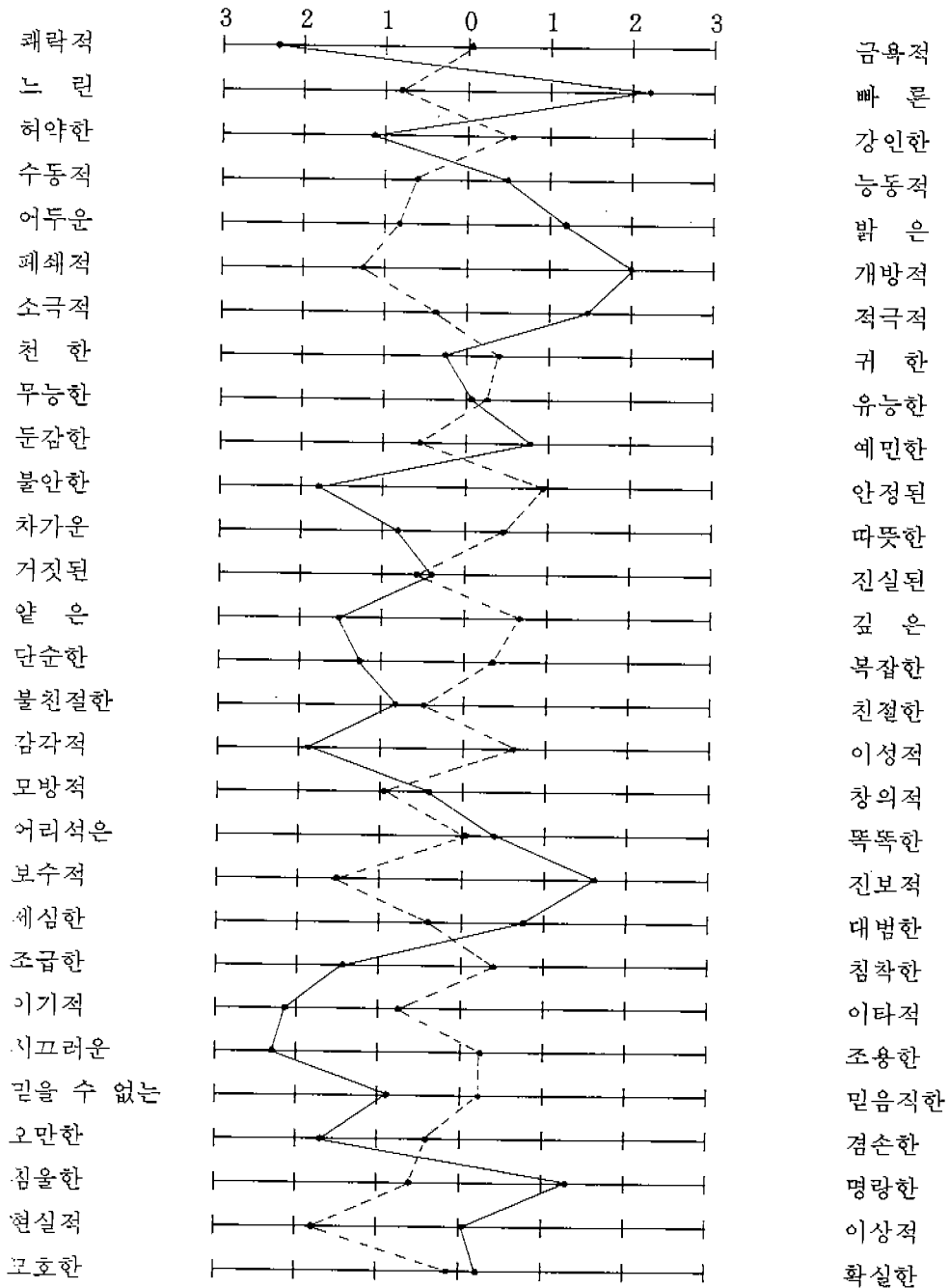
[부록 그림 3]

〈신세대가 본 기성세대와 신세대 이미지 비교〉



[부록 그림 4]

〈신세대가 아니라고 한 경우의 신세대와 기성세대 이미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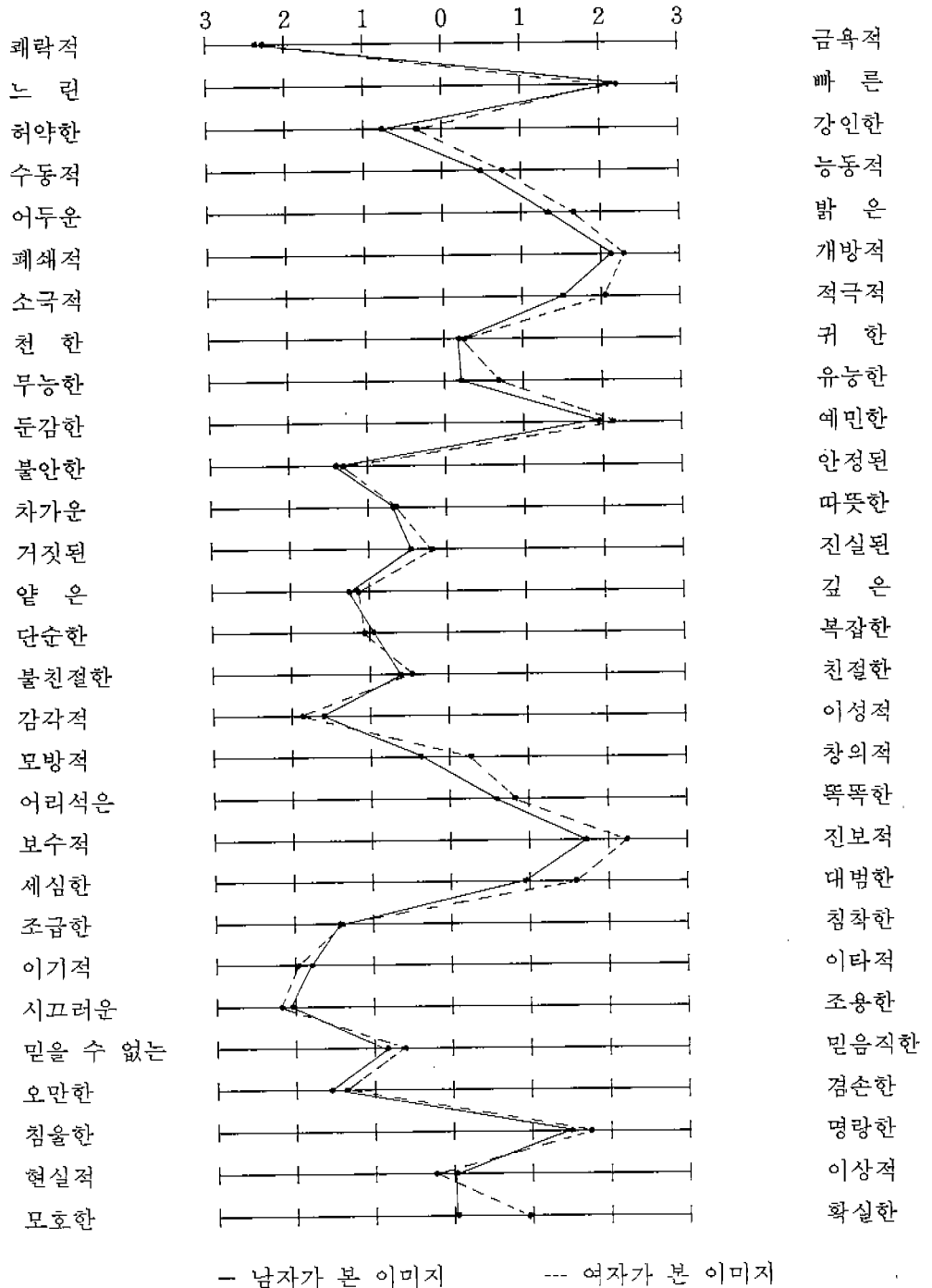


— 신세대 이미지

--- 기성세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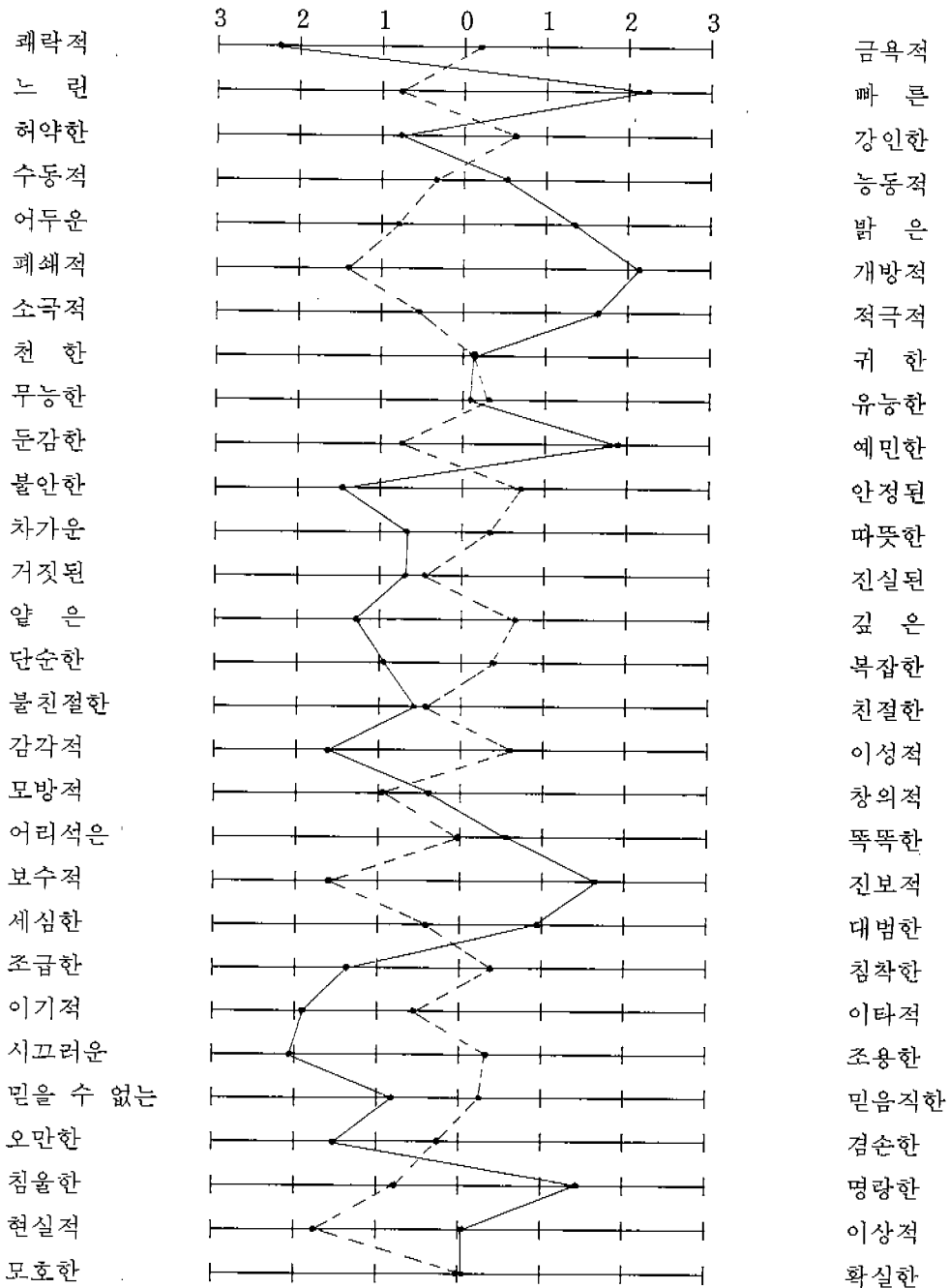
[부록 그림 5]

〈성별에 따라서 본 신세대 이미지 비교〉



[부록 그림 6]

〈남자가 본 신세대와 기성세대 이미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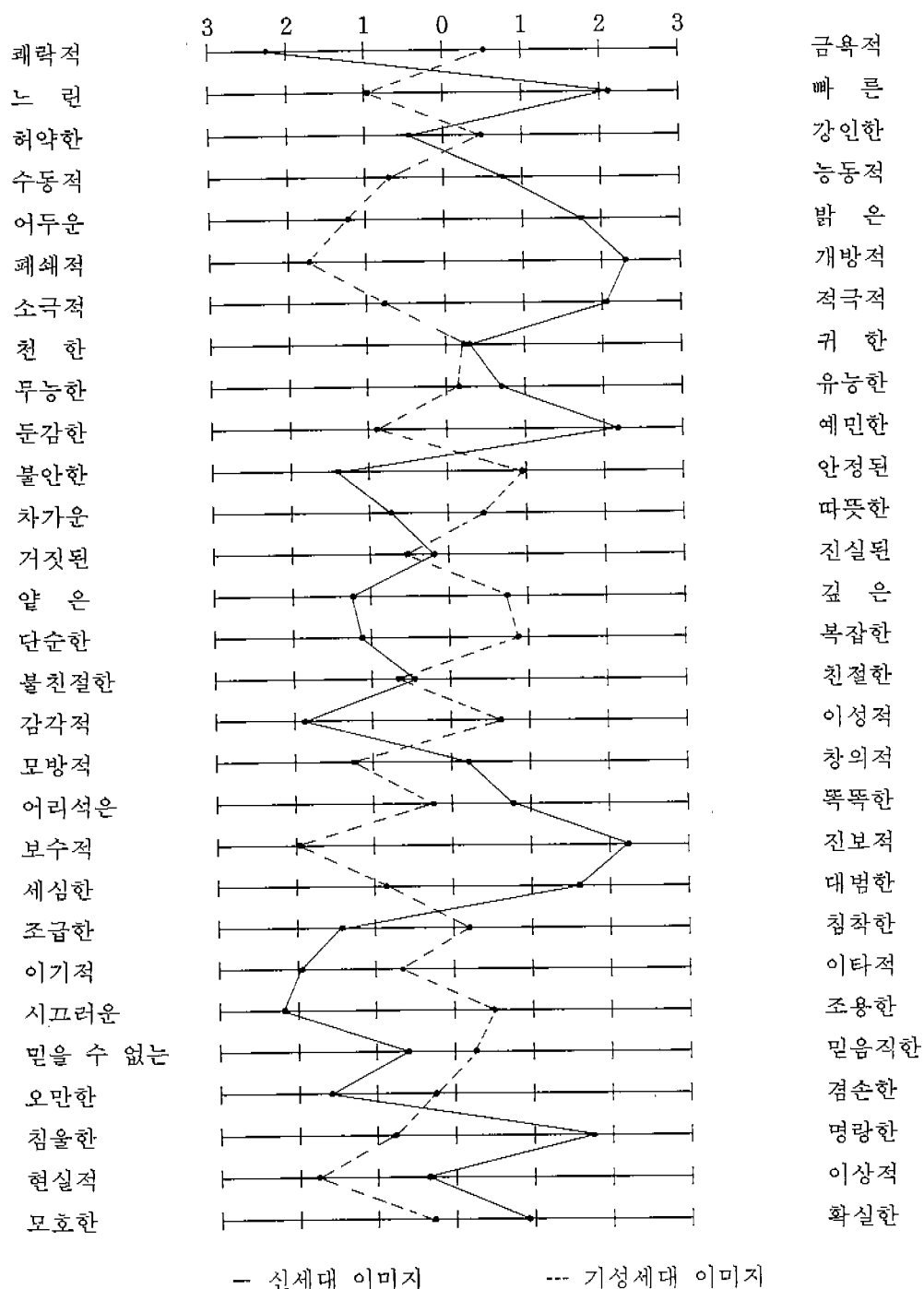


— 신세대 이미지

--- 기성세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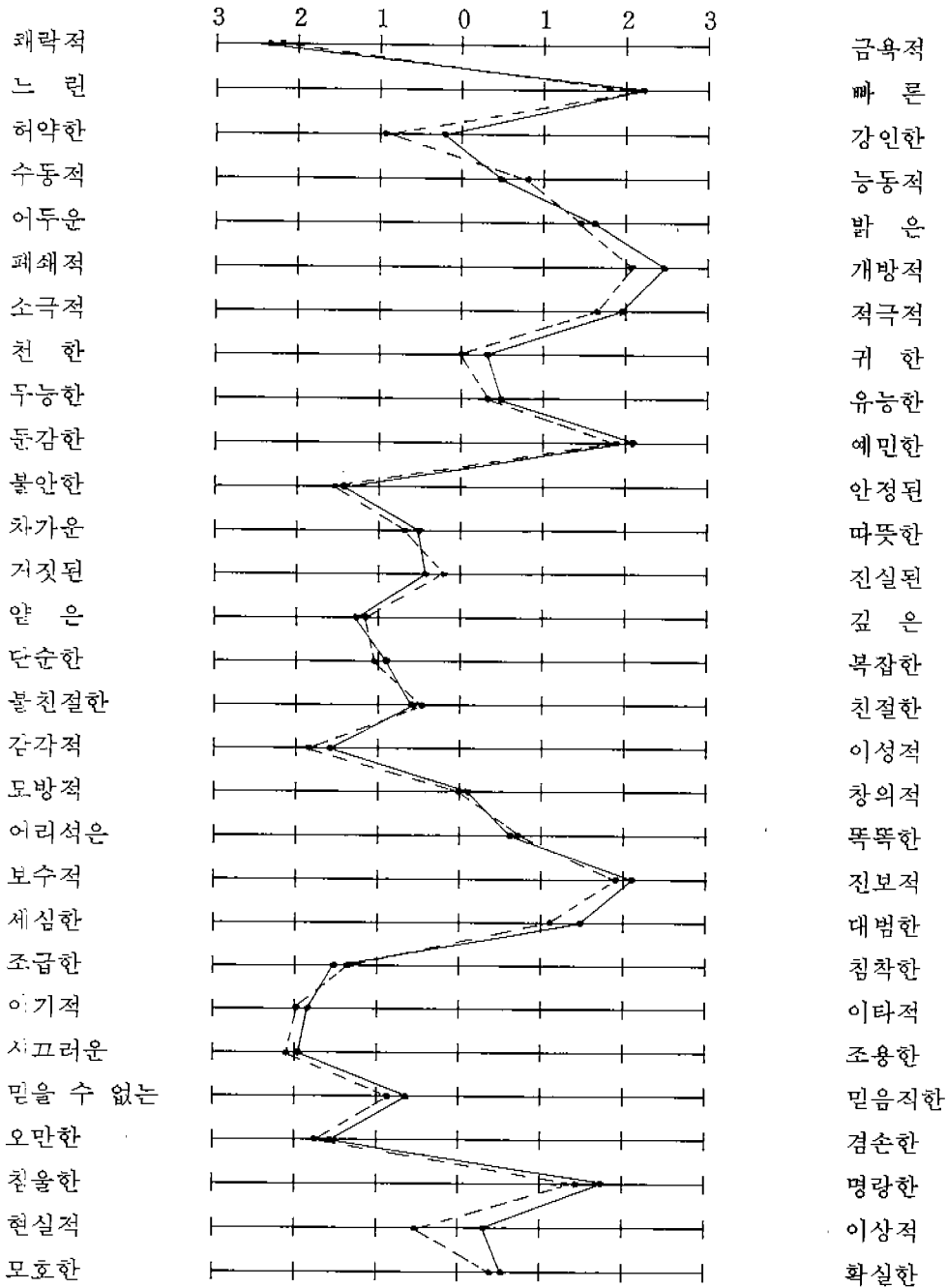
[부록 그림 7]

〈여자가 본 신세대와 기성세대 이미지 비교〉



[부록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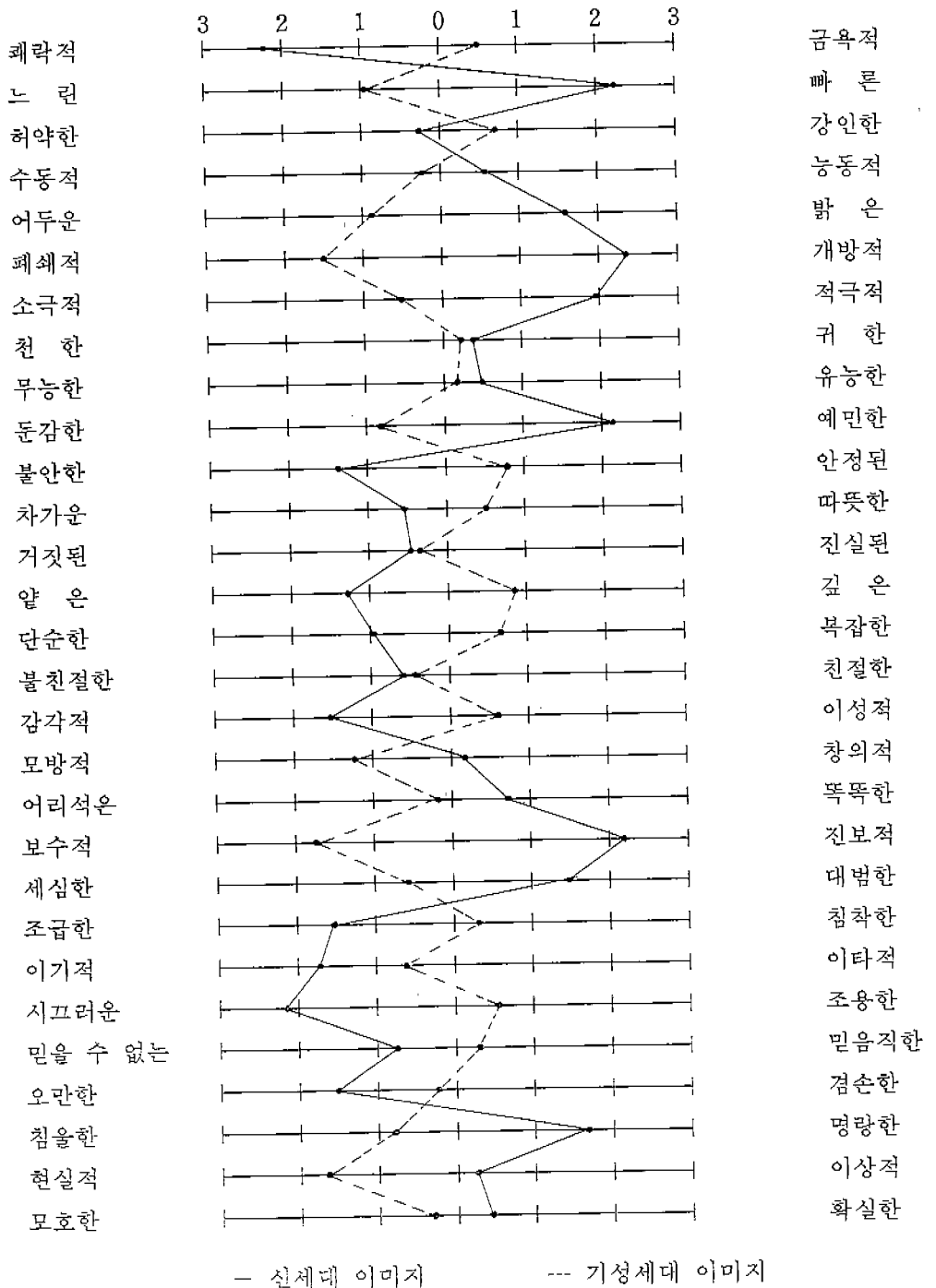
〈학교급별에 따라서 본 신세대 이미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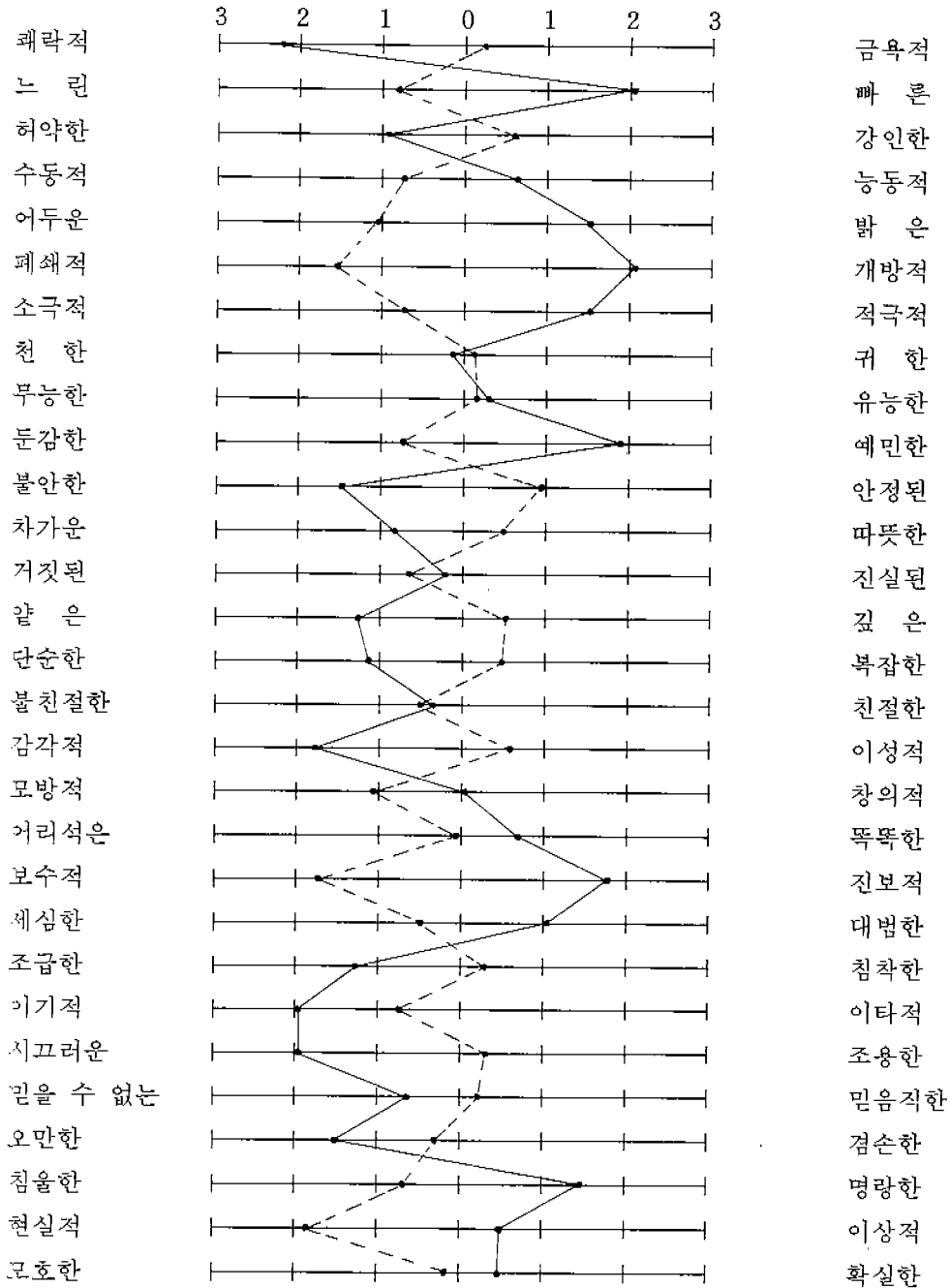
— 고등학생이 본 신세대 이미지 --- 대학생이 본 신세대 이미지

[부록 그림 9]

〈고등학생이 본 신세대와 기성세대 이미지 비교〉



〈대학생이 본 신세대와 기성세대 이미지 비교〉



— 신세대 이미지

--- 기성세대 이미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연구

연구자: 이 춘 화

목 차

I. 서론	131
1. 연구의 목적	131
2. 연구의 내용	132
3. 연구의 방법	133
II. 범죄개념 및 범죄자에 관한 의식	136
1. 범죄개념에 관한 태도 및 의식	136
2. 범죄자에 대한 태도 및 의식	139
III. 범죄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의식	144
1. 범죄원인에 관한 의식	144
2. 범죄대책에 관한 의식	152
3. 재범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의식	157
IV. 우리나라 범죄현황에 관한 의식	159
1. 일반적인 범죄상황에 관한 의식	159
2. 형법상의 범죄에 관한 의식	161
3. 범죄피해에 대처하는 태도 및 의식	166
V.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	168
1. 형벌개념에 관한 태도 및 의식	168
2.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의식	170
VI. 형벌의 한계에 관한 의식	173
1. 탈윤리화에 관한 의식	173
2.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	174

3. 사형존폐에 관한 의식	183
VII. 결 론	186
참고문헌	190
부 록	193

표 목 차

〈표 1-1〉 표본의 특성	134
〈표 2-1〉 형식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137
〈표 2-2〉 실질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137
〈표 2-3〉 도덕주의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138
〈표 2-4〉 낙인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138
〈표 2-5〉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139
〈표 2-6〉 형식적인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	141
〈표 2-7〉 의사자유론적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	142
〈표 2-8〉 의사결정론적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	142
〈표 2-9〉 범죄자의 생래성에 관한 의식	143
〈표 3-1〉 일반인과 다른 개인의 신체적인 차이	145
〈표 3-2〉 일반인과 다른 개인의 성격적인 차이	145
〈표 3-3〉 빈곤한 가정환경	146
〈표 3-4〉 부모가 없거나 한쪽만 있는 가정환경	147
〈표 3-5〉 인성교육의 실패	148
〈표 3-6〉 임시위주의 교육제도	148
〈표 3-7〉 급격한 사회변화	149
〈표 3-8〉 빈부격차	149
〈표 3-9〉 대중매체의 영향	150
〈표 3-10〉 처벌이 약해서	151
〈표 3-11〉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갈등	151
〈표 3-12〉 가정교육의 강화	153
〈표 3-13〉 학교교육의 강화	153
〈표 3-14〉 사회부조리의 척결	154

〈표 3-15〉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	154
〈표 3-16〉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55
〈표 3-17〉 경찰의 수사력 강화	156
〈표 3-18〉 처벌의 강화	156
〈표 3-19〉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	158
〈표 3-20〉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강화	158
〈표 4-1〉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159
〈표 4-2〉 우리나라의 범죄는 점점 흉악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160
〈표 4-3〉 우리나라는 성인범죄보다 청소년범죄가 더 심각하다	160
〈표 4-4〉 범죄유형별 발생빈도에 관한 의식	162
〈표 4-5〉 범죄유형별 사회영향도에 관한 의식	164
〈표 4-6〉 범죄유형별 처벌정도에 관한 의식	165
〈표 4-7〉 범죄피해 대처방안에 관한 의식	167
〈표 5-1〉 형식적 형벌개념에 관한 의식	169
〈표 5-2〉 계급적 형벌개념에 관한 의식	169
〈표 5-3〉 응보형주의에 관한 의식	171
〈표 5-4〉 특별예방주의에 관한 의식	172
〈표 5-5〉 일반예방주의에 관한 의식	172
〈표 6-1〉 낙태죄 처벌에 관한 의식	174
〈표 6-2〉 간통죄 처벌에 관한 의식	174
〈표 6-3〉 약물사용죄 처벌에 관한 의식	176
〈표 6-4〉 도박죄 처벌에 관한 의식	177
〈표 6-5〉 경미범죄의 보편성에 관한 분산분석	178
〈표 6-6〉 경미범죄의 보편성에 관한 교차분석	179
〈표 6-7〉 경미범죄의 허용성에 관한 분산분석	180
〈표 6-8〉 경미범죄의 허용성에 관한 교차분석	180
〈표 6-9〉 경미범죄의 처벌여부에 관한 분산분석	181

〈표 6-10〉 경미범죄의 처벌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182
〈표 6-11〉 사형제도의 폐지여부에 관한 의식	184
〈표 6-12〉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이유	184
〈표 6-13〉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이유	185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 사건들은 매스컴을 통해 연일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의한 비행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범죄 보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크다. 청소년문제라고 하면 의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떠올릴 만큼 청소년들에 의한 비행이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들의 사소한 비행도 끊이지 않고 있어, 그들의 비행문제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청소년들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공포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청소년범죄는 1989년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 이후 감소되고 있어 총 범죄에 대한 청소년범죄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청소년백서, 1993: 431). 그러나 양적인 면에서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아 청소년범죄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 게다가 학생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비행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60%정도가 학교 주변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율이 58.3%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김준호 외, 1991:355-356).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범죄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범죄문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

소년에 대한 의식조사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청소년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범죄문제에 대한 의식조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법의식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진 바는 있으나, 법의식 조사에 있어서의 법은 실정법규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이수성, 1984:69),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형법규정이나 형벌제도 등에 관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의식을 알아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범죄문제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법감정 등 그들의 의식 전반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의 개념 및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몇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현행 형법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이들 청소년을 학생 남 여 및 소년원생 남 녀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 집단 간의 의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또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간에 어떤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아 각 집단에 대한 법교육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 또 청소년비행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보조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어떠한 의식¹⁾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의식조사의 대상 영역인 범죄와 형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범죄와 형벌은 좁은 의미의 형법인 형법전에 규정

1)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식이라는 용어는 가치관, 태도, 의견, 법의식, 법감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되어 있는 범죄와 형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넓은 의미의 형법인 모든 형사처벌규정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형사정책 및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범죄 현상과 원인의 규명 및 대책수립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청소년들의 의식을 알아 볼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5가지 측면을 선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범죄개념 및 범죄자에 대한 태도와 의식
- 2) 범죄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의식
- 3) 우리나라의 범죄현황에 관한 의식
- 4)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
- 5) 형벌의 한계에 관한 의식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범죄학이나 형사정책 및 형법학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학설의 대립이 있거나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조사대상인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학생과 소년원생으로 학생집단은 성별(남:여), 교급별(중학생:고등학생)로 각각 100명씩 총 400명을 표집하였고, 소년원생집단은 남자소년원인 서울소년원의 원생 150명과 여자소년원인 안양소년원의 원생 86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범죄개념 및 범죄자에 관한 질문 9문항, 범죄원인 및 대책에 관한 질문 20문항, 우리나라 범죄현황 및 범죄피해에 관한 질문 4문항, 형법상의 범죄에

관한 질문 75문항,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에 관한 질문 66문항, 형벌의 본질에 관한 질문 5문항, 형벌의 한계에 관한 질문 7문항,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8문항으로 총 194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들은 몇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국내외의 관련문헌²⁾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후, 질문의 난이도를 청소년과의 면담을 통해 조정하고, 형법학자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생의 경우 1994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조사방법은 각 학교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학교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소년원생의 경우 1994년 8월 25일 연구자가 소년원을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학생 400부, 소년원생 236부로 총 636부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학생 380부, 소년원생 236부로 총 616부였다. 그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16부를 제외한 600부에 대하여 SPSS/PC+(ver. 3.0)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crosstabulation)과 변량분석(ANOVA)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표본의 특성

구 분	남 자	여 자	계
학 생	186(31.0)	187(31.2)	373(62.2)
소 년 원 생	148(24.7)	79(13.2)	227(37.8)
계	334(55.7)	266(44.3)	600(10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부모님의 직업·학력, 가족전체의 월평균 소득 등을 조사하였으나, 성별 및 학생과 소년원생간에만 의식의 차이를 나타냈고, 교급별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1>의 특성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특히 ‘박재윤(1992),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있고, 조사대상자도 학생 및 소년원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의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표본추출에 있어 모집단을 정확히 추정하고 그에 따른 표본집단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있어 절차가 어려운 관계로 모집단과 표본집단간의 비율을 고려하지 못했고, 특히 여자소년원생의 경우 소년원이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전국에 여자소년원이 한곳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단과 달리 대상지역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추출의 한계를 고려하여 대상집단을 학생 남 여, 원생 남 여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4개 집단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사의 결과는 각각 남자학생, 여자학생, 남자원생, 여자원생으로서만 비교가 가능하고, 학생 대 원생의 비교나 성별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소년원생의 경우 자신들의 비행행위와 설문에 제시되어 있는 범죄의 개념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면 그들의 의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설문 문항을 학생용과 소년원생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II. 범죄개념 및 범죄자에 관한 의식

1. 범죄개념에 관한 태도 및 의식

범죄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범죄를 보는 관점이나 학설에 따라 매우 상대적이다.

먼저 형식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본다. 즉, 제재적 효과 내지 특히 형벌을 과하는 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형식적 의의의 범죄를 그의 성립요건으로서 보면 그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그러나 실질적 관점에서는 국가에 따라서 보호하는 사회의 질서·이익·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위대한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 것이다(夏目文雄, 上野達彦, 1992:63-64).

한편 여러가지 학설에 따라서도 범죄를 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범죄의 개념을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의해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한 입장의 하나인 낙인론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사회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회적 규정이라고 보고,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계급적인 성질로 파악하여 계층간의 갈등의 소산이라고 본다(Liska, 1988:169, 267).

이상과 같이 범죄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그러한 행위들이 실정법상 범죄로 되어 처벌을 받으려면 형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법익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 뿐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나쁘다고 판단되는 행위까지도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도덕주의적인 견해도 있다(박재운, 1992:45).

따라서 범죄 개념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이상의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 형식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총점 5점에 대하여 남자학생집단이 4.17, 여자학생집단이 4.0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0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98이며, $F=1.08$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형식적인 범죄개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형식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17	.89	186	
학생 - 여	4.06	.83	187	
원생 - 남	4.04	.95	148	$F=1.0854$
원생 - 여	3.98	.96	79	$P=.3546$

사회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37, 여자학생집단이 4.4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12,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3이며, $F=12.70$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과 원생-여,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학생집단과 여자학생집단이 남자소년원생집단이나 여자소년원생집단에 비해 범죄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2-2〉 실질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37	.75	186	
학생 - 여	4.43	.74	187	
원생 - 남	4.12	.84	148	$F=12.7073$
원생 - 여	3.83	1.03	79	$P=.0000$

범죄를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나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보는 도덕주의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99, 여자학생집단이 4.0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0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6이며, $F=.66$ 으로서 집단간의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도덕주의적 범죄개념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도덕주의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99	1.11	186	
학생 - 여	4.03	1.03	186	
원생 - 남	4.04	.82	148	F = .6644
원생 - 여	3.86	1.03	79	P = .5742

이상의 세가지 범죄개념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인 네개 집단은 대체로 형식적인 범죄개념뿐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정책적으로 비양심적인 행위까지도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학생집단은 범죄를 사회적인 해악으로 보는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대해 가장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낙인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23	1.30	185	
학생 - 여	3.39	1.24	187	
원생 - 남	3.66	1.02	147	F = 3.8961
원생 - 여	3.53	1.02	79	P = .0090

범죄를 사회적인 규정이라고 보는 낙인론적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총점 5점에 대하여 남자학생집단이 3.23, 여자학생집단이 3.39,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6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3이며, $F=3.89$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남자소년원생집단이 가장 동의하고 있고, 다음으로 여자소년원생집단, 여자학생집단의 순이며, 남자학생집단이 가장 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남자소년원생 및 여자소년원생의 경우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들 자신의 행위

도 현재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며 사회가 변한다면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5〉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62	1.32	185	
학생 - 여	2.15	1.04	187	
원생 - 남	3.21	1.12	148	F=23.6610
원생 - 여	3.00	1.38	78	P= .0000

범죄를 계층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62, 여자학생집단이 2.1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21,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00이며, $F=23.66$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소년원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급적인 범죄개념에 대해 약간이나마 동의하고 있고, 여자소년원생집단은 그저 그렇다는 입장이며, 또한 남자학생집단은 동의하지 않고, 여자학생집단이 가장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앞의 낙인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에서처럼 원생집단이 학생집단에 비해 자신의 처지때문에 비판적인 범죄관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학생집단과 원생집단 내에서도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과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범죄자에 대한 태도 및 의식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식적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을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위험이 있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므로 형사정책상의 범죄자는 보다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하여는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견해가 변천되어 왔다.

근세 이전에는 범죄자를 악마의 자식이라 믿어 왔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계몽주의적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베카리아, 칸트, 헤겔, 포이엘바하 등의 고전학과 학자들에 의해 인간은 자유의사를 갖춘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자신의 행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이성 따라 규율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보고, 범죄인도 그러한 자유의사론을 전제로 하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게 되었다. 그에 반해 19세기 후반기에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롬브로조, 페리, 가로화로, 리츠트 등의 근대학과 학자들은 인간의 행위는 때로 그의 유전적 소질에 의해 또는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범죄인의 자유의사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었다(大塚仁, 1988:2, 夏目文雄, 上野達彦, 1992:63-64). 특히 롬브로조는 범죄자를 생물학적으로 연구하여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는 차이를 갖고 있는 생래성 범죄인을 분류함으로써 이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범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범죄인관의 차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범죄 대책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먼저 형식적 관점의 범죄인관을 비롯해 의사자유론 및 의사결정론적 범죄인관 등 여러가지 범죄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의식을 알아 보았으며, 범죄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생래적인 것이라고 보는지 그 태도를 조사하였다.

형식적인 관점에서의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는 문항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알아본 결과,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13, 여자학생집단이 2.80,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4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31이며, $F=6.36$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

여,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남-여 소년원생의 경우는 유죄판결을 받기 전의 범죄피의자를 범죄자라고 보지 않는데 있어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학생의 경우 동의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소년원생들에 비해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학생의 경우는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의의 정도가 낮은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원생-학생 집단간의 차이는 역시 소년원생집단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범죄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학생집단에서도 남-여 간에 의식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범죄문제에 있어서는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6〉 형식적인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13	1.43	186	
학생 - 여	2.80	1.37	186	
원생 - 남	3.44	1.37	148	F=6.3661
원생 - 여	3.31	1.37	79	P= .0003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의사자유론적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범죄자는 스스로 악을 선택해 행하는 사람이므로 동정의 여지가 없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알아본 결과,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22, 여자학생집단이 2.3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10, 여자소년원생집단이 2.28이며, $F=1.59$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학생-여와 원생-남 집단 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범죄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행위가 저질러질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남자소년원생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의사자유론적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22	1.03	184	
학생 - 여	2.35	1.04	187	
원생 - 남	2.10	1.15	148	F=1.5924
원생 - 여	2.28	1.14	78	P= .1901

범죄자의 범죄행위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의사결정론적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알아본 결과,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62, 여자학생집단이 3.72,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82,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7이며, $F=1.17$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표 2-7〉에서 의사자유론적 범죄인관에 반대 경향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체집단 모두 범죄자에 대해 의사결정론적인 범죄인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의사결정론적 범죄인관에 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62	1.19	186	
학생 - 여	3.72	1.12	185	
원생 - 남	3.82	1.15	147	F=1.1750
원생 - 여	3.87	1.14	79	P= .3185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는 생래성 범죄인의 존재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여 학생집단이 1.2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1.83, 여자소년원생집단이 2.05이며, $F=21.29$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의 생래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학생 남-여간과 원생 남-여간에는 차이가 없

지만, 학생집단과 소년원생집단간에는 학생이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원생은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9〉 범의자의 생래성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1.25	.73	186	
학생 - 여	1.25	.71	187	
원생 - 남	1.83	1.25	148	F = 21.2924
원생 - 여	2.05	1.43	79	P = .0000

III. 범죄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의식

1. 범죄원인에 관한 의식

범죄를 방지하려면 먼저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한마디로 해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랜 동안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인의 소질에서 구하는 소질설과 환경적인 요인에서 구하는 환경설의 견해가 대립해 왔다. 소질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어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어떤 종류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입장이다. 환경설은 범죄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등 주위의 환경의 영향과 범죄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사회학적 입장이다(김옥철, 1987:13-15).

보통 범죄의 원인으로서는 소질의 면은 개인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범죄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 또는 성격적인 특징 등을 말한다. 환경의 면은 가정 환경적인 요인, 교육환경적인 요인, 사회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정환경적인 요인은 빈곤한 가정환경이나 결손가정 등을 들 수 있다. 교육환경적인 요인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잘못된 교육내용이나 교육제도의 문제점 등이 있다. 사회환경적인 요인은 사회 부조리나 매스컴의 악영향 등 잘못된 사회환경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밖에 법적·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경찰의 단속이나 법적인 처벌이 약해서 또는 계층간의 갈등에 의해서 범죄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에 있어 소질과 환경은 한쪽에 치우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모두 관련되어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다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원인에 대한 의식은 이상의 견해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교육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법적·정치적 요인의 다섯가지 범주로 나누어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1) 개인적 요인

범죄의 원인이 일반인과는 다른 범죄자의 신체적인 차이에 있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48, 여자학생집단이 2.2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75, 여자소년원생집단이 2.73이며, $F=7.46$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전체집단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학생 남-여가 원생 남-여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3-1〉 일반인과 다른 개인의 신체적인 차이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48	1.10	186	
학생 - 여	2.23	1.04	186	
원생 - 남	2.75	1.07	148	$F=7.4627$
원생 - 여	2.73	1.22	79	$P= .0001$

범죄의 원인이 일반인과는 다른 범죄자의 성격적인 차이에 있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90, 여자학생집단이 2.8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5,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25이며, $F=7.88$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소년원생의 경우 남-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남자학생은 약간 부정적이고, 여자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3-2〉 일반인과 다른 개인의 성격적인 차이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90	1.11	186	
학생 - 여	2.85	1.07	187	
원생 - 남	3.35	1.00	148	$F=7.8865$
원생 - 여	3.25	1.12	77	$P= .0000$

이상과 같이 학생 남-여 집단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소년원생 남-여 집단은 개인적인 요인중에서도 신체적인 차이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성격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 가정환경적 요인

범죄의 원인이 빈곤한 가정환경에 있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60, 여자학생집단이 3.68,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93,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71이며, $F=2.86$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5$).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과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빈곤함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남-여간과 원생 남-여간에는 의식의 차이가 없지만, 남자원생의 경우는 학생 남-여에 비해 더욱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빈곤한 가정환경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60	1.15	186	
학생 - 여	3.68	.97	187	
원생 - 남	3.93	.93	147	$F=2.8685$
원생 - 여	3.71	1.25	77	$P= .0359$

범죄의 원인이 부모가 없거나 한쪽만 있는 가정환경에 기인하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39, 여자학생집단이 3.1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0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96이며, $F=17.99$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결손가정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 학생 남-여간과 원생 남-여간에는 의식의 차이가 없으나, 학생 남-여집단보다는 원생 남-여집단이 더욱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표 3-4〉 부모가 없거나 한쪽만 있는 가정환경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39	1.33	186	
학생 - 여	3.16	1.20	187	
원생 - 남	4.04	1.08	148	F=17.9984
원생 - 여	3.96	1.25	78	P= .0000

이상과 같이 네집단이 모두 가정환경의 문제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원생 남-여집단이 학생 남-여집단보다 더욱 동의하고 있고, 빈곤가정보다는 결손가정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년원생의 경우 자신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본 조사에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라고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소년원생들의 경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나 ‘돈없고 뺑없는 사람만 형벌을 받는다’라는 응답이 다수 있는 것파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3) 교육환경적 요인

인성교육의 실패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39, 여자학생집단이 3.69,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19,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23이며, $F=7.77$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실패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전체집단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특히 여자학생집단의 경우 나머지 세집단에 비해 더욱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인성교육의 실패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39	1.04	186	
학생 - 여	3.69	1.03	185	
원생 - 남	3.19	.94	148	F=7.7738
원생 - 여	3.23	.99	77	P= .0000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 학생집단이 3.45, 여자학생집단이 3.89,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11,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29이며, $F=15.60$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네집단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원생 남-여보다는 학생 남-여의 지지도가 더 높고, 특히 학생중에서도 여자학생집단이 더욱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45	1.20	184	
학생 - 여	3.89	1.01	186	
원생 - 남	3.11	.97	147	F=15.6002
원생 - 여	3.29	1.11	77	P= .0000

이상과 같이 네집단이 모두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학생 남-여집단이 원생 남-여 집단보다 더욱 동의하고 있고, 학생의 경우 인성교육의 실패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의 경우 소년원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점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차이라고 분석된다.

4) 사회환경적 요인

급격한 사회변화가 있으면 범죄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28, 여자학생집단이 3.39,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51,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19이며, $F=2.17$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과 원생-여 집단간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사회변화가 범죄원인이 된다는 것에 네집단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소년원생의 경우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지지도가 높아 남녀간에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7〉 급격한 사회변화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28	1.11	184	
학생 - 여	3.39	1.02	187	
원생 - 남	3.51	.89	147	$F=2.1762$
원생 - 여	3.19	1.02	78	$P= .0897$

빈부격차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38, 여자학생집단이 3.64,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45,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16이며, $F=4.36$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빈부격차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네집단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자학생의 지지도가 가장 높고, 여자원생의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8〉 빈부격차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38	1.07	186	
학생 - 여	3.64	.99	187	
원생 - 남	3.45	1.02	148	$F=4.3647$
원생 - 여	3.16	1.14	79	$P= .0047$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범죄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49, 여자학생집단이 3.8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0,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46이며, $F=11.55$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매체가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네집단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학생의 지지도가 가장 높고, 남자원생의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최근 방송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15세 이상 텔레비전 시청자의 71%가 우리 사회의 폭력 및 강력범죄 증가의 원인이 방송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 있다고 응답했다(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7일:24).

〈표 3-9〉 대중매체의 영향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49	.96	185	
학생 - 여	3.86	.83	186	
원생 - 남	3.30	.85	147	$F=11.5597$
원생 - 여	3.46	.90	78	$P= .0000$

이상과 같이 네집단이 모두 여러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남자원생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빈부격차와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자학생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법적 정치적 요인

법적인 처벌이 약해서 범죄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60, 여자학생집단이 2.94,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29, 여자소년원생집단이 2.49이며, $F=7.62$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

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벌의 위하력에 대해서 네집단이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남자소년원생이 가장 부정적이며, 다음으로는 여자원생, 남자학생, 여자학생의 순이다.

〈표 3-10〉 처벌이 약해서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60	1.28	186	
학생 - 여	2.94	1.35	185	
원생 - 남	2.29	1.09	148	F=7.6264
원생 - 여	2.49	1.24	77	P= .0001

계층간의 갈등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51, 여자학생집단이 3.5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69,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46이며, $F=1.13$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네집단 모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갈등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갈등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51	1.12	186	
학생 - 여	3.53	.99	187	
원생 - 남	3.69	.98	147	F=1.1381
원생 - 여	3.46	1.13	79	P= .3330

이상과 같이 네집단은 모두 약한 처벌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부정적인 반면, 계층간 갈등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범죄대책에 관한 의식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에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해 보려는 사전적인 대책과 범죄발생 후에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사후적인 대책이 있다. 그러나 범죄는 이미 발생한 후에는 피해 복구의 어려움, 범인 검거 및 교정을 위한 비용과 인력의 낭비, 범죄자 갇힘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신진규, 1989: 465-466), 보통 범죄대책이라고 하면 범죄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책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며, 사후대책은 재범방지 대책에 관하여서만 다음 절에서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세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도덕적 관점으로 가정·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개량적 관점으로 사회 부조리의 척결,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등 사회개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세째는 억압적 관점으로 경찰력 강화, 형벌의 강화를 통해 사회 일반인을 위하하여 범죄를 억제·예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이수성, 1984:8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 대책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 세가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범죄 대책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1) 도덕적 측면의 대책

개인의 도덕성 함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의 하나인 가정교육의 강화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52, 여자학생집단이 3.6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65,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43이며, $F=1.02$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가정내에서의 교육을 통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가정교육의 강화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52	1.07	186	
학생 - 여	3.63	1.06	187	
원생 - 남	3.65	1.02	148	F=1.0285
원생 - 여	3.43	1.21	78	P= .3794

개인의 도덕성 함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안인 학교교육의 강화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86, 여자학생집단이 2.9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2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44이며, $F=7.42$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과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여와 학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생 남-여는 학교교육의 강화를 범죄대책으로써 지지하고 있으나, 학생 남-여는 그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학교교육의 강화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86	1.25	186	
학생 - 여	2.95	.98	186	
원생 - 남	3.27	1.06	148	F=7.4285
원생 - 여	3.44	1.12	77	P= .0001

이상과 같이 도덕적 측면의 범죄대책에 있어 가정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는 네 집단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학교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는 소년원생집단만 동의하고 있고 학생집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학생들의 경우 소년원생들에 비해 현재의 학교교육 체제에 대해 거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사회개량적 대책

사회 개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의 하나인 사회 부조리 척결에 관한 의식

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85, 여자학생집단이 4.14,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52,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37이며, $F=18.84$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사회 부조리의 척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년원생보다는 학생들의 지지도가 더 높고, 학생중에서도 여학생의 지지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사회부조리의 척결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85	.92	185	
학생 - 여	4.14	.83	187	
원생 - 남	3.52	.96	148	$F=18.8429$
원생 - 여	3.37	1.08	78	$P= .0000$

사회 개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써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17, 여자학생집단이 3.81,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93,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97이며, $F=3.59$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5$).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범죄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범죄율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의외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범

〈표 3-15〉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17	1.00	185	
학생 - 여	3.81	1.08	186	
원생 - 남	3.93	1.03	147	$F=3.5974$
원생 - 여	3.97	1.20	77	$P= .0134$

죄원인이 경제적인 빈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의식의 반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사회 개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안인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34, 여자학생집단이 4.37,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00,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92이며, $F=7.72$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네집단이 모두 매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년원생 남-여보다는 학생 남-여가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소년원생에 비해 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표 3-16〉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34	.87	186	
학생 - 여	4.37	.88	187	
원생 - 남	4.00	1.08	146	$F=7.7287$
원생 - 여	3.92	1.11	78	$P= .0000$

이상과 같이 응답자들은 모두 사회개량적인 범죄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집단간에는 전반적으로 소년원생보다는 학생들의 지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 억압적 대책

억압적인 방법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인 경찰의 수사력 강화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90, 여자학생집단이 3.94,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12,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26이며, $F=22.44$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 ($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이 대체로 경찰의 수사력 강화를 통해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소년원생 남-여보다는 학생 남-여의 지지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소년원생들의 경우 학생에 비해 경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7〉 경찰의 수사력 강화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90	1.06	186	
학생 - 여	3.94	1.00	187	
원생 - 남	3.12	1.15	148	$F=22.4425$
원생 - 여	3.26	1.22	79	$P= .0000$

억압적인 범죄대책의 또 다른 방안인 처벌의 강화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60, 여자학생집단이 3.79,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7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2.91이며, $F=31.51$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남-여 집단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소년원생 남-여 집단은 그에 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년원생들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표 3-18〉 처벌의 강화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60	1.12	186	
학생 - 여	3.79	1.02	187	
원생 - 남	2.77	1.11	148	$F=31.5137$
원생 - 여	2.91	1.16	78	$P= .0000$

형벌을 통한 범죄자의 개선효과나 그 위하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억압적인 범죄대책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소년원생들은 경찰의 수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처벌의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3. 재범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의식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나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특히 낙인론자들은 일차적인 범죄보다는 재범의 원인 및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두어 범죄자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범죄자로 여기게 되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Liska, 1988:187). 이러한 범죄자들의 재범방지 대책으로는 특별예방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에 관해서는 형벌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5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여기에서는 재범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재범의 원인으로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재범대책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한가지 요인으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인 냉대에 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15, 여자학생집단이 4.04,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13, 여자소년원생집단이 4.08이며, $F = .52$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집단 모두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로 인해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9〉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15	1.14	186	
학생 - 여	4.04	.98	187	
원생 - 남	4.18	1.06	148	F= .5284
원생 - 여	4.08	1.17	79	P= .6629

재범방지 대책의 한가지 방안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강화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10, 여자학생집단이 4.28,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1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65이며, $F=7.83$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여, 원생-남과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여자소년원생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동의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20〉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강화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10	.90	186	
학생 - 여	4.28	.83	187	
원생 - 남	4.14	1.06	148	F=7.8328
원생 - 여	3.65	1.23	78	P= .0000

IV. 우리나라 범죄현황에 관한 의식

1. 일반적인 범죄상황에 관한 의식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추세는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 저연령화의 경향을 가지고 날로 심각함을 더해 가고 있다. 1991년 우리나라의 형법범의 수는 308,96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절도·살인·강도·강간·폭행·상해 등을 저지른 소위 강력범은 90,347명으로 전체 형법범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범죄자수에 대한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전체 형법범에 대해서는 10.6%이나, 강력범에 대해서는 30.6%를 차지하고 있어,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죄자에 비해 강력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241, 통계자료 참조).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범죄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인 면, 질적인 면, 연령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양적인 측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집단의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95, 여자학생집단이 4.0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80,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8이며, $F=1.91$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와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우리나라 범죄문제의 양적인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자학생집단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95	.96	185	
학생 - 여	4.03	.83	187	
원생 - 남	3.80	.83	148	$F=1.9137$
원생 - 여	3.88	.91	79	$P=.1261$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범죄는 점점 흉악화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집단의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22, 여자학생집단이 4.5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8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4.02이며, $F=19.99$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적인 문제에 대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소년원생들보다는 학생들이, 학생중에서도 역시 여자학생집단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학생집단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2〉 우리나라의 범죄는 점점 흉악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22	.78	183	
학생 - 여	4.55	.65	187	
원생 - 남	3.87	.96	146	$F=19.9925$
원생 - 여	4.02	1.01	78	$P= .0000$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연령적인 측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성인범죄보다 청소년범죄가 더 심각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집단의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09, 여자학생집단이 3.9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9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4.11이며, $F= .85$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우리나라는 성인범죄보다 청소년범죄가 더 심각하다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09	1.02	186	
학생 - 여	3.95	1.05	187	
원생 - 남	3.97	.92	148	$F= .8545$
원생 - 여	4.11	1.01	78	$P= .4645$

2. 형법상의 범죄에 관한 의식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이재상, 1994:3).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가가 형법이라고 이름지어 공포 시행하는 법전, 즉 형법전을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범죄와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제재수단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실체를 말한다(김일수, 1991:3).

이 절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형법상의 범죄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인 형법전의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범죄유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범죄유형에 대해 발생빈도, 사회 영향도, 처벌의 정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제시한 범죄유형들은 형법각칙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 가능한 범죄만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아편에 관한 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대신 다약 등의 약물 사용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범죄유형을 총 25개의 문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범죄유형별 발생빈도에 관한 의식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중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범죄유형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49, 여자학생집단이 3.7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59,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99이며, $F=15.23$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와 학생-남, 학생-여와 원생-남,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여와 원생-남, 원생-여와 학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의 발생빈도에 대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자중에서도 소년원생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간에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남자에 비해 여자는 범죄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에 대해 느끼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며, 특히 여자소년원생의 경우는 학생에 비해 범죄행위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았기 때문에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4〉 범죄유형별 발생빈도에 관한 의식

범 죄 유 형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F값
살인죄	4.03	4.43	3.71	4.23	16.57***
폭행 및 상해죄	4.10	4.31	4.28	4.21	2.24
낙태죄	3.67	4.16	3.48	4.18	15.42***
협박죄	3.61	3.96	3.60	3.78	6.05***
강간 및 강제추행죄	4.15	4.67	4.22	4.58	15.77***
명예훼손 및 모욕죄	3.32	3.51	3.34	4.00	10.05***
주거침입죄	3.20	3.26	3.83	3.93	19.75***
절도죄	4.06	4.15	4.37	4.22	3.88**
강도죄	4.17	4.44	4.11	4.27	5.54***
사기죄	3.77	3.97	3.79	4.05	2.83*
횡령죄	3.12	3.31	3.38	3.69	6.00***
범죄단체조직죄	3.44	3.35	3.81	3.85	8.72***
폭발물사용 및 방화죄	2.94	3.14	3.04	3.71	10.60***
교통방해죄	3.42	3.70	3.32	3.74	5.10**
통화 및 문서, 인장위조죄	3.34	3.68	3.36	3.79	7.27***
약물사용죄	3.98	4.27	3.91	4.24	5.28**
음란물제조소지죄	3.91	4.20	3.68	4.02	7.76***
간통죄	3.71	4.01	3.81	4.15	4.26**
도박죄	3.81	3.98	3.74	3.96	2.14
내란 및 외환죄	2.82	3.08	2.94	3.41	5.76***
국기훼손죄	2.30	2.46	2.64	3.29	15.52***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3.34	3.89	3.48	3.71	9.45***
뇌물수수죄	3.81	4.17	3.75	3.87	6.32***
공무방해 및 위증죄	3.01	3.19	3.16	3.71	8.34***
범인은닉죄	2.45	2.49	2.88	3.32	18.38***
합 계	3.49	3.76	3.59	3.99	15.23***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 발생빈도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보면, 남자학생의 경우는 강도죄(4.17)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여자학생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4.67), 남자소년원생은 절도죄(4.37), 그리고 여자소년원생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4.67)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행죄(4.58)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박이나 낙태와 같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범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범죄에 대해 발생빈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학생-원생 간의 의식차이 보다는 남-여 간의 차이가 컸지만, 절도죄, 주거침입죄, 범죄단체조직죄, 범인은닉죄에 대해서는 학생집단에 비해 소년원생집단의 지지도가 높았고, 폭행 및 상해죄, 도박죄에 대해서는 의식의 차이가 없었다.

2) 범죄유형별 사회적 영향도에 관한 의식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중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범죄유형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77, 여자학생집단이 3.8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63,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7이며, $F=5.75$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남, 원생-여와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행위의 사회적 영향도에 대해서는 여자소년원생을 비롯해 학생 남-여 집단이 비슷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남자소년원생집단만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 사회적 영향도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보면, 네집단 모두 살인죄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고 있고, 두번째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죄는 남자학생의 경우 약물사용죄(4.48), 여자학생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4.67), 남자소년원생은 폭발물사용 및 방화죄(4.23), 그리고 여자소년원생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4.36)라고 생각하고 있다. 살인행위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점은 최근 엽기적인 살인 집단의 범죄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충격과 혼란의 정도를 볼 때 공통된 의식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반응한 범죄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의 경우 일관되게 강간 및 강제추행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4-5〉 범죄유형별 사회영향도에 관한 의식

범 죄 유 형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F값
살인죄	4.78	4.86	4.68	4.68	3.75*
폭행 및 상해죄	3.44	3.62	3.27	3.71	5.97***
낙태죄	3.85	3.64	3.59	3.75	1.65
협박죄	3.76	3.67	3.52	3.80	2.54
강간 및 강제추행죄	4.15	4.67	4.10	4.36	14.31***
명예훼손 및 모욕죄	3.29	3.49	3.11	3.67	7.70***
주거침입죄	3.14	3.13	3.13	3.65	6.13***
절도죄	3.28	3.21	3.41	3.59	4.44**
강도죄	4.19	4.24	4.11	4.24	.80
사기죄	3.73	3.82	3.62	3.88	2.08
횡령죄	3.58	3.40	3.56	3.85	4.38**
범죄단체조직죄	4.22	4.02	3.93	4.10	3.00*
폭발물사용 및 방화죄	4.22	4.03	4.23	4.29	2.07
교통방해죄	3.41	3.48	3.25	3.63	2.86*
통화 및 문서, 인장위조죄	3.83	3.90	3.60	3.85	3.25*
약물사용죄	4.48	4.42	3.96	3.93	14.48***
음란물제조소지죄	3.69	4.13	3.42	3.84	14.73***
간통죄	3.69	3.85	3.51	3.98	3.21*
도박죄	3.52	3.73	3.17	3.64	8.36***
내란 및 외환죄	4.01	4.23	4.02	3.89	2.70*
국기훼손죄	3.19	3.16	3.16	3.45	1.16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3.66	4.00	3.67	3.89	4.05**
뇌물수수죄	3.74	4.14	3.57	3.76	9.42***
공무방해 및 위증죄	3.74	3.88	3.66	3.82	1.38
범인은닉죄	3.14	3.20	3.15	3.64	4.65**
합 계	3.77	3.85	3.63	3.87	5.75***

* P<.05

** P<.01

*** P<.001

3) 범죄유형별 처벌정도에 관한 의식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중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범죄유형들을 어느 정도로 엄하게 또는 가볍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각 집단의 평균은 남

사학생집단이 3.93, 여자학생집단이 4.12,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53,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74이며, $F=41.10$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여와 원생-남,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의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소년원생들보다는 학생들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집단 내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

〈표 4-6〉 범죄유형별 처벌정도에 관한 의식

범죄유형	학생-남	학생-여	원생-남	원생-여	F값
살인죄	4.96	4.94	4.72	4.65	12.34***
폭행 및 상해죄	3.59	3.96	3.00	3.40	34.49***
낙태죄	3.96	3.67	3.54	3.51	3.58*
협박죄	3.92	3.93	3.37	3.61	15.11***
강간 및 강제추행죄	4.33	4.86	4.12	4.36	22.03***
경예훼손 및 모욕죄	3.60	3.90	2.92	3.44	27.43***
주거침입죄	3.17	3.40	2.91	3.35	6.86***
절도죄	3.48	3.67	3.12	3.31	12.56***
강도죄	4.42	4.49	4.11	4.01	13.59***
사기죄	4.16	4.33	3.63	3.88	22.33***
횡령죄	3.99	3.95	3.60	3.79	7.22***
범죄단체조직죄	4.31	4.48	3.82	4.08	15.12***
폭발물사용 및 방화죄	4.54	4.55	4.37	4.40	2.08
교통방해죄	3.29	3.47	2.96	3.44	9.69***
통화 및 문서, 인장위조죄	4.25	4.11	3.63	4.06	15.11***
약물사용죄	4.60	4.57	3.98	4.00	22.63***
음란물제조소지죄	3.68	4.24	3.20	3.74	29.85***
간통죄	3.66	4.10	3.34	3.65	10.77***
도박죄	3.55	3.99	2.97	3.50	27.32***
대란 및 외환죄	4.23	4.56	3.88	4.06	17.03***
국기훼손죄	3.49	3.50	2.97	3.51	6.68***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3.62	4.00	3.74	3.55	4.81**
뇌물수수죄	3.86	4.24	3.41	3.59	19.91***
공무방해 및 위증죄	4.09	4.23	3.51	3.91	18.99***
범인은닉죄	3.24	3.43	3.05	3.67	7.03***
합 계	3.93	4.12	3.53	3.74	41.10***

* $P<.05$

** $P<.01$

***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소년원생들의 경우 학생들에 비해 범죄자에 대해 동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남녀간의 차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범죄에 대해 보수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 처벌정도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보면, 네집단 모두 살인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두번째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남자학생의 경우 약물사용죄(4.60), 여자학생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4.86), 남자소년원생은 폭발물사용 및 방화죄(4.37), 그리고 여자소년원생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4.36)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앞의 사회적 영향도에 대한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3. 범죄피해에 대처하는 태도 및 의식

지금까지의 범죄학 연구는 대부분 범죄자, 즉 가해자의 측면에 치중하여 범죄 원인, 대책, 현황 등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의 대처방안에 관해 알아 봄으로써 피해자로서의 범죄에 대한 법감정 및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는 남자학생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견해가 63.8%로 가장 많았고, 피해를 준 범죄자에게 직접 복수하겠다는 응답도 21.3%나 되었다. 그러나 여자학생의 경우는 86.0%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응답해 법적인 대응을 택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자소년원생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견해가 45.0%,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겠다는 견해가 25.0%, 직접 복수하겠다는 견해가 15.0%로 법적인 해결 이외의 비합법적인 방법이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의견으로 범죄자와 타협을 하거나 용서

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자소년원생의 경우는 체념하겠다는 견해가 43.1%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견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소극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소년원생집단은 합법적인 대처방법 뿐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대처방안도 같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비합법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수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범죠평해 대처방안에 관한 의식

범 죄 유 형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χ^2
직접 복수	21.3 (37)	8.9 (16)	15.0 (21)	11.1 (8)	125.47***
체념	8.6 (15)	3.4 (6)	25.0 (35)	43.1 (31)	
사법기관에 고발	63.8 (111)	86.0 (154)	45.0 (63)	37.5 (27)	
기타	6.3 (11)	1.7 (3)	15.0 (21)	8.3 (6)	

*** P<.001

V.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

1. 형벌개념에 관한 태도 및 의식

형벌은 형식적 관점에서는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인에게 과하는 일정한 범익의 박탈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범죄인을 처벌하여 사회에 범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吉川經夫 외 12인, 1978: 154). 형식적인 형벌개념에서 말하는 범익의 박탈이란 사형에 의한 생명의 박탈, 자유형에 의한 자유의 박탈, 벌금형에 의한 재산의 박탈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고(이재상, 1994:557-558), 실질적인 형벌개념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절에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급진적인 견해인 계급 법적 관점에서는 형벌을 사회 갈등에서 이긴 집단인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보아 형벌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형벌의 개념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형식적 형벌개념과 가장 급진적인 개념인 계급적 형벌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형벌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형식적 관점에서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빼앗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집단의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16, 여자학생집단이 2.88,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6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0이며, $F=12.43$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여자학생집단만 빼고 나머지 세집단은 형식적인 관점에서의 형벌의 개념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소년원생 남-여에 비해 남자학생의 지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집단과 소년원생집단간에

의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소년원생의 경우 실제로 자유라는 법익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범죄개념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는 다음의 형벌의 본질에 관한 세가지 학설에 따른 설문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벌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의 법익박탈 기능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 형식적 형벌개념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16	1.27	186	
학생 - 여	2.88	1.27	187	
원생 - 남	3.66	1.07	148	F=12.4344
원생 - 여	3.50	1.26	79	P= .0000

계급적 형벌개념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형벌은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힘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02, 여자학생집단이 2.5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73,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37이며, $F=34.32$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원생-남과 원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배계층의 범죄 통제 기능에 대해서는 네집단이 모두 의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소년원생의 지지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여자소년원생, 남자학생, 그리고 여자학생이 가장 낮았다. 소년원생들은 비판적인 형벌이론에 긍정적인 반면, 학생들은 그저 그렇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원생과 학생 집단내에서는 각각 여자보다는 남자의

〈표 5-2〉 계급적 형벌개념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02	1.11	186	
학생 - 여	2.56	1.16	187	
원생 - 남	3.73	.99	148	F= 34.3248
원생 - 여	3.37	.97	79	P= .0000

지지도가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학생보다는 소년원생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급진적인 범죄이론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의식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형벌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대립하고 있고, 형벌의 예방적 기능의 대상을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나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이 범죄의 결과로서 당연히 가하게 되는 응보(應報)로서 응보의 내용은 해악 내지 고통이 있는 복수라기 보다는 도의적 요구에 기초하여 과해지는 법률적, 국가적인 제재라고 본다. 목적형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보전하는 데에 있다고 하여 형벌이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서 그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형주의는 응보적 본능에 따라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의의 실체를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서 구하여, 형벌은 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범죄자를 개선하여 사회에로의 복귀·동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서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보전을 행하는 것에 형벌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夏目文雄, 上野達彦, 1992: 9-19).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의 대사회적 작용에 중점을 두어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반 사회인을 위하(威嚇), 경계(警戒)하여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진계호, 1987:93-95).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인 그 자체에 대한 형벌의 작용에 중점을 두어 범죄인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정영석, 1986:44).

현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응보형주의의 입장에 서서 동시에 형벌의 교육적·개선

적인 성질을 인정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인정하는데 대하여도 이론이 없으며,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양자에 대하여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의 형벌론에 따라 응보형주의, 특별예방주의, 일반예방주의적 형벌관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고 보는 응보적 형벌관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09, 여자학생집단이 4.37,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55,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4이며, $F=31.16$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벌을 범죄의 대가로 보는 응보형론에 대해 네집단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소년원생 남-여에 비해 학생 남-여의 지지도가 더 높고, 학생중에서도 여자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볼 때, 여자학생집단의 형벌관이 가장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3〉 응보형주의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4.09	.90	183	
학생 - 여	4.37	.72	187	
원생 - 남	3.55	.97	148	$F=31.1623$
원생 - 여	3.54	1.00	77	$P= .0000$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개선에 있다고 보는 특별예방주의적 형벌관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82, 여자학생집단이 3.6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34이며, $F=6.37$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남과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특별예방론에 대해 네집단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 역시 소년원생 남-여에 비해 학생 남-여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4〉 특별예방주의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82	1.09	185	
학생 - 여	3.66	1.12	187	
원생 - 남	3.36	1.12	147	F=6.3761
원생 - 여	3.34	.97	76	P= .0003

형벌의 목적이 일반사회인에 대한 위하(威嚇)에 있다고 보는 일반예방주의적 형벌관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70, 여자학생집단이 3.60,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6이며, $F=2.95$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5$).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남과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벌이 일반사회인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는 일반예방론에 대해 네 집단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남자소년원생이 가장 낮고, 남자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5〉 일반예방주의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3.70	1.13	185	
학생 - 여	3.60	1.09	187	
원생 - 남	3.34	1.11	147	F=2.9572
원생 - 여	3.56	1.13	78	P= .0319

이상과 같이 소년원생들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범익박탈 기능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고, 학생들은 형벌의 형식적인 기능보다는 형벌의 실질적인 목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사회인에 대한 위하보다는 범죄자의 개선을, 범죄자의 개선보다는 응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므로써 학생집단의 형벌관이 매우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VI. 형벌의 한계에 관한 의식

1. 탈윤리화에 관한 의식

형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벌권의 사용은 책임원칙과 형벌 필요성(김일수, 1991:30)이라고 하는 기준원칙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형벌의 한계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많은 것은 형법의 탈윤리화 문제로 법윤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형법의 법익보호 기능에는 사회 윤리적 행위가치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법과 윤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오늘날 형법의 탈윤리화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탈윤리화란 불륜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법을 구분하여 윤리의 법적인 강행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간통죄와 낙태죄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법과 윤리의 구분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형법과 윤리와의 구분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태아를 낙태시키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에 맡길 일이지 법이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98, 여자학생집단이 2.9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0이며, $F=4.60$ 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생들은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을 넘어선 윤리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형법의 탈윤리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보수적인 형벌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낙태죄 처벌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98	1.39	185	
학생 - 여	2.96	1.36	186	
원생 - 남	3.34	1.38	147	F=4.6092
원생 - 여	3.50	1.31	78	P= .0034

또한 형법의 탈윤리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생활이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76, 여자학생집단이 2.3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4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26이며, $F=22.12$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생들은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법을 넘어선 윤리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학생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생보다는 학생이, 학생중에서는 여자가 더욱 보수적인 형벌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간통죄 처벌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76	1.36	184	
학생 - 여	2.36	1.23	186	
원생 - 남	3.46	1.34	147	F=22.1240
원생 - 여	3.26	1.32	79	P= .0000

2.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

비범죄화란 종래 범죄로 취급되던 일정한 인간행태에 관해 형사정책상의 변화가 옴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시킬 의도로 일정한 형사제재 규정을 폐

지하거나 사실상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형사제재를 가볍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임웅, 1990:188). 비범죄화 이론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하자는 것으로 비범죄화의 대상에는 간통죄, 낙태죄, 도박죄, 약물사용 등의 피해자 없는 범죄들과 법익 침해 내지 침해 위험성이 경미한 소위 경미범죄가 포함된다.

피해자 없는 범죄란 누구에 대하여도 그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을 품게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간통죄와 낙태죄는 형법의 탈윤리화에도 관련해 그 한계가 지적되었지만 또한 피해자 없는 범죄에도 해당되며, 도박의 경우 사기가 아니라면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고, 약물사용도 약물의 제조나 유통이 아닌 자기사용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이마리, 1991:67-69).

경미범죄란 범죄를 그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는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분류를 하고 있지 않고, 단지 경범죄처벌법에서 경범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범죄란 범죄를 그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는 입장에서 구류 내지 과료 등의 가벼운 형벌을 법정형으로 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한다(稻田輝明, 木谷明, 1988:1).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질서위반법이라고 하여 형법과 따로 구분짓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가 형법전의 형명에 속하는 구류·과료에 처하게 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형법상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조병선, 1991:287~288). 경범죄처벌법이 형식적으로 형법에 속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형법 법규들과 비교해 볼 때, 법익 침해 위험성이 작고, 책임 비난의 정도가 미미하며, 처벌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약하다는 점에서 양적으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이상 피해자 없는 범죄와 경미범죄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피해자 없는 범죄로는 도박죄와 약물사용죄를 제시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였고, 경미범죄로는 경범죄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54개의 범죄 중에서 비교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고, 또 누구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³⁾ 22개 경범죄를

3)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임웅(1990),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90에 제시되어 있는 경미범죄의 특수성을 참고하였다.

선정하여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경미범죄의 보편성, 허용성, 처벌 여부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1) 피해자 없는 범죄에 관한 인식

피해자없는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마약, 본드 등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1.81, 여자학생집단이 1.60,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99,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34이며, $F=66.27$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여와 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약물사용의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우 극히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남자원생은 중립적이고, 여자원생은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물사용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마약의 폐해에 대한 매스컴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약물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문항에 거부반응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6-3〉 약물사용죄 처벌에 관한 인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1.81	1.12	183	
학생 - 여	1.60	.93	186	
원생 - 남	2.99	1.43	148	$F=66.2793$
원생 - 여	3.34	1.43	78	$P= .0000$

또한 피해자 없는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18, 여자학생집단이 1.8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9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21이며, $F=41.77$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도박행위의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소년원생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반면, 남자 학생은 다소 부정적이고, 여자학생은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도박의 폐해를 다룬 매스컴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도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문항에 거부반응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6-4〉 도박죄 처벌에 관한 의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2.18	1.18	186	
학생 - 여	1.86	.83	184	
원생 - 남	2.97	1.29	147	$F=41.7779$
원생 - 여	3.21	1.30	78	$P= .0000$

이상에서 살펴 본 형벌의 윤리적인 기능을 배제하고자 하는 탈윤리화 및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소년원생 집단들이 이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생 집단들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진보적인 형벌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행위에 허용적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집단의 보수적인 성향은 선행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 일반의 법의식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형법의 탈윤리화, 비범죄화를 내세워 간통죄나 낙태죄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원생들의 진보적인 형벌관과 그들의 비행간의 상관관계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법이 반드시 일반인의 의식만을 쫓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형벌 기능의 탈윤리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5%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4%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미범죄에 관한 인식

(1) 경미범죄의 보편성에 관한 인식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중에서 경미범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22개의 범죄를 선별하여 그러한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누구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총점 22점에 대하여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14.63, 여자학생집단이 15.8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13.1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12.59이며, $F=10.75$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학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여자학생은 제시한 22개의 범죄행위 중에서 약16개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가장 많은 수를 응답했고, 남자학생은 약15개, 남자원생과 여자원생은 각각 약13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제시된 행위들 중의 절반 이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누구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경미범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5〉 경미범죄의 보편성에 관한 분산분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14.63	4.99	186	
학생 - 여	15.83	5.00	187	
원생 - 남	13.16	5.43	148	$F=10.7559$
원생 - 여	12.59	5.78	79	$P= .0000$

구체적으로 각 범죄행위의 보편성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표 6-6〉과 같다. 남자학생의 경우는 장난전화나 편지(90.8%)의 보편성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여자학생은 허위광고(90.9%), 남자원생은 장난전화나 편지(81.1%), 여자원생은 오물방치(78.5%)가 가장 높았다.

〈표 6-6〉 경미범죄의 보편성에 관한 교차분석

범 죄 유 형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χ^2
빈집잠입	64.3	69.4	77.0	77.2	8.27*
허위신고	71.3	79.1	67.6	53.8	17.97***
판명사칭 등	76.8	80.6	66.7	62.0	14.75**
허위광고	84.3	90.9	68.5	58.2	49.5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64.9	77.0	48.6	44.3	40.08***
광고물 무단부착	76.8	81.7	66.0	41.8	47.95***
음용수 사용방해	60.0	61.5	38.5	35.9	30.38***
단체가입강요	48.1	43.0	38.8	50.6	4.29
노상방뇨	54.1	58.8	43.2	45.6	9.63*
울주교란	89.2	89.3	76.9	74.7	18.51***
출견던지기 등 위협행위	61.1	64.0	59.9	51.9	3.43
미신요법	54.6	75.8	49.3	53.8	29.81***
괴해동물 관리소홀	45.1	39.6	35.4	34.6	4.24
장난전화 등	90.8	89.8	81.1	74.7	17.19***
악표매매	68.6	79.7	62.3	62.8	14.44**
니달춤교습	50.3	66.3	54.7	51.9	11.11*
새치기	83.7	87.2	81.0	76.9	4.87
굴품강매 호객행위	58.9	58.6	52.0	64.1	3.43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66.5	77.5	70.1	64.1	7.44
오물방치	89.2	90.4	79.7	78.5	12.91**
자연훼손	68.6	70.6	59.2	59.0	7.02
불안감조성	44.3	55.6	46.6	49.4	5.23

* $P < .05$

** $P < .01$

*** $P < .001$

(2) 경미범죄의 허용성에 관한 의식

경범죄처벌법에서 선별한 22개의 범죄행위 중에서 전에 해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총점 22점에 대하여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6.63, 여자학생집단이 5.62, 남자소년원생집단이 9.2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8.72이며, $F=21.55$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 < .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여, 원생-여와 학생-남, 원생-남과 학생-여, 원생-남과 학생-남 집단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남 자원생과 여자원생은 제시한 22개의 범죄행위 중에서 약9개를 경험했거나 할 수 있

으리라고 보아 가장 많은 수를 응답했고, 남자학생은 약7개, 여자학생은 약6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제시된 행위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허용성은 역시 학생보다는 원생들이 높고, 학생중에서는 남자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7〉 경미범죄의 허용성에 관한 분산분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6.63	4.24	186	
학생 - 여	5.62	3.74	187	
원생 - 남	9.27	5.13	148	F= 21.5597
원생 - 여	8.72	5.70	79	P= .0000

구체적으로 각 범죄행위의 허용성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표 6-8〉과 같다.

〈표 6-8〉 경미범죄의 허용성에 관한 교차분석

범 죄 유 형	학 생 - 남	학 생 - 여	원 생 - 남	원 생 - 여	χ^2
빈집잠입	25.9	12.3	64.9	55.7	121.54***
허위신고	24.3	11.8	40.5	29.1	37.24***
관명사칭 등	40.0	28.9	39.7	40.5	6.86
허위광고	28.6	34.2	33.8	32.9	1.60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12.4	8.6	17.7	19.0	8.39*
광고물 무단부착	23.2	24.1	24.5	25.3	.15
음용수 사용방해	24.9	12.3	27.7	32.9	18.82***
단체가입강요	15.1	11.2	26.4	29.1	19.87***
노상방뇨	34.6	9.6	46.6	36.7	59.93***
음주교란	40.5	27.8	62.8	59.5	49.59***
물건던지기 등 위협행위	42.7	39.6	58.8	48.1	13.73**
미신요법	13.0	21.4	27.0	26.6	11.97**
위해동물 관리소홀	21.6	16.0	33.8	27.8	15.57**
장난전화 등	64.9	70.1	75.7	72.2	4.77
암표매매	19.5	19.3	23.0	26.6	2.40
비밀출교습	10.8	8.6	21.6	24.1	19.20***
새치기	62.2	65.2	71.6	59.5	4.56
물품강매 호객행위	11.9	14.4	27.0	32.9	24.52***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15.7	17.1	33.1	32.9	22.35***
오물방치	77.3	70.1	83.1	73.4	8.17*
자연훼손	45.4	33.7	48.6	49.4	10.27*
불안감조성	12.4	5.9	39.3	38.0	80.66***

* P<.05

** P<.01

*** P<.001

지지율이 높은 1-3위의 행위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의식의 차이가 없었는데, 컷제는 휴지, 담배꽂초, 쓰레기 등의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고, 들썰는 장난전화나 편지, 세제는 극장이나 정류장에서의 새치기였다. 그러나 빈집잠입, 허위신고, 불안감조성 등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행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 비해 원생들의 지지율이 높아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경미범죄의 처벌여부에 관한 의식

경범죄처벌법에서 선별한 22개의 행위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인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총점 22점에 대하여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13.24, 여자학생집단이 13.7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10.4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10.54이며, $F=18.01$ 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과 원생-남, 학생-남과 원생-여, 학생-여와 원생-남, 학생-여와 원생-여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남녀 집단은 제시한 22개의 범죄행위 중에서 약13-14개를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원생 남녀 집단은 약10-11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제시된 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는 역시 원생보다는 학생들이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식조차도 13개 행위 외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 중에서 일부는 비범죄화되어야 할 만큼 경미한 범죄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6-9〉 경미범죄의 처벌여부에 관한 분산분석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사 례 수	
학생 - 남	13.24	4.87	186	
학생 - 여	13.73	4.35	187	
원생 - 남	10.47	5.18	148	$F=18.0153$
원생 - 여	10.54	5.46	79	$P= .0000$

구체적으로 각 범죄행위의 처벌여부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표 6-10〉과 같다.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서 각 집단별 지지율이 가장 높은 행위는 길을 막고 거친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은 남자학생의 경우 새치기(31.2%), 여자학생은 미신요법(31.6%), 남자소년원생은 새치기(27.2%), 여자소년원생도 새치기(32.9%)였다.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큰 행위는 허위신고, 음용수 사용방해, 노상방뇨, 위해동물 관리소홀, 암표매매, 오물방치, 자연훼손, 불안감조성 등으로 원생에 비해 학생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행위들이다. 특히 할 만한 것은 오물방치의 경우 보편성 및 허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율이 높았고, 자연훼손의 경우는 보편성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학교 및 매스컴을 통한 환경교육의 효과로 환경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본다.

〈표 6-10〉 경미범죄의 처벌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범죄 유형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χ^2
빈집잠입	64.5	58.8	61.5	51.9	3.96
허위신고	60.2	73.3	39.9	51.9	39.48***
관명사칭 등	36.6	33.7	43.9	39.2	3.89
허위광고	60.2	70.6	58.1	49.4	12.28**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69.4	79.7	64.2	60.8	14.00**
광고물 무단부착	59.1	51.9	37.8	48.1	15.34**
음용수 사용방해	82.8	93.0	73.6	59.5	46.30***
단체가입강요	67.2	57.8	61.5	45.6	11.40**
노상방뇨	59.1	70.1	41.9	38.5	37.31***
음주교란	38.7	42.2	31.8	32.9	4.70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65.6	53.5	48.0	54.4	11.37**
미신요법	40.3	31.6	32.4	36.7	3.80
위해동물 관리소홀	60.8	66.8	45.9	50.6	17.10***
장난전화 등	40.9	54.0	31.8	40.5	17.43***
암표매매	76.9	72.2	56.1	46.8	32.55***
비밀춤교습	75.8	70.6	58.8	60.8	3.46**
새치기	31.2	38.0	27.2	32.9	4.57
물품강매 호객행위	67.7	56.7	52.7	44.3	15.05**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47.8	46.0	29.1	44.3	14.16**
오물방치	61.3	81.3	33.8	51.9	79.58***
자연훼손	72.6	79.7	45.3	48.1	57.51***
불안감조성	85.5	92.5	72.3	65.8	38.68***
					* P<.05 ** P<.01 *** P<.001

3. 사형존폐에 관한 의식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고, 사회로 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신진규, 1989:560). 사형의 형사정책적 의의는 그것이 형사책임으로서 가장 중하다는 것을 사회 일반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범죄인을 영구히 격리시킴으로써 국가 사회를 방위하려는데 있다고 한다(정영석, 1987:241). 그러나 실제에 있어 사형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첫째, 사형은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제도로써 인간을 국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둘째, 사형은 인간의 존재 근거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최석윤, 1993:20-21)는 것이다. 세째, 사형은 무고한 시민에 대해 집행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며, 네째,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있다고 볼 때 사형은 전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다섯째,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위하적 효과가 없다(김일수, 1991:561)는 것이다.

사형존치론의 논거는 첫째, 사람을 살해한 자의 생명을 박탈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이고, 둘째, 극악한 사람은 사회에 유해하므로 사회 방위를 위해 이 사회로 부터 완전히 말살해야 한다(정영석, 1987:243)는 것이다. 세째,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김일수, 1991:562)는 것이다.

사형존폐의 문제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세계 각국이 점차 사형을 폐지하고 있고, 존치하더라도 거의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정책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한 의식을 묻고, 찬반에 따른 각각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사형제도에 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사형제도의 폐지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학생 남-여는 각각 50.3%와 65.2%로 반대가 많았고, 원생 남-여는 각각 77.9%와 67.5%로 찬성이 많았다. 각 집단내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식은 소년원생들의 대부분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남자학생은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고, 여자학생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형벌이론에 대한 의식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6-11〉 사형제도의 폐지여부에 관한 의식

찬 반 여 부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χ^2
찬 성	49.7 (92)	34.8 (65)	77.9 (113)	67.5 (52)	68.37***
반 대	50.3 (93)	65.2 (122)	22.1 (32)	32.5 (25)	

*** $P < .001$

사형폐지론에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집단간에 별 차이 없이 범죄자에 대한 개선기회 박탈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법관의 오판가능성, 인간의 생명권 침해,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권 침해로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12〉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이유

이 유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χ^2
인간의 존엄권 침해	12.0 (11)	7.78 (5)	14.3 (16)	17.0 (9)	8.09
인간의 생명권 침해	16.3 (15)	12.3 (8)	19.6 (22)	18.9 (10)	
법관의 오판 가능성	33.7 (31)	33.8 (22)	27.7 (31)	30.2 (16)	
개선기회의 박탈	34.8 (32)	41.5 (27)	36.6 (41)	34.0 (18)	
기타	3.3 (3)	4.6 (3)	1.8 (2)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본 결과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 남자학생의 경우는 범죄인에 대한 응보(35.1%)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35.1%)가 주요 이유이나 여자학생의 경우는 절반 이상(53.3%)이 범죄인에 대한 응보를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원생 남-여 집단은 사형제도 존치의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응보보다는 위하나 사회방위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이유

이	유	학생 - 남	학생 - 여	원생 - 남	원생 - 여	χ^2
범죄인에 대한 응보		35.1	53.3	20.0	21.7	21.88**
		(34)	(65)	(6)	(5)	
일반인에 대한 위하		35.1	24.6	36.7	30.4	
		(34)	(30)	(11)	(7)	
사회방위		27.8	19.7	40.0	47.8	
		(27)	(24)	(12)	(11)	
기타		2.1	2.5	3.3		
		(2)	(3)	(3)		

** P<.01

VII.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집단을 학생 남자와 여자, 소년원생 남자와 여
자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그 의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청소년
들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범죄를 법을 어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
를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양심적인 행위까지도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보수적인 범죄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계층간의 갈등의 소산이라고
보는 급진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한 보수
적인 성향은 소년원생보다는 학생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사회적인 규정으로 보는 데는 비교적 지
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범죄의 개념을 다원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자유의사를 인정하기 보다는 결
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생래적인 성향보다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아 범죄
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여자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폭넓게 이해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범죄원인을 소질보다는 환경에서 찾고 있는데, 환경적
인 요인중에서도 소년원생 집단은 가정환경적 요인, 특히 결손가정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학생 집단은 교육환경적 요인,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더욱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밖에도 계층간의 갈등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악한 처벌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넷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범죄대책에 대해 도덕적, 사회개량적, 억압적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덕적 측면의 대책에서는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고, 사회개량적 대책에서는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억압적 대책에 있어서는 경찰의 수사력 강화보다는 처벌의 강화에 대해 지지도가 낮고, 특히 소년원생의 경우 범죄대책으로서의 처벌의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섯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범죄상황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질적으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보다도 청소년범죄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형법상의 범죄의 발생빈도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영향도 및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살인죄가 가장 심각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집단 간 구별없이 성범죄가 두번째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죄라고 생각하며, 처벌 정도에 있어서도 살인에 이어 두번째로 엄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범죄피해를 입을 경우 대처방안으로서 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소년원생집단은 합법적인 대처방법뿐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대처방안도 같이 고려하고 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비합법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수용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여덟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형벌의 본질에 관해서는 소년원생들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법익박탈 기능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고, 학생들은 형벌의 형식적인 기능보다는 형벌의 실질적인 목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사회인에 대한 위하보다는 범죄자의 개선을, 범죄자의 개선보다는 응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므로써 학생집단의 형벌관이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형벌의 한계에 관하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인 처벌 및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탈윤리화 및 비범죄화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제시한 경범죄의 절반 이상에 대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허용성도 높아 이들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보다도 소년원생의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형폐지에 대해서는 소년원생들의 대부분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남자학생은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고, 여자학생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경우는 범죄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나, 반대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범죄인에 대한 응보를 그 이유로 들고 있는 반면, 소년원생들은 응보보다는 위하(威嚇)나 사회방위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대상 청소년중에서 학생의 경우 계급적인 범죄관을 부정하고 있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형벌의 한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윤리적인 문제나 피해자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벌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보며, 사형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매우 보수적인 범죄관 및 형벌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 중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더욱 두드러 진다. 반면에 소년원생의 경우는 계급적인 범죄관을 가지고 있고, 형벌의 탈윤리화 및 비범죄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형폐지에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학생에 비해 진보적인 때로는 급진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과 소년원생간의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두고 볼 때, 진보적인 범죄관 및 형벌관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범죄나 비행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년원생들의 경우 교정교육을 통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보

수적인 범죄관이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범죄문제에 대처할 경우 범죄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오히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범죄행태가 더욱 흉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생각이 보수적이거나 급진적인 경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려면 먼저 기성세대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그들에게 올바른 법의식 및 법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법교육의 실시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을 비롯해 법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이 단순화된 지식 위주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길러 주기 보다는 법지식의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은 학생과 소년원생간의 의식의 차이는 이러한 지식 위주의 법교육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범죄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거나, 범죄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놀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률문제를 생활화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길러줄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 및 범죄자의 문제가 나와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여 그들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범죄자들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소년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서, 교육제도 개선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인 범죄대책으로서 장차 범죄자들이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버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1),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 김상희, 조병인(1991),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옥철(1987), *소년범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일수(1991), *형법총론*, 박영사.
- 김준호 외 3인(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 박성혁(1992), *초·중·고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윤(1992),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진규(1989),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 심영희 외 3인(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외 3인(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재환(1991), “*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미리(1991), *형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성(1984), “*한국청소년의 범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학 제58·5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수성(1990), “*우리사회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성, 조준현(1989),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
- 이재상(1994), “*한국의 범죄동향과 그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1994), *형법총론*, 박영사.
- 이재상(1994), *형법각론*, 박영사.
- 임 웅(1990),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덕장(1994), 경범죄처벌법, 법원사.
- 정영석(1987), 형법총론, 법문사.
- 정영석(1987), 형사정책, 법문사.
- 조병선(1991), 질서위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진계호(1987), 형벌의 본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용석(1993), 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학사.
- 최석윤(1993), “사형이 정당한 국가형벌일 수 있는가?”,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김효경(1991),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화(1992), 법교육과정의 적정성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종고(1993), 법과 윤리, 경세원.
- 한기찬(1993), 형법에의 초대, 김영사.
- 金澤文雄(1984), 刑法とモラル, 一粒社.
- 吉川經夫 外12人(1978), 刑事政策講義, 青林書院新社.
- 內田文昭(1990), 犯罪概念と犯罪論の體系, 信山社.
- 大塚仁(1988), 犯罪論の基本問題, 有斐閣.
- 稻田輝明, 木谷明(1988), “輕犯罪法”, 註解特別刑法 7, 青林書院.
- 森下忠(1988), 犯罪者處遇論の課題, 成文堂.
- 小野清一郎(1954), 刑罰の本質について, その他, 有斐閣.
- 伊藤榮樹(1982), 輕犯罪法, 立花書房.
- 杉井敏邦(1990), 刑法—現代の犯罪と刑罰, 岩波書店.
- 夏目文雄, 上野達彦(1992), 犯罪概説, 敬文堂.
- Comfort, Alex(1988), *Authority and Delinquency*, London:Zwan Publications Inc.
- Cremona, Marise(1989), *Criminal law*, London:MacMillan Education LTD.
- Davis, Michael(1985), “How to make the punishment fit the crime”, *Criminal Justice Nomos* 27, New York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1993),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강원대학교 출판부.
- Heidensohn, Frances(1989), *Crime and Society*, London:MacMillan Education LTD.
- Liska, Allen E.(1988), 장상희 외 2인 역,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 Pollock-Byrne, Joycelyn M.(1989), *Ethics in Crime and Justice*, Belmont: Brooks/Cole Publishing Co.
- Taylor, Lawrence(1992), 홍성열, 임영식 역, 범죄행동은 유전적인가?, 성원사.
- Thomas, C. W., Bishop, D. M.(1987), *Criminal law*, Newbury Park:Sage Publications, Inc.

범죄와 형벌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연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 다음은 범죄와 범죄자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들입니다.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동의 하는 편이다	아주 동의 한다
1.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1	2	3	4	5
2. 범죄란 사회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이다. ...	1	2	3	4	5
3. 범죄란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나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1	2	3	4	5
4. 범죄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 이다.	1	2	3	4	5
5. 범죄란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 죄로 정해놓은 것이다.	1	2	3	4	5
6. 범죄자와 일반인은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 다.	1	2	3	4	5
7.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 죄자라고 할 수 없다.	1	2	3	4	5
8. 범죄자는 스스로 악을 선택해 행하는 사람이 므로 동정의 여지가 없다.	1	2	3	4	5
9.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1	2	3	4	5
10.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범죄가 자주 발생 한다.	1	2	3	4	5
11. 우리나라의 범죄는 점점 흉악화되는 것이 문 제이다.	1	2	3	4	5
12. 우리나라는 성인범죄보다 청소년범죄가 더 심각하다.	1	2	3	4	5

* 다음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입니다.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동의 하는 편이다	아주 동의 한다
-------------------	-------------------	---------------	-----------------	----------------

1. 일반인과 다른 개인의 신체적인 차이	1	2	3	4	5
2. 인성교육의 실패	1	2	3	4	5
3. 빈곤한 가정 환경	1	2	3	4	5
4. 대중매체의 영향	1	2	3	4	5
5.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1	2	3	4	5
6. 일반인과 다른 개인의 성격적인 차이	1	2	3	4	5
7. 급격한 사회 변화	1	2	3	4	5
8.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갈등	1	2	3	4	5
9. 부모가 없거나 한쪽만 있는 가정 환경	1	2	3	4	5
10. 처벌이 약해서	1	2	3	4	5
11. 빈부격차	1	2	3	4	5
1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	1	2	3	4	5

* 다음은 범죄대책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들입니다.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동의 하는 편이다	아주 동의 한다
-------------------	-------------------	---------------	-----------------	----------------

1. 가정교육을 강화한다	1	2	3	4	5
2. 사회부조리를 척결한다	1	2	3	4	5
3. 범죄자를 중벌로 다스린다	1	2	3	4	5
4. 학교교육을 강화한다	1	2	3	4	5
5. 전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1	2	3	4	5
6.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한다.	1	2	3	4	5
7.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1	2	3	4	5
8.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1	2	3	4	5

* 다음에 제시한 행위들에 대하여 각 행위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지 잘 생각하여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처벌 하지 않음	아주 가볍게 처벌	다소 가볍게 처벌	다소 엄하게 처벌	아주 엄하게 처벌
1.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	1	2	3	4	5
2.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	1	2	3	4	5
3.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	1	2	3	4	5
4.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성희롱 하는 것.....	1	2	3	4	5
5.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	1	2	3	4	5
6. 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	1	2	3	4	5
7. 사람을 죽이는 것	1	2	3	4	5
8. 흥기로 위협해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	1	2	3	4	5
9. 남을 속여 재물을 얻는 것.....	1	2	3	4	5
10.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	1	2	3	4	5
11.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불을 지르는 것	1	2	3	4	5
12.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	1	2	3	4	5
13. 돈이나 문서, 도장 등을 위조하는 것	1	2	3	4	5
14. 마약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1	2	3	4	5
15. 음란물을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	1	2	3	4	5
16. 도박을 하는 것	1	2	3	4	5
17. 뇌물을 주고 받는 것	1	2	3	4	5
18.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	1	2	3	4	5
19. 국기를 훼손하는 것	1	2	3	4	5
20.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	1	2	3	4	5
21.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로 채는 것	1	2	3	4	5
22.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1	2	3	4	5
23. 폭동이나 이적행위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 는 것	1	2	3	4	5
24.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 는 것	1	2	3	4	5
2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1	2	3	4	5

* 다음에 제시한 행위들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영향 안줌	별로 영향 안줌	보통	다소 심각한 영향	아주 심각한 영향
1.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	1	2	3	4	5
2.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	1	2	3	4	5
3.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	1	2	3	4	5
4.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성희롱 하는 것	1	2	3	4	5
5.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	1	2	3	4	5
6. 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	1	2	3	4	5
7. 사람을 죽이는 것	1	2	3	4	5
8. 흥기로 위협해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	1	2	3	4	5
9. 남을 속여 재물을 얻는 것	1	2	3	4	5
10.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	1	2	3	4	5
11.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불을 지르는 것	1	2	3	4	5
12.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	1	2	3	4	5
13. 돈이나 문서, 도장 등을 위조하는 것	1	2	3	4	5
14. 마약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1	2	3	4	5
15. 음란물을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	1	2	3	4	5
16. 도박을 하는 것	1	2	3	4	5
17. 뇌물을 주고 받는 것	1	2	3	4	5
18.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	1	2	3	4	5
19. 국기를 훼손하는 것	1	2	3	4	5
20.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	1	2	3	4	5
21.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로 채는 것	1	2	3	4	5
22.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1	2	3	4	5
23. 폭동이나 이적행위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 는 것	1	2	3	4	5
24.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 는 것	1	2	3	4	5
2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1	2	3	4	5

* 다음에 제시한 행위들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발생함 안함	거의 발생 안함	보통	다소 자주 발생	매우 자주 발생
1.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	1	2	3	4	5
2.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	1	2	3	4	5
3.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	1	2	3	4	5
4.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성희롱 하는 것.....	1	2	3	4	5
5.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	1	2	3	4	5
6. 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	1	2	3	4	5
7. 사람을 죽이는 것	1	2	3	4	5
8. 흥기로 위협해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	1	2	3	4	5
9. 남을 속여 재물을 얻는 것.....	1	2	3	4	5
10.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	1	2	3	4	5
11.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불을 지르는 것	1	2	3	4	5
12.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	1	2	3	4	5
13. 돈이나 문서, 도장 등을 위조하는 것	1	2	3	4	5
14. 마약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1	2	3	4	5
15. 음란물을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	1	2	3	4	5
16. 도박을 하는 것	1	2	3	4	5
17. 뇌물을 주고 받는 것	1	2	3	4	5
18.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	1	2	3	4	5
19. 국기를 훼손하는 것	1	2	3	4	5
20.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	1	2	3	4	5
21.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로 채는 것	1	2	3	4	5
22.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1	2	3	4	5
23. 폭동이나 이적행위로 국가존엄을 위태롭게 하 는 것	1	2	3	4	5
24.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 는 것	1	2	3	4	5
2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1	2	3	4	5

* 다음의 각 행위들에 대하여 그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면 ○표 그렇지 않으면 ×표해 주십시오.

1. 빈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 ()
2. 범죄나 사고의 허위신고 ()
3. 공직, 학위, 계급 등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 ()
4.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5. 출판물에 사사로운 일을 본인의 허락없이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실는 것 ()
6.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 ()
7. 마실 수 있는 물을 더럽히거나 못 마시게 하는 것 ()
3. 단체에의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 ()
9. 길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보도록 시키는 것 ()
10. 술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것 ()
11. 주의없이 위험하게 물건을 던지는 것 ()
12. 미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 ()
13. 해를 끼치는 개 등의 동물을 풀어 놓는 것 ()
14. 장난전화나 장난편지를 하는 것 ()
15. 극장 등지에서 암표를 사고 파는 것 ()
16. 비밀리에 춤을 교습하는 것 ()
17. 극장이나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 ()
13.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거나, 손님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 ()
19.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덮개없이 한데서 파는 것 ()
20. 휴지, 담배꽂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 ()
21. 공원이나 명승지의 나무를 꺾거나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 ()
22. 길을 막고 거친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

* 다음의 각 행위들에 대하여 그것을 귀하가 전에 해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표 그렇지 않으면 ×표해 주십시오.

1. 빈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 ()
2. 범죄나 사고의 허위신고 ()
3. 공직, 학위, 계급 등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 ()
4.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5. 출판물에 사사로운 일을 본인의 허락없이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실는 것 ()
6.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 ()
7. 마실 수 있는 물을 더럽히거나 못 마시게 하는 것 ()
8. 단체에의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 ()
9. 길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보도록 시키는 것 ()
10. 술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것 ()
11. 주의없이 위험하게 물건을 던지는 것 ()
12. 미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 ()
13. 해를 끼치는 개 등의 동물을 풀어 놓는 것 ()
14. 장난전화나 장난편지를 하는 것 ()
15. 극장 등지에서 압표를 사고 파는 것 ()
16. 비밀리에 춤을 교습하는 것 ()
17. 극장이나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 ()
18.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거나, 손님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 ()
19.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덮개없이 한데서 파는 것 ()
20. 휴지, 담배꽂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 ()
21. 공원이나 명승지의 나무를 꺾거나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 ()
22. 길을 막고 거친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

* 다음의 각 행위들에 대하여 그것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되면 ○표 그렇지 않으면 ×표해 주십시오.

1. 빈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 ()
2. 범죄나 사고의 허위신고 ()
3. 공직, 학위, 계급 등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 ()
4.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5. 출판물에 사사로운 일을 본인의 허락없이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실는 것 ()
6.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 ()
7. 마실 수 있는 물을 더럽히거나 못 마시게 하는 것 ()
8. 단체에의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 ()
9. 길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보도록 시키는 것 ()
10. 술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것 ()
11. 주의없이 위험하게 물건을 던지는 것 ()
12. 미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 ()
13. 해를 끼치는 개 등의 동물을 풀어 놓는 것 ()
14. 장난전화나 장난편지를 하는 것 ()
15. 극장 등지에서 암표를 사고 파는 것 ()
16. 비밀리에 춤을 교습하는 것 ()
17. 극장이나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 ()
18.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거나, 손님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 ()
19.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덮개없이 한테서 파는 것 ()
20. 휴지, 담배꽂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 ()
21. 공원이나 명승지의 나무를 꺾거나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 ()
22. 길을 막고 거친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

* 다음은 형벌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들입니다.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동의 하는 편이다	아주 동의 한다
-------------------	-------------------	---------------	-----------------	----------------

1.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빼앗는 것이다. 1 2 3 4 5
2. 형벌은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힘이다. 1 2 3 4 5
3.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다. 1 2 3 4 5
4. 형벌은 범죄자를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 2 3 4 5
5. 형벌은 일반사회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있다. 1 2 3 4 5
6. 태이를 낙태시키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에 맡길 일이지 법이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 1 2 3 4 5
7.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생활이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1 2 3 4 5
8. 마약, 본드 등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1 2 3 4 5
9. 도박을 하는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1 2 3 4 5

* 다음은 사형제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1개만 골라 번호앞에 ○표해 주십시오.

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1) 찬성한다(2번으로 가시오)

_____ 2) 반대한다(3번으로 가시오)

2.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_____ 2)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_____ 3) 법관의 오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_____ 4) 범죄자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이다.

_____ 5) 기타 ()

3.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_____ 2) 사형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사형이 두려워 흉악범죄가 줄을 수 있기 때문이다.

_____ 3)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 다시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_____ 4) 기타 ()

4. 귀하가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_____ 1) 피해를 준 범죄자에게 직접 복수하겠다.

_____ 2)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겠다.

_____ 3) 사법기관에 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_____ 4) 기타 ()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세

3. 귀하의 현재 학력은?

_____ 1) 국졸 미만

_____ 2) 국졸

_____ 3) 중학교 재학

_____ 4) 중학교 중퇴

_____ 5) 중학교 졸업

_____ 6) 고등학교 재학

_____ 7) 고등학교 중퇴

_____ 8) 고등학교 졸업

4. 다음의 보기중에서 부모님의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오. 보기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면 직접 적어 주십시오.

보 기

1) 농림어업자 (농업, 어업, 광업, 축산, 수산양식, 원예업 등)

2) 자영업 (상점, 음식점, 공장, 운송업 등)

3) 판매 서비스 (상점이나 음식점 등의 종업원, 가정부 등)

4) 기능직 작업직 (공원, 기계조작원, 목공, 운전기사, 건축공 등)

5) 사무직 기술직 (사무직 사원, 조종사, 항해사, 교사, 보조, 간호원, 군인, 경찰 등)

6) 관리직 경영자 (회사나 은행의 부장급 이상, 국장급이상의 공무원, 기업경영자 등)

7) 전문직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목사 등)

8) 주부

9) 무직

1) 아버지()

2) 어머니()

5. 다음 보기중에서 부모님의 학력에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 기					
1)무학	2)국졸	3)중졸	4)고졸	5)대졸	6)대학원졸 이상

1)아버지()

2)어머니()

6. 가족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1) 50만원 미만

_____ 2) 50-100만원 미만

_____ 3) 100-150만원 미만

_____ 4) 150-200만원 미만

_____ 5) 200만원 이상

* '범죄'와 '형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 또는 생각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1)범죄 ()

2)형벌 ()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구자: 구 정 화

목 차

I. 서론	213
II. 이론적 논의	215
1. 청소년기의 자기평가	215
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218
3.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222
III. 연구방법	225
1. 연구대상	225
2. 측정도구	226
3. 자료분석방법	229
IV. 결과 및 해석	231
1. 청소년의 자기평가	231
2.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안	238
3.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254
V. 결 론	273
참고문헌	279
부록 : 설문지	283

표 목 차

표 1) 표집의 특징	225
표 2) 자기평가 도구의 신뢰도	227
표 3) 자기평가 영역간의 상관관계	231
표 4) 자기평가의 평균점수	232
표 5) 종합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	234
표 6)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	235
표 7) 사회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	236
표 8) 생활사건 경험유무와 스트레스 정도	239
표 9)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전체 평균 및 순위	241
표 10)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성별 평균 및 순위	242
표 11)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학교별 평균 및 순위	243
표 12)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경제수준별 평균 및 순위	244
표 13)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성적별 평균 및 순위	246
표 14) 스트레스 양에 대한 집단별 차이	247
표 15)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	248
표 16) 스트레스 각 대처방식의 평균과 순위	249
표 17) 직면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249
표 18) 정동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250
표 19) 도피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251
표 20) 외타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252
표 21) 체념에 대한 집단별 차이	253
표 22) 스트레스 양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255
표 23) 스트레스 양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256
표 24) 스트레스 양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간 비교	257

〈표 25〉 직면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258
〈표 26〉 직면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260
〈표 27〉 직면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간 비교	261
〈표 28〉 정동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261
〈표 29〉 정동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263
〈표 30〉 정동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간 비교	264
〈표 31〉 도피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264
〈표 32〉 도피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265
〈표 33〉 도피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간 비교	266
〈표 34〉 의타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266
〈표 35〉 의타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268
〈표 36〉 의타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간 비교	268
〈표 37〉 체념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269
〈표 38〉 체념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270
〈표 39〉 체념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간 비교	271

I. 서 론

복잡한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적 이상현상의 하나로 사회 성원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특징,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적응,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과중한 성취 압력, 맹목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등으로 어떤 다른 집단보다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황정규, 1990 : 25). 이러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시기적으로 볼 때 감정과 정서면에서 불안정한 사춘기에 일어난다는 점과, 어른들과 달리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게 한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현상에 대해 무엇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통제할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 격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의 한 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성인의 스트레스 측정방식에 따라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설명하여 그 시기적 특징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징에 따른 스트레스 형성과 대처방식, 그리고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독특한 스트레스 양상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평가를 스트레스와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청소년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기 주변 인물들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런 자기평가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형성과 대처 방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하나의 동일한 생활사건에 대해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양과 대처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통해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기평가를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자기평가와 자기 주변의 인물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는 사회적이고 간접적인 자기평가로 구분하여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기평가는 청소년기의 생활사건에 대해 갖는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독립변인으로 활용된다.

둘째,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하여 경험의 여부 및 경험 시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무엇이며 이 때의 스트레스 정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생활사건은 무엇인지도 분석하려 한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처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도피지향, 직면지향, 외타지향, 정동지향, 체념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려 한다.

넷째, 각 부분을 기초로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형성 및 대처방식에 있어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그 연구대상에 있어 전국적인 표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서울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대상의 표집선택에 있어 무선험당을 하지 않고 연구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표집을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해석을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하는데도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경험적인 분석을 위해 스트레스 관련 생활사건이나 대처방안을 연구자가 미리 제공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태나 대처방식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기의 자기평가

인간은 출생시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의존성이 강한 존재이다. 출생시의 완전한 의존상태는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독립적인 상태로 변해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관계의 내용 또한 복잡해진다. 특히 청소년기는 학교를 통해 생활환경의 폭이 확장되어 친구와 교사 등 가족 외의 중요한 타인과 만나는 시기로서 인간관계의 폭과 내용이 다양해지는 시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어, 사회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현실을 보는 눈이 다양해지며, 이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박영남 외, 1993 : 5-6). 이렇게 자신의 각 영역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외부의 타인에게서 받을 평가를 고려하는 것을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방식, 감정, 외모, 신체적인 성숙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몰두한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특별한 존재이길 원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불안, 걱정, 노심 등을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며, 부정적인 때가 많고 이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영역에 대하여 ‘매력적이다’, ‘똑똑하다’ 등과 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멍청하다’, ‘매력적이지 않다’와 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모습을 보인다(Youngs, 1994 : 141). 첫째는 자신에 대한 사적인 견해인 ‘실제적인 자아’이고, 둘째는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자아이다.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드러

나는 ‘자아로서 공적인 자아’이다. 그러나 두번째의 이상적인 자아는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준거적인 모습일뿐 실제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제적인 자아와 공적인 대중에 드러나는 공적인 자아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정체를 탐색하고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평가, 즉 자기상은 청소년의 주관적인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고, 감정, 행동 등 모든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osenberg (1989)가 자기평가를 중요한 심리적 복지의 지표로서 제시하는 것처럼 청소년기의 자기평가는 청소년기의 적응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김종서 외(1983)는 한국인의 발달단계마다 4가지 발달 영역을 분류하고 있는데,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신체적 영역이 그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Harter(1990)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부여하는 총체적인 가치’라고 하면서, 그 하위영역으로 학업영역, 사회영역, 운동영역, 품행 및 외모 등의 세부적인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는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이런 각 영역에서 자신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영역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을 ‘학업영역’, ‘사회영역’, ‘가치영역’, ‘신체영역’의 네 가지로 구별하고자 한다. 학업영역은 학교에서의 성취요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성적 및 지적 능력 등과 관련된 평가이며, 사회영역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적응력으로서 사회성과 비슷한 요소이다. 가치영역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서 자존감에 기초가 되는 것이며, 신체영역은 자신의 외모, 체격, 신체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이러한 각 영역은 서로 간에 상보적인 효과를 지니면서 청소년기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되며, 각 영역에 대한 평가의 정도는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소년 자신에 의한 주관적인 자기평가 외에도 청소년들은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하게 된다. Mead(1934)는 이러한 주변의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일반화된 타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Cooley

(1964) 또한 ‘거울자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Cooley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합하여 ‘자신에 대한 느낌(sence of self)’을 갖게 되며 타인을 통해 형성된 반영적인 자기평가는 개인이 자기를 이해하는데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평가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고 본다. 이렇게 주변인물에게서 받게 되는 사회적인 평가와 지지는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이론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Cobb(1976)은 정보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면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라고 믿게해 주는 정보인 ‘존경 지지’, 대화를 통해 하나의 관계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해 주는 정보인 ‘관계망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평가와 지지를 주는 공적인 타인은 주로 청소년의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써 가족(특히 부모), 또래 집단, 그리고 교사이다.

이러한 부모나 또래, 교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지지가 청소년기의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Bachman, 1982 ; Kurdek and Sinclair, 1988 ; Rosenberg, 1989 ; Ohannessian, 1992을 이명숙, 1994 : 19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기평가는 이런 주변의 중요한 타인에 의한 평가에 대하여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정도로서 부모평가, 형제평가, 또래평가, 교사평가의 4가지 영역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Lloyd, 1985 ; Ginsberg, Gottmann, and Parker, 1986 ; Parker and Asher, 1987 ; Ebata, 1987 ; 윤진, 1984 ; 백경임·성동인, 1993 ; 이명숙, 1994)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로 또래집단을 들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자기평가를 연관시켜 살펴보려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모, 형제, 교사평가 또한 중요하게 취급하려 한다.

2. 청소년기와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과 특징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는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적인 개념 정의는 최근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보통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학자들은 세가지 측면으로 이해한다. 반응에 근거한 접근(response-based approach), 자극에 근거한 접근(stimulus-based approach), 상호작용적 접근(interactional approach)이 그것이다(황정규, 1990 : 27).

스트레스를 반응에 의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초기의 입장으로서, 주로 생리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 따른 것이다. Selye(1982)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내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의 비특정적인 반응으로서 어떤 증후에 의해 표출된 상태”이며, 이런 증후로서 아드레날라의 확장, 두통, 근육의 긴장 등을 들고 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외부의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하여 인간을 수동적으로 파악한다.

자극에 근거한 접근으로 스트레스를 보는 입장은 최근 심리학자들이 보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존재하는 외적 환경인 물리적, 심리적 위험을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즉 위험이 되는 환경적·심리적 조건을 스트레스자(stressor)로 보고 이런 스트레스자가 존재하면 위협, 긴장, 불안 등의 심리적 반응이나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이다. Lazarus and Cohen(1977)은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적 자극을 세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지진, 홍수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의 사건이고, 둘째는 이혼, 죽음과 같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경험이며, 셋째는 일상생활의 문제거리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생활사적인 사건을 평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선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두 입장에 비해 상호작용적 접근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스트레스를 보는 입장이다. 즉, 환경 내의 자극 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지각과 인지 그리고 감정을 강조함으로써 앞의 두 입장과 달리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할지라도 각자의 입장이나 위치 또는 상황에 따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한다. 즉 스트레스를 환경의 문제 만이 아니라 사람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시각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Spielberg, 1972).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는 모든 종류의 곤란을 전부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쓰이거나 갈등이나 불안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 즉 아주 직관적이고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상 앞에서 이야기한 세가지 입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는 불안, 심층적인 정서적·생리적 각성, 그리고 좌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동시에 자극이나 반응에만 기초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의 중개적인 인지과정 또한 중요시하는 인지적 접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황정규, 1990 : 27). 본 연구에서도 이런 복합적인 개념으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스트레스의 양상을 보다 더 잘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밝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황정규(1990 : 27-28)는 스트레스의 특성을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스트레스를 현상학적 실체로 보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각 각의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고, 개인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주관적 의미부여 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학적 해석의 결과이다.

둘째, 스트레스는 단일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가 불쾌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상을 받는 것과 같이 유쾌한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특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 스트레스가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이러한 개인차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명확한 실증적 자료는 없지만 유전, 발달 초기의 경험, 충격적 경험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한다.

2) 스트레스의 대처방식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는 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대처(coping)란 개인과 환경 관계에서 오는 내적 또는 외적 요구를 극복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홍원희, 1992 : 8). 이런 대처행동은 그 기능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Lazarus and Folkman(1984)는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를 처리하거나 변경시키는 ‘문제중심의 대응책’과 그 문제로 인해 나타는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정서중심의 대응책’ 두가지로 크게 나눈다. 정서중심의 대처방식은 다시 소망에 의한 활동, 도움 추구나 회피, 성장지향, 공포감 감소, 정서적 지지 추구, 자기 비하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7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earlin and Schooler(1978)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긴장 경험을 일으키는 상황을 소거하거나 조절하는 ‘상황조절적 행동’, 긴장 경험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긴장 경험의 의미를 통제하는 ‘통제적 행동’, 스트레스가 일어난 뒤 그 정서적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으로 통제하는 ‘방어적 행동’의 세 차

원으로 나누었다. 이와 비슷하게 Moos et al.(1984)은 상황의미를 규정하거나 재규정하는 ‘평가지향적 행동’, 스트레스자에 관련된 정서를 통제하거나 효과적인 평정상태를 유지하는 ‘정서지향적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비해 Brown and Heath(1984)는 회피와 비회피적 대처방식으로 나누고 있으며, Parkes(1986)는 직접적 대처, 억압적 대처, 일반적 대처로 나누고 있다. Gutmann(1964)은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아통제 방식에 따라 대처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모든 사태를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동적 대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 대처’, 그리고 자포자기한 나머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미신적 대처’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김애순(1986)이 Gutmann의 척도를 이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5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도피지향’, ‘직면지향’, ‘의타지향’, ‘정동지향’, ‘체념’으로 범주화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런 세분된 분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5가지 분류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3)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계속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유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성인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이소은, 1990 : 15). 그러므로 성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사실상 청소년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 보다도 더 많은 과제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연령에 의한 발달과업 뿐만 아니라 입시와 관련된 경쟁이 심리적 압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압력과 신경불안, 좌절의 경험에서 오는 정서적 갈등이 중요한 스트레스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고민거리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수

위를 차지하는 것은 학업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진학, 장래 진로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환경이 되며, 청소년 스트레스의 주 변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는 ‘이성문제, 가족간의 갈등, 교우관계’ 처럼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 및 압력에 의해 생겨난 것이거나 학업성적과 진로문제, 그리고 자신의 성격에 대한 고민으로 초래된다(강주태, 1982)고 볼 수 있다.

황정규(1990)는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선생님으로부터 꾸중, 벌 받음’, ‘동성 친구와 선물, 편지, 전화 교환’, ‘성적저하로 부모에게 야단맞음’, ‘동성 친구와 다툼’, ‘학교성적의 부진’, ‘선생님께 매 맞음’,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선생님께 칭찬, 상 받음’, ‘형제간의 불화’, ‘동성 친구와 여행, 영화관에 감’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그들의 학생이라는 신분적 위치에 의한 것이 많고 일부는 사춘기라는 연령적인 이유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동성 친구와 관계’에서 파생하는 생활사건이며, 두번째는 ‘학업성적’과 관련된 생활사건이고, 셋째가 ‘선생님과 관계’에서 생기는 사건이다. 넷째는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고, 다섯째가 ‘신체적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학생 청소년들이 현저하게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천은 친구, 교사, 성적이 중심축을 이루며 그외에 부모와 관계에서 파생하는 인관관계라는 축이 있으며, 또 다른 축으로 신체적 변화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으로 정리된다. 즉, 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 또는 자기평가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양’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드물지만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련된 연구와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 개인들이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즉 개인들 나름대로 자신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에 대해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겪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건 자체의 성격, 사용 가능한 개인적·사회적 대처자원,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시기, 성격특성, 그 사건의 예언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고려하는 이유는 한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가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 특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Aronson and Metter, 1968). 그러므로 자기평가가 높을 경우에 자신의 생활사건 중에서 나타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따라서 스트레스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반대로 주장하는 경우, 자기에 대한 높은 평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게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자를 갖게 되며, 결국 스트레스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기평가가 높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서 부모, 형제, 친구, 교사의 평가인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의 연관을 설명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즉 많은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인 경험을 덜 문제시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에 가치있는 대처자원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Lazarus and Folkmann, 1984 : 272-282). 사회적 지지는 개인 상호간에 신뢰를 통해 도움을 주고 감정적인 결속을 강화시켜 주어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적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한다(Heller, Swindle, and Dusenbury, 1986 : 466)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서 또래집단의 영향은 크다. Compass(1987)는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락감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래간의 우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아존중감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기초로 형성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서도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LaRocco, House, and French(1980 : 202-218)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그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지지원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가정 문제 및 학교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기반으로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또래집단은 청소년기의 인지,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발달을 유도하고 이를 장려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역할은 부모와 교사의 것이다. 특히 「교육열의 과다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설명되는 우리교육 현실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이 부분과 관련된 일차적인 사회적인 평가는 교사가 내리는 것이고 또한 부모에 의해서도 심각한 평가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와 교사라는 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중요한 성인 집단의 사회적인 자기평가는 자신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형성과 스트레스 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2학교, 그리고 중학교 4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800명을 표집하였다. 1994년 7월 중에 행해진 설문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것과 회수된 것 중에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717개 이다.

〈표 1〉

표집의 특징

(단위 : %, 실수)

변 인			남	여	전 체
학 교	고 등 학 교		46.4	53.6	50.6(362)
	중 학 교		46.6	53.4	49.4(354)
경제 수준	상		48.0	52.0	17.9(128)
	중		44.5	55.5	75.3(539)
	하		63.3	36.7	6.8(49)
성적 수준	상		53.2	46.8	22.4(159)
	중		43.8	56.2	52.4(372)
	하		47.5	52.5	25.2(179)
형제 순서	말	이	41.0	59.0	38.8(278)
	막	내	58.5	41.5	40.5(290)
	중	간	23.9	76.1	15.8(113)
	독	자	65.7	34.3	4.9(35)
전 체			46.6(333)	53.4(384)	100.0(717)

* 전체 표집은 717명이나 각 변인별로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빈도를 분석하여 각 하위변인별 전체 사례수가 717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학생이 46.6%이며 여학생은 53.4%로 여학생이 조금 많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은 49.4%이며, 고등학생이 50.6%로 이중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학생 49명, 남학생 43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362명 중 25.4%이다.

경제수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당신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잘사는 편이다’를 ‘상’으로, ‘그저 그렇다’를 ‘중’으로, ‘잘못사는 편이다’를 ‘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상’인 경우는 17.9%, ‘중’인 경우는 75.3%, ‘하’인 경우는 6.8%이다.

그리고 성적별로는 “당신의 학교에서의 성적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잘하는 편이다’를 ‘상’, ‘보통이다’를 ‘중’, ‘잘못하는 편이다’를 ‘하’라고 하여 분석한 결과, ‘상’은 22.4%, ‘중’은 52.4%, ‘하’는 25.5%이다. 이 중 성별(남, 여), 학교(고등학교, 중학교), 경제수준(상, 중, 하), 성적수준(상, 중, 하)은 본 연구의 집단간 비교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한다.

2. 측정도구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먼저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위한 도구」와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도구」 세 가지이다.

1) 청소년의 자기평가 측정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2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가 그것이다.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인 자기평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인물로부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하여 자신이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학업영역, 사회영역, 가치영역, 신체(외모)영역」의 4가지로 다시 분류한다. 이들 4가지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각 영역별로 4문

항씩으로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인 자기평가 또한 「부모, 형제, 또래, 교사」의 4영역의 평가로 나뉘어지며 여기서도 각 영역당 4문항씩으로 16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자기평가의 문항은 32문항이다. 각 척도는 Likert 척도에 기초하여 5단계 평점척도로 제작하였다.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고¹⁾, 각 영역별 점수는 4문항의 평균을 사용하며, 최저 1점—최고 5점이며,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점수, 그리고 전체적인 자기평가 점수 또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최저 1점—최고 5점이다. 그러므로 중간점수는 3점이며, 3점 보다 높은 경우엔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보이는 것이고, 3점보다 낮은 경우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자기평가의 하위영역으로 채택된 8개의 변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영역’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신의 영역에 대한 평가이며, ‘사회영역’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적응력, 친밀감 등에 대한 평가이고, ‘가치영역’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이며, 이에 비해 ‘신체영역’은 자신의 외모, 체격 등에서 느껴지는 평가를 말한다. ‘부모, 형제, 또래, 교사평가’는 그 대상이 자신에 대한 지지, 인정, 기대 등의 정도를 얼마나 주는지를 스스로 고려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자기평가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의 신뢰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α 계수를 산출하며, 각 문항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기평가 도구의 신뢰도

자 기 평 가 영 역	문항 수	신뢰도(α 계수)
학 업 영 역	4	.6812
사 회 영 역	4	.6089
가 치 영 역	4	.6298
신 체 영 역	4	.7422
부 모 평 가	4	.7349
형 제 평 가	4	.6528
또 래 평 가	4	.7134
교 사 평 가	4	.6307
전 체	32	.8840

1) 문항의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는 역으로 점수를 계산함

전체 32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840으로 높은 편이며, 각 영역별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은 .7422로서 신체영역에 대한 문항이고,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은 .6089로서 사회영역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영역의 신뢰도가 .60을 넘어 평가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스트레스 측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련 생활사건과 스트레스량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Mendez et al.(1982), Holmes and Rahe(1967), Coddington(1972), 이정숙·조길자(1982), 이평숙(1984)이 사용한 생활사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에 적합한 스트레스 항목을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한 홍원희(1992)의 것을 사용하려 한다.

이 검사는 총 28개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경험 유무를 답하게 한 다음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게 한 것이다. 스트레스 사건 문항은 연구대상이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발달적 특성에 맞는 문항을 선택하며, 주로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및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스트레스관련 생활사건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각 평정 결과에 따라 ‘전혀 받지 않았다’는 0점, ‘약간 받았다’는 5점, ‘보통으로 받았다’는 10점, ‘많이 받았다’는 15점, ‘매우 많이 받았다’는 20점으로 개별적인 항목의 스트레스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이며, 전체 스트레스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560점이다. 이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스트레스 양이 높다. 이 검사의 제작 시에 측정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07$ 로 높은 편이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척도는 Gutmann(1964)이 구성한 3가지 대처방식 -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 - 을 기초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구성한 김애순(1986)의 척도를 청소년기에 맞게 수정한 최정훈 외(1987)의 것을 사용하려

한다. 이들은 김애순의 척도에 기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며, 전체 45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5가지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에 할당되지 못한 문항은 제거되었다. 5가지 하위 요인은 각기 도피지향, 직면지향, 의타지향, 정동지향, 체념이며, 하나의 요인 당 4개의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문항이 20개로 구성된 스트레스 대처척도를 제작하였다.

‘도피지향’은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표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직면지향’은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또한 ‘의타지향’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동지향’은 좌절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손상을 줄이거나 보상하려는 노력을 나타내고, ‘체념’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중에서 ‘직면지향’과 ‘정동지향’은 능동적인 대처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 ‘도피지향’과 ‘의타지향’, ‘체념’은 소극적인 대처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 4, 3, 2, 1점을 부과하여 각 영역별 평균을 사용하여 총점은 최고점이 5점이며 최저점은 1점이고 중간점은 3점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원 문항에서는 Cronbach $\alpha = .80$ 이었다. 본 연구대상에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구한 신뢰도는 전체 20문항에 대하여 Cronbach $\alpha = .7117$ 으로 나타나 측정도구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함을 알 수 있다.

3. 자료분석방법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 한다. 첫째는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한 분석으로 주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사용하며, 둘째는 스트레스 정도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또한 집단 간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이용하며, 이러한 두 문제에 대한 집단간 비교를 위한 변인은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 성적별이다.

셋째는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련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Stepwise 방식), 그리고 자기평가의 상, 하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양 및 대처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사용하려 한다. 이 때의 비교를 위한 집단은 각 자기평가 영역(종합적인 자기평가, 주관적인 자기평가,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한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PC+(ver 3.0)를 사용한다.

IV.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자기평가

청소년의 자기평가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로 나누었으며, 각 자기평가는 다시 4가지 영역으로 전체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 자기평가 영역간에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자기평가 영역간의 상관관계

	학	업	사	회	가	치	신	체	부	모	형	제	또	래
사	회	.3188**												
가	치	.5406**	.4344**											
신	체	.3905**	.2862**	.5444**										
부	모	.3183**	.2672**	.4790**	.3500**									
형	제	.2067**	.1836*	.3879**	.3436**	.5146**								
또	래	.3813**	.5746**	.5243**	.5509**	.2894**	.3372**							
교	사	.3067**	.2712**	.3403**	.2847**	.1881**	.1850**	.3614**						

(n=600)

* : $p < .01$ ** : $p < .001$

모든 영역은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가 .50를 넘는 경우는 사회영역과 또래평가(.5746), 신체영역과 또래평가(.5509), 신체영역과 가치영역(.5444), 학업영역과 가치영역(.5406), 가치영역과 또래평가(.5243), 형제평가와 부모평가(.5146) 간의 관계이다. 또한 가치영역과 부모평가의 상관은 .4790, 가치영역과 사회영역은 .4344의 상관을 나타내어 자기평가 각 영역 간의 상관의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가치평가는 다른 모든 평가와 .30을 넘는 높은 상관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자신의 다양한 능력 및 모습에 대한 평가와 주변 인물의 인정이나 지지가 높을 경우에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 또한 높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형제평가와 사회영역(.1836), 교사평가와 형제평가(.1850), 부모평가와 교사평가(.1881)간의 상관이다.

그리고 중요한 타인에 의한 평가인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또래평가는 주관

적인 자기평가 영역의 사회, 가치, 신체영역과 $r = .50$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기 자기평가에서 중요한 타인으로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또래평가가 우정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불완전한 자아개념을 강화시켜주는 자아고양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윤진, 1984)을 지지한다. 즉,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또래집단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그 또래와 동조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영역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큰 지지원이 된다(Lloyd, 1985)고 볼 수 있다.

자기평가 각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기평가의 평균점수

평 가 영 역	평 균	표준편차	평 가 영 역	평 균	표준편차
주관적인 자기평가	3.32	0.54	사회적인 자기평가	3.41	0.48
학업영역	3.17	0.75	부모평가	3.95	0.77
사회영역	3.60	0.70	형제평가	3.53	0.72
가치영역	3.52	0.70	또래평가	3.14	0.65
신체영역	2.97	0.79	교사평가	2.96	0.67

(n=600)

우선 주관적인 자기평가를 보면 총점은 3.32로서 중간점인 3.0점보다 높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다. 하위영역에서는 사회영역의 평가가 3.60으로 가장 높고, 신체영역에 대해서 2.97로서 중간점인 3.0보다 낮아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주관적인 평가영역 중,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적응력이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회영역의 평가가 가장 높은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기존의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인간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그 내용이 풍부해진 결과일 것이다.

또한 신체영역에 대해 가장 낮게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신체 각 부분의 성장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신체급등 현상 후 근육의 힘이 절정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면서 부정

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닐 수 있다(김태련, 1993 : 34).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남자보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며, 갑작스런 신체 성장에서 나타나는 체중 증가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 비만을 걱정하고 식사조절을 시도한다.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얼굴에 돌아나는 여드름으로 인해 성인과 동일시하려는 희망이 좌절되며, 신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태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완전성을 경험하게 된다(김태련, 1993 : 35). 이러한 신체적인 좌절과 불완전성 등이 신체영역의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경우, 전체 평균이 3.41로서 중간점인 3.0보다 높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다. 하위영역의 경우, 부모평가는 3.95로서 아주 높으며 그 다음이 3.54를 나타낸 또래평가이다. 교사평가의 경우 평균이 2.96으로 부정적인 평가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부모평가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청소년기 자녀-부모 관계를 ‘분리’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입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즉, ‘분리’라는 개념으로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를 볼 때, 청소년이 부모의 외존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자율성을 갖게 되며(Steinberg and Silverberg, 1987)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부모-자녀의 유대관계가 파괴되는 시기로 청소년기를 규정하는데(Youniss, 1983 ; Grotevant and Cooper, 1985 ; Youniss and Ketterlinus, 1987),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들이 다른 어떤 주변 인물보다 부모에게서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즉,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모의 지도와 지지를 필요로 하며, 부모에 대한 강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Grotevant and Cooper 1983 ; Youniss and Somallar, 1985 ; Kandel and Lesser, 권이종 역, 1991)하고 있는 경향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독립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배타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의존하면서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모의 평가는 높은 반면, 교사평가는 2.96으로 아주 낮은 평가를 보이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연유한 결과일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높은 평가와 지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교류가 있어야 하는 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학생을 통제와 대상, 지식전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크다(우리교육, 1991 : 41). 이러한 현상은 교사 개개인의 교육관·학생관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50명이나 되는 과밀학급과 30학급 이상의 대형학교가 갖는 우리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총점을 비교해 보면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총점 평균은 3.32이고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총점 평균은 3.41로서 자신이 자신의 각 영역에 대하여 평가한 것보다 주변의 인물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예측하게 한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볼 때 청소년 스스로의 자기평가가 타인이 자신에게 행할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한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관적 자기평가’와 ‘사회적 자기평가’를 합하여 구한 ‘자기평가’ 총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5〉 종합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	단	평	표	사	통
전	체	균	준편차	례 수	계 치
		3.37	0.46	600	
성 별	남	3.41	0.50	279	F=2.55
	여	3.35	0.42	321	
학 교	고 등 학 교	3.37	0.46	318	F=.01
	중 학 교	3.38	0.46	282	
경제 수준	상	3.60	0.45	106	F=20.86***
	중	3.34	0.44	453	
	하	3.14	0.50	40	
성적 수준	상	3.55	0.49	133	F=22.97***
	중	3.39	0.42	315	
	하	3.19	0.45	146	

* : $p < .05$ ** : $P < .01$ *** : $P < .001$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를 합한 총점의 평균은 3.37로서 중간점인 3.0보다 높아서 청소년들의 자기평가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평균값이 3.41이고 여자는 3.35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별로 볼 때도 고등학생의 자기평가 평균은 3.37, 중학생의 자기평가는 3.38로서 두 집단 간 자기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집단의 평균은 3.60, ‘중’인 집단의 평균은 3.34, ‘하’인 집단의 평균은 3.14로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기평가가 높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상’인 집단의 평균이 3.55, ‘중’인 경우는 3.39, ‘하’인 경우는 3.19로서 이들 간의 F값은 22.97이며, $p<.001$ 수준에서 집단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 성적이 높은 집단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인 자기평가의 한 범주로서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자기 자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자아관 확립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 별 차이를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성 별	남	3.32		0.54		312		F=7.50**		
	여	3.27		0.50		355				
학 교	고 등 학 교	3.32		0.53		349		F=.004		
	중 학 교	3.32		0.55		318				
경제 수준	상	3.56		0.55		117		F=18.47***		
	중	3.29		0.51		503				
	하	3.07		0.57		46				
성적 수준	상	3.53		0.54		151		F=27.48***		
	중	3.34		0.51		345				
	하	3.10		0.51		164				

* : $p<.05$ ** : $P<.01$ *** : $P<.001$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 평균이 3.32, 여학생은 3.27로서 $p<.01$ 수준에서 집

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위영역에 있어 학업영역(남 : 3.24, 여 : 3.11 ; $F=5.45^*$)과 신체영역(남 : 3.14, 여 : 2.81 ; $F=33.17^{***}$)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평균이 3.32, 중학생의 평균은 3.32로서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학교별 평균은 동일하여 집단간 차이가 없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인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평균이 3.56이며, ‘중’인 경우는 3.29, ‘하’인 경우는 3.07로서 이들 간의 F 값은 18.47로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주관적인 자기평가 또한 높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는 평균이 3.53, ‘중’인 경우는 3.34, ‘하’인 경우는 3.10으로 $p<.001$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성적이 높은 집단이 주관적인 자기평가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하위영역에 있어 학업영역에 대한 성적별 차이(상 : 3.63, 중 : 3.23, 하 : 2.64 ; $F=94.96^{***}$)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자기 자신이 직접 내린 평가라면, 사회적인 자기평가는 자기 주변의 주요 인물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알아 본 것으로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지지 기반인 주변 인물의 평가는 청소년기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성 남	3.43	0.51	295	F=1.16
별 여	3.39	0.46	341	
학 고 등 학 교	3.41	0.48	327	F= .009
교 중 학 교	3.41	0.49	309	
경제 수준	상	3.61	115	F=16.05***
	중	3.37	479	
	하	3.21	42	
성적 수준	상	3.57	138	F=17.20***
	중	3.41	336	
	하	3.25	157	

* : $p<.05$ ** : $P<.01$ *** : $P<.001$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사회적인 자기평가 평균은 3.43, 여학생의 평균은 3.39로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높기는 하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또한 학교별로도 고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3.14의 평균을 나타내어 집단간 차이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집단의 평균은 3.61, ‘중’인 집단의 평균은 3.37, ‘하’인 집단의 평균은 3.21로서 $p < .001$ 수준에서 각 집단간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변 인물에서 받을 사회적인 자기평가가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는 ‘상’인 집단의 평균은 3.57, ‘중’인 집단의 평균은 3.41, ‘하’인 집단의 평균은 3.25로서 $p < .0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자기평가 또한 높다.

이렇게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보면 주관적인·사회적인 자기평가, 그리고 종합적인 자기평가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학교급별 차이는 없다. 그러나 경제수준과 성적에 따른 집단간의 자기평가는 차이가 있으며, 그 경향은 성적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기평가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성적이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볼 때, 청소년기의 학교성적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평가의 한 영역으로서 학업영역의 평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며,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성적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의 생활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전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결정하는 가치가 ‘학교성적’으로 제한된 우리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수준이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데, 이것은 아마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물질중심주의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청소년이 자신 가정의 경제수준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결과로서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을 낮게 평가하고, 경제수준이 높을 때 자신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안

여기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현상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고민이나 문제와 관련된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경험여부와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집단별 차이도 살펴볼 것이다.

1) 스트레스 상황 및 양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보통 발달과업과 관련된 것으로 학업이나 또래집단, 교사 등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생활사건 중에서 28개의 항목에 대하여 경험 유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8>와 같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사건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은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에 86.3%가 경험했으며, ‘학업성적에 고민’이 85.4%가 경험하였고,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에 80.6%가 경험하였으며, ‘숙제나 시험부담’이 63.7%가 경험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학교생활과 성적 및 진로와 관련된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꾸중, 매’(45.9%),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대’(45.7%), ‘선생님의 꾸중, 벌’(43.2%), ‘선생님의 편애나 무관심’(42.7%),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42.3%), ‘용돈 부족’(42.0%)과 같은 부모나 교사와의 인간관계에서 갖는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모, 키, 몸무게 걱정’에 65.7%,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에 42.3%가 경험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관련된 사건의 경험정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생활사건 경험유무와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스트레스 생활사건	생활사건 경험(n=717)			스트레스 정도*			
	유	무	무응답	없음	약간	많이	사례수
부모나 형제의 중병, 사망	19.0	79.8	1.3	7.4	49.2	33.4	136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	5.9	93.0	1.1	19.0	31.0	50.0	42
자주 아픔(건강나쁨)	28.2	70.6	1.3	6.4	56.0	37.3	20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7.7	80.9	1.4	4.7	45.7	49.6	127
선생님의 꾸중, 처벌	43.2	55.2	1.5	7.4	57.4	35.2	310
아버지의 음주	22.3	75.2	2.5	10.0	45.7	44.4	160
부모싸움, 형제간 싸움	28.7	69.5	1.8	4.9	44.7	50.5	206
숙제나 시험 부담	63.7	34.6	1.7	2.8	43.0	54.2	457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	42.3	56.3	1.4	10.2	52.5	37.3	303
부모와 심한 마찰	33.8	63.9	2.4	4.1	37.1	48.8	242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	6.8	90.7	2.5	6.1	22.5	71.4	49
학업성적 고민	85.4	12.6	2.1	2.6	29.9	67.5	612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	80.6	17.6	1.8	3.5	31.7	64.9	578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	86.3	11.4	2.2	2.6	26.3	71.1	619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37.4	59.8	2.8	3.7	50.8	45.5	268
이성문제 고민	45.6	49.8	4.6	6.1	45.2	48.7	327
선생님의 편애와 무관심	42.7	55.9	1.4	9.5	51.0	39.5	306
음란물, 비디오 시청	53.4	44.9	1.7	32.6	54.3	13.0	383
외모, 키, 몸무게 걱정	65.7	32.4	2.0	4.2	51.8	44.0	471
등하교시 교통불편	38.6	59.8	1.5	5.1	39.2	56.3	277
독방이 없어 불편	22.5	76.2	1.4	12.4	50.3	47.3	161
용돈 부족	42.0	55.9	2.1	7.6	53.1	39.2	301
가족간 대화부족(교육)	18.4	79.8	1.8	6.8	56.8	36.4	132
학교주변의 불량배, 나쁜친구	6.5	71.7	1.8	4.2	48.4	47.3	190
부모님의 꾸중, 매	45.9	52.2	2.0	7.3	55.0	37.7	329
친구와 관계 불편	38.1	60.0	2.0	5.1	44.6	50.2	273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	29.1	68.5	2.4	6.7	41.7	51.6	209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대	45.7	51.7	2.5	3.4	42.0	54.6	328

*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 경험자 중에서 ‘있다’고 한 경우에 대한 빈도분석임

이러한 생활사건에 대한 유경험자들 중,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학교생활과 성적 및 진로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는 ‘공부가 잘안되어 짜증’이 날 때 71.1%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며, ‘학업성적으로 고민할 때’는 67.5%가,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에 대해 64.9%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등·하교시 교통불편’에 대해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56.3%로 높은 편이다.

주변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생활사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을 각 항목별로 보면,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에 71.4%, ‘부모의 지나친 공부 기대’에 54.6%, ‘부모의 편애나 비교’에 51.6%, ‘부모의 싸움, 형제간의 싸움’에 50.5%, ‘친구와 관계 불편’에 50.2%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별거나 이혼, 재혼’에 50.0%, ‘부모나 형제의 중병이나 사망’에 33.4%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의 하나로 취급되는 ‘음란물, 비디오 시청’에 대하여 32.6%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며, 54.3%는 약간, 그리고 13.0%만이 많이 받는다고 하여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겪는 이러한 다양한 각 스트레스를 생활사건 경험자를 중심으로 평균 점수를 구한 전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생활사건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최저 0점, 최고 20점으로 하여 각 생활사건 경험자의 평균을 구한 결과, 청소년기에 가장 스트레스량이 높은 것은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으로 14.75의 스트레스량을 보이며,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이 14.68, ‘학업성적의 고민’이 14.38, ‘장래진로와 진학문제’가 14.08, ‘숙제나 시험부담’이 13.00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스트레스량을 보이는 사건은 주로 청소년들의 학업 및 진로 문제가 대부분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바로 학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고 높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또한 ‘등·하교시 교통불편’에 12.66의 평균을 보여 6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기대’도 12.47(7),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는 12.17(9)로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음란물, 비디오 시청’(5.90), ‘선생님의 꾸중, 처벌’(10.06), ‘가족 간의 대화 부족(고독)’(10.26) 등의 사건에서는 스트레스를 낮게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12.31 ; 8), ‘부모 형제의 중병이나 사망’(19.95 ; 18), ‘자주 아픔’(10.44 ; 21) 등은 사안에 비해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전체 평균 및 순위

스트레스 생활사건	평균(순위)	표준편차	사 례 수
부모나 형제의 중병, 사망	10.95 (18)	6.19	136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	12.31 (8)	7.91	42
자주 아픔(건강나쁨)	10.44 (21)	6.00	20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1.96 (14)	5.70	127
선생님의 꾸중, 처벌	10.06 (27)	6.25	310
아버지의 음주	10.84 (19)	6.47	160
부모싸움, 형제간 싸움	12.14 (10)	6.39	206
숙제나 시험 부담	13.00 (5)	5.74	457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	10.29 (24)	6.46	303
부모와 심한 마찰	12.01 (13)	6.32	242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	14.68 (2)	6.39	49
학업성적 고민	14.38 (3)	5.81	612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	14.08 (4)	5.74	578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	14.75 (1)	5.55	619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11.34 (17)	5.80	268
이성문제 고민	11.90 (15)	6.15	327
선생님의 편애와 무관심	10.40 (22)	6.33	306
음란물, 비디오 시청	5.90 (28)	5.61	383
괴모, 키, 몸무게 걱정	11.45 (16)	6.05	471
등하교시 교통불편	12.66 (6)	6.15	277
독방이 없어 불편	10.27 (25)	6.64	161
용돈 부족	10.73 (20)	6.26	301
가족간 대화부족(고독)	10.26 (26)	6.02	132
학교주변의 불량배, 나쁜친구	12.06 (12)	6.37	190
부모님의 꾸중, 매	10.34 (23)	6.19	329
친구와 관계 불편	12.08 (11)	6.53	273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	12.17 (9)	6.48	209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대	12.47 (7)	6.32	328

이러한 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균과 순위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남자의 경우는 각 스트레스 생활사건에서 대한 스트레스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14.23), ‘학업성적 고민’(13.83),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13.65),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3.46), ‘숙제나 시험 부담’(13.28) 등이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친한 친구의 사망이나 중병’(15.90),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15.17), ‘학업성적 고민’(14.81),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4.55), ‘등·하교시 교통불편’(13.19)으로 전체적으로 항목은 비슷하지만 순위 상의 차이가 있고, 여자의

스트레스 양이 전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높은편이다. 특히,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와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스트레스 양이 높으며, 이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10〉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성별 평균 및 순위

스트레스 생활사건	남		여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부모나 형제의 중병, 사망	10.88 (21)	68	11.02 (19)	68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	11.42 (15)	14	12.77 (8)	27
자주 아픔(건강나쁨)	9.66 (25)	89	11.06 (18)	113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1.11 (17)	67	12.91 (6)	60
선생님의 꾸중, 처벌	9.59 (26)	160	10.56 (21)	150
아버지의 음주	11.09 (18)	87	10.54 (22)	73
부모싸움, 형제간 싸움	12.10 (10)	100	12.19 (11)	105
숙제나 시험 부담	13.28 (5)	198	12.79 (7)	259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	10.91 (19)	202	9.05 (27)	101
부모와 심한 마찰	11.79 (11)	120	12.23 (10)	121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	13.65 (3)	26	15.90 (1)	22
학업성적 고민	13.83 (2)	265	14.81 (3)	346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	13.46 (4)	251	14.55 (4)	327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	14.23 (1)	276	15.17 (2)	343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10.90 (20)	127	11.75 (14)	140
이성문제 고민	12.32 (9)	170	11.44 (16)	156
선생님의 편애와 무관심	10.20 (24)	99	10.50 (23)	207
음란물, 비디오 시청	6.25 (28)	244	5.28 (28)	138
외모, 키, 몸무게 걱정	11.27 (16)	184	11.57 (15)	286
등하교시 교통불편	11.77 (12)	104	13.19 (5)	172
독방이 없어 불편	9.46 (27)	66	10.84 (20)	95
용돈 부족	11.47 (13)	142	10.06 (25)	159
가족간 대화부족(고독)	10.26 (23)	56	10.26 (24)	75
학교주변의 불량배, 나쁜친구	12.71 (7)	107	11.21 (17)	82
부모님의 꾸중, 매	10.81 (22)	159	9.91 (26)	170
친구와 관계 불편	11.43 (14)	115	12.56 (9)	158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	12.43 (8)	109	11.90 (13)	100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대	12.90 (6)	167	12.03 (12)	160

* : $p < .05$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양에 대한 학교별 평균 및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학교별 평균 및 순위

스트레스 생활사건	고등학교		중학교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부모나 형제의 중병, 사망	11.55 (15)	74	10.24 (22)	62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	11.87 (12)	16	12.60 (7)	25
자주 아픔(건강나쁨)	10.80 (19)	105	11.05 (25)	9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2.01 (10)	87	11.87 (14)	40
선생님의 꾸중, 처벌	10.66 (21)	143	9.55 (27)	167
아버지의 음주	11.51 (16)	89	10.00 (26)	71
부모싸움, 형제간 싸움	12.75 (5)	109	11.45 (17)	96
숙제나 시험 부담	12.68 (6)	203	13.26 (4)	254
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	9.93 (25)	156	10.68 (21)	147
부모와 심한 마찰	12.23 (8)	134	11.72 (16)	107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	16.80 (1)	25	12.39 (10)	23
학업성적 고민	14.65 (4)	318	14.09 (2)	293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	14.75 (3)	329	13.19 (5)	249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	15.00 (2)	324	14.49 (1)	295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11.34 (17)	161	11.36 (18)	106
이성문제 고민	11.75 (14)	177	12.08 (13)	149
선생님의 편애와 무관심	10.03 (24)	159	10.81 (20)	147
음란물, 비디오 시청	5.86 (28)	214	5.95 (28)	168
외모, 키, 몸무게 걱정*	10.77 (20)	245	12.20 (11)	225
중학교시 교통불편	12.14 (9)	154	13.31 (3)	122
독방이 없어 불편	9.58 (27)	72	10.84 (19)	89
용돈 부족**	9.88 (26)	169	11.81 (15)	132
가족간 대화부족(고독)	10.28 (23)	69	10.24 (22)	62
학교주변의 불량배, 나쁜친구	10.90 (18)	44	12.41 (9)	145
부모님의 꾸중, 매	10.64 (22)	140	10.13 (24)	189
친구와 관계 불편	12.00 (11)	145	12.18 (12)	128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	11.78 (13)	95	12.50 (8)	114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대	12.25 (7)	160	12.69 (6)	167

* : $p < .05$ ** : $p < .01$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에 16.80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15.00), ‘장래 진로 및 진학문제’(14.75), ‘학업성적 고민’(14.65), ‘부모 싸움, 형제 간의 싸움’(12.75)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에 14.49의 스트레스 양을 보여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 성적 고민’(14.09), ‘중학교시 교통 불편’(13.31), ‘숙제나 시험 부담’(13.26),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3.19) 순

이다.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과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평균이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외모, 키, 몸무게 걱정’이나 ‘용돈 부족’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스트레스 양이 더 높으며, 이 차이는 각각 $p < .05$,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스트레스 양에 대한 경제수준별 평균 및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경제수준별 평균 및 순위

스트레스 생활사건	상		중		하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부모나 형제의 중병, 사망	11.56 (12)	16	10.42 (20)	106	14.28 (5)	14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	9.00 (26)	5	13.24 (5)	29	13.12 (12)	8
자주 아픔(건강나쁨)	10.16 (21)	31	10.40 (21)	149	11.13 (25)	2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2.00 (10)	5	11.27 (17)	86	13.61 (9)	36
선생님의 꾸중, 처벌	11.33 (16)	56	9.86 (26)	229	8.54 (27)	24
아버지의 음주	11.38 (14)	18	10.61 (18)	130	13.63 (8)	11
부모싸움, 형제간 싸움	13.14 (6)	27	11.87 (12)	157	12.14 (18)	21
숙제나 시험 부담	12.25 (9)	82	13.18 (6)	337	13.24 (11)	37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	8.59 (27)	57	10.06 (25)	215	14.83 (4)	30
부모와 심한 마찰	11.15 (17)	39	12.13 (11)	176	11.92 (21)	26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	12.50 (8)	10	14.69 (2)	33	16.66 (1)	6
학업성적 고민	14.56 (1)	103	14.18 (3)	461	15.63 (3)	47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	13.57 (5)	98	14.03 (4)	436	15.69 (2)	43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	14.25 (3)	108	14.49 (1)	462	14.06 (6)	48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10.58 (20)	34	11.44 (15)	204	11.83 (22)	30
이성문제 고민	12.54 (7)	53	11.65 (13)	242	12.74 (14)	31
선생님의 편애와 무관심	11.36 (15)	55	10.15 (24)	222	10.51 (26)	29
음란물, 비디오 시청*	5.09 (28)	54	5.82 (28)	298	8.54 (27)	31
외모, 키, 몸무게 걱정	11.01 (18)	74	11.48 (14)	359	12.36 (16)	38
등하교시 교통불편	14.33 (2)	45	12.40 (10)	212	12.00 (19)	20
독방이 없어 불편	9.66 (25)	15	10.16 (23)	125	11.42 (24)	21
용돈 부족	10.97 (17)	41	10.50 (19)	228	11.93 (20)	31
가족간 대화부족(고독)	11.42 (13)	21	9.74 (27)	98	12.50 (15)	12
학교주변의 불량배, 나쁜친구	13.93 (4)	33	11.43 (16)	139	13.33 (10)	18
부모님의 꾸중, 매	9.79 (23)	49	10.27 (22)	256	12.29 (17)	24
친구와 관계 불편	10.00 (22)	35	12.48 (9)	213	11.45 (23)	24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	9.75 (24)	40	12.66 (7)	150	13.05 (13)	18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대	11.85 (11)	62	12.50 (8)	240	13.65 (7)	26

* : $p < .05$ *** : $p < .001$

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경제수준별로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상’인 경우는 ‘학업성적 고민’이 14.5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등하교시 교통 불편’(14.33),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14.25), ‘학교주변의 불량배, 나쁜 친구’(13.93),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3.57)순이다. 경제수준이 ‘중’이라고 한 청소년의 경우는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에 14.93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는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14.69), ‘학업 성적의 고민’(14.18),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4.03),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13.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인 경우는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의 사건에 대해 16.66의 스트레스를 보여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5.69), ‘학업성적 고민’(15.69),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14.83), ‘부모나 형제의 중병, 사망’(14.28) 순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높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경향의 집단별 차이가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스트레스 사건에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지는데, 특히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경제수준별 집단간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음란물, 비디오 시청’과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에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양에 대한 성적별 평균 및 순위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성적이 ‘상’인 경우는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에 14.17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스트레스자가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성적의 고민’(13.36),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13.33), ‘숙제나 시험 부담’(13.00), ‘등하교시 교통 불편’(13.0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중’인 경우는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에 16.25의 스트레스를 보여 가장 높은 스트레스자가 되며, 그 다음은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14.92), ‘학업성적 고민’(14.43),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4.38), ‘숙제나 시험 부담’(12.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적이 ‘하’인 경우는 ‘학업성적 고민’이 14.87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여 가장 높은 스트레스자가 되며, 그 다음으로는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14.86),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14.58),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

대'(14.53),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13.6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편이며, 특히 '부모님의 지나친 공부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세 집단 간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성적이 낮은 집단이

〈표 13〉 스트레스 각 사건에 대한 성적별 평균 및 순위

스트레스 생활사건	상		중		하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평균(순위)	사례수
부모나 형제의 중병, 사망	9.62 (24)	27	11.19 (17)	71	11.44 (19)	14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	7.50 (27)	4	12.03 (11)	27	13.63 (5)	8
자주 아픔(건강나쁨)	10.59 (17)	42	10.49 (21)	111	10.31 (25)	2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1.50 (10)	20	11.30 (14)	69	13.24 (10)	36
선생님의 꾸중, 처벌	9.92 (21)	70	10.00 (26)	162	10.19 (26)	24
아버지의 음주	11.40 (13)	32	10.18 (23)	81	11.41 (20)	11
부모싸움, 형제간 싸움	10.65 (16)	38	12.16 (9)	113	12.98 (11)	21
숙제나 시험 부담	13.00 (4)	90	12.76 (5)	246	13.61 (6)	37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	9.60 (25)	76	10.23 (22)	150	10.98 (22)	30
부모와 심한 마찰	10.59 (17)	59	12.25 (8)	113	12.76 (12)	26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	13.33 (3)	9	16.25 (1)	24	12.50 (14)	6
학업성적 고민	13.36 (2)	116	14.43 (3)	335	14.87 (1)	47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	12.58 (8)	120	14.38 (4)	307	14.58 (3)	43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	14.17 (1)	133	14.92 (2)	328	14.86 (2)	48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12.19 (9)	57	11.26 (16)	150	10.83 (23)	30
이성문제 고민	12.85 (6)	70	11.55 (13)	164	11.83 (16)	31
선생님의 편애와 무관심	10.50 (19)	50	10.18 (23)	166	10.73 (24)	29
음란물, 비디오 시청	5.50 (28)	80	6.01 (28)	188	6.06 (28)	31
외모, 키, 몸무게 걱정	11.13 (14)	106	11.28 (15)	241	12.10 (15)	38
등하교시 교통불편	13.00 (4)	65	12.57 (6)	134	12.60 (13)	20
독방이 없어 불편	9.00 (26)	3	10.79 (19)	88	9.87 (27)	21
용돈 부족	9.92 (21)	63	10.61 (20)	163	11.78 (17)	31
가족간 대화부족(고독)	10.80 (15)	25	9.43 (27)	62	11.22 (21)	12
학교주변의 불량배, 나쁜친구	12.79 (7)	34	11.16 (18)	103	13.26 (9)	18
부모님의 꾸중, 매	9.78 (23)	69	10.02 (25)	174	11.62 (18)	24
친구와 관계 불편	11.50 (10)	53	11.65 (12)	148	13.28 (8)	24
부모님의 편애나 비교*	10.33 (20)	45	12.28 (7)	103	13.47 (7)	18
부모의 지나친 공부기대**	11.43 (12)	80	12.07 (10)	169	14.53 (4)	26

* : $p < .05$ ** : $p < .01$ *** : $p < .001$

부모의 공부 기대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의 편애나 비교’와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에서도 세 집단간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업 관련 생활 사건에서 성적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스트레스 양에 대한 집단 별 차이

* : $p < .05$ ** : $P < .01$ *** : $P < .001$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각 각에 대하여 평균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스트레스 각 대처방식의 평균과 순위

대 처 방 식	평 균	표 준 편 차	순 위
직 면 지 향	3.26	0.67	2
정 동 지 향	3.79	0.61	1
도 피 지 향	3.13	0.72	3
의 타 지 향	2.86	0.71	4
제 념 지 향	2.79	0.75	5

(n=600)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능동적인 방식인 정동지향(3.79)과 직면지향(3.26)의 평균이 높고, 수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도피지향을 제외한 의타지향과 체념의 경우엔 조금 낮은 평균을 보여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능동적인 면을 더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대처방식에 대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능동적인 대처방식인 ‘직면지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직면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성 남	3.28	0.66	324	F=.62
별 여	3.24	0.69	366	
학 고 등 학 교	3.26	0.67	354	F=.01
교 중 학 교	3.27	0.68	336	
결제 상	3.40	0.68	124	F=3.08*
수준 중	3.23	0.67	520	
하	3.22	0.66	46	
형적 상	3.34	0.77	154	F=2.62
수준 중	3.28	0.65	356	
하	3.17	0.62	175	

*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로는 남학생의 평균은 3.28, 여학생의 평균은 3.24로서, 남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대항하여 처리하려는 경향을 더 높게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또한 학교별로도 고등학생의 평균은 3.26, 중학생의 평균은 3.27로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경제수준별로는 직면지향에 대한 ‘상’인 집단의 평균은 3.40, ‘중’인 집단의 평균은 3.23, ‘하’인 경우는 3.22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직면지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간 검증에서는 상과 중 집단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별로는 ‘상’인 집단의 직면지향 평균은 3.34, ‘중’인 집단의 평균은 3.28, ‘하’인 집단의 평균은 3.17로서 성적이 높을수록 직면지향의 점수가 높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아니다. 사후검사에서 하와 중, 하와 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면지향 외 또 다른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줄임으로써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말하는 정동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면 <표 18>과 같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의 정동지향 평균은 3.80, 여학생의 경우는 3.79로서 남·여학생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또한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평균은 3.78, 중학생의 평균은 3.80으로서 이 또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8> 정동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성 별	남	3.80	0.62	324	F=.07					
	여	3.79	0.60	371						
학 교	고 등 학 교	3.78	0.58	353	F=.27					
	중 학 교	3.80	0.63	342						
경제 수준	상	3.90	0.61	124	F=4.26*					
	중	3.75	0.60	522						
	하	3.92	0.68	49						
성적 수준	상	3.90	0.62	155	F=5.44**					
	중	3.80	0.60	363						
	하	3.68	0.68	171						

* : $p<.05$ ** : $P<.01$ *** : $P<.001$

경제수준에서는 ‘상’인 집단의 평균은 3.90, ‘중’인 집단은 3.75, ‘하’인 집단은 3.92로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사후검증에서는 상과 중, 중과 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영역과 달리 이 대처방식에서는

경제수준이 낮다고 표현한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중’인 경우가 가장 낮다.

성적별로는 ‘상’인 집단의 평균은 3.90, ‘중’인 집단의 평균은 3.80, ‘하’인 집단은 3.3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후검증에서도 하와 중, 하와 상, 중과 상의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정의적인 면을 통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대처방식과 달리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도피지향, 의타지향, 체념 등이 있는 데 우선 ‘도피지향’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표 19>와 같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도피지향’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3.15, 여학생은 3.11로서 남학생이 도피지향의 점수가 조금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학교별 차이에 있어서도 고등학생은 3.11, 중학생은 3.14로서 중학생이 도피지향에 대한 점수가 높지만, 이 또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19> 도피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성 별	남	3.15	0.71	326	F=	.79				
	여	3.11	0.72	376						
학 교	고 등 학 교	3.11	0.70	358	F=	.38				
	중 학 교	3.14	0.74	344						
경제 수준	상	2.98	0.78	125	F=	4.64***				
	중	3.14	0.70	530						
	하	3.34	0.75	47						
성적 수준	상	3.06	0.73	157	F=	2.36				
	중	3.11	0.74	365						
	하	3.23	0.66	174						

* : p<.05 * * : P<.01 * * * : P<.001

경제수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상’인 집단의 평균은 2.98, ‘중’인 경우는 3.14, ‘하’인 경우는 3.3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검증에서도 각 집단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의 도피지향에 대한 평균은 3.06, ‘중’인 평균은 3.11, ‘하’인 경우는 3.23으로 성적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도피지향이 낮고, 성적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도피지향이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각 개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에서는 하와 중, 하와 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칠 때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모면하려는 ‘의타지향’에 관하여 각 집단간 차이는 <표 20>과 같다.

<표 20> 의타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성 남	2.86	0.73	324	F= .02
별 여	2.87	0.70	368	
학 고 등 학 교	2.91	0.71	356	F=2.91
교 중 학 교	2.82	0.72	337	
경제 상	2.80	0.78	122	F=2.30
수준 중	2.87	0.69	522	
하	3.06	0.79	49	
성 상	2.82	0.77	153	F= .94
적 중	2.86	0.68	359	
수준 하	2.92	0.72	175	

*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는 2.86, 여학생의 경우는 2.87로서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2.91, 중학생의 경우는 2.92로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의타지향에 대한 점수가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경우는 2.80, ‘중’인 경우는 2.87, ‘하’인 경우는 3.06으로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의타지향의 점수가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의타지향의 점수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사후검증에서는 상과 하, 중과 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가 2.82, ‘중’인 경우는 2.86, ‘하’인 경우는 2.92로서 성적수준이 낮을수록 의타지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더 높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체념’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체념지향에 대한 집단별 차이

집단	단	평균	표준편차	사 레 수	통 계 치
성별	남	2.81	0.76	323	F= .26
	여	2.78	0.73	367	
학교	고 등 학 교	2.83	0.74	353	F=1.57
	중 학 교	2.75	0.75	337	
경제 수준	상	2.72	0.76	121	F= .73
	중	2.81	0.74	521	
	하	2.78	0.80	48	
성적 수준	상	2.64	0.79	153	F=5.21**
	중	2.80	0.74	359	
	하	2.90	0.70	173	

*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로는 남학생의 평균이 2.81, 여학생의 평균이 2.78로서 남녀간에 체념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차이는 거의 없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2.83, 중학생의 경우는 2.75로서 고등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체념하는 경향이 중학생에 비해 조금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경우는 2.72, ‘중’인 경우는 2.81, ‘하’인 경우는 2.78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는 2.64, ‘중’인 경우는 2.80, ‘하’인 경우는 2.90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성적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 대처의 한 방식으로 ‘체념’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각 집단간 사후검사에서 하와 중, 하와 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중과 상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 차이와 학교별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경제수준과 성적이 높은 집단은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직면지향’과 ‘정동지향’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며, 수동적인 대처방식인 ‘도피지향’, ‘의타지향’, ‘체념지향’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

은 점수를 보이며 경제수준과 성적이 낮은 집단은 이것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성적과 경제수준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들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를 함께 분석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영역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생활사건에 따라 발생한 스트레스 양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며,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 문제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여 살펴보려 한다. 첫째는 자기평가 각 하위 영역과 스트레스 양 및 대처방식에 대하여 각 집단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둘째는 스트레스 양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하여 청소년의 자기평가 각 하위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삼아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자기평가 각 영역이 스트레스 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주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기평가를 상, 하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에 스트레스 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양

청소년기의 자기평가는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생활사건에서 받는 스트레스 양과 관계가 있는가? 또 관계가 있다면 이 두 변인의 관계가 정적인지 부적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우선 청소년의 자기평가 각 8개 영역과 청소년기의 다양한 생활사건에 의해 나타난 스트레스 총량과의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스트레스 양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사례수	학업	사회	가치	신체	부모	형제	또래	교사
전체		475	-.217**	-.161**	-.209**	-.237**	-.271**	-.190**	-.193**	-.323**
성남		224	-.263**	-.154	-.234**	-.279**	-.238**	-.212**	-.225**	-.323**
별여		251	-.173*	-.170*	-.184*	-.219**	-.307**	-.165*	-.148*	-.339**
학고		264	-.115	-.085	-.174*	-.199**	-.228**	-.150**	-.153**	-.287**
교중		211	-.323*	-.249**	-.252**	-.279**	-.310**	-.229*	-.230*	-.355**
경제상		79	-.071	-.109	-.056	-.146	-.157	-.142	-.149	-.117
수준중		360	-.170**	-.161*	-.190**	-.208**	-.287**	-.169**	-.180**	-.340**
수준하		35	-.304	-.100	-.317	-.292	-.076	-.099	-.095	-.329
성적상		101	-.114	-.256*	-.232*	-.216	-.274*	-.143	-.315**	-.292*
수준중		257	-.113	-.138	-.156*	-.218**	-.184*	-.089	-.077	-.282**
수준하		112	-.346**	-.112	-.239*	-.254*	-.343**	-.323**	-.245*	-.337**

* : $P < .01$ ** : $P < .001$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총량과 자기평가 각 영역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즉 자기평가가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총량이 적고, 자기평가가 낮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총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스트레스 총량과 자기평가 각 영역 간의 상관관계 중 스트레스 총량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기평가 영역은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교사평가’(-.323)와 ‘부모평가’(-.271)이고,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신체영역평가’(-.237), ‘학업영역평가’(-.217)로서, 이들 간의 상관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스트레스 총량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과의 상관 중 ‘신체영역평가’(-.279), ‘학업영역평가’(-.263), ‘가치영역평가’(-.234)가 높은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교사평가’(-.323), ‘부모평가’(-.238)와 스트레스 총량의 상관이 높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영역평가’(-.219)만이 스트레스 총량과 상관이 나타날 뿐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교사평가’(-.339), ‘부모평가’(-.238)와 스트레스 총량이 높은 상관을 보여, 남학생과 달리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총량의 부적 상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하위영역과 스트레스 총량과

상관이 거의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평역에서 ‘교사평가’(-.287), ‘부모평가’(-.228)와 상관이 있는 반면에, 중학생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기평가 각 영역과 스트레스 총량과의 상관이 모두 .20을 넘어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총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 ‘하’집단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량과 자기평가 간의 상관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중’인 집단의 경우에만 ‘교사평가’(-.340), ‘부모평가’(-.287) 등의 주변인물들의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총량이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는 ‘또래평가’(-.315), ‘교사평가’(-.292), ‘부모평가’(-.274)와 같은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총량이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중’인 경우는 ‘교사평가’(-.282)만 어느 정도 상관을 보이고, 성적이 ‘하’인 집단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학업영역평가’(-.346)와 스트레스 총량이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부모평가’(-.343), ‘교사평가’(-.337), ‘형제평가’(-.323)와 스트레스 총량이 부적 상관을 보인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이는 스트레스 양과 자기평가의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평가’의 각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스트레스 양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 인	b	beta	t	p	통 계 치
교 사 평 가	-6.556	-.2293	-5.322	.000	R ² =.1422 F=28.91 p=.000
부 모 평 가	-4.409	-.1749	-4.090	.001	
신 체 영 역	-2.823	-.1145	-2.608	.009	
상 수	321.831		16.034	.000	

(n=475)

위의 표를 보면, 청소년의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양에 영향을 미치며(F=28.91, p=.000), 그 설명력은 14.22%이다. 전체 8개의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교사평가’, ‘부모평가’, ‘신체영역평가’만이 스트레스 총량에 영향을 주며, 회귀계수(beta값)는 모두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들 변인 중 교사평가의 beta값이 -.2293으로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스트레스 총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자기평가요

또한 자기평가 점수를 상, 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총량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주관적인	상	127.29		68.19	272			F=18.69***		
자기평가	하	154.88		83.79	312					
사회적인	상	125.12		68.79	324			F=29.66***		
자기평가	하	158.16		82.54	300					
종합적인	상	125.13		67.97	267			F=22.51***		
자기평가	하	156.59		83.63	260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상’인 집단은 스트레스 총량이 127.29, ‘하’인 집단은 스트레스 총량이 154.88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인 평가영역에서도 ‘상’인 집단은 125.12, ‘하’인 집단은 158.16의 스트레스 총량을 보여 집단간 차이가 크다. 또한 이 둘을 합산한 전체적인 자기평가에서도 ‘상’인 경우는 125.13, ‘하’인 경우는 156.56로서 두 집단에 대한 $F=22.5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를 볼 때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 양이 적으며,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는 스트레스 총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총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하위영역 중 ‘신체영역’의 상관이 큰 것은 아마도 청소년기가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로서 신체적인 불완전성, 정신적 연령과 신체적 연령과의 차이에서 오는 좌절감 등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의 스트레스 양에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원으로서 부모와 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부모와 교사는 준거적인 자아상 형성과 사회화의 한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인임을 고려할 때, 이들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단순히 청소년기의 자아의식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스트레스 정도를 완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2)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가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기평가를 연관시켜 살펴보려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5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직면지향과 정동지향은 긍정적인 대처방식이며, 도피지향과 외타지향, 그리고 체념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다.

먼저 직면지향과 자기평가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직면지향과 자기평가 간의 상관을 보면 모두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표 25> 직면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사례수	학업	사회	가치	신체	부모	형제	또래	교사
전	체	475	.201**	.229**	.330**	.212**	.157**	.211**	.264**	.218**
성	남	224	.184*	.179*	.307**	.118	.129	.217**	.245**	.153
별	여	251	.215**	.281**	.354**	.315*	.187*	.205**	.292**	.279**
학	고 등	264	.169*	.208**	.304**	.226**	.143*	.165*	.254**	.234**
교	중	211	.242**	.256**	.367**	.194*	.175*	.264**	.276**	.206*
경제	상	79	.106	.243	.192	.166	.287*	.269*	.248	.194
수준	중	360	.225**	.236**	.376**	.209**	.124*	.170**	.271**	.218**
	하	35	.077	.062	.151	.173	.131	.349	.154	.308
성적	상	101	.387**	.361**	.372**	.142	.167	.300*	.352**	.325**
	중	257	.159*	.183*	.300**	.218**	.163*	.166	.242**	.149*
수준	하	112	.102	.193	.352**	.245*	.122	.222*	.233*	.247*

* : $P < .01$ ** : $P < .001$

전체적으로 직면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각 영역간의 상관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영역인 ‘가치영역평가’로서 .330의 상관을 보인다. 직면지향과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에서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친구들의 평가인 ‘또래평가’와의 상관으로 $r=.254$ 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직면지향과 상관이 높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은 ‘가치영역평가’(.307)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은 ‘또래평가’(.245)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 ‘가치영역평가’(.367), ‘신체영역평가’(.315), ‘사회영역평가’(.285)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지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또래평가’(.292), ‘교사평가’(.279)로서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영역의 자기평가가 직면지향에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직면지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가치영역평가’와 .304의 상관을,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또래평가’와 .254의 상관을 보인다. 중학생들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가치영역평가’(.367), ‘사회영역평가’(.256), ‘학업영역평가’(.242)와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는 ‘또래평가’(.276), ‘형제평가’(.264)와 상관이 높아서 고등학생에 비해 자기평가의 다양한 영역이 직면지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집단은 직면지향에 대해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상관을 보이는 영역은 없으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부모평가’(.287), ‘형제평가’(.263)와 같은 가족 간의 지지와 상관이 있다. 경제수준이 ‘중’이라고 한 집단은 직면지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가치영역평가’(.376)와 ‘사회영역평가’(.236), ‘학업영역평가’(.225)가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또래평가’(.271), ‘교사평가’(.218)와 상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인 집단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이 없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직면지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학업영역평가’(.387), ‘가치영역평가’(.372), ‘사회영역평가’(.372)로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 직면지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정적인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또래평가’(.352), ‘교사평가’(.325),

‘형제평가’(.300)와도 높은 상관을 보인다. 성적이 ‘중’인 집단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가치영역’(.300),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또래평가’(.242)가 직면지향과 상관이 높고, ‘하’인 집단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가치영역평가’(.352), ‘신체영역평가’(.245)가 직면지향과 상관이 높고,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는 ‘교사평가’(.247), ‘또래평가’(.233) 등이 직면지향과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이는 직면지향과 자기평가의 관계를 ‘자기평가’의 각 하위영역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직면지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직면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 인	b	beta	t	p	통 계 치
가 치 영 역	.227	.2372	5.456	.000	R ² =.1185 F=26.30 p=.000
사 회 영 역	.116	.1195	2.842	.004	
형 제 평 가	.081	.0899	2.185	.029	
상 수	6.937		9.580	.000	

(n=475)

위의 표를 볼 때,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직면지향에 영향을 미치며(F=26.30, p=.000), 그 설명력은 11.85%이다. 전체 8개의 자기평가 하위영역 중에서 ‘가치영역평가’, ‘사회영역평가’, ‘형제평가’만이 직면지향에 영향을 주며, 회귀계수(beta값)는 모두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들 변인 중 가치영역평가의 beta값이 .2372로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직면지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자기평가요인이다.

앞에서 살펴본 자기평가 각 영역과 직면지향의 단순 상관에서는 또래평가가 .264, 교사평가가 .218의 상관을 보였는데,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그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또래평가와 교사평가는 아마도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자기평가간의 상관에 기초하여 살펴 볼 때 특히 ‘가치영역’)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방식 중 직면지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기평가 점수를 상, 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직면지향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직면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 간 비교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주관적인	상	3.43		0.67		312	F=44.05***	
자기평가	하	3.09		0.64		339		
사회적인	상	3.40		0.70		365	F=34.27***	
자기평가	하	3.11		0.61		322		
종합적인	상	3.40		0.66		302	F=33.21***	
자기평가	하	3.09		0.64		289		

* : $p < .05$ ** : $P < .01$ *** : $P < .001$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상’인 집단의 직면지향 평균은 3.43, ‘하’인 집단은 3.09로서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이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의 하나인 직면지향의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평가영역에서도 ‘상’인 집단은 3.40, ‘하’인 집단은 3.11의 직면지향 점수를 보여 집단간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둘을 합산한 종합적인 자기평가에서도 ‘상’인 경우는 3.40, ‘하’인 경우는 3.09의 직면지향을 나타내어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를 볼 때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이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의 하나인 직면지향이 강하고,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는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에 비해 직면지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직면지향과 같은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나인 정동지향과 청소년의 자기평가의 관계를 우선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표 28〉 정동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사	례 수	학	업	사	회	가	치	신	체	부	모	형	제	또	래	교	사
전	체	475	.212**	.259**	.279**	.131**	.201**	.142**	.241**	.120*									
성	남	224	.268**	.319**	.268**	.069	.291**	.196*	.247**	.122									
별	여	251	.154*	.195**	.291**	.206**	.106	.084	.238**	.118									
학	고 등	264	.197**	.297**	.302**	.170*	.126	.086	.232**	.191**									
교	중	211	.235**	.208**	.255**	.083	.204**	.204**	.252**	.052									
경제	상	79	.034	.263*	.149	-.067	.086	.172	.001	.025									
수준	중	360	.249**	.281**	.327**	.192**	.180*	.120	.313**	.147*									
	하	35	.256	.078	.185	.044	.499*	.254	.128	.147									
성적	상	101	.305**	.405**	.341**	.033	.277*	.114	.201	.241*									
수준	중	257	.223*	.252*	.275**	.176*	.197**	.184*	.233**	.057									
	하	112	.144	.165	.107	.127	.065	.265*	.265*	.080									

* : $P < .01$ ** : $P < .001$

정동지향과 자기평가간의 상관은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정동지향에 대한 전체 표본의 자기평가와의 상관 중에서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것은 ‘가치영역평가’(.279)와 ‘사회영역평가’(.259)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영역에서는 ‘또래평가’(.241)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정동지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은 ‘사회영역평가’(.319), ‘학업영역평가’(.268), ‘가치영역평가’(.268)순으로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상관이 높으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에서는 ‘부모평가’(.291), ‘또래평가’(.247)와 상관이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가치영역평가’(.291),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또래평가’(.238)가 ‘정동지향’과 상관을 보인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엔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가치영역평가’(.302), ‘사회영역평가’(.297)가 정동지향과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에서는 ‘또래평가’(.232)가 정동지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가치영역평가’(.255), ‘학업영역평가’(.235)와 상관을 보이고,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에서는 ‘또래평가’(.252)와 정동지향의 상관이 나타난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사회영역평가’와 정동지향간의 .263의 상관을 보일 뿐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는 상관을 보이는 것이 없으며, ‘중’인 집단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의 ‘가치영역평가’(.327)와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또래평가’(.313)가 정동지향과 높은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이 ‘하’라고 느끼는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오직 ‘부모평가’가 정동지향과 .499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스트레스 대처의 정동지향적인 면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의 인정이나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는 ‘사회영역평가’(.405), ‘가치영역평가’(.341), ‘학업영역평가’(.305)와 같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이 정동지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성적이 ‘하’인 집단은 ‘형제평가’(.265), ‘또래평가’(.265)와 같은 비슷한 연령층의 공

간대가 형성되는 주변인물의 평가와 정동지향 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이는 정동지향과 자기평가의 관계를 ‘자기평가’의 각 하위영역에 따라 청소년의 정동지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정동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 인	b	beta	t	p	통 계 치
가 치 영 역	.174	.2011	4.410	.000	$R^2=.1108$
사 회 영 역	.121	.1379	3.254	.001	$F=24.00$
부 모 평 가	.074	.0931	2.135	.033	$p=.000$
상 수	9.771		14.638	.000	

(n=475)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정동지향에 영향을 미치며($F=24.00$, $p=.000$), 그 설명력은 11.08%이다. 전체 8개의 자기평가 하위영역 중에서 ‘가치영역평가’, ‘사회영역평가’, ‘부모평가’가 정동지향에 영향을 주며, 회귀계수(beta값)는 모두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들 변인 중 가치영역평가는 beta값이 .2011로 직면지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자기평가요인이다. 단순상관의 경우는 또래평가와 상관이 .241로서 부모평가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에서는 부모평가만이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청소년기의 또래평가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 직면지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평가 점수를 상, 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직면지향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0>과 같다. 주관적 평가에서 ‘상’인 집단의 정동지향은 4.00으로 정동지향의 정도가 꽤 높은 편이며, ‘하’인 집단의 정동지향 평균은 3.65로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주관적 자기평가가 높은 청소년들이 주관적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긍정적인 대처방식인 정동지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기 주변의 영향력있는 인물의 평가를 고려한 사회적인 자기평가가 ‘상’인 집단의 정동지향 평균은 3.93, ‘하’인 집단은 3.65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0〉

정동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 간 비교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주관적인 자기평가	상 4.00 하 3.65	0.61 0.57	309 339	F=42.96***
사회적인 자기평가	상 3.93 하 3.65	0.60 0.58	365 326	F=37.73***
종합적인 자기평가	상 3.93 하 3.65	0.61 0.56	297 285	F=33.95***

* : $p < .05$ ** : $P < .01$ *** : $P < .001$

이 두 평가를 종합한 자기평가에서도 ‘상’인 집단은 3.93의 정동지향 정도를, ‘하’인 집단은 3.65정도의 정동지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때,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높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능동적인 방식인 정동지향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트레스 대처의 능동적인 방식과 달리 부정적이면서 소극적인 방식에 대한 자기평가의 관계를 먼저 그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회피하려고 하는 도피지향과 청소년의 자기평가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도피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사 례 수	학 업	사 회	가 치	신 체	부 모	형 제	또 래	교 사
전 체	475	-.162**	-.156**	-.141**	-.089	-.137*	-.089	-.124	-.122*
성 남	224	-.190*	-.156*	-.150	-.110	-.070	-.212**	-.225**	-.323**
별 여	251	-.139	-.158*	-.135	-.082	-.202**	-.118	-.082	-.161*
학 고 등	264	-.178*	-.146*	-.163*	-.173*	-.204**	-.150*	-.198**	-.212**
교 중	211	-.146	-.167*	-.116	-.011	-.077	-.025	-.038	-.037
경제 상	79	-.235	-.038	-.193	-.240	-.166	-.165	-.069	-.080
중	360	-.172**	-.142*	-.143*	-.045	-.147*	-.030	-.091	-.069
수준 하	35	-.336	-.361	-.181	.051	.143	-.249	-.349	-.556**
성적 상	101	-.058	-.047	-.141	-.027	-.128	.067	-.163	-.041
중	257	-.132	-.126	-.119	-.154*	-.136	-.090	-.053	-.092
수준 하	112	-.191	-.294*	-.127	-.329*	-.080	-.150	-.207	-.162

* : $P < .01$ ** : $P < .001$

전체적으로 보면 도피지향과 자기평가의 관계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도피지향과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거의 없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교사평가’(-.323), ‘또래평가’(-.225), ‘형제평가’(-.212) 등이 도피지향과 관련이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도 ‘부모평가’(-.202)에서만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사평가’(-.212), ‘부모평가’(-.204), ‘또래평가’(-.198)의 사회적인 자기평가영역과 도피지향이 부적상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는 자기평가 영역과 도피지향에 대한 상관이 거의 없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인 경우에만 도피지향과 ‘교사평가’(-.556)가 아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성적별로는 ‘하’인 경우에만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신체영역평가’(-.309)와 ‘사회영역평가’(-.294)가 도피지향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도피지향과 각 자기평가 영역간의 자기평가가 도피지향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도피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 인	b	beta	t	p	통 계 치
사 회 영 역	-.139	-.1335	-3.213	.001	R ² =.0313
부 모 평 가	-.096	-.1024	-2.457	.014	F=10.54
상 수	15.977		20.433	.000	p=.000

(n=475)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도피지향에 영향을 미치지만(F=10.54, p=.000), 그 설명력은 3.1%로 아주 낮다. 또한 전체 8개의 자기평가 하위영역 중에서 ‘사회영역평가’, ‘부모평가’만이 도피지향에 영향을 주며, 회귀계수(beta값)는 모두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자기평가 점수를 상, 하 두집단으로 구별하여 두 집단간의 도피지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과 같다. 먼저 주관적 자기평가가 ‘상’인 경우는 도피지향 점수가 3.01이고, ‘하’인 경우는 3.22로서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들의 도피지향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인물들의 평가인 사회적 자기평가는 ‘상’인 경우는 3.03, 하 인 경우는 3.24로 사회적 자기평가가 낮은 경우에 도피지향의 점수

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도피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 간 비교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주관적인 자기평가	상 3.01 하 3.22	0.75 0.68	314 341	F=14.04***
사회적인 가치평가	상 3.03 하 3.24	0.72 0.69	369 330	F=15.81***
종합적인 가치평가	상 3.01 하 3.22	0.73 0.67	302 288	F=12.73***

* : $p < .05$ ** : $P < .01$ *** : $P < .001$

전체적으로 두 평가를 종합한 자기평가에서 ‘상’인 경우는 3.01, ‘하’인 경우는 3.22로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자기평가가 높은 청소년들이 도피지향이 낮고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도피지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소극적인 방식 중 하나인 의타지향과 자기평가 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의타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사 례 수	학 업	사 회	가 치	신 체	부 모	형 제	또 래	교 사
전 체	475	-.148**	-.129*	-.208**	-.210**	-.126**	-.213**	-.222**	-.208**
성 남	224	-.075	-.098	-.197*	-.254**	-.184**	-.234**	-.219**	-.163*
별 여	251	-.223**	-.162*	-.220**	-.161	-.065	-.191*	-.228**	-.252**
학 고 등	264	-.180*	-.136	-.266**	-.260**	-.159*	-.204**	-.244**	-.181*
교 중	211	-.125	-.105	-.144	-.149	-.111	-.234**	-.198*	-.224**
경제 상	79	-.201	-.022	-.317*	-.200	-.219	-.189	-.248	-.281*
중	360	-.127*	-.189*	-.163**	-.184**	-.102	-.192**	-.201**	-.183**
수준 하	35	-.055	-.309	-.207	-.222	-.027	-.290	-.222	-.128
성적 상	101	-.219	-.184	-.262*	-.211	-.180	-.168	-.341**	-.283*
중	257	-.086	-.121	-.197**	-.161*	-.098	-.175*	-.136	-.142
수준 하	112	-.126	-.082	-.138	-.277*	-.087	-.294**	-.252*	-.203

* : $P < .01$ ** : $P < .001$

전체적으로 의타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신체영역평가’(-.210),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또래평가’(-.222), ‘형제평가’(-.213)와 상관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학생

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신체영역평가’(-.254),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형제평가’(-.234), ‘또래평가’(-.219) 등과 외타지향이 부적 상관을 보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외타지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영역에서 ‘학업영역평가’(-.223), ‘가치영역평가’(-.220)와, 사회적인 자기평가에서는 ‘교사평가’(-.252), ‘또래평가’(-.228)와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 ‘가치영역평가’(-.266), ‘신체영역평가’(-.260)와,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또래평가’(-.244)와 외타지향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적 상관을 보이며, 중학생은 ‘형제평가’(-.234), ‘교사평가’(-.224)와 같은 사회적인 자기평가에서만 외타지향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경우는 -.317의 상관을 나타낸 ‘가치영역평가’와 -.281의 상관을 갖는 ‘교사평가’가 외타지향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며, ‘중’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은 보이지만 상관계수가 높지 않다. 또한 ‘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이 없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에는 ‘또래평가’(-.341), ‘교사평가’(-.283)와 같은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과 외타지향이 부적 상관을 보이고,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가치영역평가’(-.262)가 외타지향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 그러나 성적이 ‘중’인 경우는 상관계수가 별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적이 ‘하’인 집단은 ‘형제평가’(-.294), ‘신체평가’(-.277), ‘또래평가’(-.252) 등과 같은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외타지향의 부적 상관이 높다.

이러한 외타지향에 대하여 자기평가의 각 영역이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의타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 인	b	beta	t	p	통 계 치
가 치 영 역	-.133	-.1290	-2.916	.003	R ² =.069
형 제 평 가	-.123	-.1268	-2.976	.003	F=14.38
교 사 평 가	-.113	-.1048	-2.454	.014	p=.000
상 수	16.429		21.393	.000	

(n=475)

위의 표를 볼 때,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의타지향에 영향을 미치지만(F=14.38, p=.000), 그 설명력은 6.9%로 낮은 편이다. 전체 8개의 자기평가 하위영역에서 주관적 자기평가 중 ‘가치영역평가’와 ‘사회적 평가영역’중에서 ‘형제평가’, ‘교사평가’가 도피지향에 영향을 주며, 회귀계수(beta값)는 모두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자기평가 점수를 상, 하 두집단으로 구별하여 두 집단간의 의타지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과 같다. 주관적 자기평가가 ‘상’인 경우는 의타지향이 2.73이지만 ‘하’인 경우는 3.02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이 주관적 자기평가가 낮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의타지향을 적게 함을 알 수 있다.

〈표 36〉 의타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 간 비교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통 계 치
주관적인 자기평가 상	2.73	0.74	314	F=25.77***
하	3.02	0.67	333	
사회적인 자기평가 상	2.75	0.75	365	F=20.41***
하	3.00	0.64	325	
종합적인 자기평가 상	2.74	0.74	303	F=19.19***
하	2.99	0.67	282	

* : p<.05 ** : P<.01 *** : P<.001

사회적 자기평가에서도 ‘상’인 경우는 2.75, ‘하’인 경우는 3.00으로서 사회적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들이 의타지향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기평가와 주관적 자기평가를 합산한 종합적인 자기평가가 ‘상’인 경우에는 도피지향이 2.74, ‘하’인 경우에는 2.99로서 종합적인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년이 비해 의타지향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의 하나인 체념에 대하여 청소년의 자기평가가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두 영역간의 상관은 <표 37>과 같다.

<표 37> 체념지향과 자기평가 요인의 집단별 상관관계

	사례수	학업	사회	가치	신체	부모	형제	또래	교사
전체	475	-.154**	-.219**	-.192**	-.143**	-.187**	-.166**	-.196**	-.257**
성남	224	-.163*	-.193*	-.251**	-.188*	-.260**	-.222**	-.228**	-.224**
별여	251	-.151*	-.247**	-.137	-.116	-.117	-.113	-.163	-.298**
학교	264	-.089	-.251**	-.192**	-.170*	-.186*	-.147*	-.237**	-.258**
고	211	-.242**	-.168*	-.197*	-.108	-.201*	-.196*	-.146	-.254**
중	79	-.188	-.077	-.238	-.006	-.390**	-.261*	-.117	-.411**
경제	360	-.152*	-.261*	-.196**	-.201**	-.146*	-.145*	-.230**	-.225**
수준	35	-.001	-.087	-.046	-.167	-.139	-.022	-.025	-.101
상	101	-.225	-.316**	-.395**	-.182	-.248*	-.234*	-.364**	-.369**
성적	257	-.078	-.195**	-.105	-.099	-.138	-.147*	-.137	-.149*
수준	112	-.023	-.142	-.096	-.131	-.138	-.077	-.123	-.233*

* : $P < .01$ ** : $P < .001$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 체념하는 것과 자기평가는 부적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교사평가’(-.257)와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사회영역평가’(-.219)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에서는 ‘가치영역평가’(-.251), 사회적인 자기평가에서는 ‘부모평가’(-.260), ‘또래평가’(-.228), ‘교사평가’(-.224), ‘형제평가’(-.222) 모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생각할 때 체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에서는 ‘사회영역평가’(-.247),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에서는 ‘교사평가’(-.298)와 체념지향 간에 부적 상관을 보인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사회영역평가’(-.251)와 체념 간에 부적 상관이 있으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는 ‘교사평가’(-.258), ‘또래평가’(-.237)와 상관을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학업영역평가’(-.242),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 ‘교사평가’(-.254)와 체념지향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인 경우는 ‘교사평가’(-.411), ‘부모평가’(-.390), ‘형제평가’(-.261)와 같은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체념간에 부적 상관이 높고,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상관을 보이는 것이 없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엔 주변 인물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체념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중’인 경우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사회영역평가’(-.261),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 ‘또래평가’(-.230), ‘교사평가’(-.225)와 부적 상관을 보이며, ‘하’인 경우는 상관을 보이는 영역이 없다.

성적별로는 ‘상’인 경우엔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중에서 ‘가치영역평가’(-.395), ‘사회영역평가’(-.316)가 체념과 부적 상관을,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는 ‘교사평가’(-.369), ‘또래평가’(-.364)가 부적 상관을 보인다. 성적이 ‘중’, ‘하’인 경우는 체념에 대하여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기평가 영역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체념에 대한 자기평가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체념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 인	b	beta	t	p	통 계 치
교 사 평 가	-.218	-.1942	-4.698	.000	R ² =.087 F=18.53 p=.000
사 회 영 역	-.139	-.1297	-3.125	.001	
부 모 평 가	-.088	-.0914	-2.200	.028	
상 수	17.161		20.210	.000	

(n=475)

위의 표를 볼 때,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체념지향에 영향을 미치지만(F=18.53, p=.000), 설명력은 8.7%에 그치고 있다. 전체 8개의 자기평가 하위영역 중에서 ‘교사평가’, ‘사회영역평가’, ‘부모평가’만이 체념지향에 영향을 주며, 회귀계수(beta값)는 모두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자기평가 점수를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별하여 두 집단간의 체념지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9>와 같다.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높은 ‘상’집단은 체념지향정도가 2.64이고, ‘하’인 경우는 2.93으로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높은 청소년들이 체념의 정

도가 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기평가의 경우도 ‘상’인 집단은 2.65, ‘하’인 집단은 2.95로서 사회적 자기평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체념정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39〉 체념지향에 대한 자기평가 집단 간 비교

집단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주관적인 가치평가	상	2.64	0.80	308	F=25.79***
	하	2.93	0.66	337	
사회적인 가치평가	상	2.65	0.78	362	F=26.95***
	하	2.95	0.68	325	
종합적인 가치평가	상	2.66	0.73	299	F=20.08***
	하	2.93	0.66	284	

* : $p < .05$ ** : $P < .01$ *** : $P < .001$

전체적으로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를 합한 종합적인 자기평가 또한 ‘상’인 경우는 2.66, ‘하’인 경우는 2.93으로서, 자기평가가 낮은 경우에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소극적인 대처방식인 체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관련이 있다.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은 적게 취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자기평가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능동적인 방식은 적고, 수동적인 방식의 정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자기평가 하위영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0% 내외이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기평가의 하위영역 중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에서는 가치영역, 사회영역이며,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에서는 부모평가와 교사평가로 나타나, 단순상관에서 높은 상관을 보인 또래평가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자기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10%를 넘고 두 변인 간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타, 도피, 체념지향에 대해서는 자기평가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사실 상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자기평가의 영향력과 하위영역으로서 사회영역평가와 가치영역평가, 그리고 부모, 형제와 같은 가족의 지지와 인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하여 고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지지나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청소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기제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에서 검
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각 영역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기평가

청소년기의 자기평가를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로 나누어 각 평
가영역간의 상관관계와 집단별로 자기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기평가 중 ‘또래평가’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사회영역, 가치영
역, 신체영역’의 자기평가와 .50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타인으
로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인 ‘가치영역평가’는 ‘사회영역, 학업영역, 부모평가, 또래평
가’와 .40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각 영역 중 주관적인 자기평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영역은 사회영
역이며,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는 영역은 신체영역이다. 특히 신체영역은 중간점에
뚝미치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사회적인 자기평가에서 가장 높은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사회적인 지지원은 부모평가이며, 이에 비해 교사평가는
가장 낮아서 청소년들은 주변 인물 중 교사의 인정이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교사평가 점수가 중간점보다 낮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하여 성별, 경제수준별, 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더 높고, 경제수준
과 성적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자기평가 또한 높았다. 그리고 사회적인 자기평가에서
는 경제수준과 성적에 의해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 데, 경제수준과 성적이 높
을수록 사회적인 자기평가가 높았다.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이런 결과를 볼 때,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 친구들

이 자신에게 보내는 지지, 인정, 및 기대감 등의 평가인 ‘또래평가’는 청소년 스스로 행하는 자신의 각 영역에 대한 평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청소년기의 자기상 및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 신체영역의 평가가 중간점보다 낮게 나타나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데 이것은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급성장 및 호르몬 과다로 인한 불균형 등으로 느끼는 신체적인 불완전성(김태련, 1993)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부모, 형제, 또래 친구, 교사가 자신에게 주는 인정, 지지, 기대 등을 평가하도록 한 사회적 자기평가 중 부모에게서 받는 지지, 인정, 기대, 가치감 등을 나타낸 ‘부모평가’는 최고점 5.0에 대해 3.95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유대감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를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입장보다 여전히 청소년들이 부모와 지지와 지도를 필요로 하고 또한 기대와 인정을 받고 있어, 부모와 강한 정적인 유대와 친밀감을 유지한다는 입장(Grotevant and Cooper, 1983 ; Youniss and Somallar, 1985)을 지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 교사의 인정, 기대, 인식 등을 나타낸 ‘교사평가’는 가장 낮으면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데 이것은 아마 과대 및 과밀학급인 우리교육 상황에서 학생-교사의 인간적인 교류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생활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사건은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에 86.3%가 경험했으며, ‘학업성적에 고민’을 85.4%가 경험하였고,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에 80.6%가 경험하였으며, ‘외모, 키, 몸무게 걱정’에 65.7%, ‘숙제나 시험 부담’에 63.7%, ‘음란물 비디오 등 시청’에 53.4%가 경험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학교생활과 성적 및 진로와 관련된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사건 중에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스트

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 빈도가 높은 것을 살펴보면,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에 대해 71.4%, ‘공부가 잘안되어 짜증’난 경우에 71.1%, ‘학업성적 고민’에 67.5%, ‘장래 진로와 진학문제’에 64.9%, ‘등하교시 교통불편’에 56.3%, ‘부모의 지나친 공부 기대’에 54.6%, ‘부모의 편애나 비교’에 51.6%, ‘부모의 싸움, 형제간의 싸움’에 50.5%, ‘친구와 관계 불편’에 50.2%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각 스트레스 사건을 최저 0점, 최고 20점으로 점수화하여 살펴본 스트레스 정도의 순위를 보면, 전체에서는 ‘공부가 잘 안되어 짜증’(14.75) - ‘친한 친구의 중병, 사망’(14.68) - ‘학업 성적 고민’(14.38) - ‘장래 진로와 진학 문제’(14.08) - ‘숙제나 시험 부담’(13.00)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건은 학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갖는 전체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주는 집단간 차이는 경제수준과 성적으로, 경제수준과 성적이 모두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 총량이 낮아서 가정의 경제생활과 학업 성적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직면, 정동, 도피, 외타, 체념’의 각 영역 중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면지향과 정동지향 간에 높은 상관을 보이며, 소극적인 도피지향과 외타지향, 체념간에도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정동지향이며, 그 다음은 직면지향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직면지향은 경제수준과 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직면 정도가 높으며, 정동지향에 대해서는 성적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데 반해, 도피지향은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과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그 정도가 높았다. 외타지향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으며, 체념은 성적이 낮은 집단이 체념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소은, 1990 ; 황정규, 1990)과 비슷한 양태를 보여, 청소년들이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학업, 진로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과 이것으로 인해 생긴 ‘부모-교사’ 등 주변인물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양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황정규(1990)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측정 간에 스트레스 측정방식과 내용이 다른 까닭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급별 스트레스 양의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성별, 학교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에 대해서 성적과 경제수준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대한 연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기평가는 모두 부적(-)상관을 보여,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자기평가가 낮고,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스트레스 정도와 상관이 높은 것은 교사평가(-.323)와 부모평가(-.271)로서 주로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학생은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스트레스 정도가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정도가 부적상관을 보여 대조적이다.

둘째, 스트레스 양에 자기평가가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14.2%로서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교사평가', '부모평가', '신체영역평가'만이 영향을 주었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인 '직면지향'과 '정동지향'은 자기평가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방식인 '도피지향', '의타지향', '체념'과 자기평가의 상관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넷째, '직면지향'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평가가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11.8%이

며, ‘가치영역평가’, ‘사회영역평가’, ‘형제평가’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동지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평가가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11.0%이며, ‘가치영역평가’, ‘사회영역평가’, ‘부모평가’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다섯째, ‘도피지향’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평가가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3.1%로 아주 낮으며, ‘사회영역평가’와 ‘부모평가’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평가 요인이었다. ‘의타지향’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평가가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6.9%이며, ‘가치영역평가’, ‘형제평가’, ‘교사평가’가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체념’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평가가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8.7%이며, ‘교사평가’, ‘사회영역평가’, ‘부모평가’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의 자기평가는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평가의 모든 영역이 스트레스 양 및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인 자기평가자로서 부모와 교사의 지지 및 인정, 기대 등이 스트레스 양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대처방식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래평가는 단순 상관에서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상관을 보이지만 회귀분석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을 볼 때, 주관적인 자기평가 각 영역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자기평가는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겪게되는 스트레스를 낮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높은 자기평가와 많은 사회적인 지지와 인정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그것을 통제할 힘과 정서적인 능력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기평가를 고양시킬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서 앞에서 정리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평가에서 경제수준과 성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집단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실제적인 현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제수준이 낮거나 성적이 낮은 청소년

년들의 자기평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학업과 진로’와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특히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활동이나 정보 제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방향성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방식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주태(1982), 「청년심리학」, 형설출판사.
- 김종서 외(1983), 「평생교육의 체계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태련(1993), “청소년기의 발달과 발달과업”, 한국청소년연구원(편), 「청소년심리학」.
- 김홍일(1990), “고교생의 스트레스와 성격과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남 외(1993), 「고교생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대구YMCA청소년문제연구소.
- 백경임·성동일(199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4(4), 45-63.
- 양인숙(1991), “시험불안과 사회적 지지 요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내(1992), “인지특성, 상황지각, 대처양식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주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민자(1989), “성격차원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순남(199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정훈 외(1987), “고교생과 대학생이 심리적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 _____ (1994), 「인간행동의 이해」, 법문사.
- 홍원희(1992),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사대논총」, 41집, 25-66.
- Aronson, E. and Metter, D.(1968), “Dishonest behavior as a function of differential levels of induce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121-127.
- Averrill, J. R. et al.(1972), “Personality correlates of differential responsiveness to direct and vicarious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25-29.
- Brown, S. D. and Heath, L.(1984), “Coping with critical life events: an integrative cognitive-behavioral model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S. D. Brown, and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ling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oley, C. H.(1964),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hoker.
- Ginsberg, D., Gottman, J., and Parker, J.(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J. Gottman, and J. Parker(eds.), *Conversations of Friend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tevant, H. D. and Cooper, C. 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Gutmann, D. L.(1964), “An exploration ego configurations in middle and later life”, in B. L. Neugarter(ed.), *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r Life*, New York: Atherton.
- Harter, S.(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

- worth :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and J. Kolligoe(eds.), *Compentence Consied*, N. H. : Yale University Press.
- Feller, K., Swindle, R. W., and Dusenbury, L.(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es ; coments and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 Kandel, D. B. and Lesser, G. S.(1991), 권이중(역), 「청소년세계의 이해」, 교보문고.
- Kaplan, B. H., Cassel, J. C., and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 LaRocco, J. M., House, J. M., and French, J. R. P.(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02—218.
- Lazarus, R. S. and Cohen, J. B.(1977), “Enviornmental stress”, in Z. Altman, and J. F. Wohlwill(eds.), *Human Behavior and the Enviornment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Plenum.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역),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책」, 대광문화사.
- Lloyd, M. A.(1985), *Adolscence*, New York ; Harper and Low Publishers.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Moos, R. 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Parkes, K. R.(1986),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665—668.
- Parker, J. G. and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tin*, 102(3), 357—389.

- Pearlin, L. and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osenberg, M.(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neticut : Wesleyan University press.
- Selye, H.(1982),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L. Goldberg and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The Free Press.
- Spielberg, C. 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 (ed.), *Anxiety :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vol.1), New York: Academic Press.
- Steinberg, S. B. and Silverberg, L.(1987), "Adolscence autonomy, parent-adolscnt conflict, and parent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scence*, 16(3), 293—312.
- Youniss, J.(1983), *Adolsc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ouniss, J. and Ketterlinus, R. D.(1987), "Comunication and connectedness in mother—and father— adolscnt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scence*, 16(3), 265—280.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여러분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청소년시기에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절대 비밀이 보장 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됨으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6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137-130)

※ 다음의 질문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잘 읽고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_____에 V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

_____ 1) 고등학교

_____ 2) 중학교

2. 당신의 성별은 ?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3. 당신은 형제 중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

_____ 1) 맏이

_____ 2) 막내

_____ 3) 중간

_____ 4) 독자

4. 당신의 학교에서의 성적은 ?

_____ 1) 잘하는 편이다

_____ 2) 보통이다

_____ 3) 잘 못하는 편이다

5. 당신은 아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눕니까?

_____ 1) 별로 이야기 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_____ 2) 친구

_____ 3) 부모님

_____ 4) 형제 자매

_____ 5) 기타 : _____

6. 당신의 가족은 가족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_____ 1)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_____ 2)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7. 당신은 정말로 대학에 진학해서 더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8.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대학에 진학하여 더 공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9. 당신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잘 사는 편이다

_____ 2) 그저그렇다

_____ 3) 잘 못 사는 편이다.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서 자신과 매우 일치하면 1, 전혀 그렇지 않으면 5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번호 위에 V표 해주십시오.

매 우 그 저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 다 그렇다 않 다

1. 나는 학습에 관한 내 능력에 매우 만족한다. 1—2—3—4—5
2. 나는 대학수준의 공부를 끝마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2—3—4—5
3.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3—4—5
4. 나는 멋진 편이다. 1—2—3—4—5
5.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 1—2—3—4—5
6. 나는 누구보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2—3—4—5
7. 나는 부모님이 항상 내게 야단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1—2—3—4—5
8. 나는 형제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1—2—3—4—5
9. 나는 지금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1—2—3—4—5
10.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2—3—4—5
11.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든다. 1—2—3—4—5
12.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2—3—4—5
13. 나는 부모님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 1—2—3—4—5
14. 나는 형제들이 내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1—2—3—4—5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1—2—3—4—5

	매 우 그렇다	그 령다	그 저 그렇다	그 령지 않 다	매 우 그 령지 않 다
16. 나는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17. 나는 내 용모에 불만이 많다.	1	2	3	4	5
18. 나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9. 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선생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또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3.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4. 나는 형제들이 나를 따돌릴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나는 선생님이 나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나는 형제들이 내게 많은 기대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7. 나는 친구들이 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8. 나는 부모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내 친구들이 나의 행동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0. 나는 나의 도덕적인 행동에 만족한다.	1	2	3	4	5
31. 나는 부모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2. 나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다음의 문항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적은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경험했던 일이면 “있다” (1) 에 V표 한 후 그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해당하는 부분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으면 1, 매우 많이 받았으면 5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없다” (2) 에만 V표 해주십시오.

있다	없다	전혀 받지 않았다	약간 받았다	보통 받았다	많이 받았다	매우 많이 받았다
----	----	-----------------	-----------	-----------	-----------	-----------------

1. 부모나 형제 중 누군가가 돌아가
시거나 심한 질병에 걸렸다. ... 1 ---- 2 ... 1 — 2 — 3 — 4 — 5
2. 부모가 별거, 이혼 또는 재혼하였
다. 1 ---- 2 ... 1 — 2 — 3 — 4 — 5
3.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주
아팠다. 1 ---- 2 ... 1 — 2 — 3 — 4 — 5
4.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다. ... 1 ---- 2 ... 1 — 2 — 3 — 4 — 5
5.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처
벌을 받았다. 1 ---- 2 ... 1 — 2 — 3 — 4 — 5
6. 아버지의 음주가 심했다. 1 ---- 2 ... 1 — 2 — 3 — 4 — 5
7. 부모님의 부부싸움, 형제 자매 간
에 다툼이 심하다. 1 ---- 2 ... 1 — 2 — 3 — 4 — 5
8. 학교수업이나 숙제 또는 시험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웠다. 1 ---- 2 ... 1 — 2 — 3 — 4 — 5
9.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으로 고
민하였다. 1 ---- 2 ... 1 — 2 — 3 — 4 — 5
10. 부모와의 마찰이 심했다. 1 ---- 2 ... 1 — 2 — 3 — 4 — 5
11. 친한 친구가 죽거나 중병에 걸렸
다. 1 ---- 2 ... 1 — 2 — 3 — 4 — 5
12. 학업성적 때문에 고민하였다. ... 1 ---- 2 ... 1 — 2 — 3 — 4 — 5
13. 장래 나의 진로와 진학문제로 고
민하였다. 1 ---- 2 ... 1 — 2 — 3 — 4 — 5

있다 없다 전 허 약 간 보 통 많 이 매 우
 받 지 받 받 받 받 받 받 받 받 받
 았 았 았 았 았 았 았 았 았 았 았

14. 공부가 잘 안되서 짜증이 나고 괴로웠다.1 2 ... 1 — 2 — 3 — 4 — 5
15.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고민하였다.1 2 ... 1 — 2 — 3 — 4 — 5
16. 이성문제로 고민하였다.1 2 ... 1 — 2 — 3 — 4 — 5
17. 선생님은 특정한 친구만 편애하고 내게는 무관심하다고 느꼈다.1 2 ... 1 — 2 — 3 — 4 — 5
18. 불량서적이거나 만화, 음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1 2 ... 1 — 2 — 3 — 4 — 5
19. 외모나 키, 몸무게 때문에 고민하였다.1 2 ... 1 — 2 — 3 — 4 — 5
20. 등하교시 교통이 불편하고 복잡해서 짜증스러웠다.1 2 ... 1 — 2 — 3 — 4 — 5
21. 독방이 없어서 불편하였다.1 2 ... 1 — 2 — 3 — 4 — 5
22. 용돈이 부족하였다.1 2 ... 1 — 2 — 3 — 4 — 5
23. 가족간에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여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다.1 2 ... 1 — 2 — 3 — 4 — 5
24. 학교 주변의 불량배나 나쁜 친구 때문에 불안하였다.1 2 ... 1 — 2 — 3 — 4 — 5
25.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들었다.1 2 ... 1 — 2 — 3 — 4 — 5
26.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거나 친구와의 싸움으로 관계가 불편하였다.1 2 ... 1 — 2 — 3 — 4 — 5
27. 부모님의 편애 또는 형제나 이웃과의 비교가 심하다.1 2 ... 1 — 2 — 3 — 4 — 5
28. 공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강요와 기대로 괴로웠다.1 2 ... 1 — 2 — 3 — 4 — 5

※ 다음의 문항은 앞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보통 취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매우 일치하면 1, 전혀 그렇지 않으면 5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매 우 그렇다	그 렇다	그 저 그렇지 않다	매 우 그렇지 않다	
1. 엉뚱한 환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2.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1	2	3	4	5
3.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되는데로 내버려 두 는 수 밖에 없다.	1	2	3	4	5
4. 그 일과 무관한 다른 일에 열중한다.	1	2	3	4	5
5. 현 상태 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새로운 것을 생각하거나 배운다.	1	2	3	4	5
6. 될 수 있는대로 참고 화해나 타협에 응한다. ...	1	2	3	4	5
7. 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1	2	3	4	5
8. 누군가 사건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1	2	3	4	5
9. 현재의 형편에 맞추어 살아가는 수 밖에 없다. ...	1	2	3	4	5
10. 뭔가 즐거운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현실과 거리가 먼 꿈을 꾸다.	1	2	3	4	5
12.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	2	3	4	5
13. 더 많은 것을 발견해 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4. 매사가 귀찮아서 잠을 청한다.	1	2	3	4	5
15.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5
16. 그 일의 희망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애쓴다. ...	1	2	3	4	5
17. 그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한다. ...	1	2	3	4	5
19. 전문가나 책을 통해 조언과 정보를 얻는다. ...	1	2	3	4	5
20. 다만 생각할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	1	2	3	4	5

한국 청소년 문화에 유입된 일본 대중 문화의 실태

연구자: 정 문 성

목 차

I. 서론	299
II. 연구내용	304
III. 조사방법	308
IV. 조사결과	309
1. 일본 문화에 대한 태도	309
2. 일본 대중 문화의 영향력	314
3. 전파 매체	319
4. 인쇄 매체	328
5. 기 타	335
V. 요약 및 제언	341
참고문헌	344
부록 : 설문지	347

표 목 차

〈표 1〉 조사 내용	306
〈표 2〉 표집의 특징	308
〈표 3〉 일본인을 좋아합니까?	310
〈표 4〉 일본인의 국민성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311
〈표 5〉 여러분이 접한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312
〈표 6〉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	312
〈표 7〉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15
〈표 8〉 일본 대중 문화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316
〈표 9〉 다음은 일본문화의 색채가 많은 것들입니다. 귀하가 현재 가장 많이 접촉한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316
〈표 10〉 많이 접촉하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복수응답)	317
〈표 11〉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7
〈표 12〉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8
〈표 13〉 귀하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한 일본위성방송을 본 일이 있습니까?	319
〈표 14〉 주로 본 방송의 종류는?	320
〈표 15〉 일본 위성방송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것?	320
〈표 16〉 어디서 보았습니까?	320
〈표 17〉 일본 위성방송을 보는 주된 형태는?	321
〈표 18〉 일본 위성방송을 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321
〈표 19〉 일본 위성방송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322
〈표 20〉 본 위성방송에 대한 느낌은?	322
〈표 21〉 일본 위성방송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323
〈표 22〉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323

〈표 23〉 뮤직 비디오에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324
〈표 24〉 노래방이나 가정에서 일본노래를 불러 본 적이 있습니까?	324
〈표 25〉 일본 노래 테이프나 음반 또는 CD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325
〈표 26〉 좋아하는 일본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25
〈표 27〉 일본어가 쓰여 있는 전자오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326
〈표 28〉 전자오락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326
〈표 29〉 최근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는 전자오락은 무엇인지 한개만 적어 주십시오.	327
〈표 30〉 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까?	327
〈표 31〉 일본 번역만화	329
〈표 32〉 일본 패션 잡지	330
〈표 33〉 일본소설이나 수필 등을 번역한 것	330
〈표 34〉 스크린 같은 일본 영화 잡지	330
〈표 35〉 일본 도색 잡지(음란 그림 잡지)	331
〈표 36〉 일본 번역 만화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332
〈표 37〉 가장 기억에 남는 일본 번역 만화를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복수응답)	332
〈표 38〉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32
〈표 39〉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느낌이 어떠합니까?	333
〈표 40〉 일본 번역 만화를 철저히 단속해서 출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3
〈표 41〉 반대하는 이유	334
〈표 42〉 일본 패션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336
〈표 43〉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 스타일을 입거나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336
〈표 44〉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36
〈표 45〉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337
〈표 46〉 길거리에서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337

〈표 47〉 일제 학용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338
〈표 48〉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338
〈표 49〉 일제 학용품을 주로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339
〈표 50〉 국산과 일제 학용품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좋습니까?	339

I. 서론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화 추세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화 교류는 당연한 것이지만 미묘한 한일 관계의 역사성 때문에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 시기를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중국과 함께 과거 우리 나라의 중요한 문화 교류 국가였다. 그것도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고도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일본에 전파해 주는 형태였다(김기곤, 1990). 그러나 20세기 초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종전 후 같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우방이 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게 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약 5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의 체결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문화 개방 압력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에 관해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사회 분위기였으나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은 어차피 문호를 개방할 바에야 차라리 개방 일정을 정하고 이에 구체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의 개방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서 언젠가는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개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주장과 이제는 개방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논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정문성, 1994).

첫째는 국민 정서의 문제이다.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직 국민 정서가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제의 강점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과거 일제의 유화적인 문화 정책을 경험했고, 교과서 왜곡 사건, 최근 사쿠라이 환경청장이나 나가노 법무상의 망언 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일본 대중 문화 개방 요구를 문화 제국주의의 본격적 시동으로 보게 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문화 제국주의에 대처할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 대중 문화를 받

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의 극동조사연구소(1994)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5.5%가 개방을 반대하고 2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채정 의원이 교수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9%가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을 시기 상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개방이 시기 상조인 가장 큰 이유를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47%)으로 보고 있다(경향신문 94.5.26).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은 과거의 국민 정서와 오늘의 국민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국민 정서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과거의 국민 정서가 계속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금도 당연히 그러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 설사 국민 정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 정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반일의 시대는 지나갔고 극일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일본을 피하기만 해서는 문제의 본질만 회피하는 셈이 된다. 미국 문화는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신경과민을 일으키는 것은 선진국을 향한 국민으로서 너무 소아적이라는 설명이다(강현두, 1987; 김주연 외, 1985 참조). 80년대 이후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중요한 경향은 점점 개방에 대해 긍정적 반응폭이 넓어져서 개방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정갑영, 1994).

둘째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쟁이다. 개방 반대 입장은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은 일본의 자본력과 기술로 한국 대중 문화 산업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대중 문화는 대중이 즐기는 문화인 동시에 엄청난 상품 시장이기도 하다(도정일, 1987). 경제 동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인들이 상품화된 일본 대중 문화를 가지고 들어 오면 한국의 대중 문화는 정신적 폐해는 물론이고 일본의 대중 문화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기에다 MGM 등 할리우드 2개 영화사까지도 사들이는 막강한 자본이 함께 들어오면 한국 대중 문화의 일본에의 경제적 종속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종속은 곧바로 문화적 종속을 의미한다. 일본 번역 만화가 인기를 끌자 한국 만화도 일본 만화를 모방하는 경향이 그러한 예이다(이재화, 1990; 손상익, 1992).

그러나 개방론자들은 일본의 대중 문화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일본 대중 문화 상품들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품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대중 문화 상품은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여야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일본 대중 문화 상품들은 일본 문화의 본질을 표현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상업성을 추구하여 섹스나 폭력의 표현에 치중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서구의 대중 문화를 통하여 익숙한 것으로 우리에게 문화적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방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저질의 문화 상품들을 규제하고, 쌍방의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 상품을 수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본 대중 문화의 저급성 문제이다. 문화를 고급과 저급으로 분류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유입된 일본의 대중 문화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저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선정적인 일본 문화가 대대적으로 들어오면 평화롭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우리 문화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비록 서구 대중 문화를 통해서 그런 폭력과 섹스에 익숙해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유교 문화권에서 발전해 온 문화적 공감대가 있는 일본 문화의 폭력과 섹스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강하리라는 설명이다. 여러 설문 조사에서도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 반대 이유로 이러한 폭력성과 음란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임채정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8.1%가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은 전통 문화를 오염시키고 문화 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방론자들은 이러한 일본 대중 문화의 폭력성과 음란성은 우리 국민의 문화 수용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음성적으로 유입된 일본 대중 문화는 폭력성과 음란성으로 일부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지만 정식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면 검열 등으로 폭력과 음란 등의 문제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개방을 막고 있으므로 악화가 들어와서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현상으로 본다. 또한 경쟁을 통해 일본 가요의 표절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베끼기 등의 행위들을 근절하고 우리의 대중 문화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미 일본 대중 문화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들어올만큼 다 스며들어 왔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개방을 해도 별로 큰 문화적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빗장을 언제까지나 닫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방화로 인한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준비의 내용은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 나라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스며들며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고, 그기에 기초하여 개방의 시기나 개방의 방법, 국민적 사회적 대응책 등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일본 대중 문화 개방 논쟁에서 나타났듯이 이제까지 일본 대중 문화의 유입 실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변변한 실태 조사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 대해 관심은 있으면서 외면하고, 의식은 하면서도 태도로는 경시하는 등 일본 문화에 대해 너무 등한해 온 것이 사실이다(김택규, 1993; 김영명, 1994). 물론 대중 문화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이를 개념짓고 우리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일본 대중 문화가 음성적으로 많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본 조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대중 문화의 유입 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로서 수행되었다. 본 조사는 다음의 두 가지에 유념하여 계획되고 실시되었다.

첫째는 이제까지의 일본 대중 문화의 조사들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피상적인 조사에 그치거나 특정 한 부분에 집중적인 조사를 하여 일본 대중 문화 유입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에 유념하였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주로 대중 매체와 관련한 대중 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조사하려 하였다.

둘째는 일본 대중 문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유념 하였다(이순형, 1993). 문화 수용자는 나름대로 외래 문화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취사선택을 하지만(임희섭, 1986), 청소년들은 선별력과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외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청소년은 현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말뭉치는 대중 문화 소비자이지만 미래의 잠재적 대중 문화 소비자이다. 일본이 한국 대중 문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잠재적 대중 소비자인 한국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든 하지 않든 현재의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대중 문화 상품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본 조사는 청소년을 표집 대상으로 일본 대중 문화의 유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 내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오늘날 대중 문화는 대중 매체가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 매체가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윤진·곽금주, 1991). 대중 매체는 전파 매체와 인쇄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거나 보급하고자 하는 대중 문화 상품은 전파 매체와 관련하여 영화, 직접 위성 방송, 만화영화, 가요, 전자 오락 게임 등이 대부분이고 인쇄 매체와 관련된 것은 만화와 잡지 등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정하였고, 여기에 패션과 일제 학용품들을 첨가하였다. 패션과 학용품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문화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파 매체와 관련된 일본 대중 문화의 유입 문제를 살펴 보자. 일본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행사의 일환으로 일부 예술 영화의 상영이 있었을 뿐 음성적으로 유입될 방법이 없었다. 영상 매체로서 가장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일본 대중 매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위성방송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전파 월경 분쟁(이민웅, 1988)이 일본과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산이나 마산 등 남해안 일대의 지역에서는 간단한 안테나 하나만 더 달면 얼마든지 일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지만 우리 나라 전역에서 일본 방송을 시청할 수있게 된 것은 89년 1월 위성방송 수신안테나의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부터였다. 이때 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패러볼라 안테나를 통해 일본 방송의 시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본은 1987년부터 위성 방송을 시작하였고(노희복, 1989) 이제는 본격적인 다채널 위성 방송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한국방송협회, 1992). 우리 나라는 1993년까지 약 50만 가구가 패러볼라 안테나를 설치했고 약 300여만명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NHK의 2개 채널과 상업방송이 일본 대중 문화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안방에서 시청되고 있다. 부유층 자녀들인 오렌지족의 문화로 화제가 되었던 로데오 거리나 신촌 일대가 일본식 패션과 일본식 음식점이나 술집으로 뒤덮힌 것은 이 위성 방송의 덕분이라고 알려져있다.

청소년들이 주고객인 일본 만화 영화 비디오는 93년 출시된 만화 비디오 132편 가운데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79편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일본 대중 문화의 토양에서 한국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TV 방송의 만화 영화는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은 일본 방송을 그대로 베끼다시피하는 습관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정문성, 1994).

일본 가요는 70년대 엔카류가 조심스럽게 불려지던 때와는 달리 90년대엔 주로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신세대 가수나 보컬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일본 가요가 우리 나라 청소년에게 유행되는 이유는 정서적 공감대가 유사하다는 것과 편곡과 녹음 등 기기조작에서 앞서기 때문으로 지적된다(정갑영, 1994). 현대 카페나 커피숍 등에서 일본 가요는 흔히 들을 수 있고, 대부분의 가라오케나 노래방에는 일본 가요가 준비되어 있다.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테이프나 CD는 노점이나 가판대에서 불법 복제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컴퓨터 전자 오락 게임 부문에서 일본은 발달된 전자 기술에 힘입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전자 오락실에 가보면 일본어가 그대로 쓰여진 게임기가 즐비하다. 개인 컴퓨터용 게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전자 오락 게임의 폭력성과 음란성이 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옥순, 1993; 서울YWCA, 1994).

한편 인쇄 매체와 관련된 일본 대중 문화는 잡지와 만화이다. 일본은 잡지의 왕국이라 할 만큼 수많은 종류의 잡지가 발행된다. 그런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패션 잡지이다. 대학로나 로데오 거리, 신촌 등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리가 일본의 거리와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일본 패션 잡지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패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류점도 늘어나고 있으며 논앙죽(논노와 앙앙의 잡지에서 딴 말)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을 고객으로 성업중에 있다.

만화는 주 고객이 청소년으로 어른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우리 만화 시장을 잠식해버린 일본 대중 문화의 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점에 진열된 만화책의 70-80%가 무단 복제된 일본 만화라는게 만화가협회의 주장이다(세계일보.

94.3.3). 그 놀라운 상업성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폭력성과 음란성은 큰 사회 문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이원복, 198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3).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1조원에 가까운 만화 시장의 30% 이상을, 그것도 불법으로 잠식했으며,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일본 번역 만화를 보았고, 구독한 경험이 있다. (서울YWCA, 1991, 1994; 서울YMCA, 1991; 정문성, 1992)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드래곤 볼과 슬램덩크의 일본 정신을 심어놓은 것이다.

본 실태 조사는 이러한 대중 매체들 중에서 현재 별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영화 부분과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만화 영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 청소년 문화에 어느 정도 유입되어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표 1〉은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조사 내용

항 목	설문 조사 내용
1. 인구학적 배경	성별, 교급별
2.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태도	일본인에 대한 호감 일본인의 국민성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느낌 국가별 문화에 대한 태도
3. 일본 대중 문화의 영향력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에게 알려진 원인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화 요소
4. 전파 매체	위 성 방 송 시청 경험 시청 동기 이해 정도와 평가
	가 요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 경험 일본 가요 접촉 경험 일본 가요 선호 정도 일본 가요의 특징
	전 자 오락 전자 오락 게임 경험 전자 오락 게임 선호와 이유

항	목	설문 조사 내용
5. 인쇄 매체	일본 대중 문화 인쇄 매체 경험	일본 번역 만화 일본 패션 잡지 일본 소설이나 수필 일본 영화 잡지 일본 도색 잡지
	만 화	일본 번역 만화 경험과 선호도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이유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느낌 일본 번역 만화 출판 제재에 대한 의견
6. 기 타	패 션	일본 패션 잡지 접촉 경험 일본 패션 경험과 이유 일본 패션에 대한 의견
	학 용 품	일제 학용품 소지 여부 일제 학용품 구입처 일제 학용품 평가

Ⅲ.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표집대상으로 하여 모집단 인구 비례에 따라 임의로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각각 남녀 한 학급씩 두 학급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집단과 비슷하게 50:50으로 표집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를 역시 모집단과 비슷하게 3:1의 비율로 표집하였고, 남녀 역시 50:50으로 표집하였다. 설문 기간은 94년 6월 한달간이었으며, 부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 설문 분석에 사용된 응답지 수는 중학교 395매, 고등학교 389매 등 총 784매였다. 조사 결과는 SPSS/PC +로 통계 처리하였다.

〈표 2〉

표집의 특성

단위 : 백분율(실수)

교급별\성별	남 자	여 자	전 체
중 학 교	49.9	50.1	100.0(395)
고등학교			
인문계	49.0	51.0	100.0(290)
실업계	50.5	49.5	100.0(99)
계	49.6(389)	50.4(395)	100.0(784)

IV. 조사 결과

설문 결과의 분석은 설문 조사 내용에서 분류한 순서대로 일본 문화에 대한 태도, 일본 문화의 영향력, 전자 매체, 인쇄 매체, 기타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고, 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한 다음, 그 내용을 기술하고, 각 영역의 소결에서 그 결과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1. 일본 문화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의 일본 문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조사한 항목은 첫째로 일본인에 대한 호감,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한 의견,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에 대한 평가,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느낌,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본받을 나라와 본받으면 안되는 나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싫은 나라 등을 조사하여 일본과 비교하였다.

1) 일본인에 대한 호감

일본인에 대한 호감 정도를 알기 위하여 일본인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좋아한다는 응답자가 10.4%인데 비하여 싫어한다는 응답자는 53.7%에 달하여 대체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사 결과와도 비슷한데, 특히 최근에 서울대 사범대와 일본 쓰쿠바 대학이 광복 49주년을 맞아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한일 양국의 중·고·대학생 3,746명(한국 1,957명, 일본 1,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의식조사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 응답자의 50.1%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일본 청소년은 74.4%가 적

대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지배를 직접 체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정서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일본인을 좋아합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정도	매우 좋아한다	다소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다소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계
남 자	4.4	10.0	34.4	28.5	22.6	100.0(389)
여 자	.3	6.2	37.3	32.1	24.1	100.0(386)
전 체	2.3	8.1	35.9	30.3	23.4	100.0(775)

$\chi^2=18.99931$ $p=.00079$

2) 일본인의 국민성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일본인의 국민성은 어떠하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친절하다(63.4%), 부지런하다(83.2%), 합리적이다(58.7%), 진취적이다(48.4%), 성실하다(66.3%), 창조적이다(46.4%), 단결심이 좋다(73.8%), 적극적이다(61.1%) 등이다. 특히 부지런하다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단결심이 좋다, 성실하다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개인주의적이다(50.5%), 모방적이다(49.2%), 충동적이다(40.7%), 잔인하다(69.4%), 폭력적이다(64.5%) 등으로 특히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열적이다, 관대하다,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등에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인 국민성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역시 대 일본 국민 정서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일본인의 국민성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정도	아주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렇다	다소 찬성	아주 찬성	계
친절하다	4.9	5.2	26.6	32.0	31.4	100.0(775)
부지런하다	1.7	2.8	12.3	39.5	43.7	100.0(774)
개인주의적이다	5.6	12.9	31.0	25.8	24.7	100.0(774)
합리적이다	3.1	6.9	31.3	34.2	24.5	100.0(771)
정직하다	16.9	22.0	37.0	13.6	10.6	100.0(774)
모방적이다	7.2	13.7	29.9	20.5	28.7	100.0(769)
진취적이다	5.1	10.1	36.5	30.5	17.9	100.0(765)
성실하다	4.1	8.4	21.1	37.1	29.2	100.0(773)
충동적이다	6.1	17.6	35.7	22.6	18.1	100.0(774)
잔인하다	5.6	8.3	16.7	27.0	42.4	100.0(773)
폭력적이다	6.1	9.5	19.9	25.7	38.8	100.0(770)
창조적이다	11.2	15.6	26.8	25.8	20.6	100.0(770)
정열적이다	9.5	16.8	40.8	17.9	15.1	100.0(770)
관대하다	15.9	22.7	42.6	11.6	7.2	100.0(766)
단결심이 좋다	3.7	6.8	15.6	27.0	46.8	100.0(775)
적극적이다	4.5	7.3	27.0	33.3	27.8	100.0(777)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12.8	19.0	34.6	19.6	14.0	100.0(772)

3)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접한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좋은 면도 지적하고 있다. 일본 대중 문화는 소비 지향적이고(41.5%), 퇴폐 향락적이며(45.3%), 서구의 모방이 많고(48.1%), 인공적인(47.7%)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롭고(62.2%), 멋있는(44.5%) 문화이기도 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유와 멋을 추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갈구하는 취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결과이다.

〈표 5〉 여러분이 접한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정도	아주 반대	다소 반대	그저 그렇다	다소 찬성	아주 찬성	계
소비 지향적이다	5.1	13.9	39.5	24.4	17.1	100.0(765)
퇴폐 향락적이다	9.4	13.6	31.7	22.2	23.1	100.0(770)
서구의 모방이 많다	5.9	11.9	34.2	26.6	21.5	100.0(764)
주체성이 강하다	11.1	16.8	33.5	23.7	14.9	100.0(758)
인공적이다	4.2	8.5	39.6	28.1	19.6	100.0(757)
멋있다	12.6	12.5	30.5	28.9	15.6	100.0(771)
자유롭다	5.6	7.2	25.1	35.8	26.4	100.0(769)

4)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느낌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40.5%)가 친근감을 느낀다(33.9%)보다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 남녀별로는 남자(39.5%)가 여자(28.4%)보다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있고, 여자(48.3%)가 남자(32.7%)보다 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일본 대중 문화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은 그동안 일본 대중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익숙해져 왔거나 또는 같은 문화권이어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정도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느낌이 없다	다소 거부	매우 거부	계
남 자	10.1	29.4	27.8	25.5	7.2	100.0(388)
여 자	2.8	25.6	23.4	38.1	10.2	100.0(394)
전 체	6.4	27.5	25.6	31.8	8.7	100.0(782)

$$\chi^2=30.26522 \quad p=.00000$$

5) 국가별 문화에 대한 선호

일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문화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본받을 만한 나라”에서 일본(12.4%)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미국(11.5%), 프랑스(10.2%)의 순으로 나타났고, 또한 “문화적으로 본받으면 안되는 나라”에서도 일본(33.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15.2%), 북한(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는 호주(21.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18.7%), 스위스(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싫은 나라”는 일본(33.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10.1%), 소말리아(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대한 태도가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6) 소 결

일본인과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7%가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다른 조사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50.1%가 일본인에 대해 적대감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일본의 한국 강점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아직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근면성, 단결, 성실성, 친절, 적극적인 면 등을 지적하였다. 단점으로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잔인성과 폭력성은 우리 나라에 유입된 일본 대중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점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그러한 일본 대중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모방적이고, 인공적이며, 퇴폐향락적이며, 소비 지향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긍정적인 면은 자유롭고 멋있는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에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해 상당수의 청소년이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데 반하여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유교 문화권로서 일본 문화가 여필종부의 동양적 사고 방식에 터하고 있다는 점과 전술한 폭력성과 잔인성이 남성적 문화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로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에 대해 싫든 좋든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문화적으로 본받을 나라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본받으면 안될 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장 싫은 나라에서도 일본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일본 대중 문화의 영향력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원인,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화 요소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원인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

문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일본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장사하려는 상인들 때문에’(37.3%)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일본 대중 문화의 상업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여자 청소년(45.9%)이 남자 청소년(28.7%)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접하기 힘든 음란성이나 잔인성 때문에’(18.5%)에 응답하여 일본 대중 문화의 음란성과 잔인성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24.0%)이 여자 청소년(12.9%)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7〉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위: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남 자	여 자	전 체
경제 대국 일본에 대한 부러움	11.2	5.0	8.1
우리 문화의 빈곤으로 우리 것을 외면한 결과	9.7	12.6	11.1
일본 문화의 우수함 때문에	13.3	11.3	12.3
지리적으로 가까우므로	8.9	9.2	9.0
일본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장사하려는 상인들 때문에	28.7	45.9	37.3
우리가 접하기 힘든 음란성이나 잔인성 때문에	24.0	12.9	18.5
기타	4.2	3.1	3.7
계	100.0(383)	100.0(381)	100.0(764)

$$\chi^2=39.91369 \quad p=.00000$$

2)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일본의 대중 문화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일본의 대중 문화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표 8〉에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대부분(80.4%)이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응답도 40.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 문화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일본 대중 문화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전도	전혀	별로	그저	다소	매우	계
남 자	1.8	6.4	11.6	40.2	39.9	100.0(388)
여 자	1.5	5.3	12.5	39.4	41.2	100.0(393)
전 체	1.7	5.9	12.0	39.8	40.6	100.0(781)

$\chi^2=.72077$ $p=.94874$

3)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화 요소

한국 청소년이 현재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일본 문화 요소는 일제 학용품(25.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본 번역 만화(24.7%), 가라오케나 노래방(20.6%), 편의점(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은 일본 번역 만화(32.5%)가 가장 많았는데 비하여 여자 청소년은 일제 학용품(30.6%)이 가장 많았다.

〈표 9〉 다음은 일본 문화의 색채가 많은 것들입니다. 귀하가 현재 가장 많이 접촉한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남 자	여 자	전 체
가라오케, 노래방	18.3	22.5	20.6
로바다야끼	.8	.5	.7
커피 전문점	2.8	3.5	3.1
편의점	11.1	14.3	12.7
일본 번역 만화	32.5	16.8	24.7
패션 잡지(논노 등)	2.9	7.1	5.0
일본노래	1.3	.4	.9
일본 비디오	5.8	2.3	4.1
일식 스낵(장터국수 등)	2.1	1.6	1.9
일제 학용품	20.7	30.6	25.6
일본 위성 방송	1.2	.3	.7
계	100.0(755)	100.0(742)	100.0(1,497)

그리고 그러한 문화 요소들을 접촉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20.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재미있다(18.3%), 분위기나 품질이 좋다(17.6%)의 순으로 나타나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

년 정서에 잘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많이 접촉하는 이유를 적어주십시오(복수응답)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남 자	여 자	전 체
저미있다	22.2	14.6	18.3
분위기, 품질이 좋다	16.2	19.0	17.6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	20.0	21.3	20.6
인기가 좋다	2.6	2.9	2.7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4.5	4.9	4.7
기타	34.6	37.3	36.0
계	100.0(780)	100.0(790)	100.0(1,570)

다음으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본 만화(45.0%)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일본 패션(28.7%)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56.8%)은 일본 번역 만화에 높은 응답을 보였고, 여자 청소년(42.7%)은 일본 패션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11〉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위성방송	일본소설	일본만화	일본패션	노래방	음식	비디오	기타	계
남 자	1.6	.8	56.8	14.9	9.1	1.3	9.6	5.9	100.0(375)
여 자	1.1	.8	33.0	42.7	10.8	.5	6.2	4.9	100.0(370)
전 체	1.3	.8	45.0	28.7	9.9	.9	7.9	5.4	100.0(745)

$\chi^2=78.74283$ $p=.00000$

다음으로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 나라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일본 대중 문화는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12.8%)보다는 일본 대중 문화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여 사상적 혼란을 야기한다(87.2%)고 응답하여 일본 대중 문화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12〉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 나라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남 자	여 자	전 체
일본 대중 문화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여 사상적 혼란을 야기한다.	83.9	90.6	87.2
일본 대중 문화는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	16.1	9.4	12.8
계	100.0(371)	100.0(377)	100.0(748)
	$\chi^2=7.38872$		$p=.00656$

4) 소 결

일본 대중 문화의 영향력에 관한 의식 조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많이 유입된 이유를 한국 청소년들은 상업성과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일본 대중 문화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일본 대중 문화를 범람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일본 대중 문화의 상품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문화 종속은 경제적 종속을 의미한다는 문화 제국주의론을 지지해준다.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음란성과 잔인성이 두번째 이유로 응답된 것도 청소년들의 발달기적 호기심에 영합한 일본 문화의 상업성을 뒷받침해 준다.

둘째로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 문화의 위력을 크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만화와 패션에 일본 대중 문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80.4%가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40.6%는 매우 많이 끼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 영향은 우리 청소년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사상적 혼란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남자 청소년은 만화, 여자 청소년은 패션에서 일본 대중 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에 일본 대중 문화가 엄청난 위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전파 매체

전파 매체를 통해 유입된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 나라 청소년 문화에 어느 정도로 유입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본 위성 방송, 가요, 그리고 전자 오락 게임에 관해 조사하였다.

1) 일본 위성 방송

일본 위성 방송은 시청 경험, 동기, 일본 위성 방송에 대한 이해 정도와 평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시청 경험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한 일본 방송을 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13>에 나타나 있다. 약 24.1%의 청소년이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 일본 방송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 청소년(29.7%)이 여자 청소년(18.6%)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최명 외(1991)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의 위성 방송 시청 경험이 29.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최규갑(1992)이 강남지역 중·고 등학생 3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는 시청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9.6%로 나타났고, 김정혜(1991)가 강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42.6%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그것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8학군과 그외의 지역이 골고루 분포된데 비하여 위의 두 조사는 8학군에 한정되어 조사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3> 귀하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한 일본위성방송을 본 일이 있습니까?

성별\경험유무	단위 : 백분율(실수)		
	있 다	없 다	계
남 자	29.7	70.3	100.0(380)
여 자	18.6	81.4	100.0(392)
전 체	24.1	75.9	100.0(772)

$$\chi^2 = 13.03310 \quad p = .00031$$

현재 위성을 통한 일본 방송은 NHK교육방송과 상업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방송을 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표 14>와 같다. 주로 청소년들은 상업 방송(70.9%)을 주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주로 본 방송의 종류는?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종류	NHK교육방송	상업방송	계
남 자	27.8	72.2	100.0(108)
여 자	31.0	69.0	100.0(71)
전 체	29.1	70.9	100.0(179)
		$\chi^2=.21391$	$p=.64372$

그리고 일본 위성 방송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만화 영화(33.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화(24.3%), 쇼, 코미디(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일본위성방송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것 ?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종류	쇼, 코미디	연속극	외화	뉴스, 대담	만화영화	스포츠	퀴즈, 게임	기록물	계
남 자	16.0	1.9	24.5	3.8	37.7	13.2	.9	1.9	100.0(106)
여 자	28.6	6.3	23.8	1.6	27.0	4.8	3.2	4.8	100.0(63)
전 체	20.7	3.6	24.3	3.0	33.7	10.1	1.8	3.0	100.0(169)
		$\chi^2=12.22900$ $p=.09328$							

일본 방송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보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표 16>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친구집(43.8%)에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신의 집(21.9%)에서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6> 어디서 보았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우리 집에	친구집에서	전파사 등 매장	기 타	계
남 자	20.4	45.4	13.0	21.3	100.0(108)
여 자	24.3	41.4	11.4	22.9	100.0(70)
전 체	21.9	43.8	12.4	21.9	100.0(178)
		$\chi^2=.57589$ $p=.90193$			

그리고 일본 위성 방송을 누구와 함께 보느냐의 질문에서는 혼자 보는 경우(66.9%)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72.5%)이 여자 청소년(56.9%)에 비하여 혼자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7〉 일본위성 방송을 보는 주된 형태는?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혼자 보는 편이다	가족들이 시청할 때 함께 보는 편이다	계
남 자	72.5	27.5	100.0(91)
여 자	56.9	43.1	100.0(51)
전 체	66.9	33.1	100.0(142)
		$\chi^2=3.62180$	$p=.05703$

(2) 시청 동기

일본 위성 방송을 보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가 〈표 18〉에 나타나 있다. 김원용(1990)이 일본 위성 방송의 기능으로 국제 뉴스, 국내 방송이 없을 때, 일본어 학습 도구를 들고 있고, 인운섭(1990)은 일본 위성 방송 시청의 증가 요인으로 24시간 방송, 전문 채널의 특성, 프로그램의 경쟁력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은 호기심 때문에(27.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방송이 재미없을 때(19.5%), 선정적이므로(16.5%), 한국 방송을 안할 때(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에 시청 동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선정적이므로(남자 23.2%, 여자 5.9%)와 일본 패션 등 유행을 불러고(남자 2.4%, 여자 21.6%)에서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18〉 일본위성 방송을 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호기심 때문에	선정적이므로	한국방송이 재미없을때	한국방송 안할 때	만화를 불러고	일본패션등 유행 불러고
남 자	29.3	23.2	20.7	9.8	14.6	2.4
여 자	25.5	5.9	17.6	23.5	5.9	21.6
전 체	27.8	16.5	19.5	15.0	11.3	9.8
		$\chi^2=23.87019$				
		$p=.00023$				

(3) 일본 위성 방송 시청에 대한 이해와 평가

일본 위성 방송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19>에 나타나 있다. 내용의 흐름을 대부분 이해한다는 38.1%에 불과하고, 66.3%는 동작이나 억양으로 약간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9> 일본위성방송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내용\정도	단위 : 백분율(실수)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림만 본다	31.4	38.4	30.2	100.0(172)
동작이나 억양으로 약간의 내용을 이해한다	66.3	26.9	6.9	100.0(175)
내용의 흐름을 대부분 이해한다	38.1	36.3	25.6	100.0(168)

위성을 통한 일본 방송을 시청한 느낌에 대한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하다(72.0%)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화면 구성이 뛰어나다(64.4%)도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재미있다(59.9%), 국제적 감각이 있다(45.7%)에도 다소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폭력적이다(52.6%), 선정적이다(50.6%), 그리고 반윤리적이다(33.5%)에도 높은 응답을 보여 부정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0> 본 위성방송에 대한 느낌은?

내용\정도	단위 : 백분율(실수)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계
일본 문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12.5	43.2	44.3	100.0(176)
재미있다	14.1	26.0	59.9	100.0(177)
폭력적이다	12.0	35.4	52.6	100.0(175)
선정적이다	10.3	39.1	50.6	100.0(174)
반윤리적이다	14.8	51.7	33.5	100.0(176)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하다	8.0	20.0	72.0	100.0(175)
화면구성이 뛰어나	8.0	27.6	64.4	100.0(174)
국제적 감각이 있다	13.1	41.1	45.7	100.0(175)
유치하다	40.3	39.2	20.5	100.0(176)

일본 위성 방송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최근의 패션(29.6%)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19.5%), 일본 상품에 대

한 정보(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최근의 패션(남자 20.2%, 여자 47.3%)이었다.

〈표 21〉

일본위성방송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남 자	여 자	전 체
일본에 대한 동경심	10.6	.0	6.9
최근 유행하는 춤	6.7	9.1	7.5
최근의 패션	20.2	47.3	29.6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22.1	14.5	19.5
일본의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	7.7	5.5	6.9
좋아하는 외국 배우 접함	13.5	10.9	12.6
일본상품에 대한 정보	19.2	12.7	17.0
계	100.0(104)	100.0(55)	100.0(159)
			$\chi^2=17.408$ $p=.00790$

2) 가 요

일본 가요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은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 경험, 일본 가요 접촉 경험, 일본 가요 선호 정도, 일본 가요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1)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 경험

우선 청소년들이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84.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5.7%만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문화공간임을 알 수 있다.

〈표 22〉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84.6	15.4	100.0(389)
여 자	83.9	16.1	100.0(392)
전 체	84.3	15.7	100.0(781)
			$\chi^2=.06165$ $p=.80391$

(2) 일본 가요 접촉 경험

청소년들이 일본 노래를 접촉하는 정도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뮤직 비디오에서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 본 결과 49.8%의 청소년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약 절반의 청소년이 일본 노래 또는 일제 뮤직 비디오 상품을 접촉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뮤직 비디오에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백분율(실수)			
성별\경험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49.2	50.8	100.0(388)
여 자	50.4	49.6	100.0(395)
전 체	49.8	50.2	100.0(783)

$$\chi^2=.10408 \quad p=.74699$$

(3) 일본 가요 선호 정도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일본 노래를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노래방이나 가정에서 일본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1%의 청소년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본 노래의 접촉에 비해서는 그렇게 일본 노래를 부를 정도로 선호하는 경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1%의 청소년이 일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일본 노래가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 깊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표 24〉 노래방이나 가정에서 일본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백분율(실수)			
성별\경험 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10.5	89.5	100.0(389)
여 자	9.6	90.4	100.0(395)
전 체	10.1	89.9	100.0(784)

$$\chi^2=.18291 \quad p=.66888$$

일본노래 테이프나 음반 또는 CD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3.7%가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27.5%)이 여자 청소년(19.8

%)에 비하여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25〉 일본노래 테이프나 음반 또는 CD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27.5	72.5	100.0(389)
여 자	19.8	80.2	100.0(393)
전 체	23.7	76.3	100.0(782)

$$\chi^2=6.34977 \quad p=.01174$$

(4) 일본 가요의 특징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본노래의 특징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독특하다(38.6%)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일본 노래의 독특한 점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번째로 많은 응답이 멜로디가 아름답다(28.2%)로 일본 음악의 감미로움이 우리 나라 청소년의 호감을 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35.6%)은 멜로디의 아름다움에, 여자 청소년(48.0%)은 독특한 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26〉 좋아하는 일본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멜로디가 아름답다	일본어의 발음이 듣기 좋다	녹음 상태가 좋다	독특하다	기 타	계
남 자	35.6	11.0	6.8	30.5	16.1	100.0(118)
여 자	19.6	3.9	6.9	48.0	21.6	100.0(102)
전 체	28.2	7.7	6.8	38.6	18.6	100.0(220)

$$\chi^2=13.75469 \quad p=.00812$$

3) 전자 오락

일본 전자 오락 게임에 대해서는 일본 전자 오락 게임의 경험, 좋아하는 전자 오락 게임의 종류와 일본 전자 오락 게임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1) 전자 오락 게임 경험

YMCA(1989)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95.0%가 전자 오락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한번 이상은 전자 오락실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자 오락실의 대부분의 전자 오락기는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일본어가 쓰여져 있는 전자 오락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76.0%)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94.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7〉 일본어가 쓰여 있는 전자오락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94.3	5.7	100.0(386)
여 자	57.6	42.4	100.0(384)
전 체	76.0	24.0	100.0(770)

$$\chi^2=142.41618 \quad p=.00000$$

일본에서 제작한 전자 오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표 28〉에 나타나 있다. 매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9%이며, 일주일에 한두번이 20.4%, 한 달에 한 두 번이 41.9%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0.0%이며, 일주일에 한두번이 29.9%, 한달에 한두번이 45.1%로 응답하여 전자 오락을 하는 정도 면에서도 여자 청소년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8〉 전자오락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정도	안한다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매일 한다	계
남 자	15.0	45.1	29.9	10.0	100.0(381)
여 자	50.3	38.3	10.0	1.4	100.0(350)
전 체	31.9	41.9	20.4	5.9	100.0(731)

$$\chi^2=131.62935 \quad p=.00000$$

(2) 전자 오락 게임 선호와 이유

최근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는 전자오락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게임의 종류는 63개였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테트리스(9.0%)였다. 이는 특히 여자 청소년(17.2%)이 즐기는 게임이었다. 다음으로는 스트리트 화이터(7.4%)였는데 이것 역시 남자 청소년(11.3%)이 가장 즐기는 게임이었다.

〈표 29〉 최근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는 전자오락은 무엇인지 한 개만 적어주십시오.

단위 : 백분율(실수)

종류\성별	농구	보글 보글	사무 라이	스트리트 화이터	용호 의권	축구	테트 리스	슈퍼 마리오	프레 텍터	삼국지	드레 곤볼	기타	계
남 자	6.9	.3	8.5	11.3	4.4	6.7	.8	.3	2.8	3.8	2.1	52.3	100.0(390)
여 자	.3	2.3	1.3	3.5	.0	.0	17.2	3.0	.0	1.0	.5	70.9	100.0(395)
전 체	3.6	1.3	4.8	7.4	2.2	3.3	9.0	1.7	1.4	2.4	1.3	61.7	100.0(785)

$\chi^2=211.38545$ $p=.00000$

일본 제작 전자 오락을 왜 재미있게 하고 있는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알차다(32.3%)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것이 폭력적이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19.0%)는 것과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폭력적이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24.2%)에, 여자 청소년은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24.3%)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0〉 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그림 섬세	알차다	폭력적	선정적	프로그램이 없다	기 타	계
남 자	15.9	35.4	24.2	5.0	9.5	10.0	100.0(359)
여 자	9.9	28.4	12.7	2.4	24.3	22.3	100.0(292)
전 체	13.2	32.3	19.0	3.8	16.1	15.5	100.0(651)

$\chi^2=58.42475$ $p=.00000$

4) 소 결

전파 매체를 통한 일본 대중 문화의 유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청소년의 24.1%가 일본 위성 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고, 주로 상업 방송을 보며(70.9%), 특히 호기심(27.8%)에서 혼자(66.9%) 보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위성 방송에 대한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화면 구성이 뛰어난 반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위성 방송을 통해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패션(29.6%)을 지적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상업 방송을 혼자서 시청하는 경향은 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뛰어난 화면 구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위성 방송이 한국 청소년 문화에 별로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것은 일본 위성 방송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일본 패션 유행이 일본 위성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준다.

둘째로 한국 청소년의 84.3%가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 경험이 있으며, 뮤직 비디오에서 일본어 자막을 본 청소년이 49.8%였다. 그리고 일본 가요를 불러 본 청소년은 10.1%에 불과하지만 일본 가요 음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23.7%에 이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일본 가요의 특징은 독특하고 감미로운 멜로디다.

이처럼 가라오케나 노래방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 공간이며, 동시에 일본에서 제작된 뮤직 비디오나 불법 음반을 통해 일본 가요가 청소년 문화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일본어가 쓰여진 전자 오락 게임을 해 본 청소년은 76.0%이며, 즐기는 게임의 종류는 다양하며, 일제 전자 오락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알 차다(32.3%)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소년은 폭력적이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응답도 하고 있다. 워낙 전자 오락 게임 시장은 일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제작한 인기있는 전자 오락 게임의 대부분이 파괴와 살상이 난무하는 것으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매우 우려된다.

4. 인쇄 매체

일본 대중 문화의 인쇄 매체는 일본 번역 만화, 일본 패션 잡지, 일본 수필이나

1) 일본 대중 문화 인쇄 매체의 경험

(1) 일본 번역 만화

일본 번역 만화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 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95.4	4.6	100.0(389)
여 자	80.8	19.2	100.0(390)
전 체	88.1	11.9	100.0(779)
			$\chi^2=39.50569$ $p=.00000$

(2) 일본 패션 잡지

— 329 —

〈표 32〉

일본 패션 잡지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 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57.7	42.5	100.0(372)
여 자	68.6	31.4	100.0(382)
전 체	63.1	36.9	100.0(754)

$\chi^2=9.90370$ $p=.00165$

(3) 일본 소설이나 수필

일본 소설이나 수필 등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6.2%의 청소년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자가 40.7%로 여자보다 다소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33〉

일본소설이나 수필 등을 번역한 것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 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40.7	59.3	100.0(371)
여 자	31.8	68.2	100.0(377)
전 체	36.2	63.8	100.0(748)

$\chi^2=6.36843$ $p=.01162$

(4) 일본 영화 잡지

스크린과 같은 일본 영화 잡지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43.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51.3%)이 여자 청소년(35.2%)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4〉

스크린 같은 일본 영화 잡지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 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51.3	48.7	100.0(372)
여 자	35.2	64.8	100.0(372)
전 체	43.3	56.7	100.0(744)

$\chi^2=19.71093$ $p=.00001$

(5) 일본 도색 잡지

일본 도색 잡지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2.1%가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이 45.8%가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18.5%가 응답하였다.

〈표 35〉 일본 도색 잡지(음란 그림 잡지)

성별\경험 유무	단위 : 백분율(실수)		
	있 다	없 다	계
남 자	45.8	54.2	100.0(371)
여 자	18.5	81.5	100.0(373)
전 체	32.1	67.9	100.0(744)

$\chi^2=63.68502$ $p=.00000$

2) 만 화

(1) 일본 번역 만화 경험과 선호도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일본 번역 만화를 어느 정도 보는지 알기 위해서 일본 번역 만화를 어느 정도 보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본다는 51.5%가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본다는 데에 23.0%가 응답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일주일에 한 두 번(35.6%), 매일 본다는 10.6%가 응답하여 여자 청소년(각각 10.4%, 2.9%)보다 자주 만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일본 번역 만화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성별\내용	단위 : 백분율(실수)				
	안 본다	한달에 한 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매일 본다	계
남 자	5.7	48.2	35.6	10.6	100.0(388)
여 자	31.9	54.8	10.4	2.9	100.0(385)
전 체	18.8	51.5	23.0	6.7	100.0(773)

$\chi^2=143.05222$ $p=.00000$

우리 나라 청소년이 한국 만화와 일본 만화의 상대적 선호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보는 만화를 100으로 볼 때 한국 만화와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를 질문한 결과 한국 만화 대 일본 만화의 비율이 남자의 경우 37.56: 62.44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54.53: 45.47이었다. 즉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일본 만화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본 번역 만화가 무엇인지 두 개를 적어달라고 질문한 결과가 <표 37>에 나타나 있다. 응답된 만화의 종류는 모두 52가지였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만화는 남녀 모두 드래곤 볼(26.1%)이었다. 다음으로 슬램덩크(24.1%)였으며 그외에는 10% 미만의 응답을 보여 청소년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만화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 가장 기억에 남는 일본 번역 만화를 두 가지만 적어주십시오(복수응답)

단위: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	란마 1/2	북두의 권	슬램덩크	시티헌터	캔디	캠퍼스 블루스	통키	아기 와나	기타	계
남 자	1.7	31.3	2.4	3.6	28.2	6.4	.0	1.3	3.5	.9	20.8	100.0(780)
여 자	1.5	21.0	7.2	.5	20.0	3.4	3.9	.3	8.5	1.6	32.0	100.0(790)
전 체	1.6	26.1	4.8	2.0	24.1	4.9	2.0	.8	6.0	1.3	26.4	100.0(1570)

* 기타에는 무응답 포함

(2)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이유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즐거리가 재미 있어서(63.1%)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이 그림이 섬세해서(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만화의 품질면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남 자	여 자	전 체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8	1.7	1.2(8)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3.7	3.1	3.4(22)
즐거리가 재미있어서	57.8	69.5	63.1(409)
그림이 섬세해서	29.2	16.3	23.3(151)
선정적인 그림이 있어서	4.5	2.7	3.7(24)
안 보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되므로	4.0	6.8	5.2(34)
계	100.0	100.0	100.0(648)

$\chi^2=19.956$ $p=.00127$

(3)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느낌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느낌이 어떠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미있다(65.5%)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응답이 17.4%, 음란하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재미있다(73.8%)에 높은 응답을 보였고, 잔인하고 폭력적이다에는 여자 청소년(21.9%)로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39〉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느낌이 어떠합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감동적이다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재미있다	찜찜하다	음란하다	기 타	계
남 자	1.6	13.0	73.8	2.3	7.0	2.3	100.0(386)
여 자	1.3	21.9	57.0	3.5	9.4	7.0	100.0(374)
전 체	1.4	17.4	65.5	2.9	8.2	4.6	100.0(760)
$\chi^2=28.09233$ $p=.00003$							

(4) 일본 번역 만화 출판 규제에 대한 의견

일본 번역 만화를 철저히 단속해서 출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26.0%, 반대가 27.3%로 비슷한 응답을 보여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찬성이 12.1%인데 비하여 반대가 36.2%로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반대 의견이 더욱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0〉 일본 번역 만화를 철저히 단속해서 출판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찬성한다	별로 관심없다	반대한다	계
남 자	12.1	51.7	36.2	100.0(387)
여 자	39.7	41.7	18.6	100.0(393)
전 체	26.0	46.7	27.3	100.0(780)
$\chi^2=83.12141$ $p=.00000$				

일본 번역 만화를 철저히 단속해서 출판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응

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한국 만화가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해 품질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41.2%). 다음으로는 일본 번역 만화의 내용만 규제하면 된다(26.2%), 그리고 자유 경쟁을 시켜 한국 만화의 질을 높여야 된다(20.9%)는 의견이 다음을 차지 하였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본 번역 만화의 내용만 규제하면 된다(42.2%)가 가장 높은 응답이었다.

〈표 41〉

반대하는 이유

단위 : 백분율(실수)

내용\성별	경쟁을 시켜 야 한다	내용만 단속 하면 된다	품질에서 비 교가 안된다	출판의 자유다	기 타	계
남 자	19.5	17.9	47.2	5.7	9.8	100.0(123)
여 자	23.4	42.2	29.7	.0	4.7	100.0(64)
전 체	20.9	26.2	41.2	3.7	8.0	100.0(187)
$\chi^2=17.90806$						$p=.00129$

3) 소 결

일본 대중 문화 인쇄 매체의 접촉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 번역 만화는 88.1%, 일본 패션 잡지는 63.1%, 일본 소설이나 수필은 36.2%, 일본 영화 잡지는 43.3%, 일본 도색 잡지는 32.1%가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청소년이 일본 대중 문화 인쇄 매체를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도색 잡지를 32.1%의 청소년이 보았다는 것은 음란하고 저급한 일본 문화에 한국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본 패션 잡지만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많이 접촉하였고, 나머지 일본 번역 만화, 일본 소설이나 수필, 일본 영화 잡지, 일본 도색 잡지 등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욱 많이 접촉하였다. 특히 일본 도색 잡지는 접촉 경험에서 45.8%와 18.5%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로 한국 청소년은 남자의 경우는 한국 만화보다 일본 번역 만화를 더욱 많이

보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본 번역 만화보다 한국 만화를 더욱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기있는 일본 번역 만화가 남자 청소년이 선호하는 폭력적인 내용이고, 여자 청소년이 주로 보는 만화가 순정 만화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가 드래곤 볼이라는 응답이 이 사실을 지지해 준다.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줄거리가 재미있고(63.1%) 그림이 섬세하다고(23.3%)하여 품질면에서 한국 만화가 뒤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로 만화를 본 느낌에 대해서는 재미있기는 하지만(65.5%) 잔인하고 폭력적(17.4%)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아 일본 번역 만화가 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출판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23.0%, 반대가 27.3%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갈라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품질에서 찾고 있어 좋은 품질의 상품을 향유할 소비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5. 기 타

대중 매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청소년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패션과 학용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패 셴

패션에 관해서는 패션 잡지의 접촉 경험, 일본 패션을 흉내낸 경험과 이유, 일본 패션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패션 잡지 접촉 경험

일본 패션 잡지를 본 적이 있는냐의 질문에서 7.5%의 청소년이 자주 보는 편이라고 하였고 가끔 본다는 청소년은 53.8%에 달하고 있다. 남녀별로 큰 차이는 없

나 여자 청소년이 다소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일본 패션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정도	본적 없다	가끔 본다	자주 보는 편이다	계
남 자	44.1	49.5	6.4	100.0(388)
여 자	33.2	58.1	8.6	100.0(394)
전 체	38.6	53.8	7.5	100.0(782)
				$\chi^2=9.87722$ $p=.00716$

(2) 일본 패션 경험과 이유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입거나 하고 다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31.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입거나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 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30.7	69.3	100.0(387)
여 자	32.7	67.3	100.0(388)
전 체	31.7	68.3	100.0(775)
			$\chi^2=.35150$ $p=.55327$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입거나 하고 다닌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행(5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하다(14.3%), 패션잡지 등을 보고(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편하다	유행 돌	보일려고	패션잡지 등을 보고	기 타	계
남 자	15.4	53.0	12.0	4.3	15.4	100.0(117)
여 자	13.3	50.0	6.7	19.2	10.8	100.0(120)
전 체	14.3	51.5	9.3	11.8	13.1	100.0(237)
						$\chi^2=14.12897$ $p=.00689$

(2) 일본 패션에 대한 의견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입거나 하고 다닐 때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다(45.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2.9%, 일본 패션이라 째짢지만 좋은 걸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이 16.1%, 국제적 감각으로 생각한다가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낀 적은 있습니까?

내용\성별	단위 : 백분율(실수)		
	남 자	여 자	전 체
아무렇지도 않다	56.9	34.2	45.3(107)
일본 패션이라 째짢지만 좋은 걸 어쩔 수 없다	12.1	20.0	16.1(38)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17.2	28.3	22.9(54)
국제적 감각으로 생각한다	7.8	10.8	9.3(22)
기 타	6.0	6.7	6.4(15)
계	100.0	100.0	100.0(236)
$\chi^2=12.832$			$p=.01213$

길거리에서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심하다(36.8%)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20.3%),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없다(18.1%), 째짢하지만 보기는 좋다(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길거리에서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용\성별	단위 : 백분율(실수)						
	아무렇지도 않다	째짢하지만 보기는 좋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없다	국제적 감각 이다	한심하다	기 타	계
남 자	22.7	10.3	16.2	5.9	36.2	8.6	100.0(370)
여 자	17.9	14.3	20.0	5.5	37.4	4.9	100.0(385)
전 체	20.3	12.3	18.1	5.7	36.8	6.8	100.0(755)
$\chi^2=100.90277$							$p=.07272$

2) 학용품

학용품에 대한 설문은 일제 학용품의 소지 여부, 일제 학용품의 구입처, 일제 학용품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1) 일제 학용품 소지 여부

청소년들이 일제 학用品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제 학用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81.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자 청소년이 85.4%로 남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일제 학用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경험 유무	있 다	없 다	계
남 자	76.9	23.1	100.0(385)
여 자	85.4	14.6	100.0(383)
전 체	81.1	18.9	100.0(768)
			$\chi^2=9.04773$ $p=.00263$

(2) 일제 학用品 구입처

자신이 가진 학用品 중에 일제 학用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청소년이 53.0%였고, 절반쯤 가지고 있다는 청소년은 23.4%에 달하고 있다.

〈표 48〉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정도	거의 대부분	절반쯤	한두개	없 다	계
남 자	6.7	20.6	54.2	18.5	100.0(373)
여 자	10.0	26.2	51.9	11.9	100.0(370)
전 체	8.3	23.4	53.0	15.2	100.0(743)
		$\chi^2=10.39427$ $p=.01550$			

일제 학用品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는 질문에서는 학교 앞 문구점(61.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물(20.4%),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은 학교

앞 문구점(67.1%)에서, 남자 청소년은 선물(2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49〉 일제 학용품을 주로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성별\내용	선 물	학교 앞 문구점	백화점 등	기 타	계
남 자	23.9	55.1	6.1	14.9	100.0(343)
여 자	17.0	67.1	5.1	10.8	100.0(353)
전 체	20.4	61.2	5.6	12.8	100.0(696)
$\chi^2=10.80510$					$p=.01283$

(3) 일제 학용품에 대한 평가

국산과 일제 학用品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견고성, 디자인, 독특성의 세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튼튼한 점에서는 일제(57.9%)가 국산(42.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디자인은 일제(91.5%)가 국산(8.5%)에 압도적인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독특성에 있어서도 일제(88.7%)가 국산(11.3%)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표 50〉 국산과 일제 학用品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좋습니까?

		단위 : 백분율(실수)		
기준\종류		국 산	일 제	계
튼튼한 점				통 계 치
				$\chi^2=.56535$
	남 자	40.8	59.2	100.0(373)
	여 자	43.5	56.5	100.0(368)
	계	42.1	57.9	100.0(741)
디자인				통 계 치
				$\chi^2=5.48307$
	남 자	6.1	93.9	100.0(374)
	여 자	10.9	89.1	100.0(375)
	계	8.5	91.5	100.0(749)
독특성				통 계 치
				$\chi^2=.17991$
	남 자	10.8	89.2	100.0(371)
	여 자	11.8	88.2	100.0(374)
	계	11.3	88.7	100.0(745)

3) 소 결

일본 패션과 학용품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31.7%가 일본 패션을 흉내내 본 경험이 있고, 그 이유는 유행(51.5%)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일본 패션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 대부분은 일본 패션을 흉내내는데 대하여 아무런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거나(45.3%)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22.9%) 응답하였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일본 패션을 흉내낸 청소년들을 볼 때 한심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6.8%나 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한 의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청소년의 81.1%가 일제 학용품을 소지하고 있고, 절반쯤 가지고 있다는 청소년이 23.4%에 달할 뿐만 아니라 61.2%의 청소년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하다고 응답하여 일제 학용품이 청소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학용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산 학용품과 비교하여 튼튼하고 디자인이 좋고, 독특하기 때문인데, 튼튼한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독특성과 디자인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제 학용품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V. 요약 및 제언

본 조사는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어느 정도 유입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대중 문화가 대중 매체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 청소년 문화에 많이 유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일본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결에서 상세히 요약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그 대강을 요약하고 본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청소년은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하여 장점으로서는 근면성, 단결, 성실 성, 친절, 적극적인 면 등을 지적하였고, 단점으로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잔인성과 폭력성은 우리 나라에 유입된 일본 대중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점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그러한 일본 대중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면으로는 모방적이고, 인공적이며, 퇴폐 향락적이며, 소비 지향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긍정적인 면은 자유롭고 멋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에 쉽게 파고 들 수 있는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청소년은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해 상당수의 청소년이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데 반하여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본받을 나라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본받으면 안될 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가장 싫은 나라에서도 일본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싫든 좋든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은 중요한 타국이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한국 청소년은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음란성과 잔인성 등 청소년들의 발달기적 호기심에 영합한 일본 대중 문화의 상업성으로 우리 청소년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사상적 혼란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넷째 전파 매체에 있어 일본 위성 방송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정서와 일본식 패션의 보급을, 일본 전자 오락 게임은 폭력성을 한국 청소년 정서에 심어주고 있다. 또한 일본 가요가 노래방이나 불법 음반 등을 통해 한국 청소년 문화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다.

다섯째 한국 청소년은 일본 번역 만화, 일본 패션 잡지, 일본 소설이나 수필, 일본 영화 잡지, 일본 도색 잡지 등의 일본 대중 인쇄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만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 문화 상품 시장의 잠식은 물론 청소년 정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한국 청소년의 31.7%가 일본 패션을 흉내내 본 경험이 있고, 그 이유는 유행(51.5%)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일본 패션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 대부분은 일본 패션을 흉내내는데 대하여 아무런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거나(45.3%)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22.9%) 응답하였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일본 패션을 흉내낸 청소년들을 볼 때 한심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6.8%나 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한 의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한국 청소년의 81.1%가 일제 학용품을 소지하고 있고, 절반쯤 가지고 있다는 청소년이 23.4%에 달할 뿐만 아니라 61.2%의 청소년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일제 학용품이 청소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학用品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산 학用品과 비교하여 튼튼하고 디자인이 좋고, 독특하기 때문인데, 튼튼한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독특성과 디자인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제 학用品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상당히 유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라는 면을 담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많은 한국 청소년이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사상적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대중 문화의 부정적 측면이 우리 한국 청소년 문화에 끼치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한국 청소년은 일본인과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도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아직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국제적인 문화 교류가 점점 활발해 지는 오늘날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중 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판력, 그리고 문화 수용의 자세 등의 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성 방송의 전파 월경 문제 등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 전파를 통한 문화적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 음반류나 소프트 웨어 등의 유입과 시판을 강력히 단속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외국제라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에서 청소년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이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 대중 상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나는 청소년 대중 문화 상품 시장의 중요성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전자 오락 게임이나 만화 산업 등 청소년 문화 상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준만(1994). 국제화 시대, 방송의 역할과 청소년 문화. 방송을 통한 청소년의 외래문화 수용 현황과 대책 세미나.
- 강현두(1987).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나남.
- 국동조사연구소(1994). 일본 대중 문화의 침투정도 및 개방화에 대한 조사.
- 김기곤(1990). 한일양국의 문화적인 교류. 일본연구, 8집, 43-57.
- 김영명(1994). 일본의 빈곤. 서울:미래사.
- 김옥순(1993). 컴퓨터와 청소년문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원용(1990). 일본 위성 방송 시청 행태와 방송 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 김정혜(1991). 한국청소년들의 일본 위성 방송 시청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김주연 등(1985). 한국문화에 미친 미국문화의 영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택규(1993). 한일 문화 비교론. 서울:문덕사.
- 노희복(1989). 위성방송의 현황과 전망. 신문과 방송.
- 도정일 역(1987). 문화 산업론. 서울:나남.
- 서울YWCA(1989). 청소년 전자 오락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 서울YWCA(1989). 청소년 만화 구독 실태조사.
- 서울YMCA(1991). 청소년 불량만화(일본 번역 만화)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 서울YWCA(1991).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어린이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
- 서울YWCA(1994). 청소년의 만화구독 실태와 내용분석 보고서.
- 서울YWCA(1994). 컴퓨터게임 내용분석 보고서.
- 손상익(1992). 한국만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제언. 만화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28.
- 윤진 광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1-83.
- 이민용(1988). 미국과 캐나다의 TV국경 전쟁. 신문과 방송, 26-29.
- 이순형(1993). 일본의 문화 제국주의와 청소년의 대일 선포의식. 순국 7/8, 109-

이원복(1983). 세계의 만화, 만화의 세계. 서울:미진사.

이재화(1990). 만화 백과. 서울:서린 문화사.

인운섭(1990). 일본 위성 방송에 대한 국내 TV방송의 편성 대응책. 한국언론학회
방송연구회.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정음사.

정갑영(1994). 일본대중문화 개방 대응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문성(1992).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청소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3권 4호, 19-35.

정문성(1994). 일본 대중 문화의 유입 실태. 순국, 10, 90-103.

최규갑(1992). 일본 위성 방송의 시청과 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석사논문.

최명 외(1991). 일본 위성 방송의 수용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3).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실태와 접촉에 관한 보고서.

한국방송협회(1992). 방송문화.

경향신문 94.5.26

세계일보 94.3.3

일본 대중 문화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문화체육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청소년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나라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7월

한국청소년개발원

A. 다음 사항중 해당되는 항목 중 한 곳에만 √표를 하거나 직접 적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_____ 1) 남 _____ 2) 여
2. 귀하의 학교는? _____ 1) 대학교 _____ 2) 인문고 _____ 3) 실업고 _____ 4) 중학교
3. 아버지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예) 문화체육부 계장, 한국전자 총무과장, 슈퍼마켓주인 등

4.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대학생은 안하셔도 됩니다)

- _____ 1) 1-10등
_____ 2) 11-20등
_____ 3) 21-30등
_____ 4) 31-40등
_____ 5) 41등 이하

5. 부모님의 한달 수입은 어느 정도?

- _____ 1) 100만원 미만
_____ 2) 100-200만원 미만
_____ 3) 200만원 이상

6. 한달에 타서 자유롭게 쓰는 용돈은 어느 정도?

- _____ 1) 5,000원 미만
_____ 2) 5,000-10,000원 미만
_____ 3) 10,000-20,000원 미만
_____ 4) 20,000-50,000원 미만
_____ 5) 50,000-100,000원 미만
_____ 6) 100,000원 이상

* 부모님의 학력

- | | | | |
|---------|------------------|---------|------------------|
| 7. 아버지? | _____ 1) 국졸이하 | 8. 어머니? | _____ 1) 국졸이하 |
| | _____ 2) 중졸이하 | | _____ 2) 중졸이하 |
| | _____ 3) 고졸이하 | | _____ 3) 고졸이하 |
| | _____ 4) 대졸이하 | | _____ 4) 대졸이하 |
| | _____ 5) 대학원졸 이상 | | _____ 5) 대학원졸 이상 |

9.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 _____ 1) 집안일만 돌보고 계신다
- _____ 2) 직장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으로 : _____)
- _____ 3) 집에서 부업을 하신다(구체적 _____)
- _____ 4) 아버지 일을 도우신다(구체적으로 : _____)

10. 귀하의 종교는?

- _____ 1) 기독교(개신교) _____ 2) 천주교 _____ 3) 불교
- _____ 4) 기타 _____ 5) 종교없음

1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위는 어떤 곳입니까?

- _____ 1) 상점이나 점포가 많은 곳
- _____ 2) 논과 밭이 많은 곳
- _____ 3) 아파트단지
- _____ 4) 일반주택단지
- _____ 5) 공장이 많은 곳
- _____ 6)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많은 곳

B. 다음 질문에 해당되는 것 한 가지만 √표를 하거나 직접 적어 주세요.

1. 한국 전통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_____ 2) 그저 그렇다
- _____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2.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_____ 1) 경험한 적이 없다
- _____ 2)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한 적은 있다
- _____ 3)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 _____ 4) 북, 장고나 춤 등 직접 해 본 적이 있다
- _____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3. 일본의 대중 문화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_____ 1)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_____ 2)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_____ 3) 그저 그렇다
 _____ 4) 다소 영향을 끼치고 있다
 _____ 5) 매우 영향을 끼치고 있다

4.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위성 방송
 _____ 2) 일본 번역 소설이나 수필 등
 _____ 3) 일본 번역 만화
 _____ 4) 일본 패션 잡지
 _____ 5) 가라오케나 노래방
 _____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 여러분이 접한 일본 대중 문화의 성격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찬성	다소 찬성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아주 반대
5. 소비 지향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퇴폐 향락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서구의 모방이 많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주체성이 강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9. 인공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 멋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 자유롭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2.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

- _____ 1)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_____ 2) 다소 친근감을 느낀다
 _____ 3) 아무런 느낌이 없다
 _____ 4) 다소 거부감을 느낀다
 _____ 5) 매우 거부감을 느낀다

13. 일본 대중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_____ 1) 경제 대국 일본에 대한 부러움
- _____ 2) 우리 문화의 빈곤으로 우리 것을 외면한 결과
- _____ 3) 일본 문화의 우수함 때문에
- _____ 4) 지리적으로 가까우므로
- _____ 5) 일본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장사하려는 상인들 때문에
- _____ 6) 우리가 접하기 힘든 음란성이나 잔인성 때문에
- _____ 7) 기타

14. 일본인을 좋아합니까?

- _____ 1) 매우 좋아한다
- _____ 2) 다소 좋아한다
- _____ 3) 그저 그렇다
- _____ 4) 다소 싫어한다
- _____ 5) 매우 싫어한다

* 일본인의 국민성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찬성	다소 찬성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아주 반대
15. 친절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6. 부지런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7. 개인주의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8. 합리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9. 정직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0. 모방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1. 진취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2. 성실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3. 충동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4. 잔인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5. 폭력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6. 창조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7. 정열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8. 관대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9. 단결심이 좋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0.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1. 적극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2. 일본 대중 문화가 우리 나라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1) 일본 대중 문화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여 사상적 혼란을 야기한다.

_____ 2) 일본 대중 문화는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

33. 다음은 일본 문화의 색채가 많은 것들입니다. 귀하가 현재 가장 많이 접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표시해 주시고 많이 접속하는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_____ 1) 가라오케, 노래방 (이유 : _____)

_____ 2) 로바다야끼 (이유 : _____)

_____ 3) 커피 전문점 (이유 : _____)

_____ 4) 편의점 (이유 : _____)

_____ 5) 일본 번역 만화 (이유 : _____)

_____ 6) 패션 잡지(논노 등) (이유 : _____)

_____ 7) 일본 노래 (이유 : _____)

_____ 8) 일본 비디오 (이유 : _____)

_____ 9) 일식 스낵(장터국수 등) (이유 : _____)

_____ 10) 일제 학용품 (이유 : _____)

_____ 11) 일본 위성 방송 (이유 : _____)

34. 가라오케나 노래방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35. 뮤직 비디오에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36. 노래방이나 가정에서 일본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37. 일본 노래 테이프나 음반 또는 CD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38.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좋아하는 일본 노래와 가수를
적어주십시오.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39. 좋아하는 일본 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_____ 1) 없다
- _____ 2) 멜로디가 아름답다
- _____ 3) 일본어의 발음이 듣기 좋다
- _____ 4) 녹음 상태가 좋다
- _____ 5) 독특하다
- _____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40. 일본 패션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 _____ 1) 본 적 없다
- _____ 2) 가끔 본다
- _____ 3) 자주 보는 편이다

41.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입거나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44번으로 가시오)

42.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편하다
- _____ 2) 유행이니까
- _____ 3) 남보다 돋보일려고
- _____ 4) 패션잡지 등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 _____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43.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낀 적은 있습니까?

- _____ 1) 아무렇지도 않다
- _____ 2) 일본 패션이라 찜찜했지만 좋은 걸 어쩔 수 없다
- _____ 3)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 _____ 4) 국제적 감각으로 생각한다
- _____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44. 길거리에서 일본 스타일 의류나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_____ 1) 아무렇지도 않다
_____ 2) 일본 패션이라 째름하지만 보기는 좋다
_____ 3)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_____ 4) 국제적 감각으로 생각한다
_____ 5) 한심하다
_____ 6) 기타(적어 주십시오) :

* 다음의 일본의 도서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45. 일본 번역 만화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46. 일본 패션 잡지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47. 일본소설이나 수필 등을 번역한 것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48. 스크린 같은 일본 영화 잡지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49. 일본 도색 잡지(음란 그림 잡지)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50.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51. 보는 만화를 100으로 본다면 한국 만화와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예를 들면 60:40)

한국 만화 : 일본 만화 = (:)

52. 가장 기억에 남는 일본 번역 만화를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53. 일본 번역 만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_____ 2)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_____ 3) 줄거리가 재미있어서
_____ 4) 그림이 섬세해서
_____ 5) 선정적인 그림이 있어서
_____ 6) 안 보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므로
_____ 7) 기타(적어주십시오):

54. 일본 번역 만화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 _____ 1) 안 본다
- _____ 2) 한달에 한 두번
- _____ 3) 일주일에 한 두번
- _____ 4) 매일 본다

55.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느낌이 어떠합니까?

- _____ 1) 감동적이다
- _____ 2)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 _____ 3) 재미있다
- _____ 4) 째름하다
- _____ 5) 음란하다
- _____ 6)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56. 일본 번역 만화를 철저히 단속해서 출판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찬성한다
- _____ 2) 별로 관심없다
- _____ 3) 반대한다(이유는? _____))

57. 우리가 문화적으로 본받을 만한 나라는? (_____))

58. 문화적으로 본받으면 안되는 나라는? (_____))

59.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는? (_____))

60. 가장 싫은 나라는? (_____))

C. 다음 질문에 해당되는 것 한 가지만 √표를 하거나 직접 적어주세요.

1. 귀하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한 일본 위성방송을 본 일이 있습니까?

-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87번으로 가시오)

2. 어디서 보았습니까?

- _____ 1)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다
- _____ 2) 친구집에서
- _____ 3) 전파사 등 매장에서
- _____ 4)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3. 주로 본 방송의 종류는?

_____ 1) NHK교육방송 _____ 2) 상업방송

* 귀하는 일주일(평일과 토, 일요일 합하여)에 텔레비전을 약 몇 시간 정도 보십니까?

4. 일본방송 보지 않음 2시간미만 2-4시간미만 4-6시간미만 6-8시간미만 8시간이상

5. 한국방송 보지 않음 2시간미만 2-4시간미만 4-6시간미만 6-8시간미만 8시간이상

6. 일본 위성방송을 보는 주된 형태는?

_____ 1) 혼자 보는편이다

_____ 2) 가족들이 시청할 때 함께 보는 편이다

* 본 위성방송에 대한 느낌은?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7. 일본 문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8. 재미있다	_____	_____	_____
9. 폭력적이다	_____	_____	_____
10. 선정적이다	_____	_____	_____
11. 반윤리적이다	_____	_____	_____
12.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하다	_____	_____	_____
13. 화면구성이 뛰어나다	_____	_____	_____
14. 국제적 감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15. 유치하다	_____	_____	_____

* 일본 위성방송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16.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림만 본다	_____	_____	_____
17. 동작이나 억양으로 약간의 내용을 이해한다	_____	_____	_____
18. 내용의 흐름을 대부분 이해한다	_____	_____	_____

* 일본 위성방송을 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19. 일본어 학습 위해	_____	_____	_____
20. 호기심때문에	_____	_____	_____
21. 선정적인 장면을 보고 싶어서	_____	_____	_____
22. 스포츠를 보려고	_____	_____	_____
23. 일본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_____	_____	_____
24. 한국 방송이 재미없을 때	_____	_____	_____
25. 한국 방송이 안할 때	_____	_____	_____
26.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볼려고	_____	_____	_____
27. 특별히 흥미있는 프로그램 있어서	_____	_____	_____
28. 영화를 보기 위해서	_____	_____	_____
29. 만화를 보기 위해서	_____	_____	_____
30. 화제거리를 얻을 수 있어서	_____	_____	_____
31. 세계의 뉴스를 빨리 볼 수 있어서	_____	_____	_____
32. 일본 패션 등 유행을 볼려고	_____	_____	_____
33. 일본의 음악 및 팝송을 들으려고	_____	_____	_____
34. 화면상태가 깨끗하고 좋아서	_____	_____	_____

* 일본 위성방송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35. 일본에 대한 동경심	_____	_____	_____
36. 최근 유행하는 춤	_____	_____	_____
37. 최근의 패션	_____	_____	_____
38.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_____	_____	_____
39. 일본의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	_____	_____	_____
40. 좋아하는 외국 배우 접함	_____	_____	_____
41. 일본상품에 대한 정보	_____	_____	_____

42. 일본 위성방송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것을 두 개만 고른다면?

- _____ 1) 쇼, 코미디
- _____ 2) 연속극 및 수사물
- _____ 3) 외화나 영화
- _____ 4) 뉴스 및 토론이나 대담
- _____ 5) 만화영화
- _____ 6) 스포츠중계
- _____ 7) 교육방송
- _____ 8) 퀴즈나 게임프로
- _____ 9) 다큐멘터리

43.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 스타(연예인이나 스포츠맨 등)를 남자, 여자 각각 한 명씩 적어 주십시오.

(남자: _____) (여자: _____)

44. 좋아하는 외국인 스타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45.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 _____ 1) 텔레비전을 통해서
- _____ 2) 영화를 통해서
- _____ 3) 비디오를 통해서
- _____ 4) 잡지를 통해서
- _____ 5) 테이프나 음반 등을 통해서
- _____ 6)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46. 일본어가 쓰여 있는 전자오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47. 한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_____ 1) 안한다
- _____ 2) 한달에 한 두번
- _____ 3) 일주일에 한 두번
- _____ 4) 매일한다

48. 최근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는 전자오락은 무엇인지 한 개만 적어주십시오.

(_____)

49. 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까?

_____ 1) 그림이 섬세하다

_____ 2) 프로그램이 알차다

_____ 3) 폭력적인 것이 많아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_____ 4)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서 보기가 좋다

_____ 5)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다

_____ 6)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50. 일제 학용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51.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_____ 1) 내 학용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_____ 2) 내 학용품의 반쯤이 일제이다

_____ 3) 대부분 국산이고 한 두개가 일제이다

_____ 4) 일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

52. 일제 학用品을 주로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_____ 1) 선물로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_____ 2) 주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했다

_____ 3) 백화점 등에서 구입했다

_____ 4)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 국산과 일제 학用品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좋습니까?

국 산 일 제

53. 튼튼한 점

54. 디자인

55. 독특성

감사합니다.